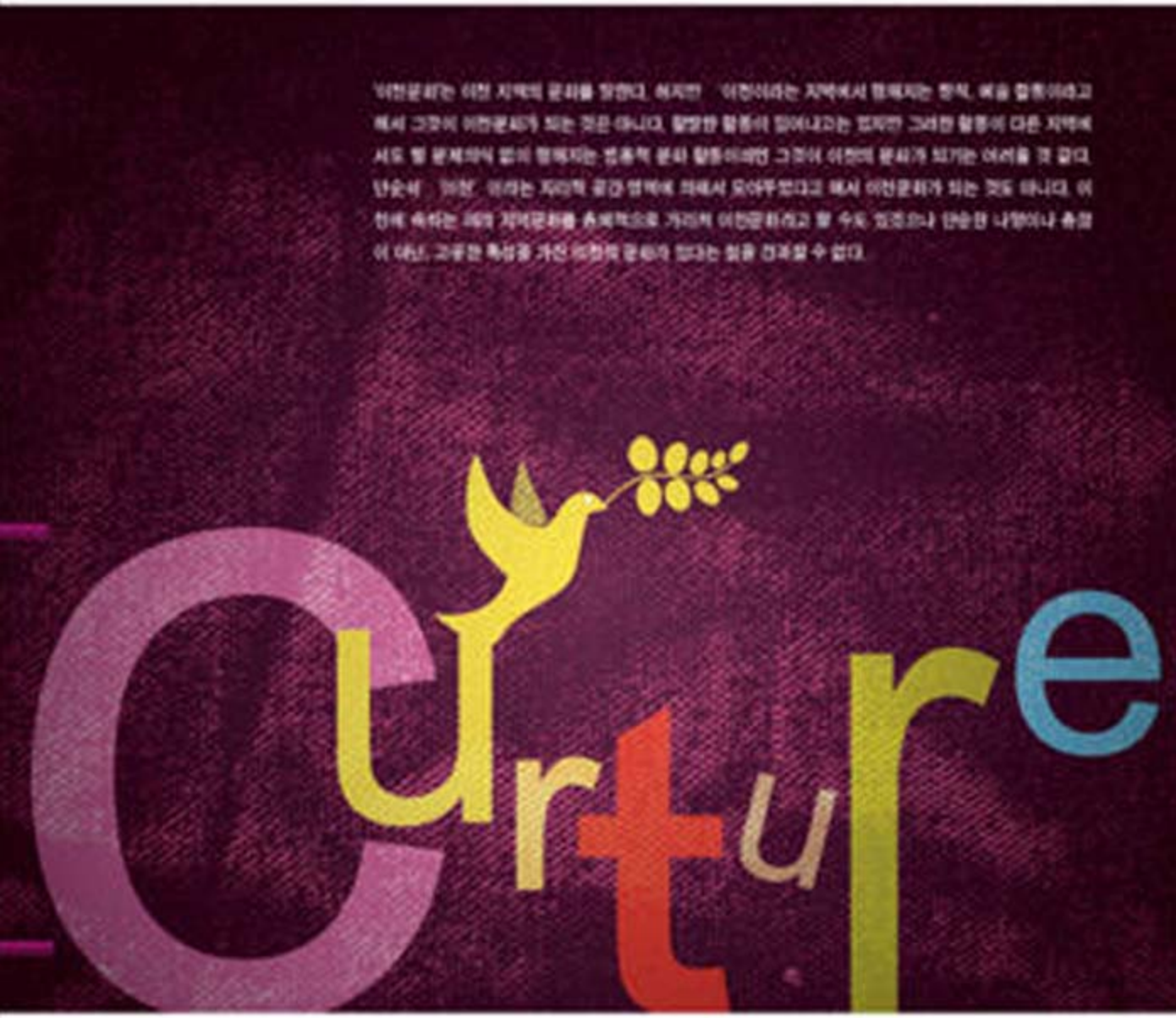
이천문화 50년

이천의 지역문화를 일궈온 50년
문화활동의 기록



이천시 이천문화원



발간사

50년 전 사람들, 우리, 그리고 50년 후의 누군가를 위하여

모처럼 문화원 서고 깊숙한 곳에서 『利川大觀』이라는 책을 꺼내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문, 낡고 오래된 책입니다. 85쪽 분량의 국판본인 이 책의 내용은 사실 그리 충실한 편이 못됩니다. 이천의 명승고적 · 산업 · 교육 · 사회 등을 일곱 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아쉽게도 직접적으로 이천의 민속이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관광지와 문화재를 하나로 묶은 명승고적편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책의 이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저를 한없는 감회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천대관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일도 힘겨운 폐허 속에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내 고장의 문화를 기록하고 싶어도 몇몇 문화재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정리할 만한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손수 이 책의 내용을 채워나갔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괜스레 숙연해집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동일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동질성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우리 이천의 문화를 찾고 재구성하는 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천에 대한 실재적인 경험과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이천문화원은 설립 당시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단체였습니다. 척박한 문화환경에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걸어온 지난 50년의 발자취는 이천문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미국공보원(USIS)의 도움을 받아 농촌계몽운동에 주력하였고, 1966년 10월 이천에서 최초로 열린 시화전을 시작으로 각종 강연회 · 사생대회 · 음악발표회 등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1979년에는 지역문화의 전통 확립이라는 사명감으로 향토문화자료 조사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천대관 이후 30년 만인 1984년『이천군지』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1985년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천향토사연구회'가 발족하였고, 이듬해에는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이천문화예술진흥회'가 구성되어 이천문화원과 공동으로『이천문화보』를 발간하고, 향토여름학교라는 사업을 펼쳐나가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는 도자기축제를 포함한 설봉문화제를 선보이며 이천에 향토축제시대의 막을 열었고, 2001년에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의 이천시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천문화 50년』은 이처럼 문화적 여건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이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이천사람들의 발자취를 　는 책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도 결국 하나의 작은 못, 한 장의 벽돌을 만든 이름 없는 손길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천의 지역문화는 이천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천사람들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이천문화 50년』은 지금까지 이천의 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과 또 새롭게 만들어갈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비록 작은 책에 불과하지만 오십여 년 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이천의 기록을 써내려간 사람들처럼, 오직 이천에 대한 애정 하나로, 집필 작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이천문화원장 조 명 호



축 사

'이천문화 50년' 발간을 축하하며

1963년 이천문화원이 자생적으로 설립 된지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천 문화의 족적과 노정을 정리하고 이천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 조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상까지 제시하는 『이천문화 50년』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이천문화원 설립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문화원은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문화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옴은 물론 참다운 지역문화를 실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원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간 우리 이천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천문화원은 향토 문화의 보고로서 지역문화의 수호자로서 문화융성 시대를 이끌어 왔으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이천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렇듯 지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는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이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문화원 종합 경영부문 평가에서 최고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지방문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등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문화원 가족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세대 간의 소통이 화두로 회자되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다문화 가정은 이제 대도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문화를 새로운 그릇에 담아내며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들을 더욱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천문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 이천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수준을 갖추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의 속성인 창의성과 다양성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학습과 공유에 기반을 둔 정체성과 생활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천문화원이 앞장서서 문화융성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하는『이천문화 50년』이 이천의 문화 발전은 물론 시민 모두가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되는 한편, 우리 시의 귀중한 역사 사료집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신 조명호 이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이천시장 조 병 돈



축 사

이천문화를 일궈온 50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또한 문화를 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꿈도 문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천의 유구한 과거문화를 살펴 온고지신을 이루고 이천의 현대문화를 집대성하여 우리 이천을 세계적인 문화 · 예술 도시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달려온 이천문화원의 50년, 모두가 함께 한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천문화 50년』 발간에 즈음하여 조명호 원장님을 비롯한 이천문화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하여 큰 절을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종족, 민족 또는 경계를 이룬 지역 안에서 그들이 가진 고유의 문화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천이라는 지역, 고려 태조 이래로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온 역사 안에 전국 최고의 도예문화, 명품 이천쌀을 필두로 하는 농경문화, 그 밖에 이천의 명소들과 그 안에 담긴 옛이야기, 그리고 이천만이 가진 다양한 민속문화와 무형문화들은 수천년 이천을 존재하게 한 근간이며, 우리 이천사람들의 마음에 오롯이 선 얼과 혼입니다.



결코 잊지 않아야 하며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천의 뿌리이자 정신인 '이천문화'입니다. 지금의 우리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국제조각심포지엄, 평생학습도시와 같은 영광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이천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아끼고 계승하고자 했던 이천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각자의 노력들을 하나의 물줄기로 이어왔던 이천문화원의 50년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 예술을 사랑하는 이천시민여러분!
이제 『이천문화 50년』 발간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이천의 더 많은 영광들, 더욱 커나갈 이천시민의 자긍심, 진정한 아트(ART) 이천으로의 진화를 부푼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또한 자랑스런 이천문화를 더욱 꽃 피워갈 이천문화원과 여러 문화예술단체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 진실한 격려, 현실적인 지원까지, 세계 속의 빛나는 문화도시 이천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천문화 50년』 발간을 통해 지역 융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변함없는 정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이천시의회 의장 정 종 철



축 사

이천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바라본 이천문화 50년의 역사

'이천문화 50년'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천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50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이천문화원이 이천지역의 문화형성 과정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이천문화 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작업은 참으로 뜻 깊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천문화원은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가운데 반세기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몇 안 되는 문화원으로 전국 문화원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처음 설립되기 시작한 60년대 당시 향토문화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척박한 환경에서 문화원은 지역에서 문화의 씨를 뿌리며 싹을 틔우는 역할을 담당해온 유일한 민간단체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 문화원 중에서도 이천문화원의 활동은 단연 돋보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2014년에는 대한민국문화원상 대상(최우수문화원)을 수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경주해온 노력을 부족하나마 인정받았습니다.

근래에 문화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온 문화원들이 '문화원사'를 발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천문화원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해서 다른 문화원들처럼 백서 성격의



‘이천문화원 50년사’를 발간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천의 지역문화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어떻게 이천의 정체성과 정신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원의 50년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지역의 향토문화가 성장해온 과정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해왔던 문화 행사와 활동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집니다. 이천문화원의 이번 책자 발간을 거울삼아 전국의 문화원들이 단순한 문화원사를 발간하기 보다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과정과 문화 활동사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린다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가 문화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문화,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는 단순히 그 지역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지역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분명히 색깔이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찾아내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문화원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된 해입니다. ‘이천문화 50년’ 은 그런 뜻 깊은 해의 귀중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이천문화가 다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4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오 용 원

목 차

제1부 이천문화의 형성 과정 13

제1장 이천문화의 개념과 범위 14

제2장 근현대 이천문화의 형성과 발전 22

제2부 전통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37

제1장 이천 유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활동 38

제2장 이천의 민속문화와 무형문화재 68

제3장 스토리텔링으로의 설화의 재창조 84

제4장 향토사 연구활동 및 이천시지 편찬 98

제5장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으로 보는 이천의 문화시민운동 116

제6장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문화시민운동 126

제7장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136

제3부 이천 문화축제의 형성 과정 153

제1장 주요 문화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요 154

제2장 이천도자기축제 162

제3장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82

제4장 설봉문화제(雪峰文化祭) 196

제5장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새해해맞이행사 208

제6장 장호원복숭아축제 222



제7장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34
제8장 이천쌀문화축제 252
제9장 설봉산 별빛축제 264
제10장 축제의 종합적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80

제4부 지역문화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전개 301
제1장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 302
제2장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변화 314
제3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332
제4장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방향 모색 342

제5부 이천문화의 나아갈 방향 349
제1장 이천시민의 생활문화적 관점의 제안 350
제2장 이천학을 통한 이천문화의 발전 방향 360

[부 록]
1. 이천문화원 지역문화 관련 발간자료 목록 370
2. 이천문화 50년 세부 목차 376



제1부

이천문화의 형성 과정

제1장

이천문화의 개념과 범위

이 동 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1. '문화' 개념의 확장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유산'
3. '지역문화' 의 등장
4. '이천문화'의 개념 정의
5. '이천문화'의 기술 범위

제1장 이천문화의 개념과 범위

1. '문화' 개념의 확장

'문화'를 뜻하는 영어 '컬쳐'(Culture)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논밭을 경작한다'는 뜻의 '콜레레'(colere)라는 동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콜레레'라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이 '쿨투스'(cultus)인데 여기서 문화를 뜻하는 '쿨투라'(Cultura)가 나왔다. '쿨투라'는 영어 '컬쳐'(culture)의 직접적인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콜레레'는 거주하다, 경작하다, 보호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세에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것과 같이 성장과 발육 과정을 의미했다. 근대에 와서 '문화'는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역사적 산물[1]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로, 더 나아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과 발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는 '문화'의 개념이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외연이 확대되는데, '문화'는 눈에 보이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활동도 모두 '문화'에 포함시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화'의 본래적 의미는 식물을 기르고 논밭을 경작하듯이 인성을 기르고 수련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문화 개념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2]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경제·정치·사회구조 등의 변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인 '문화'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문화정책이나 국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영화, 공연 음반 등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었고 문화재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문화영역의 주된 내용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도 문화는 어디까지나 공보행정을 위주로 국민홍보용 문화사업을 펼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1990년대 문민정부에 와서는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가 문화영역으로 통합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의 자율성, 창조성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

1) 일반적인 정의로는 영국의 인류학자 E.B.Tylor가 내린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이나 습관의 총체'(1871)라는 정의에 따른다.

2)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 ·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 2001)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화'를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의미로만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의의 정의로는 향후 변화되고 확장되는 '문화'의 영역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여가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등 새로운 문화정책의 영역이 대두되었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문화의 심미적·정신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광의의 '문화' 개념을 근거로 '문화'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3]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유산'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문화재'(Cultural Properties)는 원래 유형의 형태가 있는 유물만을 지칭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화재라고 하면 주로 유형문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연극, 무용, 음악, 공예, 민속 등 형태가 없어도 역사적·예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무형의 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유네스코에서는 2003년 유네스코 제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했다. 이렇게 문화재 개념이 무형의 문화재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그 영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4]

그동안 문화재와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온 개념으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 있다. 오늘날 통용되는 '문화유산'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보존'에서 더 나아가 미래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상속'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과거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가 주목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3) 문화기본법 제 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유네스코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문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란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2001)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보면,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에 전통문화인 동시에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온 살아있는 문화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이는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유물과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무형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개념은 이렇게 미래지향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무형적 문화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다.

2009년에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서 '문화유산'의 범위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과 보호구역, 그리고 주변의 경관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문화재의 보존·보호에 있어서도 문화재와 그 보호물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의 경관을 아울러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화재 그 자체의 보존·보호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아우르는 공간과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형성해온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함께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문화재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는 문화적 자산들도 적극적으로 발굴,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과 문화산업 등 현대적 가치 재창조가 중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자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온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동과 근대화 과정에서 남겨진 산업시설과 생산품,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예술과 대중문화 등 전통적으로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문화재로 이해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문화유산의 개념은 우리에게 근현대 시기의 생활상과 현재의 생활문화도 미래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도록 요구한다.

3. '지역문화'의 등장

'지역문화'(Local Culture)[5]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일컫는다.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여러 개의 문화가 존재하고 한 지역 내에서도 그보다 더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문화가 존재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행정구역 단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문화에서 말하는 지역의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토대로 한 개념이다. 이런 토대가 없이 그저 어느 공간영역에서 모아진 문화

5) '지역'과 '지방'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여러 연구와 경향들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지방'이라는 말은 국가나 중앙과의 위계적인 관계에서 주변, 변방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 왔으며, 이에 비해 '지역'은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최근에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다.

를 지역문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핵심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어느 예술인이 공간적으로 어느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창작, 예술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문화가 되지는 않는다. 활발한 예술 활동은 하고 있지만 지역적 자기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거나 공동체적 지향성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지도 않고 과거에 자신이 습득했던 문화나 어느 지역이어도 상관없는 범용적 문화 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지역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이나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지역문화를 규정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문화유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뜻하며,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행하는 유형·무형의 활동과 예술 작품을 뜻한다. 그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행정구역 단위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충분한가? 지역문화는 무엇보다도 한 지역에서 역사적 공동경험을 통해 형성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에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지역과 문화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문화'(Local Culture)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럼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이라는 공간과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 주민,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적 집단이 구성요소가 되어 역사적 공동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단일하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과정적이며 미래지향성을 갖는 역동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역시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적 정체성은 우선 역사성을 근간으로 한다.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온 공동의 역사경험과 그 지역의 문화가 갖는 고유한 특성 위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과 '생활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문화유산은 그 지역에서 발굴된 '과거'의 유물이자 활동의 흔적일 뿐이고 생활문화는 그 지역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활동인가? 그래서 문화유산은 '문화원'이 해야 하는 영역이고 생활문화는 '문화의집'이 해야 하는 영역인가? 그렇다면 생활문화와 문화유산 사이에는 절망적인 단절이 놓여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유산'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시대의 '생활문화'였다. 그리고 지금의 '생활문화'는 또 미래의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생활문화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문화적 활동들이 미래의 전통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성(Locality)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지역문화는 바로 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이요 지역적 삶의 총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역문화의 핵심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방문화원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원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자원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4. '이천문화'의 개념 정의

'이천문화'는 이천 지역의 문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창작, 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천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러한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도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범용적 문화 활동이라면 그것이 이천의 문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순히 '이천'이라는 지리적 공간 영역에 의해서 모아두었다고 해서 이천문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천에 속하는 여러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가리켜 이천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단순한 나열이나 총합이 아닌,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이천의 문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천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성격을 규정해야 할까?

지역문화의 성격을 논의할 때 몇 가지 꼽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첫째, '이천문화'는 무엇보다도 '이천'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다. 지역성에 기반한다고 하는 것은 이천의 역사와 공동체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이천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으로, 이천 주민의 현재와 미래적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얻어진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승하는 것이야 말로 이천주민들에게 이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며 그 경험을 이천문화의 진정한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이천문화'는 다른 지역문화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천문화'는 한국문화, 민족문화, 그리고 경기도문화의 하위개념이면서 이천에 속해 있는 여러 읍·면 지역문화의 상위개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이천문화는 위로는 한국문화, 경기문화와, 내부적으로는 이천에 속해 있는 여러 읍·면지역의 문화와, 그리고 이천과 인접해있는 인근지역의 문화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어온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이천문화'는 역사적 과정과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천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회·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리·환경적으로도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역사적

으로 보면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이 삼국의 각축장이 되어 백제, 고구려, 신라 등으로 강역이 바뀌었고, 고려와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란으로 인한 영향과 행적구역의 변천에 따른 편입과 분리가 있어왔다. 그리고 음죽군의 경우 오랫동안 서로 다른 행정단위로 관할되어온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문화는 여러 상이한 지역문화들이 서로 충돌하고 만나면서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5. '이천문화'의 기술 범위

이천시는 1955년 「이천대관」 발간, 1984년 「이천군지」 발간, 2002년 「이천시지」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하여 이천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천의 사회상과 주민생활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천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도시이미지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현재 이천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치루고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천에서 활동하는 여러 문화주체들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정리하거나 이천의 문화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이천시가 추진해온 여러 문화정책의 시행과정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행사와 사업들,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작업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 분야에 대한 발전 과정과 문화활동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담아내는 일이다. 지역 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문화 활동에 대한 기록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천시와 문화예술단체들이 해왔던 역할을 되짚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활용방안과 시민사회의 문화역량 개발, 이천시와 문화예술단체 간의 협력과 역할분담, 민간문화예술단체와 문화자원의 네트워크 등 앞으로의 문화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 활동만을 기록하기보다는 지방문화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문화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다양하게 추진해왔던 지역문화의 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찾는 작업을 준비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천문화원은 지난 50여 년간 이천문화의 형성과정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찾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활동을 조사·정리하고 기록·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천문화 50년」 조사연구사업이다. 여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첫째, 그 지역의 근·현대 지역문화의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일이다. 지역문화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지역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역사적 배경을 개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이천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형성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천지역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과정이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속문화, 무형문화재의 발굴과정 등에 대한 조사 정리, 지역사 사료의 수집 및 시·군지의 편찬, 문화재 찾기운동 등 문화시민운동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다.

셋째, 이천의 주요 문화축제의 형성과정이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먼저 지역의 주요 축제, 행사의 형성과정에 대한 자료의 조사, 정리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끊임없이 축제를 역동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그 축제가 형성되기까지의 초기형성과정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 행사의 준비와 운영, 프로그램 등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행사에서 만들어진 각종자료와 양식, 홍보물,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기록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그동안 이천에서 수행해온 문화예술분야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의 결합 등 교육콘텐츠의 발전과정도 정리해야 할 과제다.

다섯째, 이천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찾고 이천의 지역정신을 형성해 나가야할 과제,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선해가야 할 과제 등이 검토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2장

근현대 이천문화의 형성과 발전

이 인 수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사무국장

1. 이천문화 50년의 의미
2. 지역 정체성과 지역문화
3. 이천문화의 변천과정
   1) 전통농경문화에서 근대 도시형 문화로
   2) 1980년대의 이천문화
   3) 1990년대의 이천문화
4. 2000년대와 그 이후의 이천문화
   1) 2000년대의 이천문화
   2) 21세기 이천문화의 전망

제2장 근현대 이천문화의 형성과 발전

1. 이천문화 50년의 의미

'문화'라는 말처럼 흔히 쓰이면서도 뜻도 잘 모른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낱말도 드믈 것이다. 그래서 우선 문화의 정의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문화란 "한 민족이나 사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란 한민족(韓民族)이 살아온 삶의 모습 전반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희승 『국어대사전』에는 문화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어린이백과』에도 문화란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방식 중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게 풀이하였다. 이렇게 문화란 복잡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우며,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문화에는 몇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문화는 집단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어 진다. 각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나 버릇은 문화가 아닌 개성이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어떤 행위, 관습, 경향 등을 공유할 때라야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한 사회의 문화는 학습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한 사회에 소속되어 자라면서 그 사회가 공유한 문화를 사회화를 통해 배우기 마련이다. 셋째,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다. 인간의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그 세대에 새로 이루어진 내용이 또 거기에 더해지게 된다. 넷째, 체계성을 들 수 있다. 문화의 요소는 많고 다양한데 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는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외부로부터 한 사회로 유입된 문화는 그 사회와 문화접변(文化接變)을 통해서 변화하며, 그런 과정에서 기능을 상실한 낡은 요소들은 사멸되어 간다. 이렇게 문화는 정지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거나 또는 퇴화의 길을 밟는다.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화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1)]

서양에서 문화(culture)란 말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래 '농사' 또는 '육체와 정신의 돌봄'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2] 문화의 어원이 농경의 의미, 또는 육체와 정신의 보살핌이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부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정성스럽게 가꾸듯 노력없이는 문화의 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역문화란 동일한 지역에 과거부터 전해내려 왔고, 현재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말한다. 지역문화를 논한다고 할 때도 그 대상은 앞에서 예를 든 문화의 사전적 의미 만큼이나 거의 무한정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천문화 50년』에서 다루어야할 범위와 내용부터 먼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위적인 노력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뒤섞여 변화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발전 전략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발전이란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에서 근현대 이천문화의 전개과정을 50년으로 한정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천지역에서 지역문화를 가꾸기 위한 사회적인 행위와 노력이 지금부터 50년 전 쯤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천문화 50년』이 다루게 될 내용은 50년전 처음 시작에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천지역의 문화를 가꾸기 위한 지역민들의 공동체적 행위와 노력, 그 전개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8·15 광복과 정부수립, 그리고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발발 등 숨가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혼란과 참극을 겪는 동안에는 지역문화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낱말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사회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1050년대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지역문화를 꽃피우려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택, 용인을 비롯한 수원, 공주, 김천, 밀양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지방문화원 설립이 그것이었다. 지방문화원들은 처음에는 명칭도 제각각인 사설 민간단체로 출발하여 미국문화원의 전신인 미국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1962년 8월,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3년, 이천 지역에도 민간주도로 이천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지역 정체성과 지역문화[3]

지역문화란 동일한 지역에 과거부터 전래되어 내려왔고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제5권 사회와 문화, 382~384쪽

문화이므로, 정치와 사회변화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영향과 함께,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과 인물, 관습, 언어, 종교 등 인문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천시는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사통팔달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이천향교기」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듯 땅이 넓고 기름져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고장이었다. 한편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잡은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전쟁이나 내란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 전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물들을 통해 이천시 전역에서 수십만년 전 구석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의 여러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이천지역 문화의 원형이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백제 건국 이후 이천지역은 일찍부터 백제문화권에 속하게 되고, 이 일대가 삼국의 패권각축장이 되면서 고구려·백제·신라의 문화양상이 현존 유물들을 통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설봉산성, 효양산성, 설성산성, 등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들이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만이 갖는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서희를 배출한 이천 서씨나 공양왕의 할머니인 이천 신씨 등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한 호족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시기는 또 불교가 크게 융성했던 시기였으므로 이천지역에도 수많은 불교문화의 유산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왕조는 시작부터 유교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양반세력 중심의 지배 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지방 역시 새로운 양반계층이 지도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사림문화가 형성되고, 향교와 서원이 지방 사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부 지방에서는 특히 학문과 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진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은일을 택하거나 유배를 당해 지역과 연고를 맺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와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천지방의 경우는 사림문화의 뚜렷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설봉서원 제향인물인 이관의(李寬義)와 중종대의 김안국(金安國)을 중심으로 한 괴정육현(槐亭六賢)의 활동, 순조대의 남천구로회(南川九老會)의 활동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사림문화와는 별개로 이천은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한 고장이었으므로 농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가 크게 발달했으리라 짐작된다. 농경문화 속에는 오랜 옛날부터 면면히 전통을 이어온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력 정월이면 마을마다 걸립패의 흥겨운 풍물가락이 울려 퍼지고는 했고, 추석날 밤이면 마을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거북놀이 행렬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기도 했다. 산신제나 우물제사 같은 부락제도 시골에서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정경이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의 전통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자, 풍물가락도 거북놀이도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보존대상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1921년 3월 20일자로 당시 『동아일보』가 소개한 이천읍내의 줄다리기는 활력이 넘쳤던

이천의 민속문화와 그후의 급격한 몰락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줄다리기는 석전(石戰)과 더불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다. 이 해 3월 18일(음력 2월 9일) 이천읍내에서 벌어진 줄다리기는 줄의 길이가 2,500척에, 굵기가 직경 두 자나 되었으며,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서로 편을 갈라 줄을 당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장관을 연출했던 것이다. 길이가 800m나 되는 거대한 줄을 만드는데만 수십 명의 인원이 달라붙어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한다. 지금의 관고동 마전터 일대, 설봉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낀 넓은 벌판에서 벌어진 이 줄다리기의 장관을 보기위해 3만 명이나 되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6천 명이 한꺼번에 줄을 당기다 보니 수 십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 엄청난 수효의 조선인들이 모여드는 줄다리기가 일본경찰들의 눈에는 결코 곱게 보이지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일제가 불상사를 미리 막는다는 핑계로 강제로 이를 금지시켰기에, 이천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의 맥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민족수난기에 이천은 수많은 의병과 독립투사들을 배출한 고장이다. 을미의병항쟁이 시작되면서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항쟁의 깃발을 내건 곳도, 넓고개 전투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려 근대 항일의병사상 첫 번째 대승을 거둔 곳도 이 땅이었다. 1907년 여름, 이천의 의병들이 다시 봉기하여 맹렬한 구국항쟁을 전개하게 되자, 일본군이 들어와 수많은 민가들을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하는 등 무참한 보복을 자행했으며, 이천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이끌던 구연영(具然英), 구정서(具禎書) 부자가 순국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전덕기(全德基), 김원조(金遠祚), 이수흥(李壽興), 이선룡(李先龍)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활약했으니,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이천인들의 마음 속에는 살아서 숨쉬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에도 벅차기만 했던 1955년에 『이천대관』[4]이 편찬된 것은 이천지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천대관은 사회편을 비롯한 행정, 교육, 산업, 명승고적 등 모두 일곱의 장으로 이루어진 국판 85쪽 분량의 작은 책이다. 내용도 빈약하고 책모양도 볼품 없었지만 전쟁 직후의 모든 것이 어렵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시군지 성격의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천대관에는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별도로 나와있지 않고 문화재와 관광을 하나로 묶은 명승·고적편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당시의 지역 실정이 몇몇 문화재 항목말고는 소개할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모지에서 출발했던 이천의 지역문화활동이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더니, 빠른 도시화 과정속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

4) 이천대관편찬위원회, 1955, 利川大觀

에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도자기와 쌀, 온천의 고장이며 교통의 요지이고, 하이닉스, OB맥주, 진로같은 큼직한 산업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는 이천시의 얼굴을 이제는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가 없다. 애써 정리하자면 농촌과 도시형 지역이 공존하는 수도권 지역의 도농복합형 중소도시로, 도자기문화를 앞세워서 문화관광도시로의 앞날을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천시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앞으로 어떤 모습의 문화지도를 그려나가야 할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3. 이천문화의 변천과정[5)]

1) 전통농경문화에서 근대 도시형 문화로

지난날 이천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거북놀이가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민요로는 1986년에 이천문화원에서 발굴한 「자채농요」가 있으니,[6)] 예부터 유명한 이천의 자채쌀을 심고 가꿀 때 부르던 일노래이다. 줄다리기, 거북놀이, 자채농요가 모두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이천지방은 인근의 다른 지역들처럼 농경문화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역시 억압과 통제를 받게 되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 교육을 통해 주입된 일본문화와, 일본화된 서양문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됨으로써, 일제강점기 때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그늘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부터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문화가 광복과 더불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력을 떨치기 시작했다. 합리주의, 실용주의를 내세운 서양문화는 무조건 우월하고 세련되었고 선진화된 고급문화이며, 반대로 고유의 전통문화는 저급하고 고리타분하며 미신적인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문화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제3공화국 출범 이후로는 국토개발이다 새마을운동이다 하여 근대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면서, 오랜 세월동안 전래되어온 고유의 농경문화도 빠르게 모습을 감추어 갔다. 1950년대 중반부터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서 활동에 들어갔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도 지역문화란 이름뿐인 빈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10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릇된 문화현상들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고, 1980년대가 되면 지역문화

5)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제5권 사회와 문화편, 407~466쪽 참조
6) 이천문화원, 1986, 利川紫彩農謠

를 활성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과거에는 보기 드믈던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민족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농경문화가 서민들을 중심으로 싹트고 전래되어온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문화였다면 현대의 지역문화는 인위적인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이천지역에서 지역문화라는 말과 함께 문화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천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가면서 부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천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역 최초이며 당시로서는 유일무이한 문화단체로, 1963년에 설립되어 1965년 5월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지방문화원들은 초창기에는 당시 미국공보원(USIS)의 도움을 받아 농촌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이천문화원 역시 미공보원으로부터 영사기와 영화필름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농촌순회 영화상영을 통한 계몽활동에 주력하면서, 「자유의 벗」 같은 홍보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강연회와 주부교실, 사생대회 등의 행사와 함께 1966년 10월에는 이천지역 최초로 시화전을 선보였다. 미국공보원은 자국의 정책과 문화를 상대국 국민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초창기의 지방문화원 활동 또한 미국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열리는 일반 문화행사의 경우도 지역특성이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문화의 어설픈 흉내내기가 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도움이 전혀 없었던 초기의 열악하기만 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역문화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의 문제다. 제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훈련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각종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네가지 필요조건 중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못했던 지방문화원의 활동은 1970년도 후반에 이르기까지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70년대 중반 한 때,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이천문화원은 1977년 설립자인 김관식이 다시 원장에 취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유광렬이 5대 원장으로 바톤을 이으면서 안정을 찾아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게 되었다. 1979년부터는 향토사와 문화재, 민속, 민담 설화 등을 대상으로한 향토문화자료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 분야는 다른 지방들이 대부분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사례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부분이다.

2) 1980년대의 이천문화

지역문화운동은 자체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1974년부터는 '올바른 민족사관의 확립과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를 내건 제3공화국 정부의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이 추진되지만, 지역문화활동이나 지방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정부가 제2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첫 번째 중점과제로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을 내세우면서 점차 상황이 호전되기에 이른다. 이 무렵부터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확대되고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도 이루어 졌다.

이천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조사사업은 1984년 『이천군지』의 편찬으로 일단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천대관이 나온지 30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 때의 이천군지는 당시 이천의 문화적 역량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었고, 역량부족에 따른 반성에서 향토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5년에 「이천향토사연구회」가 발족되었다. 문화원에서는 1982년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1집(향토사, 유적편)을 시작으로 제2집(민속놀이, 민속신앙), 제3집(지명유래), 제4집(전설)을 차례로 발간하고, 『이천의 민속 거북놀이』, 『설봉산성지 학술조사보고』를 비롯한 향토문화 조사보고서 씨리즈도 발간해 나갔다. 한편 1986년에는 청년층 세대들이 주축이 된 「이천문화예술진흥회」가 결성되어 문화원과 손잡고 월간 『이천문화보』 발간과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향토여름학교 같은 사업을 펴나가며, 1987년에는 도자기축제를 포함한 제1회 설봉문화제가 처음 열리면서 향토축제시대의 막을 열었다.

80년대가 되면 불모지에 가까웠던 지역 예술분야의 활동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1998년 한국예총 이천시지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이천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예술관련 행사나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문학활동은 80년대 초에 「낙엽문학동인회」와 고교생들의 모임인 「외인촌」 동인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1987년 「시혁명」 동인회로 출발한 「상황시」 문학동인회가 시화전과 동인지 발간 등의 활동을 보여 주었다. 그밖에도 이천문화원이 주최한 주부백일장, 애향문예백일장과 함께, 황금찬 시인과 이문열 작가 초청 문학강연회를 비롯한 몇 차례의 문학강연회가 열기도 했다.

미술분야는 타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분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매년 문화원이 주최한 학생사생대회가 꾸준히 열리고, 이천청년회의소는 일본의 자매도시와 손잡고 한·일학생미술교류전을 선보였다. 한국화 분야의 「채묵회」가 구성되어 1987년 채묵회서화전을 시작으로 동인활동에 들어갔으며, 서예 쪽에는 「이천묵수회」와 「일신서우회」가 조직되어 동인활동을 시작했다. 1978년에는 강대철 조각작품전이 열려 이천지역 최초로 조형예술작품전을 선보였으며 1988년에도 초대작품전이 열렸다. 그밖에도 1982년 문영준 동양화

전을 시작으로 한국화와 서예, 사진전 등이 드믄 드믄 선을 보였다.

음악분야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예회 성격의 학생음악발표회나 「화요음악감상회」의 동호인 활동이 고작이었다. 1985년 음악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한울림예능동호회」가 발족되면서 매년 정기발표회를 갖게 되고, 같은 해에 이천문화원 주최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목관8중주단 초청연주회와 서울윈드앙상블 초청연주회가 열리면서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전통도예 분야는 1981년 이천의 도예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승도예협회」가 창립되어 롯데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회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서울에서 회원전을 갖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민속예술 분야에서는 대월면 거북놀이가 19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고, 뒤이어 군량리 자채농요가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하였다.

지역언론 및 출판활동은 1971년에 창간된 월간 『이천새소식』이 특정 단체의 회지 성격이기는 하지만 각종 지역소식을 담아 전해주는 지역 언론의 효시가 되며, 1986년 문화원과 이천문예진흥회가 공동으로 펴낸 월간 『이천문화보』를 거쳐, 1989년 8월 최초의 지역신문인 『이천신문』 창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언론지와는 다르지만 1989년부터 문화원이 종합문화지의 성격으로 펴내기 시작한 『설봉문화』도 매년 2회 발간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편 1989년 7월에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갖춘 이천군민회관이 준공되면서 고질적이었던 문화공간 부족에 따른 갈증을 왼만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3) 1990년대의 이천문화

1993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역문화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야 했던 문화정책의 운용과 지원활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좌우될 만큼 재량권이 확대되고, 문화활동 전반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시청 또는 지방의회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1990년대의 이천문화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87년 제1회 설봉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출발했던 이천도자기축제는 그후 8년이 지나도록 주위의 무관심속에 겨우 명맥만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1995년 당시 문화체육부의 시범축제로 열린 제9회 도자기축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의 향토문화축제들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도자기축제를 통해 도예문화와 지역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변화와 함께 지역 예술단체들의 발표무대가 넓어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천의 문화예술활동은 각종 관련단체나 동호인 모임들이 앞다투어 생겨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2년 미술협회 이천시지부가 처음으로 설립되면서 시작된 지역 예술단체들의 조직화는, 그후 문인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가 차

례로 구성되면서 1998년 12월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이천시지부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예총 활동과는 별개로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생겨나서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도자기축제와 연계한 설봉문화제가 매년 10월에 빠짐없이 열려 지역문화축제로 자리잡았고, 1996년에는 이천쌀문화제가 처음 선을 보였으며, 이듬해부터는 장호원복숭아축제도 열려 관광축제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학분야는 문인협회 이천시지부가 1997년에 설립되어 매년 회지『이천문학』발간과, 춘계백일장, 문학강연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9년에는 전국의 문인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봉호텔에서 '자연성 인성 파괴와 문학'을 주제로한 문학세미나를 갖기도 하였다. 1992년에 설립된「설봉문학회」는 동인지『설봉문학』을 제7집까지 발간했으며, 장호원 지역의 문학인들이 모인「청미문학회」도 동인지『청미문학』을 발간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마장면 장암리에 거주지를 마련한 중견작가 이문열(李文烈)이 1998년부터 사설교육기관인「부악문원」을 개설하고 작가 지망생들의 문학수업을 지도하게 된 것도 특기할만 한 일이다.

1991년 군민회관에서 이천미술인회창립전으로 막을 올린 90년대 이천의 미술활동은 이듬해 미술협회 이천시지부의 창립과 강대철, 문영준, 이영환, 김기일, 박호창, 박상수 등 지역출신 미술인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뒤를 잇는다. 1995년 이천문화원이 마련한 '95 향토작가초대전'에는 강대철, 박상수, 박호창, 오세원, 이영환, 이인희가 초대작가로 참여하였다. 도자기축제가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유명세를 타게 되자, 1997년 제11회 이천도자기축제에는 국내의 저명 미술인들과 지역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흙과 불의 정신전'이 축제장에서 열려 도자기와 현대미술이 어울린 참신한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마장면 해월리에서 열린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는 세계 18개국의 조형예술가 23명이 참가했으며, 그후 해마다 빠짐없이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조형예술축제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밖에 한국화 분야의「채묵회」와 사진 분야의「월광사진동우회」「이천사진동우회」「이천사진연구회」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 주었다.

90년대의 음악 분야는 1991년「이천시어머니합창단」창단을 시작으로「이천소년소녀합창단」「이천윈드오케스트라」「이천YMCA청소년교향악단」「이천콘서트콰이어」「셀라여성합창단」「이천시민교향악단」등의 음악단체들이 잇달아 생겨나면서 저마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부산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에 이어 서울윈드앙상블, 움직이는 국악원초청공연,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초청음악회, 경기도립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공연같은 굵직한 연주회들도 열렸다. 문화원 풍물강습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소슬패풍물단」이 조직되고, 이어서「거북아 거북아」와「장호원난장패」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전통풍물과 마당극을 중심으로한 국악활동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1994년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립무용단 순회공연과 주미화 창작무용공연, 1999년 무용협회이천시지부 창립공연 등 불모지였던 무용 분야도 활

동을 시작했다.

1994년 새로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지방문화원의 활동은 ①향토사료 조사연구, ②고유 전통문화 발굴 보존, ③사회교육활동 ④애향운동 전개 ⑤지역축제 개최 ⑦지역문화예술진흥 등의 큰 줄기로 정리되고, 특히 문화원의 사회교육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90년대의 이천문화원은 매년 설봉문화제를 비롯해서 읍면별 민속자료조사, 거북놀이 보존, 설봉문화 발간,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읍면별 민속자료조사사업은 1996년『백사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발간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모두 10개 읍면의 보고서를 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6년에는『이천독립운동사』를 펴내기도 했다. 1998년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1999년에는 제2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999년부터는 이천문화학교를 열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활동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일본 시가현 시가라키정관광협회와 국제우호 친선 협약을 맺음으로써 양 도시간 도자기축제 상호 방문을 비롯한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화재 조사연구 분야는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이천시가 큰 관심을 기울인 분야였다. 이천시는 1998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여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이천시 문화유적보고서』를 공동발간했으며, 1997년 설봉산성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98년부터 6차년도에 걸친 발굴조사를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설성산성 지표조사와 함께 신둔·백사면 지역 지석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펴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향토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2년 2월 이천시립박물관이 준공을 보게 되었다. 1990년에 지역 최초의 사립박물관으로 문을 연 해강도자미술관과 1997년 이천시립도서관의 개관도 빼어놓을 수 없는 90년대 문화계의 소식이다. 1999년 이천문화원이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와 손잡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인 서희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는, 이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희(徐熙)의 사료발굴을 통해 활동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4. 2000년대와 그 이후의 이천문화

1) 2000년대의 이천문화

2000년대의 이천문화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그후 2년마다 열린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이천도자기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개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아트홀 개관,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전국 유일의 도자산업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변화와 발전

을 보여준 시기였다.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이천을 주행사장을 하여 열린 2001 세계도자엑스포는 세계도자문명전, 비엔날레 국제도자공모전, 세계현대도자전 등 대규모 전시행사와 함께, 국제도자학술회의, 국제도자 워크샵 등의 학술행사, 다채로운 이벤트와 공연행사가 어울린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열려 이천행사장에만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주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 이천시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유네스코 창의도시활동 등을 발판으로, 도자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인들의 잔치로 시작된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천농업인축제, 이천햅쌀축제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명맥을 이어오다가, 2007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우수축제가 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우리 농경문화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은 쌀축제만의 자랑이기도 하다. 봄철 이천백사산수유축제와 가을철 장호원 햇사레복숭아축제도 해마다 빠짐없이 열리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이천시평생학습축제가 새롭게 선보여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로 이어졌다.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금당리 당전골단오제 같은 읍면, 또는 마을 단위의 축제도 열리고 있어 전국적인 지역축제의 열풍이 이천시에도 예외없이 불어닥친 느낌이다. 2006년부터 이천시가 영화인들과 손잡고 춘사대상영화제를 설봉공원에서 수차례 열기도 했으나, 이후 지역 여론에 밀려 행사를 중단하였다.

2000년대의 지역 예술활동은 한국예총이천시지부와 각 산하단체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천예총은 2004년부터 설봉산별빛축제를 해마다 열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섭대천종합예술제도 열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문인협회 이천시지부와 장호원 청미문학회가 매년 동인지를 펴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협회와 2006년에 설립된 「이천시조각가협회」의 활동 외에도, 「카오스모스」 「이천일요화가회」 「장호원미술인회」 「정묵회」 등의 동인회 활동이 두드러진다. 2004년에 문을 연 「샘표스페이스」에서도 현대미술을 중심으로한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선보였다. 음악 · 무용 분야에서는 「이천레이디스앙상블」 「이천시여성합창단」 「이천YMCA청소년교향악단」 「이천시소년소녀합창단」 「이천시장애인합창단」 「이천시청소년무용단」 등이 정기발표회나 연주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자기 분야에서는 「한국전승도예협회」 「한국전통가마연구회」 「이천도예가협회」 등의 활동을 손꼽는다. 이천시는 2001년부터 도자기 명장제도를 실시하여 전통도예 장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천문화원은 설봉산 새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설봉문화제 등을 매년 개최하고, 각종 공연행사를 통해 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2003년부터 '회원 1000명 확보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말문화탐방과 해외역사문화탐방, 청소년을 위한 주말버스학교, 거북놀이학

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이름난 문화유적이나 박물관 등을 찾아가는 주말 문화탐방은 가장 인기있는 프로스램에 하나로 자리잡았다. 문화원의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300여 명의 이천문화학교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2008년부터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어르신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이 해 전국실버축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 문화원이 주관해온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2006년 제9회 때까지 세계 43개의 나라에서 연인원 140명의 조형예술가들이 참가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이 대회를 끝으로 주관단체가 이천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 때까지 만들어진 150여 점의 조형작품들은 설봉공원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 장호원 레포츠공원 등에 영구 전시되고 있다. 매년 2회씩 빠짐없이 발간해온 『설봉문화』와 함께 2001년에는 전 7권으로 이루어진 『이천시지』를 편찬하였고, 『이천의 민간신앙』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이천의 문화재』 등 이천학술총서 여덟 권을 차례로 펴냈다. 이천문화원은 2004년 서희선생 기념상 건립과 기념사업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2008년부터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천오층석탑 반환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속예술 분야는 2001년에 재결성된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거북놀이 심포지엄, 거북놀이 축제같은 꾸준한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거북놀이는 보존회 창단 10년만인 2010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거북놀이보존회는 사라져 가는 율면 정승달구지소리 발굴 보존에도 앞장서온 결과, 2005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받고 경기도를 대표하여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소리극 '서희'를 창작 공연한 연희극단 「배꼽」 풍물지기 「치레」 「거북아 거북아」 「소슬패풍물단」 등은 민속예술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천의 동호인 모임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이천시서희선양사업추진위원회」와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의 활동은 시민의식의 성숙을 보여주는 이천의 대표적인 시민문화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7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개관에 이어 2009년 이천아트홀이 개관되면서, 이천시는 문화시설의 절대 빈곤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천아트홀은 개관 기념으로 금난새가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지킬 박사와 하이드」 경기도립국악단 초청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이후로도 뮤지컬 「맘마미아」를 비롯, 이천지역에서는 좀처럼 구경할 수 없었던 대형 공연물들을 줄지어 선보였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도 「월전, 그 격조의 울림전」을 시작으로 중국 영남화파의 대가 「관산월전」 「옛글씨의 아름다움전」 장우성 박노수 「사제동행전 」 「20세기 한국수묵산수화전」 등 비중있는 전시회들을 해마다 열고 있다.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현대도예가의 작품들을 연중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으며, 도자공원인 이천세라피아와 이천시립박물관도 새롭게 단장되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이렇

게 외형적으로 볼 때 이천은 근래에 와서, 문화예술 각 분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문예중흥의 르네쌍스 시대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21세기 이천문화의 전망

불모지에서 출발한 이천문화가 5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몰라보게 달라지고 풍성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지방자치화가 실현된 이후 이천시는 아트홀 개관을 비롯한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자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쌀문화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활성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도자산업특구 지정, 평생학습도시 활동과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한 평생교육 활동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천의 문화예술 각 분야를 살펴보면 아직 미흡하거나 소외된 부분들이 적지 않으며, 재고해야 할 점, 개선돼야 할 점들도 상당수가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이란 구호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기만 하는 실정이다. 문화소외계층까지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만 한 것이다.

이천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도자문화 관련분야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도자기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천시의 도자예술촌 조성과 도자기 브랜드 육성사업, 경기도의 한국도자재단 발족, 세라피아와 토야지움 조성, 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편 등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눈에 띠는 성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선도해 왔던 이천도자기축제 역시 장기 경기침체의 영향 속에 수 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관광축제들은 같은 기간에 열리는 타 지역의 축제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자칫 안이하게 대처 하다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십상인 것이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축제의 차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나 문화행사들이 지나치게 설봉공원 한 곳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천아트홀 개관으로 이천의 공연예술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상당부분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만은 분명하다. 봄철 산수유축제를 시작으로 연중 각종 축제행사들이 줄을 이으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들의 발표무대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그러나 발표무대가 넓어졌다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생력과 수준향상까지 덩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지역 단체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하다. 공연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는 열악한 재정과 전문성 부족,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부족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지역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천시가 직접 시립합창단이나 관

현악단, 국악단 같은 예술단체들을 육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천시는 지금 과거의 농경사회 중심에서 도시형 사회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성격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지역문화 발전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지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특히 문화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개발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방문화진흥법'이나 지방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은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가 제대로 꽃피고 어울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며, 이 일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인,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손잡고 풀어나가야 할 공동과제인 것이다.

여 백



제2부

전통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여 백

제1장

이천 유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활동

최 의 광 / 용인초당고등학교 교사

1. 이천의 역사와 문화재
2. 1960~80년대 : 문화유산 보존, 선양을 위한 저변 환경의 형성
3. 1990년대~2001 : 지자제의 실시와 문화역량 강화 및 이천시지 편찬
   1) 지자제의 실시와 문화재 보존활동의 강화, 안흥지 보존운동
   2)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유적 조사와 발굴
   3) 시지 편찬과 문화유산 연구 성과의 집대성
4. 2001 시지편찬 이후~현재까지 : 지속적인 문화운동의 전개
   1) 시지 편찬 이후의 문화재 활동
   2) 조사 발굴 활동의 지속적 전개
5. 과제와 전망

제1장 이천 유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활동

1. 이천의 역사와 문화재

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재는 "역사상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인간의 문화적 생산적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남겨진 사물(事物) 또는 사상(事象)으로서, 인간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포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한다"[1] 라고 정의한다. "특히 한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적 소산 중에서 예술상, 학술상,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특별히 보존할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이 그 대상이 된다"[2]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선사시대부터이다. 청동기시대 유물·유적은 물론 훨씬 이전 시기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심심치 않게 수거되는 것으로 보아 이 땅에 사람이 생존한 것은 참으로 오래 전부터였음이 확인된다.[3] 이후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되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그것은 고착화 되고 정형화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오랜 기간 사람들이 거주하고 교류하면서 이루어 놓은 다양한 문화유산, 즉 문화재가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천의 문화재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고 문헌에 수록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이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들 중 일부는 그 가치 정도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는 문헌 속에 수록되고 있었다. 즉, 조선 중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천의 설봉산성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음은 그 하나의 예가 되겠다.[4] 또 1899년 편찬된 『利川郡邑誌』에도 '설봉산성'이 뚜렷이 명기되어 있는 등 이천의 문화재가 수록되어 있다.[5]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의 문화유산 파악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16

---

1) 이인수·홍순석, 2006,『이천의 문화재』, 이천문화원, 207쪽 참조.
2) 이인수·홍순석, 2006,『이천의 문화재』, 이천문화원, 207쪽 참조.
3) 이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확인되었고(이천시·서울대박물관, 1998,『利川市의 文化遺蹟』, 125~129쪽),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은 이천 지역에 다량 존재하고 있다.
4) 이천시·단국대학교박물관 편, 1998,『이천설봉산성지표조사보고서』25쪽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전근대 조선시대에도 각지의 문화재들이 지정된 서적에 수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5쪽 본문에 따르면 이『신증동국여지승람』이 아마 지방문화재를 소개한 제일 오래된 자료로 보여진다. 이의 발간이 이루어진 것이 1531년(중종 26년)이며, 이후 발간된『대동여지지』(1656, 효종 7년),『여지도서』(1760, 영조 36).『이천부읍지』(1842, 헌종 8년),『대동지지』(1862, 철종 13),『이천부읍지』(1871, 고종 8년),『이천군읍지』(1899, 광무 3년),『이천부읍지』(일제강점기) 등에도 이천의 문화재가 수록되어 있다 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朝鮮總督府 편 1916,『朝鮮古蹟調査報告-利川郡-』에는 이천의 설봉산성에 관한 기록이 있다.
5) 이천시·단국대학교박물관 편, 1998,『이천설봉산성지표조사보고서』, 34, 37쪽

년 조선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의 고적을 조사하였다. 이때 이천군에 소재한 이른바 이천오층석탑이 서울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기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6] 조선총독부는 1942년에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를 편찬했는데 이천 지역의 문화재가 일부 수록되었다. 이때 수록된 문화재는 성지(城址)가 4군데, 사지(寺址)가 3군데, 사지와 탑 2군데, 사지와 불상 2군데로 전체 14군데가 보고되어 있다 한다.[7]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까지 이천지역의 문화재 조사는 어찌 보면 우리 지역주민의 의지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위한 중앙권력의 노력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도야 어쨌든 이천 지역 문화재들이 고문헌에 수록됨으로써 후대에 문화재를 보다 자세히 확인 조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는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1차 과제에 몰두하다 보니, 지방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였다고 하겠다.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에서도 지역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보다 후대에 이르러서야 지역문화와 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사실 하나는 1955년에 『이천대관』을 편찬한 것이다. 모두 7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 '명승고적' 편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해,[8] 이 때 미흡하나마 유형 문화유산들이 조사되고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편찬된 것으로 이천지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9] 그렇지만 이 시기 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대체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천문화원이 결성된 것이 1963년이니 그 때까지 지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이천의 많은 문화유산들 중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발견, 확인되고 보존되어 왔으며, 이를 수호, 홍보, 선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나 학술목적의 발굴 등이 아니라 이천 지역사회 스스로 행하여온 노력에 주목하여 살펴보자는 것이다.

2. 1960~80년대 : 문화유산 보존, 선양을 위한 저변 환경의 형성

해방 후 20여 년이 지난 1963년에 비로소 이천문화원이 창설되긴 했으나 창설 당시 문화

---

6)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된다(4절 "이천5층탑 반환운동" 참조).
7) 조선총독부 편, 1942,『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8~20쪽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 『이천시지』권2, 262쪽에서 재인용)
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384쪽.
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384쪽.

관련 사업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문화원과 이천시가 주관한 문화행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이천의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1971년 2월에 이천 영월암에 보관중인 국보급 불상이 도난 되었다는 사실이 기사화 되었던 듯하고[10] 1975년 5월 20일 부부 합장 미이라가 발견되었다고 하며,[11] 이듬해인 1976년에는 백사면 신대리에 있는 '이천백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다.[12]

이천의 문화재사업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가 비로소 문화재 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물론 외부의 노력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재 확인 작업은 있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된 문화재관리국이 1977년에 『문화유적총람』을 편찬했는데, 이천 지역의 문화유적으로 성지 4군데, 서원지 1군데, 석탑 2군데, 향교 1군데, 사지 6군데, 사찰 1군데, 불상 및 마애불 5군데, 생가 1군데, 선사유적 1군데 등 27군데의 문화유적이 조사되어 수록되었다고 한다.[13]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문화재 관련 사업은 이후로도 적잖이 추진되었다.[14]

침체를 면치 못하던 문화재사업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경 부터이며, 이때부터 이천문화원은 향토사, 문화재, 민속, 설화 등을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자료 조사사업을 시작하였다 한다.[15] 이는 대부분의 타 지역들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른 출발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16] 향토문화자료조사는 1984년 『이천군지』의 편찬으로 일단 결실을 맺는데. 이 『이천군지』편찬은 당시의 문화사업으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완성한 이천군지 편찬은[17] 우리 손으로 자료조사를 통하여 이룩한 최초의 문화지라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 당시『이천군지』에는 이천의 다양한 유 무형 문화재들이 망라되어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후대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10)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7, 309쪽.
1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310쪽.
12) 이 '이천백송'이 이천에서 최초로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13) 문화재 관리국 편, 1977, 『문화유적총람』(상), 266~268쪽 및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 『이천시지』 권7, 262쪽에서 재인용.
14)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2, 268쪽 참조)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내용	연도
전국유적 분포조사	문화재관리국	성지, 서원지 등 27곳	1977
경기 백제유적지 조사	한양대박물관	백제시대와 관련된 산성조사	1986
중부고속도 주변 문화유적 지표조사	충북대박물관	마장면목리, 모가 신갈리 유적확인	1986
중부고속도 주변 문화유적 발굴조사	충북대박물관	조선시대 부속건물 터 등 발굴	1986
여주·이천지역 지표조사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시대 지석묘 유적 3군데 등	1989

15)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386쪽.
16)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11,『이천시지』권5, 386쪽. "다른 지방들이 대부분 1980년대에 출발했으나 이천은 그보다 빠른 시기에 출발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17)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386쪽 및 권7, 316쪽.

또 같은 해 9월에는 이천문화원 주관으로 『이천군 향토문화자료총람』제3집 '지명 유래편'을 발간하였다.[18]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천문화예술진흥회가 이 무렵(정확히는 1986년 4월 14일)에 결성되었다는 것이다.[19] 지역문화에 관심있는 젊은이들 20여 명이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갖고 지역문화신문,문화지의 발간·향토문화 예술행사의 추진·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전승사업·청소년 향토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첫 사업으로 『이천문화보』를 문화원과 공동으로 창간하여 발행한 외에도 향토여름학교 운영과 음악회 개최 같은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신문을 탄생시키는데 산파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20]

이천시향토사연구회의 활동이 또한 주목된다. 이 단체는 1985년 4월16일 김동옥 회장과 한승남·이인수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는데, 향토사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정립하고,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었다 한다.[21] 사업으로는 회지 및 연구보고서 발간, 향토사 강연회 개최, 문화재 발굴 및 보호사업 등이며,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주제별 연구발표,사적지 공동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22] 1986년에는 이천군과 이천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설봉산성지학술조사보고』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학술조사는 당시 문화원 수준으로서는 당연히 주목받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23]

언론지인 『이천새소식』이 발간되면서 여기에 당시 이천의 문화와 향토사가 소개되기도 하였고, 1986년에는 이천문화원과 이천문화진흥회가 공동으로 『이천문화보』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9년에 최초의 이천 지역신문인 『이천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이천신문에는 이천의 문화유적이 소개되기도 하였다.[24] 이후 1989년부터 문화원이 종합문화지 성격으로 펴내기 시작한 『설봉문화』도 매년 2회씩 발간 되고 있는데 지면을 통해 문화재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25]

이천군청과 문화원의 역할도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81년에는 '이천중리 삼층석탑'과 '어석리 석불입상'이 각각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되었다. 1984년에는 율면 산성리 소재 '어재연장군 생가'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1985년 2월12일에는 중요민속자료인 '어재연 장군 생가'와 이천읍 창전리 아리산에 소재한 '이천향교'에 대한 보수 방침

---

1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7, 316쪽.
1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7, 318쪽.
20)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454~455쪽.
2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권5, 455~456쪽.
22) 또 본 단체에서는 정기적인 회보를 펴내기도 하였는데 이른바 '향맥'이 1992년부터 발간되어 1995년까지 제6호를 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천지역의 문화재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2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이천시지』권2, 263쪽.
24) 1990년대 초 강덕영에 의해서 본 신문에 매주 1편씩 문화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25) 『설봉문화』는 지금까지 매년 2회 발간되고 있다.

이 결정되었고 공사비도 5,300여 만원이 책정되었다.[26] 1985년도에는 '소고리 마애여래좌상'과 '설성산성지' '이천향교' '자석리 석불입상' 등 4개의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듬해인 1986년에는 '이평리 석불입상'이 역시 문화재로 지정된데 이어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좌대'등 12개의 문화유산이 향토유적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와 문화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표1〉 이천시 문화재 지정 현황

구분	지정	명 칭	지정일	구분	지정	명 칭	지정일
보물	제822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84.12.2 90.6.20	향토유적	제5호	관고리 5층석탑	86.4.14
보물	제982호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입상	89.4.10	향토유적	제6호	관고리 입상석불	86.4.14
보물	제1573호	청자양각연판문접시	08.8.28	향토유적	제7호	갈산리 석불입상	86.4.14
중요민속자료	제127호	어재연장군생가	84.1.10	향토유적	제8호	소고리 마애삼존불상	85.4.14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00.9.16	향토유적	제9호	동산리 마애여래입상	86.4.14
천연기념물	제253호	이천 백송(白松)	76.6.23	향토유적	제10호	선읍리 석불입상	86.4.14
천연기념물	제381호	반룡송(蟠龍松)	96.12.30	향토유적	제11호	대포리 석조여래입상	86.4.14
유형문화재	제106호	이천중리 삼층석탑	81.4.17 81.7.15	향토유적	제12호	영원사 석조약사여래좌상	86.4.14
유형문화재	제107호	이천어석리 석불입상	81.4.17 81.7.15	향토유적	제13호	도립리 육괴정	86.4.14
유형문화재	제119호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84.9.12 85.9.16	향토유적	제14호	영월암	86.4.14
지방기념물	제76호	설성산성지	84.9.12 85.9.16	향토유적	제15호	애련정	97.8.1
민속자료	제12호	김좌근고택	03.4.21	향토유적	제16호	충성공 권균묘역	98.2.13
지방기념물	제207호	영안부원군 김조순묘역	05.10.17 06.1.23	향토유적	제17호	서신일 묘역	07.9.20
문화재자료	제22호	이천향교	83.9.19 85.9.16	향토유적	제18호	설봉서원	07.9.20
문화재자료	제41호	자석리 석불입상	83.9.19 85.9.16	향토유적	제19호	설봉서원 절목	07.9.20
문화재자료	제70호	이평리 석불입상	86.5.7 86.12.29	향토유적	제20호	김해묘역	12.3.20
향토유적	제3호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좌대	86.4.14	향토유적	제21호	이점 신도비	12.3.20
향토유적	제4호	지석리 지석묘	86.4.14				

26)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7, 317쪽.

이처럼 1980년대에는 언론지의 발간, 문화단체의 발족, 문화재의 지정 등 문화재 보존 개발과 홍보를 위한 저변 환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원의 활동도 보다 적극성을 띄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1990년대~2001 : 지자제의 실시와 문화역량 강화 및 이천시지 편찬

1) 지자제의 실시와 문화재 보존활동의 강화, 안흥지 보존운동

1993년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지역문화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니 이제 지자체와 지역 문화원이 자기 지역 문화정책의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 문화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유산 개발 및 보존에 진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천군 당국도 문화정책 계발과 지원업무 등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27] 이 시기 문화원과 이천군은 문화유적 조사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학술단체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문화재 조사와 발굴에도 적극적이었다.[28]

한편 이 시기에는 1984년에 편찬된『이천군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동시에, 당시에 편찬되고 있는 다른 시군들의 문화지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지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먼저 소개해야 될 것은 이천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문화재를 수호한 사례이다. 다름 아닌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지와 애련정(愛蓮亭)[29]의 수난과 그의 수호과정에 관련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안흥지와 애련정은 이천의 중심지에 존재하며, 이천의 문화유산 중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애련정은 조선 성종 때 건립된 누각으로 안흥지 복판에서 그 자태를 자랑하며 이천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30] 그런데 이 애련정이 서있는 안흥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 문화재들의 수호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흥지는 1993년에 추진된 이천경찰서 이전계획으로 폐치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이천경찰서장은 이천경찰서의 새 부지로 안흥지를 선택해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안흥지와 애련정은 이천 시민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던 문화재이기에 이들의 훼손은 결코 수용될 수

---

27)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5, 388쪽.
2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261쪽.
29) 애련정은 이미 조선조 15, 6세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천시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편, 2003,『경기누정문화』, 128~130쪽 참조.)
30) 김동욱 신배섭 이인수, 2010,『安興池와 愛蓮亭』, 이원회,

없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천 지역에서 경찰서가 갖고 있는 위상이 적지 않을 뿐더러 당국의 결정에 대응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많은 인사들이 경찰서 안흥지 이전계획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반대 주장을 드러내놓고 하기를 꺼렸다 한다. 이에 앞장선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었고, 내 고장의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직 간접적인 반대운동과 이전불가론이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 김동옥(당시 양정여중고 이사장), 진두현(노인회장), 한승남 (군청 문화관광계장) 등 향토사연구회의 멤버들이 있었다.

김동옥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이전불가론을 주장하고 당시 경찰서장에게도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진두현 노인회장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이전 불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이천경찰서와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대운동을 적극 실천하였다.[31] 이 외에도 이천문화원과 많은 주민들이 안흥지 보호 입장에 나서면서 결국 이천경찰서 안흥지로의 이전계획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지역 원로와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귀중한 문화재를 수호한 것이다. 이는 이천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수호의지가 강화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흥지와 애련정이 이러한 수난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32]

이 시기 문화재 조사 및 보존활동으로 주목되는 것은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이천문화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천시의 각 읍·면별 문화유적과 민속 분포 조사이다. 이는 이천문화원이 주관하여 이룩한 괄목할 만한 문화사업이었다. 1996년 백사면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에는 율면 지역과 설성면 지역을, 1998년도에는 부발읍 지역을, 1999년에는 장호원읍 지역을 차례로 조사하였고, 그 성과는 매회 보고서 형식으로 엮어져 보급되었다. 이는 시지편찬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천지역 각 읍면을 빠짐없이 조사한 것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때로는 새로운 문화유적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33] 보고서 각 권의 '3절 문화유적' 편에서는 해당 읍면 지역 문화재를 거의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천시 모가면 편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31) 김동옥·신배섭·이인수, 2010,『安興池와 愛蓮亭』, 이원회, 81~120쪽 참조.

32) 이 부분은 향토사학자 한승남의 증언(1차 증언, 2014. 12. 9 오후 4시경, 2차 증언, 2014. 02. 23. 오후 6시경)과 전 문화원 사무국장 이인수의 증언(2014. 02. 24) 등에 의하여 정리하였다.

33) 1998년 강남대인문과학연구소가 마장면 문화유적 조사 중 '이치리 절터'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 한 예이다. (이천문화원·고구려연구회 편, 1998,『이천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보고서』, 5쪽)

〈표2〉 모가면 문화유적 민속조사 보고서 수록 문화유적 현황

모가면 문화유적 현황		
1. 모가면 어농리출토 토제장군	20. 산내리 안동권씨 묘역	25-6. 지황 묘소
2. 모가면 어농리 출토 고배	20-1. 권계 묘소	25-7. 윤유오 묘소
3. 소고리 고분	20-2. 권미 묘소	25-8. 윤운혜 묘소
4. 진가리토성지	20-3. 권형 묘소	25-9. 윤점혜 묘소
5. 마국산 백자요지	20-4. 권준 묘소	25-10. 정광수 묘소
6. 폐사지 부도	20-5. 권진 묘소	26. 이희석 묘역
7. 마국산 사지	21. 양평리 어모장군 묘소	26-1.이희석 묘소
8. 소고리 사지	22. 송곡리 강화최씨 묘역	26-2.이희석 기행비
9. 송곡리 사지	22-1. 최자윤 묘소	27. 김부영 공적비
10.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22-2. 최호 묘소	28. 송곡리 공적비군
11. 소고리 마애삼존석불	22-3. 최언순 묘소	29. 박종선 송덕비
12. 두미리 미륵당 석불	23. 최수 묘소	30. 모가면 소재 보호수
13. 용광사	24. 충간공 이헌구묘소	30-1. 원두1리 향나무
14. 용현사	25. 어농리 성지	30-2. 소고리 은행나무
15. 용학사	25-1. 윤유일 묘소	30-3. 산내리 소나무
16. 대덕사	25-2. 순교자 윤유일 기념상	30-4. 송곡리 은행나무
17. 봉덕사	25-3. 순교자 윤유일 기념비	30-5. 신갈리 느티나무
18. 충성공 사묘	25-4. 주문모 신부 기념상	30-6. 서경1리 향나무
19. 충성공 권균 묘역	25-5. 최인길 묘소	

모가면 지역 민속조사보고서에 문화재를 이렇듯 상세히 찾아서 소개하였다. 일부는 이미 출간된 기존의 조사성과에서 발췌되었겠으나 새롭게 조사된 것도 적지 않다. 그 가치가 크든 적든 빠뜨림 없이 전부 찾아서 소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이천 각 지역별로 전부 작성되었다. 이는 타 지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큰 성과이고 이후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재 등에 대한 개인 연구가들의 활동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기 강덕영은 이천의 문화재들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1993년에는『이섭대천』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비록 문화재 사진자료집 수준에 멈춘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당시 이천의 주요 문화재를 거의 다 조사해서 수록한 것으로, 이천의 문화재를 단권에 집약한 최초의 자료집이 아닐까 한다. 당시 국사교육원장인 양영환을 비롯하여 향토사학자 한승남, 문화원 이인수 국장 등의 감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단순히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천의 문화 일반론도 함께 수록하였다. 그래서 이천의 문화재의 실상을 급히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작지만 이천지역 문화의 총체를 간략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강덕영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문화재들을 지역신문을 통해 매 주 한 편씩 소개하기도 하였다.

2)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유적 조사와 발굴

이 시기에 이천군과 문화원은 전문 학술집단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전반기부터 무르익고 있는 이천시지 편찬의 필요성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시지 편찬 전에 학술단체에 의한 주요 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된다.[34]

이천시의 요청에 의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발굴이 이어졌는데 이때의 발굴 성과는 대부분 『이천시지』에 집약되어 수록되었다. 『이천시지』가 2001년도 말인 11월 20일에 출간되었기에 그 전까지의 발굴 성과들을 담아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천시지 편찬 전에 이루어진 발굴성과들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먼저 효양산성, 설성산성, 설봉산성[35] 등 산성들의 발굴성과를 정리하고, 이어 고인돌 등 선사유적, 그리고 마장면 이치리 절터 발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산성 발굴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성벽의 축조방식 문제, 성의 초축 연대를 비롯한 사용 시기, 사용자(사용국가) 문제, 출토유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산성의 성격 등이 주목되었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성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양산성 발굴 조사

먼저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에 축조된 효양산성 발굴 성과에 주목하고자 한다.[36] 보고서에 의거하여 성의 형태나 성벽의 축조방식 문제 등, 필요한 부분은 직접 제시한다.

> "효양산성은 해발 138m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된 테뫼식 산성과 함께, 여기에서 서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해발 172m의 봉우리를 연결하고, 다시 남쪽으로 회절하여 남쪽으로 형성된 완만한 계곡을 감싸며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 결합된 혼합식 산성이다. -〈중략〉- 효양산성의 성벽은 토축, 또는 토석 혼축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평면으로 보아 'S' 자형을 이루고 있다. 서벽은 토루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중략〉- 동벽은 북벽의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서 회절하여 시작된다. 이곳은 정상부에서 산촌리 방향으로 능선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가고 있다. 성벽은 이 능선 바깥쪽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외벽 높이는 약 3m 내외이며 성벽의 상면에는 약 5m 넓이의 회곽도가 남아 있다. 이곳은 성 내외부가 모두 경사가 완만하여 성토나 판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성벽은 남벽으로 이어지는데 남벽과 동벽의 회절부

34) 이 부분은 서울대박물관이 조사한 『이천시의 문화유적』 조사자료집 서문 '조사경위'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이천시·서울대학교박물관 편, 1998, 『이천시의 문화유적』, 5쪽).

35) 설봉산성 발굴은 모두 6차례 실시된 것으로 이천시지 편찬 이후에도 3차례(4~6차) 추가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은 절을 바꾸어 설명하고자 한다.

36) 이하의 내용은 『이천시지』권2 효양산성 편(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 340~344쪽)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는 철탑공사로 훼손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남벽은 대부분 정수장 건설로 잘려 나갔다."[37]

라고 산성의 형태 및 보존 상태에 대해서 확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성내 시설물로 문지가 2개소 발견되었고 산성 내부 곳곳에서 대체로 백제 토기편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양산성에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모두 출토되고 있다고 하나 선사시대와 관련된 유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유물인 백제 토기를 토성의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8]

한편 효양산성은 그동안 신라의 남천정지가 있었던 곳으로 주목되었었다 하며 그 이유로는 설봉산성이 남쪽을 향해 축조한 고구려성이고 효양산성은 이에 대응하는 신라의 산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발굴조사 결과, 신라 토기편을 찾을 수 없었고 모두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어서 남천정지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벽의 축조도 치밀한 것이 아니라 급조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신라의 대군단이 주둔했을 것으로 보이는 남천정지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

그런데 효양산성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내성 일대이며, 이곳은 지표상에 백제 토기가 산포되어 있다고 한다. 비록 해발고도가 188m에 불과하나 백제시대에 이미 이곳에 생활유구가 존재했다고 보여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성의 초축 연대에 대해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백제시대의 주거지가 효양산성 내에 있었다면 주변이 토성으로 둘러싸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효양산성이 복하천을 북쪽의 자연해자로 삼아서 축조되었고 복하천을 도강하는 위치이며, 성벽도 북쪽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라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에 복하천을 도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따라서 효양산성이 복하천을 도강하는 교통로와 관련되어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40]

효양산성의 발굴성과는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그 축조시기를 추정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설성산성 시굴 및 발굴 조사

설성산성은 장호원읍 선읍리 산 115-1번지(경기도 기념물 제76호)일대에 축조된 산성이

37)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340~342쪽.
3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효양산성' 편, 342~344쪽
39) 이천시·호암미술관, 1995, 『이천효양산 발굴조사보고서』, 70~71쪽(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효양산성' 편, 344쪽에서 재인용)
40) 이인순·홍순석 편, 2006, 『이천의 문화재』, 51~55쪽.

다. 이미 몇 차례의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의 조사는 광역지표조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성산성을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는 아니었다. 따라서 설성산성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종합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의 요청으로 1999. 10.14~2000. 4.22에 걸쳐서 산성전체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41]

우선 성벽의 축조양식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석재로 축성한 석성이라는 점과 그 축성 방식은 협축법의 형식으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대체로 삼국시대의 성벽인 내탁법이나 편축식으로 축조되고 있고, 계곡 등 취약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협축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특이한 양상이라고 한다.[42] 전체적으로 보아 남벽과 서벽이 가장 정교하게 축조되었다는 것도 주목되는데 남벽이나 서벽의 방어력을 강화해야 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수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성벽의 하단부와 상단부의 축조방법에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43]

이어 1차 발굴조사가 2001년 8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1차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의 형태, 건물지 등을 소개한다.

> "설성산성은 해발 290.4m의 설성산 정상부와 그 북쪽에 위치한 해발 266.5m의 봉우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계곡을 포함하여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1,095m이고 남북길이가 345m, 동서길이가 320m인 정연하지 않은 형태의 타원형이다. 전체 고도는 서벽에 비해 동벽이 현저히 낮은 모습이다.[44] -〈중략〉-동벽과 서벽에서 2개의 문지가 확인되었고-〈중략〉- 추정 건물지는 모두 12개소가 조사되었다-.〈중략〉- 이 밖에도 설성산성 내부에는 장대지 1개소, 치성, 우물지 등이 있다. 추정 남장대지는 설성산성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산성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사방이 조망되는 위치이다-〈중략〉- 우물지의 위치는 지장보살상 뒤쪽의 평탄지로 현재 절에서 약수로 사용하고 있는 샘과 인접해 있다..."[45]

라고 하여 설성산성이 갖고 있는 자연 지형적 위치와 성격, 건물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출토되는 유물이 백제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편에 이르기까지 전시대를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 볼 때 이 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선전기에 이미 폐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

41) 이 부분은 발굴보고서 '종합고찰' 부분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이다(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0,『이천설성산성 지표·시굴조사 보고서』, 212~221쪽)
42) 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0,『이천설성산성 지표·시굴조사보고서』, 212쪽.
43) 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0,『이천설성산성 지표·시굴조사보고서』, 212~213쪽.
44) 이인수·홍순석 편, 2006, 『이천의 문화재』, 38쪽.
45) 이인수·홍순석 편, 2006, 『이천의 문화재』, 38~41쪽.

는데 그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라와 고려시대 유물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 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된 시기는 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은 주목된다.[46]

한편 이 성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 "설성산성은 신라가 축조한 산성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도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건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계통의 유물도 상당수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박물관의 조사에서 백제계통의 토기가 수습되었던 바, 산성의 축조시기도 올려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인근의 설봉산성이 백제에 의해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효양산성에서도 백제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주변유적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백제가 충청북도 방면으로 진출하는 통로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설성산성도 백제의 거점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47]

설성산성의 가치는 본문에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재삼 설명하지 않겠으나, 그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 왔던 측면보다 더 다양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된 산성이었음을 알게 한다.

(3) 설봉산성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설봉산성은 행적구역상 이천시 사음동에 있으며 사적 제423호로 지정되었다. 단국대학교 박물관과 매장문화재연구소가 1997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0년까지 1,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 결과를 보면 주성인 설봉산성은 설봉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해발 325m의 봉우리 7부 능선을 중심으로 축조된 퇴뫼식 산성으로, 전체 고도는 남서가 높고 북동이 낮은 형상을 보이고 있다. 부성이 2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설봉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으며, 또 하나의 부성은 다른 부성에서 마장면 장암리 쪽으로 나있는 등산로를 따라서 약 100여 미터 아래에 있다.[48] 설봉산성의 성벽은 발굴조사 결과 전체가 석성으로 축조되었음이 밝혀졌고, 축조방식은 내탁법과 협축법을 모두 사용했으며 지형상 취약한 부분은 협축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고 한다.[49]

성내에서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에는 남장대지, 8각 제단 등이 주목된다. 먼저 남장대지는 칼바위 남동쪽의 평탄지로 알려져 있으며 적심석의 하부 판축층에서 '함통

46) 이인수·홍순석 편, 2006, 『이천의 문화재』, 41~43쪽.
47) 이인수·홍순석 편, 2006, 『이천의 문화재』, 43쪽.
4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설봉산성' 편, 320~321쪽.
4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설봉산성' 편, 321쪽.

(咸通)' 명(銘)이 음각된 벼루가 수습된 점으로 미루어 통일신라 후반기에 건립된 건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남장대지에서 남쪽으로는 저수조가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4벽 모두 석축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8각 제단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단이라기 보다는 제단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50]

토광이 50기 정도 확인되었는데 이 토광에서는 주로 백제 토기와 철제 유물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다고 한다. 특히 2차 발굴조사에서는 1지구의 토광에서 백제토기가 다량 수습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벽의 계곡에서 문지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출입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51]

2차 발굴조사에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고 하며, 그 중 성벽 출토 유물들은 안정된 층위를 가지고 있어서 설봉산성의 축조문제와 사용시기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출토 유물들 중 백제토기들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유사하므로 산성의 초축국이 어느 나라인지 등 사용 시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발굴 관계자들은 대체로 초축국을 백제로 추정하고 있음은 주목된다.[52] 특히 2차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 중 다량의 백제 토기들은 주목되는데, 설성산성의 초축국을 백제로 볼 수 있게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53]

발굴자들은 설봉산성의 성벽 축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 "성벽은 최소 3차에 걸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차 성벽은 초축시의 것으로 추정되고, 2차 성벽은 1차 성벽이 붕괴된 이후에 다시 축조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축조방식이 치졸하여 삼국시대 성벽 축조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조시기를 신라 하대 이후까지 늦추어 잡아볼 수도 있겠으나, 고려시대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말여초 정도로 보여진다. 한편 석성의 외부에는 토축 및 토석 혼축의 성벽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토축 성벽의 내부에 정연하게 축조된 석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석성이 일부 붕괴된 이후 그 위에 토석 혼축이나 토축의 성벽을 새로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봉산성의 성벽은 최소한 3차에 걸친 축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54]

이 밖에 칼바위 주변에서 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제사(祭祀)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유는 주변에서 제사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중의 하나로 인접한 경기도 광주 이성산성에서 확인된 제사유적

50)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설봉산성' 편, 321~322쪽.
5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설봉산성' 편, 323~326쪽.
52) 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229쪽.
53) 이인수·홍순석 편, 2006, 『이천의 문화재』, 36쪽.
5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설봉산성' 편, 326~327쪽.

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 "삼국시대에 제사는 중요한 정치행위의 하나였다. 그러나 모든 산성에서 제사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산성의 격이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천지역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남천정과 남천주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5]

라고 하여 설봉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전문 학술단체에 의한 산성 발굴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고대 유물들의 발굴 수거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성의 초축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었고, 이후 성의 사용국가, 또는 사용 종료시점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은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4) 이천시 문화유적조사[56]

1998년에는 이천시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주도한 이천시 문화유적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 이천의 전반적인 유적들을 모두 망라하여 조사한 것으로 이천의 문화유적 조사 및 보존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97년 12월 10일 이천시와의 조사 계약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익년인 199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57] 이 조사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천지역에 구석기 시대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58] 고인돌의 다량 존재로 청동기인들이 거주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지만, 구석기의 유물을 발견해 낸 것은 우리 고장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또 이 지역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살피는데 하나의 시기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또 신석기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갈산동과 진리동에서 돌 그물추 2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은 대체적으로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인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2점의 돌그물추 만으로도 신석기시대 이천에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59] 그밖에 신둔면 소정리와 지석리에서 새로운 고인돌을 찾아낸 것이라든지, 장호원읍

---

55)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설봉산성' 편, 327쪽.
56) 이 부분은 주로『이천시의 문화유적』(서울대학교박물관·이천시 편, 1998)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57) 서울대학교박물관·이천시,『이천시의 문화유적』, 5쪽.
58) 서울대학교박물관·이천시,『이천시의 문화유적』, 29~31쪽.
59) 서울대학교박물관·이천시,『이천시의 문화유적』, 128쪽.

오남리 청미천변에서 무문토기와 붉은 간토기 2점을 발견해 낸 것이라든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다량 찾아낸 점,[60] 그리고 백제 유적의 집중 분포지임이 확인된 점 등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장면 덕평 고분군에서 확인된 백제토기들은 이천지역에서는 그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61]

⑸ 이천시 고인돌 발굴조사

또한 주목되는 것이 고인돌 발굴이다. 이천시는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여 이천지역 고인돌을 탐사하게 하였다. 1999년 11월22일부터 2000년 3월24일까지 실시되었고, 지표조사는 2000년 11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는 이천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겠다는 이천시와 문화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여의 시간을 들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하리 고인돌과 현방리 고인돌이 집중 조명되었다. 그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62]

첫째 이천지역의 고인돌 형식은 크게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 2가지가 존재하며, 탁자식 고인돌은 신둔면 수하리 고인돌이 이천지역에서는 유일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석식이라고 밝히고 있다.[63] 이와 같은 형식에 따른 분포 관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한 유적에 2가지 형식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히 조사되고 있지만, 이천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천지역 고인돌의 축조 연대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설정하여 놓은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유는 고인돌 축조연대는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출토유물인 돌도끼나 턱자귀, 민무늬토기 등이 청동기시대에 사용되던 유물들이므로 이를 통해 시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64]

셋째 현방리 고인돌의 예에서 보이듯이 무덤방의 안팎에서는 민무늬 토기, 돌도끼, 갈판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고인돌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제의의식이나 고인돌을 만들 때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공동체 속에서 일을 마친 다음에 베풀었던 향응의 자취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방리 고인돌 중에는, 후대에 청자단지와 백자대접 등이 무덤방 바로 옆에 껴묻기 되어 있었던 사례도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큰 돌 숭배의 한

60) 서울대학교박물관·이천시, 『이천시의 문화유적』, 129쪽.
61) 서울대학교박물관·이천시, 『이천시의 문화유적』, 130~131쪽.
62) 이 부분은 본 조사보고서 58~70쪽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이천시·세종대학교박물관, 2000,『이천지역고인돌연구』, 58~70쪽)
63) 세종대학교 박물관·이천시, 2000, 『이천지역 고인돌 연구』, 70~71쪽. 그런데, 실제로는 마장면 해월리 고인돌, 신둔 도암리 2호고인돌 등에서도 굄돌로 볼 수 있는 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수하리 고인돌만 탁자식 고인돌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64) 세종대학교 박물관·이천시, 2000, 『이천지역 고인돌 연구』, 70쪽.

대상으로 여기면서 위(爲)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좁은 곳에 8기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 곳에 묻힌 사람들끼리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가족무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65]

그밖에 신둔면 수하리와 백사면 현방리 고이돌의 관련성 문제인데 주지하듯이 수하리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넓은 지역에 단 1기만이 축조해 놓은 반면에, 현방리 고인돌들은 좁은 지역에 개석식 8기가 군을 이루고 있다. 두 지역에 나타난 고인돌의 형식이 시간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다른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하였다.[66]

(6) 이치리 절터 발굴조사

1998년에는 이치리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천문화원의 요청으로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가 주관하여 실시(조사기간 ; 1998.7.14~1998.8.3)하였다.[67] 보고서에 따르면, 이치리 절터는 마장면 이치1리 55번지, 55-1번지로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나지막한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절터는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조사단이 마장면 일대의 문화유적 민속조사 과정 중에 처음으로 발견하여 알려졌다고 하며, 그간 탑골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었을 뿐,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68]

이 절터 발굴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이천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마장면 이치1리의 이 탑골 마을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찰유적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절터는 그 동안 문헌기록에도 전혀 없었고 그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조사는 이천의 문화유적 자료를 새로이 추가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 〈중략〉 조사과정에서 이곳에는 사찰유적 외에 또 다른 유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위적으로 파괴교란된 지점에 지층이 살아남아 있던 곳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5개의 층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2층과 제4층이 문화층으로 확인되었다.〈중략〉 그런데 2층과 제4층 사이에는 제3층인 황갈색 사질층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문화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제2층과 제4층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는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문화층이 존재하며, 제4층인 흑갈색 점토층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였지는 알 수가 없었

65) 세종대학교 박물관·이천시, 2000, 『이천지역 고인돌 연구』, 67쪽.
66) 세종대학교 박물관·이천시, 2000, 『이천지역 고인돌 연구』, 70쪽.
67) 이하의 내용은 이천문화원·고구려연구회 편, 1998,『이천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68) 이천문화원·고구려연구회 편, 1998,『이천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보고서』, 17~19쪽.

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고려시대에 와서 이 곳에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이 사찰은 조선시대 초기에 폐허화 되어 그 이후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다."[69] 라고 하여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성과이며 이 지역이 차후 더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1990년대 후반에 이천시와 문화원의 요청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지표조사와 발굴 등이 적지 아니 전개되었고 그 성과 또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천시지』 편찬 이전의 이천지역 문화재 발굴 성과들은 대부분 『이천시지』에 수록 정리되어 있다.

3) 시지 편찬과 문화유산 연구 성과의 집대성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천 문화의 집대성을 위한 시지 편찬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84년에 미흡하게나마 군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는 이천시로서는 이제 보다 격상된, 그리고 내용도 풍부하며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를 갖춘 시지를 편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3년 전국적인 지자제 실시는 각 시군마다 이를 위한 논의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천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같다. 여기에 1996년 이천군이 시로 승격되면서부터는 편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속에 1997년 1월에 드디어 '이천시사편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편찬업무가 이천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70] 1997년 5월에는 편찬위의 하위기구로 「이천시지실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선행 업무로 『이천상의 10년사』 및 『이천시읍지』를 우선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11월~2000년 12월까지 3년간의 일정으로 이천시지 편찬업무가 본격 가동되었다.[71] 본 장에서 『이천시지』를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취급되던 이천의 문화재가 망라되어 하나의 체제하에 상세히 수록되었다는 점에 있다. 시지 전7권 중 제2권 (인물과 문화유산) 제2편 '문화유산편'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

한편 본 시지의 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사전 노력도 있었다. 이천시 문화유적 중 선사시대에 관한 기초조사는 취약한 채로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천시는 서울대박물관에 이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대박물관 측의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72] 당시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이면서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인수는 서울대박물관팀에 선사유적 중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

---

69) 이천문화원·고구려연구회 편, 1998,『이천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보고서』, 185~186쪽.
70) 이하 시지 편찬과정은 『이천시지』권7의 「이천시지편찬사」를 참조하였음(1998, 『이천시지』권7, 353~362쪽)
71) 그러나 『이천시지』는 애초의 계획보다 1년여 늦게 출간되었다. 『이천시지』에는 그 출간 날자를 2001년 10월 8일 로 정하고 있다.
72) 이 부분은 앞절〈3절-2)〉에서도 일부 설명되었다.

과 이듬해인 1998년에 발간된 지표조사보고서인 『이천시의 문화유적』에는 많은 부분이 선사시대의 문화유적들로 채워져서 시지 발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73]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는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 편찬한 '읍·면별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도 시지의 문화재편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74]

『이천시지』 편찬 방침을 정한 편찬사업개요에 보면 제2권 '인물과 문화유산편'에서 "문화재편은 성격에 따라 분류 서술하여 문화재의 특징과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종전의 다른 시지들이 갖는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75] 보다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함유되어 있다.

『이천시지』의 문화유산 편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서술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이천 시지 문화유산 관련 수록현황

권	장	절
제2권 : 인물과 문화유산 제2편 문화유산	제5장 문화재 조사 및 지정현황	1. 문화재 조사현황 2. 이천의 문화재
	제6장 선사유적과 유물	1.구석기 유적 2.신석기 유적 3.청동기 유적 4.선사유적과 유물의 성격
	제7장 매장문화재	1.고분 2.요지 3.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4.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유물
	제8장 관방 유적	1.관방유적
	제9장 교통 및 농업 유적	1.역원 2.농업유적
	제10장 불교유적과 유물	1.사찰 2.사지 3.석탑 4 불상
	제11장 유교유적과 유물	1.향교 2.서원 3.사우 4.정려
	제12장 묘역	1.신둔, 백사, 부발읍 지역 2.장호원, 설성, 율면지역 3.마장, 호법, 모가면 지역 4.기타 지역
	제13장 기념비와 기념물	1. 기념비 2. 기념물
	제14장 누정과 고택	1.누정 2. 고택
	제16장 천연기념물과 보호수	1.천연기념물 2. 보호수

7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7, 353쪽.
74) 이 부분은 앞절〈3절-1)〉에서도 일부 설명되었다.
75)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7, 356쪽 참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천의 문화재가 어떻게 조사되어 왔는지, 이른바 조사 내력(來歷)부터(5장 1절) 2001년 당시 확인된 지정문화재 현황(5장 2절)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었다. 특히 5장 1절의 문화재 조사현황에서는 이천시 문화유적 관련 자료들을 시대 순으로 전부 소개하고, 또 외부 혹은 내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사, 혹은 발굴 사례를 시기 순으로 제시하여 그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부각된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본론에서의 각 문화재에 대한 소개는 이천의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모두 조사, 정리하여 수록하였는데, 제6장에서 선사시대 유적 유물이, 제7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제8장에서 13장까지는 분야별로 문화재, 혹은 문화유적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매 문화유산마다 소재지, 관리자, 규모, 건립연대 등을 제시하고 문화재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부기하였다. 본 시지에는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문화재나 문화유적들이 거의 망라되어 정리서술된 것으로, 이는 이천의 문화재 연구집약서로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76] 『이천시지』에서 다루어진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이천시지는 이천의 문화재를 집약하고 정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확인된 각각의 문화재와 유물 유적들을 한 체제로 정리한 것이다.

4. 2001 시지편찬 이후~현재까지 : 지속적인 문화운동의 전개

1) 시지 편찬 이후의 문화재 활동

앞부분에서도 밝혔듯이 이천의 문화재 확인 및 보존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과정은 『이천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지 편찬 이전의 연구 성과들은 『이천시지』에 전부 집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천시지』가 편찬된 이후로 약 12년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이천시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보완점들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지편찬』 이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화유적 및 확인, 보존 발굴, 또는 홍보 선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천시지 편찬은 각계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왔다. 그 동안 각 시군의 시지들은 대개 단권, 또는 2~3권으로 엮어졌는데 『이천시지』는 7권이라고 하는 분책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소화해 내고자 함으로써 새로운 시지 모델로 주목되기도 하였다.[77] 우리들 스스

---

76) 이천의 유형문화재는 거의 집약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문화재는 물론 전체 문화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는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7) 선영란은 「새로운 역사학 새로 쓰는 지방지, 이천시지」(2002,『지방사와 지방문화』)에서, 본 시지를 새로 쓰여진 지방지로 평가하고, 이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이천시지』를 주목하였다

로도 그동안 우리 문화를 소홀히 대해왔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천문화원은 『이천시지』에 실려 있는 '이천의 문화재' 부분을 다시 단권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인수, 홍순석의 노력으로 2006년에 편찬된 『이천의 문화재』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이천의 유형문화재만을 정리 소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천시지』에서 옮긴 것이지만, 독자가 읽기 좋게 제작된 점이 특징이었다. 각 문화재의 중요 부분은 흑백사진을 첨가하여 설명하였고, 각 중요한 부분마다 별도의 설명을 곁들여서 읽는 이의 편리를 도모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그 동안 밝혀진 각 문화재의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의 유형문화재를 한눈에 쉽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천의 문화재만을 단행본으로 정리한 것은 본서가 최초일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문화재를 조사하고 가꾸자는 움직임과 함께, 이를 위한 단체가 결성되기도 하였는데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가 그것이다. 이 모임에는 주로 관내 교육자 출신 약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그리고 총무 1인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활동 목적을 "이천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노년층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매월 월례모임을 갖고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및 선양 활동' '문화재 현장 점검' 등의 문제를 협의하며, 문화재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천시 당국에 전달한다고 한다. 이 단체는 2005년 9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향토 문화유산 답사 및 문화재 보호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78]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활동은 지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권장할만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천의 문화유산을 알리자는 취지로 각 동별 움직임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천시 증포동사무소는 2006년부터 이천 지역 학생들에게 관내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소집하여 1일 코스로 이천의 고인돌 유적지 탐사와 어재연 장군생가 탐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당시 담당자 류봉열) 지역의 향토사에 밝은 교사를 해설사로 위촉하여 안내 및 해설을 맡김으로써 답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창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창전동 내의 문화유산을 학생들에게 홍보 교육하여 애향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소집하여 창전동 내의 문화유산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천중, 설봉중, 양정중, 이천초교,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원생

(298쪽 참조)

78) 지금까지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활동은 안병길 현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여 정리한 것임. 인터뷰는 2014. 1. 10 오후 2시경에 이천문화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의 주관은 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에 의해서 추진되었음.

등 창전동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의 학생들이다. 탐사 대상은 이 지역에 있는 향교, 이천오층석탑(현재 일본 동경 소재) 유지, 관아터, 핑구재, 행궁터(오늘날 미도아파트) 이천역 등이고 이 지역출신 인물 이수흥 관련 유적도 탐사대상에 포함된다.

관내의 학생들을 소집하되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점수 부여, 기념품 제공, 식사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답사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소감문을 제출하게 하여 우수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있다. 본 활동은 2008년도 시작 이래 연 3~4차례씩 지금까지 창전동 주민자치원회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정 부분 교육적인 효과와 함께 애초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창전동에 소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잃어버린 문화재 이천오층석탑의 모형을 제작하여 지역 문화재를 홍보하고, 창전동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표지석을 세우는 등 지역 내 문화재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도에는 이천향교, 관아터, 행궁터, 이천역터 등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하였다.[79] 주민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화재 보호 및 홍보활동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향후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시기 간과할 수 없는 문화운동 중 하나는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른 바 이천오층석탑[80] 반환운동은 크게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조선물산공진회를 통해 강제로 일본으로 물건너 가게 된 이 탑은 지금 동경 오쿠라 호텔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었다. 2003년 이천문화원의 자료 발굴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 석탑의 존재는, 그 후 우리고장의 뜻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환운동을 야기하였다. 이 이천오층탑 반환운동이야 말로 우리의 자존심 찾기요, 일제의 무분별한 식민지 착취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며,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수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천시민의 관심 속에 다각도로 마련된 전략을 통한 반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가 있다. 이 환수위원회는 이천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재 반환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각급 학교에서의 이천의 문화재 교육 홍보활동도 간과할 수 없다. 최의광은 1990년도 이천지역에 부임한 이래 2010년도까지 이천고등학교나 효양중학교, 송정중학교 등 관내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정규교육활동 시간과[81]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꾸준히 지역문화를 교육하였다. 특히 향토조사반, 이천문화연구회반을 결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천의 문화재에 관한 문헌조사, 인터넷조사, 현지답사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

79) 이 부분은 창전동 주민자치센타 황규문 위원 인터뷰(2014.1.11. 오전 10시경)와『데일리이천타임즈』, 2013년 9월 22일자 기사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80) 탑의 명칭은 처음 '이천향교방오층석탑'으로 불리었으나 후에 '이천오층석탑'으로 변경되었다.
81) 이는 주로 교육과정 내에 설정된 계발활동 시간이 활용되었다.

출하게 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재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조사 발굴 활동의 지속적 전개

한편 이천시지 편찬(2001.10.08) 이후에도 전문 집단에 의한 문화재 발굴은 지속되었다. 즉, 설성산성 발굴이 지속되고 설봉산성 발굴도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설봉서원지 발굴, 김좌근 고택 발굴, 후안리 탑지 발굴 등이 이천시와 문화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은 것이었다. 먼저 이시기 발굴 전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설봉산성의 발굴성과는 3차 발굴까지 앞절에서 설명하였고, 설성산성의 발굴성과는 2차 발굴까지 이미 설명되었다. 『이천시지』 편찬 이전의 발굴 성과들이 시지에 집약 기술되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천시에서 전문기관에 발굴을 의뢰한 배경 중에는 장차 있을 이천시지 편찬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미 발굴계획이 설정된 것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천시지 편찬 이후에 이루어진 발굴 성과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즉, 설봉산성 추가 발굴(4~6차 발굴), 설성산성 추가 발굴(3차 발굴)과 또 김좌근 고택 발굴, 후안리 탑지 발굴, 설봉서원 예정지 발굴 등에 대해서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설봉산성 추가 발굴 성과를 보면.[82] 4~6차의 발굴은 추정 수구지와 주변 성벽에 대한 발굴이 주가 되었고 칼바위 주변 평탄지 시굴조사도 이루어졌다. 본래 4차, 5차의 발굴에서는 추정 수구지와 주변 성벽에 대한 발굴이 주가 되었으나 이의 발굴이 완성 되지 않은 까닭에 6차에서 발굴이 이어졌고, 더하여 칼바위 주변 평탄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성과는 6차 발굴조사 약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83]

〈표4〉 이천시 주관 문화재 조사 및 발굴현황

조사발굴 대상	조사 유형 및 차수	차수별 조사기간	조사발굴 주관기관
효양산 유적 (효양산성)	지표조사 및 일부 발굴	1995년 발굴 조사	이천시 호암미술관
이천시 전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997.12.10~1998. 4.	이천시 서울대학박물관

82) 이 부분은 6차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5, 『이천 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31~34쪽)

83) 이하 내용은 6차 발굴조사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특히 설봉산성 4,5차 보고서를 찾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4,5차 발굴성과도 이 6차발굴보고서의 내용 중 간접 언급된 부분들을 근거로 작성하였다(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이천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완료약보고서』, 31~35쪽 참조)

조사발굴 대상	조사 유형 및 차수	차수별 조사기간	조사발굴 주관기관
설봉산성	지표조사 및 6차례 발굴	지표조사 :199712.15~1998.2.13 1차발굴 :1998.4.2~6.8 2차발굴 : 1999.3~7 3차발굴: 2000. 4.23-2000.6.25 4차발굴: 2003년 5차발굴: 2004년 6차발굴: 2005. 4.4~6.11	이천시 단국대 매장문화재 연구소
이치리 절터	지표조사	1998.7.14~1998.8.3	이천문화원 고구려연구회
설성산성	지표조사 및 3차례 발굴	지표조사;1999. 10.14~2000.4.22 1차발굴:2001.8.14~2001.10.18 2차발굴;2002.6.1~9.6 3차발굴:2003.11(완료?)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 연구소
이천의고인돌	지표조사 및 일부 발굴	1999.11. 22~2000. 11. 20일	이천시 세종대박물관
이천 후안리 석탑지	시굴조사	2004.3.~2004.4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설봉서원 건립 예정부지	시굴조사	2005.4.1~2005.6.11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김좌근 고택 행랑채	발굴조사	2011.6.22~2011.8.26	이천시 한울문화재연구원

"4차 조사 때에는 추정 수구지의 뻘층과 여기에 세로로 박혀있는 통나무가 출토되었고 좌·우 능선부의 성벽의 조사도 이루어졌다. 5차 조사는 뻘층 상면의 토사를 걷어냄으로써 전체적인 규모와 피트조사를 통해 뻘층의 성격이 성벽의 내부 다짐층임을 밝혀냈다."[84] 라고 4차 조사와 5차 조사의 성과를 간단히 밝히고 있다.

또 6차 조사에서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4,5차 조사를 가리킴-필자주)에서 여건상 조사할 수 없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뻘층과 축기목의 조성 목적에 주목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뻘층과 축기목의 조성목적은 바로 성벽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뻘은 특성상 습기를 유지하면서 상면의 물을 흡수하지 않고 위에서 흘려보낸다. 따라서 토축부를 뻘로 성벽 높이까지 다짐을 하여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를 성벽으로 넘기거나, 혹은 성벽 상부에 어떠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를 밖으로 흘려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그런데 단지 뻘 다짐만 하였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뻘이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쓸여 성벽이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축기목이었을 것이다."[85] 라고 뻘층의 조성목적과 축기목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84)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이천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완료약보고서』, 31~35쪽 참조.
85)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이천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완료약보고서』, 31~32쪽 참조.

그리고 뻘층이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조사기간 중에 확인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부엽층과 뻘층 중간에서 출토된 배수로라고 한다.[86] 이상은 설봉산성 4~6차의 추가 발굴 성과를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 설성산성 조사 발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난 1차 발굴조사에 이어 2차, 3차 발굴조사가 이어졌는데 그 성과들을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87]
> 첫째, 설성산성의 3차 발굴조사에서도 2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막연한 가능성으로 여겨져 왔던 백제의 축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설성산성은 신라가 초축한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초축하고, 후대에 신라가 진출하면서 수축하여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88] 둘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백제에서 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설성산성의 변화상이 대략이나마 파악되었으며, 셋째, 설성산성에는 여러 종류의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넷째 지표조사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백제 한성도읍기의 대표적인 산성의 하나로 볼 정도로 비중이 큰 산성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유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간의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부기하고 있음은 주목된다.[89]

이천 후안리 석탑지가 발굴 조사되었다.[90] 보고서에 따르면, 호법면 후안리 476-1번지 일원에는 사명(寺名)이 알려지지 않은 절터가 남아 있었다 한다. 그러던 중 2002년 3월 21일 파종하기 위하여 밭을 갈다가 탑재가 일부 노출되자 이천시청 문화공보실에 신고하면서 이 사지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시청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접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가 이천시와 함께 본 사지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91] 발굴 성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탑지는 발굴 결과 고려시대에 초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창 이후 그리 오래 존속되지 못하고 폐사되었다가 조선시대 들어와 다시 중건된 것으로 보고 있다.[92] 탑지가 확인되었던 바, 고려시대에 석탑이 건립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원위치에 다시 세워졌거나 이건된 것이며, 이 석탑은 5층탑으로 판명되었다 한다.[93] 또한 고려자기 및 고려시대 토기의 출토 비율 역시 조선시대 자기편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 사찰의 존속기간은 조선시대

---

86)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이천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완료 약보고서』, 31~32쪽 참조.
87) 설성산성에 대한 2,3차 조사발굴 성과는 『이천설성산성 3차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단국대 매장문화연구소·이천시, 2003)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88) 단국대 매장문화연구소·이천시, 2003,『이천설성산성 3차 발굴조사완료 약보고서』, 116쪽.
89) 단국대 매장문화연구소·이천시, 2003,『이천설성산성 3차 발굴조사완료 약보고서』,116쪽.
90) 이하 후안리탑 발굴과 관련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발췌하여 옮긴 것임을 밝힌다(이천시·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4, 『이천후안리석탑지 시굴조사보고서』, 31~33쪽).
91) 이천시·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4, 『이천후안리석탑지 시굴조사보고서』, 11쪽.
92)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편, 2004, 『이천후안리석탑지 시굴조사보고서』, 31쪽.
93)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편, 2004, 『이천후안리석탑지 시굴조사보고서』, 20~21쪽.

사찰에 비하여 짧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안리 탑지 출토 유물은 기와류와 자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와류는 대부분이 고려시대 것들이며, 파도문의 조선시대 기와도 동반 출토되고 있는데, 출토된 자기류는 대부분 백자임이 확인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94]

최근에 경기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된 김좌근 고택 조사가 이루어 졌다.[95] 백사면 내촌리 222-14번지에 존재하는 본 유적의 발굴 조사는 유구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복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전체 대상면적은 1,900㎡(약575평)이며, 이중 시굴조사 면적은 1,400㎡이며 정밀 발굴조사 면적은 500㎡이다.[96] 본 발굴은 역시 이천시와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조사기간: 2011.6.22~2011.8.26) 그 성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금번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행랑채 일원의 유구는 대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채 남측으로 'ㄷ' 자 형태의 행랑채 건물지, 그리고 남측으로 'ㄴ'자 형태의 문간채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다만 유구의 기초상부는 근 · 현대의 교란으로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기초 하부의 적심 및 지정이 잔존하여 건물의 위치와 평면 등은 고증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확인되는 건물지는 1978년 당시 남아있던 건물을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도 상에 표현되어 있는 행랑채 및 문간채와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당시에 남아있던 건물의 유구임을 알 수 있었다."[97] 라고 발굴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랑채의 동측 지역 발굴이 불가피했었는데 이 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98]
>
> 김좌근 고택이 99칸의 건물이라고 전해 오는데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은 70여 칸이므로 실제와 맞지 않는 듯하나, 실제 99칸이었다면 밭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건물이 더 있었거나, 아니면 99칸의 의미가 실제가 아닌 막연히 큰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온 것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99]

이천설봉서원 건립 예정부지 시굴조사(조사기간:2005.4.1~2005.6.11)가 역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와 이천시의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졌다.[100]

이천시는 설봉산 일원(관고동 산 64-1)에 설봉서원을 복원하여 이천 출신 인물들인 서희,

---

94)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편, 2004, 『이천후안리석탑지 시굴조사보고서』, 31~32쪽.

95) 이하 김좌근 고택 발굴과 관련한 서술은 대부분 보고서에 의존한 것임을 밝혀둔다(이천시·한울문화재연구원 편, 2011, 『이천 김좌근고택 행랑채 복원 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2쪽).

96) 이천시·한울문화재연구원 편, 2011, 『이천 김좌근고택 행랑채 복원 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쪽.

97) 이천시·한울문화재연구원 편, 2011, 『이천 김좌근고택 행랑채 복원 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2쪽.

98) 이천시·한울문화재연구원 편, 2011, 『이천 김좌근고택 행랑채 복원 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42쪽.

99) 이천시·한울문화재연구원 편, 2011, 『이천 김좌근고택 행랑채 복원 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42쪽.

100) 이하의 내용은 이천설봉서원 건립 예정부지 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에서 요약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5,『이천 설봉서원 예정부지 시굴조사완료 약보고서』, 18~19쪽

이관의, 김안국 등을 제향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전통건축의 양식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한다. 서원이 건립될 예정 지역은 영월암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청암약수터 인근지역으로, 이곳에 전체 넓이가 30(남북)m×40(동서)m 정도 규모에 2단으로 조성된 평탄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설봉산 약수집'이라는 식당이 있었다. 본 조사는 지하에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구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101] 보고서에 의거하여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조사결과 고려 후기에 축조된 건물지 유구와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용되었던 건물지 유구를 확인하였다 한다.[102] 이 유구가 발견된 지역(시굴 조사지역)은 이천 시민들에게는 '작은 절터'로 알려진 곳이며, 『이천시지』에는 '설봉산 사지2'로 이름 붙여진 곳이다.[103] 그런데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약사암이 신흥사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 신흥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북악(北岳)의 하국(下局)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다. 과거에 설봉산은 북악이라고 불리운 적이 있어 현재의 관고리 사지가 기록에 나오는 신흥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고리 사지의 동쪽에 해당하는 '설봉산 사지2'가 약사암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이들 건물지 유구가 기록에 보이는 약사암의 옛터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차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104]

이상은 『이천시지』편찬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설봉산성 발굴성과, 설성산성 발굴성과, 그리고 새롭게 시도된 김좌근 고택, 후안리 탑지, 설봉서원 예정부지 발굴성과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발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게 마련이며, 이러한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과제와 전망

이천의 유형문화재 현황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이천시지』권2 제2편 문화유산 편을 권하고 싶다. 거기에 이천의 온갖 문화재들이 유형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림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즉, 이천시 문화재의 가치를 가늠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들

---

101)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5,『이천 설봉서원 예정부지 시굴조사완료 약보고서』, 3쪽.
102) 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5,『이천 설봉서원 예정부지 시굴조사완료 약보고서』, 19쪽.
10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이천시지』권2, 380~383쪽(이천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5, 『이천 설봉서원 예정부지 시굴조사완료 약보고서』, 18~19쪽에서 재인용)
104) 이천시·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편, 2005,『이천 설봉서원 예정부지 시굴조사완료약보고서』, 18~19쪽.

이 적기되어 있다. 이천의 문화재 설명에 활용된 지면만 약 250여 쪽에 이른다. 이는 다른 어느 시군의 문화재 설명 자료보다도 그 내용이 풍부함을 반증하고 있다.

또 가볍게 단권으로 들고 다니면서 문화재 설명을 보고 싶다면 시지 편찬 후 문화재 부분만 가려서 설명한 2006년도 판 『이천의 문화재』를 휴대하면 된다. 또 지역별로 문화재 현황과 그 설명을 보고 싶다면 1996년도부터 이천의 각 읍·면별로 제작한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제3절 문화유적'편을 참고하면 된다. 거기에 해당 읍면의 문화재가 아주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고장 이천의 문화재는 이천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그 확인 및 보존 발굴이 쉬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들은 지체 없이 엮어져서 정리 보존되고 있다. 이는 이천 지역의 많은 문화인들과 또 그 중심에 있는 문화원, 또 이를 지원하는 이천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정서와 성과 속에서 도자기엑스포가 열리고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부터는 그 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문화 이천을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문화인과 문화원, 그리고 이천시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이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들여온 노력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문화재 조사 발굴을 통한 가치 확인과 함께 이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문화재 가치가 책자를 통해 보급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문화재에 다가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외부인들 보다 우선 관내의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애호하고 사랑하게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러한 기풍을 길러 나가야할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이천시에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중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략은 빨리 수립해 놓을 것이 요구된다.[105]

둘째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국의 예산확보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문화정책은 사실 허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단순히 홍보차원이 아니라 초·중·고 교과, 아니면 비교과 활동에서라도 교육과정 중에 지역문화재 탐사활동 과정을 설정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교육과정의 일환인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한 지역문화 탐사활동은 이천지역에서도 일부 교사들에 의해 실시되어

105) 이천 문화원에서는 이미 『이천문화발전 5개년계획안』(2013)을 마련하고 문화재 관리 보존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놓고 있다.

온 바 있다. 탐사 성과들은 축제 시 전시하거나 발표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약간의 재정 뒷받침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106)]

넷째 이천문화재보호위원회나 문화재관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상시 활동 활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어느 곳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이의 보존을 위해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지금까지 이천시와 문화원의 노력으로 이천은 많은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이를 중단하지 말고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문화재들이 전문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도록 간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화재 브랜드화이다. 관내에만 머물지 말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일정지역을 문화벨트로 엮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먼 미래를 보면서 계획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례로 설봉산성과 2개의 부성, 칼바위 봉수대, 영월암, 도자기 축제, 삼형제 바위, 설봉서원 등을 엮어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잘 조합하면 훌륭한 관광코스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본래 말과 글로는 쉬우나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하여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만 한다.

106) 특히 단체 이동의 경우 차량 대절 등 비용이 약간 소요된다. 이를 개인 부담시키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학교에 부담을 시키자니 재원 자체가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어려움이 있다.

여 백

제2장

이천의 민속문화와 무형문화재

김 종 연 / 지리학, 이현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2. 민간신앙
    1) 가정신앙
    2) 마을신앙
    3) 무속신앙
3. 민속놀이
    1) 개인놀이
    2)집단놀이
4. 무형문화재
    1) 청자장인 유근형
    2) 백자장인 지순탁
    3) 옥새장인 민홍규
5. 나오며

제2장 이천의 민속문화와 무형문화재

1. 들어가며

민속 문화는 민중들의 삶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져오며 현재에 계승되고 있다. 민속 문화의 형태는 인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신앙과 유희의 형태인 놀이문화로 이어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신앙은 개인 중심의 가정신앙과 마을 단위의 집단으로 행해지는 마을 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무속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무속신앙도 대표적 민속 문화이다. 민속놀이는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날 발굴 재현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전통 민속 문화의 단절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전통 민속 문화의 발굴과 계승 또한 세대교체와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화 이후 이천에서 전승 발전되어 온 전통 민속 문화를 개관하고 전승 과정을 고찰하며 이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이천 고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사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증언과 전통 문화 보존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민속 문화의 새로운 발굴보다는 기존의 민속 문화가 전승되어 온 과정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민간신앙

이천에서 전승되어 온 민간신앙으로는 가정신앙과 마을신앙, 일부 무속인들에 의해 전해내려오는 무속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속 문화가 신앙의 성격을 띠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복신앙의 바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까지도 민간 신앙이 쉽게 관찰되었으나 기독교의 확산과 농촌 개몽 운동의 일환인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미신으로 치부되며 쇠퇴를 거듭해 왔다. 현재는 일부의 가정이나 마을에서만 전승되는 것이 현실이다.

1) 가정신앙

이천지역의 일반 가정에서는 조상신(祖靈)·삼신(三神)·성주(城主)·터주(垈主)·업위신(業位神)·조왕신(竈王神)·칠성(七星)·문신(門神)·측신(廁神)·외양신 등을 모셔놓고 가족의 태평과 무고를 기원하였다.[1] 이러한 가신(家神)은 주로 주부가 담당하였으며 남자들은 신체(神體)를 만드는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터줏가리·업가리·신주항아리 등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그나마 이러한 가정신앙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해오던 관성에 의해 중년의 가장에 의해 유지되거나 문중의 전통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터주

터주는 '터줏대감' '지신(地神)'라고도 불리는 신으로 주택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신으로 믿고 있다. 신체인 터줏가리는 짚으로 일정 형태를 만들어 덮어 장독간 모퉁이나 집 뒤에 안치해 둔다. 터줏가리 안에는 터주단지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쌀이나 벼를 넣어 둔다. 터줏가리의 맨 위는 모자처럼 덮고, 중간 허리를 왼새끼로 두른다. 왼새끼줄은 보통줄과는 달리 금줄로 여겨 신성시 여긴다.

이천 지역에는 20~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가정에서 터주를 모셨으나 점차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가정 신에 비해서는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2) 업위신(業位神)

업위신은 재물신으로 집안의 재물과 복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통 창고나 광의 위쪽 한 귀퉁이에 팥을 담은 옹기를 안치하는 형태를 띤다. 흔히 '업' 또는 '업신'이라 부르며 신체를 '업가리'라 부른다.[2] 업가리는 아무 집이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집안에 업이 들어왔다고 여기는 집에서만 섬긴다. 그래서 터주가리에 비해 업가리 수가 적다. 터주는 매년 가을에 주저리를 벗기고 새로운 주저리를 덮어씌우기 때문에 크기에 변화가 없으나, 업가리는 기존의 주저리에 새로운 주저리를 덮어씌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업가리의 크기로 그 집안에 업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업도 터주와 마찬가지로 안에 단지가 있다. 업 단지에는 쌀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둔면에서는 돈을 넣기도 한다. 업가리에 올린 떡이나 음식은 식구끼리만 먹는데 업은 가정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나누어 먹으면 재물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업가리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촌로가 있는 집이나 업의 효과를 경험한 가정이거나 오랜 병

---

1) 홍순석, 2003, 『이천의 민간신앙』, 이천문화원, 35쪽.
2) 홍순석, 2003, 『이천의 민간신앙』, 이천문화원, 59쪽.

치레로 고생하는 가정에서 주로 섬기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⑶ 조상신

조상신은 조상숭배 사상에서 비롯한 신앙의 형태로 이천 지역에서는 '신주단지'라고 부르며 대부분 안방 시렁 위에 모신다. 단지 안에는 올벼나 쌀을 넣는다. 알곡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겉곡을 넣는 경우가 많다. 조상신 숭배는 주로 문중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둔면 용면리의 경주 김씨들은 '박씨할머니'를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다. 박씨할머니는 경주 김씨 5대조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 후손이 용면리 경주 김씨들이다. 박씨할머니를 모시던 보살당이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훼철되자 박씨할머니 신주단지를 집집마다 모시고 있다.

호법면 매곡1리 고령 박씨들은 박난영을 장군할아버지로 부르며 신체를 가정에서 모신다. 박난영은 조선 인조 때 외교관으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용골대와 휴전 교섭을 하기도 하였다. 청나라가 두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을 왕자로 가장하여 보냈다가 피살되었다. 그 후 나라로부터 불천위 위패를 하사 받아 지금도 사당에서 기제사를 올리고 있다.

2)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집단의식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마을신앙의 주축은 산신제, 성황제, 우물제 등이다. 기우제는 수리시설의 발달로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마을신앙은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⑴ 산신제

이천에서 산신제는 각 읍면에서 행해졌다. 현재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내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내는 경우가 많다. 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준비과정이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제사일은 주로 음력 정원 대보름이나 정초가 가장 많고, 그밖에 10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3)]

신둔면 정개산 산신제는 가장 대표적인 산신제이다. 지석리 마을 주민에 의해 행해지는 정개산 산신제는 격년제로 음력 2월 1일에 실시하고 있다. 제육으로 황소 한 마리를 올리는데 비용은 마을 주민들의 추렴으로 마련한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결속력을

3)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3. 민속과 구비전승』, 133쪽.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백사면에서는 현방리·내촌리·도립리·송말리·상용리 등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며 가장 오래 유지된 곳은 내촌리이다. 율면에서는 고당리·오성2리·신추리·총곡리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까지 지낸 곳은 고당리로 임오산에서 지낸다. 설성면의 설성산과 노승산 기슭의 마을에서는 산신제가 중시되었다. 수산리·대죽리는 최근까지도 산신제를 지냈으며 연화정사와 원경사에서는 불교의식에 따라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마장면에서는 양각산을 끼고 있는 관리와 도드람산과 인접한 목리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부발읍에서는 효양산 주변의 산촌리·무촌리 등이며 산촌리 산신제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매년 지내던 산신제는 격년제로 변화하고 이제는 액운이 있는 시기만 지내는 점진적 소멸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2) 성황제

성황(서낭)은 마을의 수호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마을 어귀나 고개 마루에 돌무더기나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등이 성황제를 올리는 장소이다.

율면 자오리(오성2리)의 은행나무 서낭제는 대표적인 성황제이다. 자오리는 조선 초 개성 왕씨들이 피신하여 살았던 곳이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전날에 지낸다. 입향조 왕경지가 심었다고 하는 은행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며 산 역사인 것이다. 이 은행나무는 가을에 잎이 떨어질 때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드믄 드믄 떨어지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4] 백사면 상용리에서는 1998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마을회의에서 신수(神樹)로 정하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고 있다. 1998년 9월 15일 보호수 비각을 세우며 성황제를 올린 것이 시작이 되었다. 매년 9월 15일을 제일(祭日)로 정하여 성황제를 올리고 있다. 율면 총곡리·마장면 오천리 사장터의 당고사·부발읍 죽당1리 서낭당고사 등 많은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제 형식의 성황제는 쇠퇴하고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우물제(샘굿)

우물제사는 솟아나는 샘물을 풍년의 미덕으로 여기는 농경문화와 맑은 물이 갖는 깨끗함을 인간의 건강으로 비유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과거 수리시설이 미흡할 때 물을 섬기던 신앙이 발전해 의례로 정착된 것이 샘굿이다.[5] 이천 지역에서 우물제사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 시설의 보급으로 우물의 사용이 줄어 복개되면서 자연 소멸되었다. 아직까지도 우물제사가 행해지는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길놀이 때 한 과

---

4) 김종연, 2000, 「이천시 동족촌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82쪽.
5) 홍순석, 2003, 『이천의 민간신앙』, 이천문화원, 152쪽.

정으로 행해진다. 거북놀이 과정에서도 우물굿인 '샘풀이' 장면이 있다.

매곡1리 돈의실 우물제는 가장 대표적인 샘굿이다.[6] 매곡1리는 안말과 바깥말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는데 우물제사는 따로 지내고 있다. 우물굿 제물도 안말은 통돼지를 올리나, 바깥말은 소머리를 쓰다가 근래에는 돼지머리로 바꾸었다. 우물제사는 음력 1월 3일 오전 9시경에 지낸다. 우물제사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치성계(致誠契)를 만들어 경비를 충당하다가 요즘은 각 가정에서 추렴하여 지냈다.

우물제사는 마을 단위로 드렸으나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우물제사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하나라는 의식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장이기도 하다.

3) 무속신앙

이천은 기독교 전파 이전에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남달리 깊게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 무속신앙이 아직도 실생활에 잠재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속인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굿을 하고 있다. 현재 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당제는 설봉산 산신제(도당제)이다. 설봉산 도당제는 이천경신연합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 연회 행사의 성격이 짙다. 2003년 4월 27일 설봉산 야외 대공연장에서 시연이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경신회가 조직된 것은 오래전이나 설봉산신제를 올리게 된 것은 대략 2000년대라고 한다.

마장면 오천리 도당굿은 규모가 컸던 도당굿이었다. 백중일에 장터에서 도당굿을 펼쳤는데, 한창 때는 인근 주민들이 다 참석하여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7] 마을에 사는 만신들이 굿을 하면 삼현육각을 잡히고 줄광대가 들어와서 줄을 타는 큰 도당굿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당거리·장승백이 등의 지명만 남아있고 옛 굿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소고리 부처박골은 이천에서 가장 치성을 많이 드리는 곳이다. 마국산 부처박골에는 마애여래좌상과 마애삼존불이 있어 예로부터 도량으로 신성시 되었다. 현재는 마을 전체가 실시하는 산신제는 없어졌고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변하였다. 특히 마애삼존불은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으로 숭배되어 지금도 불상 앞에 제단이 설치되어 무속인들이 굿을 할 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처박골에는 산신령이나 칠성신 등의 신체(神體)를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리고 있다.

---

6) 김지욱, 2002, 『경기도의 마을 신앙과 제당』, 경기문화재단, 263-265쪽.
7) 홍순석, 2003, 『이천의 민간신앙』, 이천문화원, 200쪽.

3. 민속놀이

우리민족은 오래 전부터 농한기나 명절을 맞아 함께 어울려 즐기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들 놀이는 남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즐기는 놀이가 다르고 시기에 따라 즐기는 놀이 또한 달랐다. 1941년 무라야마 지준이 조사보고한『조선의 향토오락』에 따르면 이천에서 행해지던 놀이는 44가지가 보고되었으나 이천문화원과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이천시민속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3종만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개인놀이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개인놀이는 극히 드물다. 특정한 시기 일부 문화 단체에서 의도성을 갖고 시행하거나, 모임이나 직장 체육행사 등에서 경기 종목으로 시행하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이천문화원이나 지역의 청년회 등에서 시절 행사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윷놀이는 척사대회(擲柶大會) 형식으로 마을 단위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씨름은 전통 민속놀이가 현대화한 대표적 놀이이다. 과거 이천의 각 읍·면에서는 백중날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우승한 장사에게 황소나 송아지를 상으로 주었다.[8] 장호원 읍내 장에서 벌어진 씨름대회와 마장면 오천리 장터에서 벌어진 씨름판은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 씨름은 오늘날 체육행사의 한 종목으로 바뀌어 학교나 지역 행사에서 행해지고 있다.

2) 집단놀이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개인놀이라 하더라도 행위는 혼자 하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므로 방식에서는 집단놀이의 성격을 띤다. 또한 놀이문화 속에는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도 담고 있다. 집단놀이는 의도적 전통문화 발굴 정책의 영향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율면정승달구지와 이천거북놀이이다.

(1) 율면정승달구지[9]

달구지는 묘를 조성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동작을 지칭하는 장례문화이다. 장례문화는 화

8)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이천시지3. 민속과 구비전승』, 307쪽.
9) 정승달구지는 장묘의례이나 오늘날 발굴 재현하여 전승을 목적으로 대중화한다는 면에서 놀이문화로 분류했음.

장의 일반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점차 사라져 가는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다. 상례(喪禮)가 끝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노래가 불려진다. 발인(發靷)하기 전날 밤에 재도듬놀이(상여놀이)를 할 때 부르는 재도듬소리, 발인하여 상여가 장지(葬地)까지 가는 동안에 부르는 상여소리, 하관(下官)하고 흙을 넣으면서 부르는 달구지소리로 연결된다. 이 세 가지 소리는 가끔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이중 달구지소리는 무덤을 조성하면서 흙을 다질 때 부르는 소리에 한정하여 쓰는 말이다.[10]

'율면정승달구지'에서 '정승달구지'는 율면 고당리 마을 사람들이 그냥 '정승달구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고당리 마을 사람들이 '정승달구지'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소리(노래)와 동작(춤)을 다 합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율면정승달구지'는 고당1리에 있는 효정공(孝貞公) 김영근(金泳根)의 묘와 관련이 있다. 김영근은 김병기(金炳冀)의 친아버지이다. 김병기는 조선 말엽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주류에 서 있던 인물로 순조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오빠였던 김좌근(金左根)의 양아들이다. 김좌근의 아버지 김조순에서부터 김좌근~김병기로 이어지는 안동 김씨의 세도 권력은 막강하였다. 세도가 김병기의 친아버지의 장례식은 성대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던 선소리꾼을 뽑아다가 장례를 치뤘다고 한다. 달구지소리는 이 때 그 선소리꾼으로부터 마을에 전수되었는데, 이후로는 고당리 소리꾼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였다. 정승달구지라는 명칭도 이로 인해 생긴 것이다.[11]

'율면정승달구지'가 오늘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5월 20일에 이천문화원과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에 율면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민요와 함께 율면정승달구지의 가사가 채록되면서부터이다. 고당1리에서 채록된 이 보고서에는 제보자 7명[12]이 명기되어 있고 정승달구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연자(박영하, 이근영)'라고 기록하고 있다.[13]

그 후 1999년 9월 18일 문화재청의 이소라 전문위원이 「이천의 달구소리 춤」이라는 제목으로 무용 전문 잡지인 '몸(1999년 10월호)'에 정리한 글을 발표하였다. 이소라 전문위원은 1989년 농요 조사차 율면 고당리에 들렸다가 정승달구지를 녹음하였다. 당시 마을 사람들 여럿이 모여 동작을 하면서 가창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99년 봄에 실제 장례를 통한 율면정승달구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소라 전문위원은 「이천의 달구소리 춤」에서 가락을

10) 김양원, 2004, 『이천시 율면 고당리의 '율면정승달구지' 조사 보고서』, 이천문화원, 17쪽
11) 이천문화원,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출판부, 381쪽
12) 제보자는 조창구(70세, 남), 박수억(65세, 남), 김학출(62세, 남), 김동환(62세, 남), 박영하(52세, 남), 박병만(52세, 남), 박운하(52세, 남). 나이는 1997년 기준임.
13) 이천문화원,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출판부, 381쪽

현대 악보로 정리하였고 동작들을 사진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율면정승달구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체계적인 정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오늘날 율면정승달구지의 선소리를 메길 수 있는 분은 '박영하'였으나 수년전 작고하였다. 박영하는 고당1리에서 70여년을 살면서 마을 이장을 보기도 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박영하는 1941년 율면 고당1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18세 되던 1958년 당시 고당리의 선소리꾼인 박갑진으로부터 정승달구지를 사사 받았다. 박갑진의 나이는 당시에 60세 정도로 추정된다. 박영하는 그 후 고당1리에서 선소리꾼을 해 왔으며, 세상을 뜨기 전까지 유일하게 정승달구지의 선소리를 메길 수 있는 분이었다.

2003년 봄 이천문화원 이인수 사무국장은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율면정승달구지를 올려보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천거북놀이보존회는 발굴과 연습을 통하여 제현에 들어갔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는 정승달구지 선소리꾼 박영하, 고당1리 박병록 이장, 고당2리 박병만 이장, 고당3리 지일산 이장과 협의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발굴과 고증과 연습을 통하여 정승달구지가 완성됐고 대회에 출전하여 3위에 올랐다. 1999년 이후 실제 장례에서 정승달구지가 행해진바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회 출전을 계기로 완성된 정승달구지는 중요한 전승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정승달구지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승달구지 완성품을 민속 작품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은 선소리꾼 박영하를 비롯한 마을의 어르신들이다. 선소리꾼 박영하는 정승달구지가 끝나는 부분에 경상도에서 전래되는 묘봉달구지를 연결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14] 묘봉달구지는 묘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달구꾼들이 달구대를 놓고 묘동의 주위에 모여서 잔디를 발로 다지면서 하는 동작과 노래이다.

묘봉달구지는 경상도에 살던 윤영호가 1965년(당시 27세) 고당리로 이사 오면서 비롯되었다. 윤영호로부터 경상도 달구지를 배운 박영하가 정승달구지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 보니 한층 잘 어울리는 것을 알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묘봉달구지는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짧고 간결하다. 가락도 고당리 달구지보다 힘차고 짧다. 박영하는 이 소리가 율면정승달구지를 마무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율면정승달구지의 일련의 발굴과 재현의 과정은 사라져가는 이천의 향토문화와 민속문화를 찾으려는 이천문화원의 노력으로 2004년 『이천시 율면 고당리의 '율면정승달구지' 조사 보고서』로 정리 출간되었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전 회장인 김양원 교사의 노력으로 출간된 이 보고서에는 율면정승달구지의 의미, 명칭, 유래, 구성, 가사, 악보, 춤 동작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미래의 세대에게 이천의 전통 민속 문화를 전승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천에 있는 연희극단 〈배꼽〉에서는 2003년 12월 마당극 '서희선생'을 무대에 올렸는데 1

14) 김양원, 2004, 『이천시 율면 고당리의 '율면정승달구지' 조사 보고서』, 이천문화원, 26-28쪽

막 서희선생 장례식 장면으로 율면정승달구지를 올렸다. 장례식에서 진행되는 정승달구지가 무대를 통해 대중과 만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전통 민속 문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전승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였다.

과거에는 어느 마을이든 장례에는 달구지가 있었다. 특히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깊었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 문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달구지는 극히 드물다. 그런 면에서 율면정승달구지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⑵ 이천거북놀이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면서 지혜로운 자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수의 오랜 경험이 어떤 일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거북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가 거북놀이이다. 무병장수와 지혜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거북은 놀이를 통해 오래전부터 함께한 동물인 것이다.

거북놀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신라 문무왕 때의 발생설, 고려 현종 때 발생설, 중국 전래설 등이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15] 다만 오래 전부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거북놀이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거북놀이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이다.[16] 이 책은 거북놀이의 분포권을 경기도와 충청도를 아우르는 중부지방으로 보고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거북놀이가 수수 작물의 재배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는 밭농사 작물인 점을 고려하면 거북놀이의 처음은 밭농사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17] 거북놀이가 점차 확대되면서 벼농사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본다. 그 증거로 거북놀이 노래 가사에 만석과 천석이 등장하는데 이는 논농사와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수수의 붉은 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유아의 무병장수를 가져다준다는 면을 담고 있다.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향토오락』에서 이천의 마장면에서 조사된 거북놀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어린이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다. 수숫대로 큰 거북을 만들고 여러 어린이가 들어가 거북의 흉내를 내며 여러 집을 돌며 덕담을 하고 떡과 음식을 대접 받았다고 한다.[18] 거북놀이가 어린이들의 놀이로 시작된 것은 영양 부족으로 질병치레가 많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천에서 거북놀이가 언제부터 형성되고 전승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천의

15) 김종대·이승수·임장혁, 2006, 『이천거북놀이』, 이천문화원, 30쪽
16) 무라야마 지준, 朴銓烈 譯, 1992, 『朝鮮의 鄕土娛樂』, 집문당, 58-90쪽
17) 김종대·이승수·임장혁, 2006, 『이천거북놀이』, 이천문화원, 33쪽
18) 무라야마 지준, 朴銓烈 譯, 1992, 『朝鮮의 鄕土娛樂』, 집문당, 82쪽

주변 지역에서 전승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이천 거북놀이는 마장면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놀이 과정과 기물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왔다는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9] 일제 침략기까지만 해도 마장면에서는 활발한 전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서 다른 시·군에서의 전승은 명확하게 면 단위까지 제시된 경우가 없는 반면 이천군에서 마장면을 특정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조사에 의하면 마장면이 가장 많은 지역인 10군데에서 전승되었고, 다음으로 대월면 7군데, 설성면과 호법면에서 4군데, 장호원·신둔면·백사면·율면 등이 3군데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모가면으로 나타났다.[20]

이천시에서 거북놀이가 연희되는 시기는 거의 추석으로 정해져있다. 10대 중심의 남자 아이들이 주도한 거북놀이는 풍요의 기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면만 강조하기는 어렵다.

이천 거북놀이의 발굴은 1972년 대월초등학교 김종린 교감에 의해서다. 민속학자 심우성과 김종린 교감의 끈질긴 집념으로 원형을 되살려 대월초등학교 학생들과 대월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북놀이를 재현하는데 성공하였다.[21] 그 후 몇 번에 걸쳐 방송을 통해 거북놀이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1976년에는 민속학자 심우성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학문적 토대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그 후 1978년 이천문화원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천군거북놀이보존회'를 창립하였다. 그해 10월에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81년부터 군민의 날(현 시민의날)에 시연회를 개최해 왔고, 그 후 1982년에는 최의상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대월면 초지리 거북놀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85년 9월에 개최된 제26회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에서 다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86~1993년 동안에는 대월면 초지리 거북놀이 보존회가 해체되고 그 대신에 매년 10월 8일 군민의 날(5회~12회) 행사에 대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연을 하므로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4년부터 이천시 율면에 있는 율면고등학교에서 다시 거북놀이를 시작하여 1999년에는 제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근간이 되어 이천문화원과 지역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 2월에 거북놀이보존회 재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그 해 10월 창립총회를 열어 '이천시 거북놀이보존회(초대회장 김양원)'를 재 창립하게 되었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는 이천 거북놀이의 전승과 홍보를 위한 공연활동도 활발하게 전

19) 홍순석, 2006, 「거북놀이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제2회 이천거북놀이 심포지업 자료』, 4쪽.
20) 김종대·이승수·임장혁, 2006, 『이천거북놀이』, 이천문화원, 48쪽
21) 김종린, 1983, 「이천의 거북놀이」,『이천군 향토문화 자료총람 제2집』, 이천문화원, 23쪽

개해 오고 있다. 이천 지역 내에서의 정기 공연 외에도 이천도자기축제 공연, 세계도자엑스포 축하 공연 등 다양한 성격의 공연을 실시해 오고 있다. 보존회에서는 이천의 전통 놀이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KBS 6시 내고향, KBS 2TV VJ특공대, 세상의 아침, 인터넷방송인 KTV 등, TV방송에도 꾸준히 소개하였다.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한국민속촌에 단골손님으로 초청되어 공연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추석과 단오날에 공연하였고, 미8군 한남동 공관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는 거북놀이의 올바른 재현과 확산을 통하여 이천거북놀이를 전승 보전하고, 지역 주민과 화합하여 소규모 지역 축제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2004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을 일부 받아 거북놀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22)]

이러한 보존회의 활동은 2010년 6월 8일 이천거북놀이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는 결실로 연결되었다.

⑶ 줄다리기

정월 대보름 대표적 집단 민속놀이가 줄다리기이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한 해 동안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줄다리기는 특히 한강 이남에서 많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논농사 중심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23)]

이천 줄다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른 지방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던 것으로 전한다. 1921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육천명의 대해희(大蟹戱)"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천읍내에서 행해진 줄다리기를 소개하고 있다. 줄다리기에 직접 참여한 인원이 6천여 명이요, 구경꾼의 수가 3만여 명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의 길이가 800여m이고, 줄의 두께가 60cm라고 하였으니 그 규모에 놀랄 뿐이다. 줄다리기 중 죽은 사람이 3명에 사상자가 9명이었다고 신문은 전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줄다리기를 했던 곳은 지금의 이천시 관고3동 마전터였다. 1921년 당시에는 설봉호수(1968년 축조)가 없었고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밑으로 길게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광목·이불천·옷 등 빨래를 하여 넓은 백사장에 널어 건조시킨 데서 연유한 지명이 마전터이다. 설봉산에서 발원한 중리천 백사장에 약 36,000여명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은 오늘날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이다.

줄다리기 편 나누기의 기준은 넓고개(廣峴)로 남쪽에 해당하는 이천·여주·용인 등지의 주

---

22) 다음 인터넷 카페 이천거북놀이, 이천거북놀이 소개(http://cafe.daum.net/gg50)
23) 김종연,2009,「마전터 줄다리기」, 이천신문 제510호(2009.2.13.)

민이 한편을 이루고, 고개 북쪽에 해당하는 광주·양평 등지의 주민이 한편이 되었다. 줄다리기를 보기위해 서울에서까지 구경꾼이 모일 정도였다고 한다. 줄다리기 준비과정과 당일 수만 명의 관중으로 인해 마전터 주변의 보리밭은 짓밟혔으나 오히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풍작을 이루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보리밟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규모의 이천 줄다리기는 192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놀이가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강압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3·1운동이 일어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이천은 의병운동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났던 지역으로 한꺼번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줄다리기 놀이가 자칫 항일저항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 이후 대규모 줄다리기는 물론 마을 단위 소규모 줄다리기도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천의 줄다리기는 비록 규모 면에서 축소되었다 할지라도 모가면 진가리 갈매울 줄다리기를 통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갈매울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 하루나 이틀 전에 마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풍물패를 앞세우고 마을을 돌며 볏짚을 모아 암줄과 숫줄을 만든다. 암줄에는 부녀자와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 편이 되고 숫줄에는 청년들이 한 편이 되어 난장을 벌인다. 갈매울 줄다리기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는 것은 줄다리기에 참여함으로써 한 해 동안 일신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민속신앙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24)]

1980년대 들어서 대월면 단월리의 단드래 줄다리기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10년 전부터 중단됐던 단드래 줄다리기를 재현하기 위해 이덕수씨를 비롯한 마을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1980년 3월 1일(음력 정월 15일) 단월면 농협 앞에서 재현하였다.[25)] 줄다리기 방식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며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건강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둔면 용면리 줄다리기 또한 이천의 대표적 민속놀이로 정월 대보름 마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방식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나 줄다리기의 결과는 시작 전에 결정되어 있다. 암줄의 여인편이 이겨야 하며 또 결과는 이긴다. 여성이 이기도록 결말을 맺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상징인 것이다. 줄다리기가 끝나도 여흥은 이어져 지신밟기·달맞이 행사가 이어진다. 오늘날 줄다리기는 유치원 운동회에서부터 동문 체육대회까지 단골로 등장하는 행사 메뉴이다. 그러나 승부만 있지 전통 줄다리기가 추구했던 공동체 사상은 찾기 어렵다.

---

24) 이천문화원, 1983,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2집』, 92쪽
25) 이천문화원, 1983,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2집』, 95쪽

4. 무형문화재

1) 청자장인 유근형

고려왕조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고려청자의 비법을 재현하기 위해 평생을 보낸 이가 해강(海剛) 유근형(1894~1993)이다. 구한말 서울에서 태어난 유근형은 어린 시절 박물관에서 목격한 고려청자에 매료되어 전국을 유람하며 마침내 청자 재현에 성공하였다. 공방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공방을 전전하다가 한국미술품연구소(대방동 가마)에서 조각을 담당하였으며, 캘리포니아 국제박람회에 청자를 출품하여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59년 수광리 미나리 칠기가마를 빌어 청자를 제작함으로서 해강고려청자연구소를 발족시켰다. 한일 국교 정성화와 함께 일본인들의 청자 수요 증가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74년부터 3년간 제작한 청자오백나한상이 지금도 강릉 등명낙가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다. 1988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에는 평생의 소원이던 해강도자미술관을 완공하여 유작을 남겼다.

2) 백자장인 지순탁

도암(陶庵) 지순탁(1912~1993)은 유근형(해강청자), 조소수(광주요)와 함께 이천 도예촌의 개척자 중 한사람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지순탁은 옆집에 살던 조선총독부 골동품 감정일을 하던 일본인 아사카와(淺川伯敎)로부터 골동품과 가마 유적지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으며 도자기에 대한 애정을 쌓아갔다. 전국을 전전하며 도자기 연구와 제작을 계속하며 틈틈이 출품하여 입상하였다.

1956년 한국미술품연구소(대방동 가마)가 설립되며 제작 책임을 맡았으나 채 이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자 1958년 수광리 칠기가마로 내려와 수금도요(水錦陶窯)를 설립하였다. 후에 고려도요(高麗陶窯)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현재 지순탁요로 이름을 바꾸어 이천도예촌을 대표하는 명문 요장이 되었다. 지순탁은 198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3) 옥새장인 민홍규

옥새 제작은 까다롭고 위조를 막기 위해 오직 한사람에게만 전수하는 전통과 수요가 적어 수익이 적다는 면에서 기능 보유자가 극히 적다. 민홍규는 설성면 장천4리에서 옥새 제작에만 매달려온 전통 옥새동장 전수자이다.

쇠불(世佛) 민홍규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석불(石佛) 정기호로부터 옥새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민홍규는 장천4리 독정마을에 대왕가마를 마련해 놓고 전통옥새 복원 작업을 하고 있

다. 일제 침략으로 조선왕실의 옥새 73과가 파괴되어 이를 모두 복원하는 것이 쇠불의 목표이다. 일차로 옥새 5과를 복원하였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조선왕보(朝鮮王寶)를 비롯한 8과를 제작 기증하였다.

5. 나오며

과거의 일상생활 자체가 민속 문화이다. 생활 방식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와 병행된다. 그래서 전통 민속 문화를 원형대로 유지 전승하기가 어렵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의 전승은 지역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문화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이런 면에서 본고는 전승되고 있는 이천의 민속 문화 현황을 파악하고 전승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속문화는 민속신앙과 민속놀이가 대부분이다. 민속신앙 중 가정에서 섬기는 신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터주, 업위신, 조왕신으로 터줏가리, 업가리, 신주단지 등의 신체를 갖는다. 그러나 서양 종교의 전래와 농촌 계몽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많이 사라졌으며 현재는 극히 일부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다.

마을신앙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산신제, 성황제, 우물제 등이다. 동제(洞祭)의 성격이 마을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제를 올리지 않을 경우 액운이 들지 모른다는 기우가 작용하여 가정신앙 보다는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민속놀이에서 개인놀이로는 윷놀이, 씨름, 널뛰기, 연날리기 등이 전승되고 있는데 절기 때 세시풍속문화 전승 차원에서 문화원이나 마을 청년회에서 행하거나 집단 행사시 체육 종목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천에서 집단놀이로 발굴 전승되고 있는 놀이는 율면정승달구지와 이천거북놀이이다. 이천문화원과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시연과 공연을 통해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줄다리기는 용면리와 단월리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천을 배경으로 활동한 무형문화재로는 청자장인 유근형, 백자장인 지순탁, 옥새장인 민홍규 등으로 외지 출신이지만 이천에서 활동을 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도자기 장인들은 이천 도자기의 뿌리를 심은 개척자로 오늘날 이천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통 민속문화의 전승에서 중요한 것은 원형의 충실한 발굴과 복원이다.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의 조언과 전문가의 고증을 통한 원형 복원에 지원이 필요하다. 전승 가능한 촌로들이 세상을 뜨는 상황에서 발굴 지원이 절실하고 젊은층에 보급하는 체계적인 지역문화 발굴 전승 정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이천문화원, 1983,『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2집.

하주성, 1985,『이천의 민속 '거북놀이'』 향토문화조사보고서1, 이천문화원.

무라야마 지준, 朴銓烈 譯, 1992,『朝鮮의 鄕土娛樂』, 집문당.

이천문화원,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이천시 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출판부.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이천시지3. 민속과 구비전승』.

김지욱, 2002,『경기도의 마을 신앙과 제당』, 경기문화재단

홍순석, 2003,『이천의 민간신앙』, 이천문화원.

김양원, 2004,『이천시 율면 고당리의 '율면정승달구지' 조사 보고서』, 이천문화원.

김종대·이승수·임장혁, 2006,『이천 거북놀이』, 이천문화원.

이천거북놀이보존회, 2006,『이천거북놀이 심포지움 자료』

이천거북놀이보존회, 2010,『이천거북놀이 관련자료』

김종린, 1983,「이천의 거북놀이」,『이천군 향토문화 자료총람 제2집』, 이천문화원.

김종연, 2000,「이천시 동족촌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종연, 2009,「마전터 줄다리기」, 이천신문 제510호(2009.2.13.)

다음 인터넷 카페 이천거북놀이, 이천거북놀이 소개(http://cafe.daum.net/gg50)

제3장

스토리텔링으로의 설화의 재창조

안 병 문 / 서희 리더십사관학교 전문위원

---

1. 설화의 가치

2. 자료 발굴 과정과 결실

   1) 전설

   2) 민담

3. 이천의 인물

4. 우리의 옛이야기,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의 부활을 꿈꾸며

제3장 스토리텔링으로의 설화의 재창조

1. 설화의 가치

신화, 전설, 민담을 통틀어 설화라 일컫는다. 지역의 설화를 채집하는 일은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설화 속에는 조상들의 자연과 사회에 적응하는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하며, 그 자체적으로도 민중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오랜 시간을 두고 구전되면서 구전자에 의해 첨삭과정을 거쳐 늘 새롭게 진화하는 흥미로운 문학예술의 장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정한 작가가 없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작가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특별한 문학형태이기도 하다.

설화는 그 가치가 대단하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 동질성과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여 지역민들 간의 화합을 위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가 외세에 대항하는 지역민의 슬기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고장의 전설과 민담을 채록하는 과정은 우리 고장만의 고유한 정신적 원형(Archetype)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일이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농경문화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한강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늘 역동적이며, 왕조의 흥망성쇠와 함께 성장한 지역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또한 조상들의 삶과 같이 거침없는 직설적인 이야기 속에는 세월에 맛을 머금은 된장처럼 구수한 철학을 담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지혜로 어려운 삶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에는 수수께끼처럼 미래가 담겨 있다. 때로는 교훈을 담은 모습으로,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때로는 연민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교학자이자 민속학자인 프레이저는 그의 저서 '황금가지'에서 "미개인들은 우리의 은인이며, 그들은 경험으로 얻은 것을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프레이저가 말한 미개인이란 표현은 지나친 감이 있으나, 신화의 근원을 찾는 학자의 입장에서 미개인은 원시인류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시대에 멈추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유산을 남긴 것이 분명하다.

2. 자료 발굴 과정과 결실

이천시의 전설과 민담 채록은 대학 연구기관의 답사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향토사학자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출발하였다. 밀알같은 노력으로 시작된 사업은 1984년 이천문화원 주도로 체계를 갖추어 1985년 이천군 향토문화 총람이 발간되고, 1996년 이후 이천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이고 학술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자료가 정리되었다. 강남대학교에 의뢰하여 진행된 5년간의 노력 끝에 문화유적· 민속자료보고서의 형태로 2000년에 간행된 것은 지난날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성과물들이 학술적으로 일반화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천 지역만의 고유성을 확보한 설화와 인근지역과의 유사성이 있는 설화가 체계적으로 구별되어 설화의 분포 면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이천 지역에서 채록된 설화는 이천문화원에서 발간한 「이천의 옛이야기」자료목록에 소개된 총 464편[1]이다. 지역별로 조사된 자료편수는 백사 76편, 마장 67편, 부발 66편, 모가 44편, 율면 46편, 장호원 43편, 호법 62편, 신둔 23편, 설성 28편, 대월 1편, 지역과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8편이었다. 그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지역별 채록된 설화 편수

지역 편수	백사	마장	부발	모가	율면	장호원	호법	신둔	대월	설성	출처 미상
464	76	67	66	44	46	43	62	23	1	28	8

지역과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은 자료는 '새색시를 구해온 이야기', '도깨비와 도천', '그 밖의 바위의 전설', '빈대절터', '삼형제바위가 생긴 유래', '살아가는 무안 박씨', '송신령 이야기', '패성의 유래' 등 모두 8편이다. 유사한 이야기로 분류를 하면 채록지역은 짐작할 수가 있다. 다만 '빈대절터'와 같은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민담의 특성상 지역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대월면에서는 '군량리 벙어리 맹꽁이와 강감찬 장군' 한 편이 채록되었는데 모든 자연물과 역사적 사실이 설화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다시 한 번 집중적인 발굴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내용상 유사한 이야기가 구술자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 점을 감안하여 소재나 내용면으로 묶어보면 설화의 편수는 강남대학교에 의뢰하여 채록한 265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동일한 소재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의식을 갖추고 있으나 제보자의 언변에 따라 조금

1) 이인수 · 홍순석(2007), 『이천의 옛이야기』 홍익기획, 221~241쪽에 제시된 자료 합산.

씩 변형된 이야기로 채록되기도 하였고, 또한 동일한 소재의 이야기를 제보자 한 사람이 몇 개의 이야기로 변형시켜 구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서사성을 감안하면 이것들을 각각이 독립된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채록지역은 주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시내 지역은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이라 이야기를 제보해 줄 수 있는 원주민을 찾기가 어렵고, 학술연구의 목적상 설화뿐만 아니라 지역 방언 및 기타 속담, 풍속 등도 함께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우리 지역의 전설에 배경이 된 시대는 고려에서 조선까지가 대부분이다. 인물과 관련된 전설은 문헌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심으로 고려의 공민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채록되었는데 당시 공민왕이 우리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 다양한 화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빈대절터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민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읍면별 이야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

이천지역의 설화는 역사, 지리적 특수성과 우리나라 설화 전반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설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것은 주변 지역과의 영향관계로 특수성이 보편화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지만, 지형적으로 그만큼 다양한 이야깃감들이 배태되고 적층될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백사면에서 채록된 전설은 대부분 원적산, 호암산, 오산 등에 관련된 것이다. 원적산은 백사면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천덕봉과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하였다는 영원사가 있다. 영원사에 관련되어 영원사 유래담, 약사여래 부처님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호암산과 관련된 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모가지바위이야기, 독수리바위이야기, 의자바위이야기, 용마바위이야기, 삼형제바위 이야기 등이다. 또, 효양산과 관련한 효양산금송아지 전설이 백사면의 호암산과 넋고개에 관련되어 변이되어 전해지고 있다. 효양산 금송아지이야기는 백사면 지역에서 호암산 주천자이야기나 넋고개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로 전하는데, 구연되는 상황이나 구연자에 의해서 내용이 변이된 듯하다.

율면의 대표적인 전설은 밤골 유래담, 안장사와 석교, 어래암 전설이라 할 수 있다. 밤골 유래담, 안장사와 석교는 지명유래와 결부되어 전하는 효행설화이다. 어래암 전설은 태조 이성계가 양촌 권근과 만나 의정을 논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전설로, 권근이 출생한 지역과 거리가 멀지 않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마장면에서 채록된 전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양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도드람산 전설은 마장면의 자료이지만 이천시 전역에 분포된 것이며, 이천시의 대표적인 전설이다. 지역마다 모티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의 전설이 구전되면서 변이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

2)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이천시지, P374~404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양산금송아지 전설에 연관된 마장면이 지명 유래담도 특징적이다.

부발읍에서 채록된 전설은 대상물이 효양산과 이천 서씨 시조묘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야기의 구성도 전반적으로 미숙한 편이다. 효양산금송아지는 대상물이 '금송아지', '금망아지', '금베틀', '금불상' 등으로 변이되고 있는데, 하나의 전설이 구전되면서 변이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주목된다.

장호원읍 전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양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지네굴과 남이장군, 자점보 유래가 이 지역의 대표적 전설이라 할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야담류의 이야기가 많이 구전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식자층에서 문헌기록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맹사성과 침인연, 어사 박문수와 이목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천시의 전설은 자연·사물·인물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천지역의 설화는 대부분 풍부한 자연이나 다양한 사물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발생목적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천지역의 설화를 설명적 전설, 역사적 전설, 신앙적 전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적 전설(195편)에는 지역상의 특징, 자연현상, 특수한 습관, 동·식물의 특수한 현상, 산, 바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부터 성립하고 성장했던 역사적 전설(59편)에는 영웅, 야담, 야사, 비사 등이 속하며, 민간신앙을 기초로 한 신앙적 전설(29편)은 민간신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천시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한 지명(이천, 오천, 어산리, 억만리, 억억다리, 구만리, 거지개, 도드람산 등)에 얽힌 지명 설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볼 때 자연대상물(산, 바위)이나 지명에 관한 전설(효양산 금송아지, 설성산 유래담, 도드람산 전설, 백족산 지네이야기)등 지명 유래담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설화의 고정된 소재로 떠올릴 수 있는 도깨비이야기, 귀신이야기, 효자·효녀이야기는 드문 반면, 힘자랑 이야기 등은 고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힘자랑 이야기는 바윗돌에 관련하여 전하는 자료로 유명한데, 이천시 몇몇 지역에서는 실제인물인 사실담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그 당시에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장수의 등장을 간절하게 원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1) 전설

(1)설명적 전설

설명적 전설은 명당·터 이야기, 지명유래, 사찰관련 전설, 산이나 바위 등에 얽힌 전설 등으로 이천시 전설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드람산 전설, 빈대절터이야기, 효양산 금송아지 등은 이천시 전 지역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도드람산 전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효자가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다 위기에 처했는데, 산돼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면했다는 효행담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초에 한양에 정도하고 전국의 명산을 모아 삼각산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마고할머니가 이산을 계룡산에서 끌고 가다가 이미 다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가려다 놓고 간 것이라는 조산계열의 이야기이다. 빈대절터이야기는 대상이 지역의 특성상 빈대에서 지네로 바뀐 것이 흥미롭다. 백족산 지네굴 주위에 폐찰된 절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양산 금송아지 전설과 연관된 작별이, 오천, 억만이, 횟다리와 구만이들, 억억교 등의 마장면 지명유래담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이야기가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귀결되어지는 전개과정을 볼 수 있다.

⑵역사적 전설

역사적 전설은 인물, 사찰과 관련된 전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이 장군, 맹사성 등과 관련된 것이 전 지역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남이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지네굴과 남이장군', '굴바위', '남이장군과 지네 이야기' 등으로 남이 장군은 인접지역인 충북에서 출생한 인물로 백족산의 서기를 받아 출생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이인탄생 설화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맹사성과 관련된 '맹사성과 침인연'은 〈연려실기술〉 등에 전하는 야담을 채록한 것이다.

⑶신앙적 전설

신앙적 전설은 서낭당이나 산신제당에 얽힌 전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배터 우물에 얽힌 이야기〉, 〈장자터 이야기〉 등은 물이나 비에 관한 이야기다. 이는 이천시가 예로부터 농경사회로써 가뭄에 단비를 기원하기 위한 데서부터 연유된 듯하다. 〈산신제당 이야기〉나 〈성황목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축원이 깃든 바람인 것이다.

2) 민담

민담은 각 지역마다 많은 양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매부좋고 누이좋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등은 이미 속담처럼 알려져 있는 말의 뜻을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한다. 도깨비 터나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는 여러 편이 있으나, 특징적인 사실은 없다.

지금까지 채록된 우리 지역의 설화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천지역 설화의 유형적 분석[3]

유형별 \ 자료별	이천군지 (1984)	이천군향토 문화자료총람(1985)	문화유적·민속자료보고서 (1999)	계
명당 · 터 이야기	3	2	34	39
지명유래	4	5	36	45
사찰관련 전설	1	1	15	17
산	3	8	25	36
바위	6	10	34	50
고개	1	3	6	10
나무			15	15
인물 일화	4	6	32	42
효행담		1	14	15
도깨비 이야기			14	14
기타 민담	3	2	40	45
계	25	38	265	328

이와는 별도로 손동인은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의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

현지에서 직접 채집 98편, 경기도향토교육자료지에서 2편을 채집기준과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채집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채집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채집장소·날짜·화자의 성명·성별·연령·주제·등장물·구성 등을 명기.(조사통계를 위해서)

② 화자에게 직접 그 동화의 주제 및 교육적 영향을 물어서 참고하였다.

③ 화자수를 특정인이나 소수에 국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를 확대한다.(그 다양성을 보기 위하여)

④ 그간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수록한다. (영향력의 다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⑤ 전설이나 유래담도 동화성이 농후한 것은 채집한다.

⑥ 원 전래동화에서 이탈된 이형의 것도 채집한다. (변이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⑦ 내용이 유사한 것도 버리지 않는다. (영향력, 근연정도를 감정하기 위하여)

⑧ 구성이 단조롭거나 짧은 전래동화라도, 직접 아동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버리지 않는다. (애호동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

3)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이천시지』 377쪽

4)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1978), 『구비문화연구』 제9집 이천군 설성면의 전래동화 -특히 그 내용면을 중심으로, p55~114쪽 요약

⑨ 역사적인 실재인물을 문헌에서 채집할 때는, 그 인물의 사건이나 공적을 중심으로 채집한다. (그것들이 청자나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분석기준은 인근지역과의 비교연구, 유사작품과의 전후 영향관계를 알기 위해서 동일한 일람표로 아래와 같이 100편을 정리를 하였다.

〈표3〉 이천군설성면 전래동화분석 일람표〉

동화 번호	제목	내 용	주제	등 장 물			비 고
				인물	동식사물	초자연물	
1	여우 누이와 네 아들	딸이 없는 어머니 산제지내서 딸을 얻다. 그 딸은 둔갑한 여우였다. 이 딸이 젖소 피 빠는 것을 보고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하였으나, 거짓말이라 하여 아낸다. 큰 아들은 바다의 괴물을 도와 용궁에서 살게 된다. 모일 귀가해 보니 여우가 가족을 다 잡아 먹었다. 용궁에서 받은 세 약병으로 여우를 퇴치하고 용궁으로 돌아가서 잘 살게 된다.	남을 해치지 말라	3형제 어머니	젖소	여우 숭어 괴물 부하 약병(3)	유사동화 이원수편 〈여우누이 동생과 삼형제〉
2	.....	.....					
3							

아쉽게도 연구 결과 내용면에서 우리지역의 전래동화에는 일본 전래동화의 잔해가 많이 남아 있었으며, 그간의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이야기로 인근 지역과의 유사한 동화가 많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신생 전래동화로 6편이 채집되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의의를 찾고 있다. 〈귀신이 나오는 학교〉, 〈시계〉가 등장하는 현대판 동화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가오는 세대에는 그것들이 전래동화로 승격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의 전래동화보다 현실감과 박진감이 있어 보다 교육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손동인이 언급한 '신생 전래동화'라는 말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준다. 기존의 신화와 전설 민담이 역사적 사실과 어울려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재창조가 된다면 우리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 지역의 전설이 새 옷을 입고 등장한 것은 동화와 콩트의 형태로 재탄생되었다. 동화와 콩트의 형식이 가미되면서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일례로 이천서씨문헌고에 나오는 '은혜갚은 사슴 이야기'는 이천 서씨 집안 시조인 서신일과 관련된 이야기로, 역사적인 사실과 이야기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콩트와 동화의 형태로 진화를 한 좋은 예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충섭이 〈설봉문화〉에 우리지역의 전설과 민담을 연재한 것을 묶어 〈이섭대천 옛날이야기〉로 콩트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2003년에는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두근두근 이천고을 동화〉가 이동준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2009년에는 최윤정에 의해 〈효양산 은혜갚은 사슴 이야기〉가 동화로 만들어 소개하기도 하였다.[5)]

3. 이천의 인물

이천의 옛이야기에는 역사적 인물도 많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단연 서희 선생과 그 일가의 이야기는 이천의 운명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로 세간에 알려졌다. 주목을 일컬어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이 있듯 서희 선생은 천년의 세월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우리 고장 이천과 더불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살아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에도 태사(太師)라는 벼슬이 추증되고 왕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조선조에서도 충신으로 배양되고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동사강목, 휘찬여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설봉서원기 등 여러 역사책에서 충신의 귀감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서희 선생님이 문화적으로 거듭 태어나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 서희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 개최, 2004년에는 서희 선생 기념사업회, 2007년에는 서희선양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서희 선생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로 인해 2008년에는 학술용역을 주어 서희 선양사업 중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2009년 '서희 주간' 설정,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에 서희 동상 건립,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공모, 초·중·고교생 백일장 공모 사업,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십 학술대회 개최, 2010년 서희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화한 조형물 제작, 2012년 서희 선양 한-중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3년 서희 테마파크 조성 등 서희 선생을 이천의 상징이자 문화적 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선생의 교육적 면모를 추출해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서희 선생을 일컬어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송한 것은 과장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 빛은 더욱 빛날 것이다.

복천이라는 호가 이천을 관통하는 복하천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천이라는 지명이 서씨 일가의 도움으로 물을 건너 새로운 왕조를 만든 태조 왕건이 주역에 나오는 '이섭대천(利涉大川)'에서 따온 이천이라는 지명을 하사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천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서희 선생은 역사적 고증만으로도 풍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고 게다가 시조인 서신일과 관련된 시조신화는 더욱 더 흥미를 자아낸다. 이는 마치 세종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만듦으로써 선조인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태종의 업

5)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2009)「동화로 읽는 경기도 설화」연세기획,283~292쪽

적을 칭송한 것과 같이 선대와 후대 사이의 전후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결은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 소설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서사시, 연극과 뮤지컬, 테마 여행, 체험학습 프로그램 , 캐릭터 상품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승우는 이천을 대표하는 인물인 서희 선생의 행적을 시로 표현하였는데 좀 더 문학적 측면을 보완하여 서씨 씨족신화와 연관을 짓는다면 서사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徐熙 선생을 생각하며[6)]

徐熙 선생은 고려조 으뜸된 자리에서
문무(文武)를 겸비한
지용(智勇)의 대장부이어라

서기 943年
겨레의 대임(大任) 부여받고
여기 利川에서 태어났네

될성싶은 떡잎인가
18세 갑과(甲科) 합격이라니
이 고장 큰 인물로 예견되었네

적장(敵將) 동경유수 소손녕(蕭遜寧)
80만 대군으로 항복을 종용하며
고구려 구토(舊土)가 자기네 것이란다

고려 조정은 갈피를 못 잡고
나약한 신하들은 오로지 구명도생(救命圖生)
투항(投降) 아니면 할지(割地)라네

임금은 드디어 후자(後者)로 기울을 때
公이 감연히 나선다. 땅을 떼어주다니!
천추(千秋)의 웃음거리 되려는가
제가 담판하겠나이다.
단신(單身)으로
적진에 뛰어드네

6) 이천시, (1998),이천의 충효열 인물전,20~21쪽

어디서 그 용기 나왔을까
죽음을 초월한 사생관(死生觀)
오직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

널찍한 이마에
당당한 위풍(威風)으로
적장과 대좌(對坐)하니
공은 바로 『利川사람』이었네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라
그대 앉아 있는 만주 땅도
우리 영토임을 모른단 말이냐

큰 눈 부릅뜨고 무지함을 꾸짖으며
한 편으론 완곡히 달래니
적장이 겸연쩍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이후 강동 6주 회복하고
압록강 어귀까지 밀어 올렸으니
그 배짱도 일품 아닌가

또한 어느 날인가
時政을 상소한 간관(諫官)에게
죄(罪)주려는 임금에 맞서
오히려 賞을 주어야 한다며 버티나니

그 기개(氣槪) 드높구나
의(義)를 지키는 大人의 풍모
古今과 東西에 몇이나 있겠는가

머리는 냉철(冷徹)하면서도
또한 단충(丹衷)의 가슴 가졌나니
아! 公은 자랑스런 利川人이어라

4. 우리의 옛이야기,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의 부활을 꿈꾸며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문학의 원천은 그리스로마 신화이다. 그

의 4대 비극 중 '햄릿'의 내용은 작가가 독창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닌, 이미 있는 전설과 민담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세계는 지금 이야기 전쟁 중이다. 이야기란 아직 틀이 정해지지 않은 근본적인 소스로서, 콘텐츠의 소재이자 뼈대다. 이야기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의 하나요, 끊임없이 변형과 재창조의 길을 걸어왔다.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의 설화처럼 말로 시작되었으나,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동화나 소설, 만화 같은 글과 그림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현수단만 달라졌을 뿐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도 이야기는 소설, 동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뮤지컬 전시, 음악, 웹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심지어 광고, 디자인, 상품, 기업경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즉,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상품'이다. 이야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강국들은 좋은 이야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인 자신들이 정복한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의 딸 이야기를 가져다가 〈포카 혼다스〉를 만들고,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의 설화를 가져다가 〈뮬란〉을 만들었으며, 아메리카 밀림을 소재로 〈라이온 킹〉을 만들었다. 90년대 중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성공은 교훈과 재미가 결합된 역사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97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금까지 4억부 이상이 팔렸으며 해리포터가 거둬들인 매출은 300조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학작품으로의 상상력과 결합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엄청난 경제적 효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서희 선생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희를 주제로한 서사시나 소설 공모, 뮤지컬 만들기,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 동화나 애니메이션 공모 등을 시행해 봄직하다. 우리 지역의 옛이야기를 클릭만 하면 구연해주는 미디어의 개발도 좋을 듯하다.

우리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하여 「설봉문화」에 콩트 형식으로 연재한 이충섭의 시도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서희 선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화책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킨다면 미디어, 곧 매체의 종류와 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질 것이다. 콘텐츠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야기이다. 모든 문화콘텐츠는 원작, 곧 이야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커다란 원천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고 앞으로는 영화, 게임, 캐릭터, 관광 상품으로 계속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 조성되는 '서희 테마파크'가 문화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홍익기획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9, 동화로 읽는 경기도 설화, 연세기획

이천문화원, 2010, 이천의 옛이야기, 홍익기획

이천문화원, 2010, 이천의 인물, 홍익기획

이천시, 1998, 이천의 충효열 인물전, 이천시청

설봉문화, 2012, 이천의 전설, 홍익기획

손동인, 1978, 이천군 설성면의 전래동화

손동인, 1975, 안성군 이죽면의 전래동화

여 백

제4장

향토사 연구활동 및 이천시지 편찬

이 인 수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사무국장

1. 이천지역의 향토사 연구활동

1) 이천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조사연구활동

2) 이천향토사연구회와 기타 연구활동

3) 향토사연구가들의 활동

2. 이천시지 편찬과정

1) 이천시지편찬위의 조직 및 구성

2) 이천시지 편찬사업 개요

3) 편찬과정

4) 편찬사업 결과

제4장 향토사 연구활동 및 이천시지 편찬

1. 이천지역의 향토사 연구활동

1) 이천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조사연구활동

이천지역의 향토사 연구활동을 논하자면 제일 먼저 이천문화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천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향토사 및 향토문화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활동이 이천지역 향토사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시군지 편찬은 물론, 읍면 문화유적 민속자료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와 자료집 발간, 향토사연구회의 활동 등이 모두 문화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지역문화와 예술활동이 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사회에서 향토사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생소하기만 한 분야였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노력이 시작되면서 지방문화의 뿌리찾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향토사 정립이란 과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1979년부터 이천문화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향토문화자료 조사사업은 이천지방 향토사 연구에 시발점이었다. 이 사업은 그때까지 한번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관내의 문화재, 민속자료, 지명유래, 전설, 민담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리가 일차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료조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향토사 관련 자료들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1982년에 첫 보고서를 낸 『이천군 향토문화자료총람집』 제1집 향토사·유적편에서는 3년 동안의 조사과정을 거쳐 파악된 130여 종의 유적 유물 소개와 함께, 그때까지 수집된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천군의 지역사편이 처음 수록되었다. 향토문화자료총람집 발간은 그후 제2집 민속놀이·민속신앙편, 제3집 지명유래편, 제4집 전설편으로 이어지면서, 1983년부터 시작된 『이천군지』 편찬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긴한 자료가 되었다.

『이천군지』 편찬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뒤늦게나마 향토사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때까지 수집된 빈약하기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편을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야만 했는데, 당시 편집책임을 맡았던 필자는 편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자료수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자료수집과 원고집필까지 주어진 시간이 채 1년도 못됐던 편찬작업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그렇게 1984년 말에 나온 이천군지는 당연히 책의 내용이 크게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이천군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탄생한 모

임이 1985년에 발족된 이천향토사연구회이다.

이천문화원은 총람집 발간에 이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몇가지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성과를 묶은 여섯권의 향토문화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제1집『거북놀이』와 제2집『자채농요』자료집은 이천의 고유한 민속놀이와 민요 발굴을 목적으로 각각 전문가에게 자료조사를 의뢰하여 만들어진 성과물이었다. 이천거북놀이와 자채농요가 모두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배경에는 문화원이 펴낸 보고서가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것이다. 1986년에 나온 제3집『설봉산성지 학술조사보고』는 이천의 대표적인 성곽유적인 설봉산성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를 연세대학교 선사연구실에 의뢰하여 만들어 졌다.

향토문화조사보고서 제4집『이천의 의병과 3·1운동』과 제5집『향토사연구』는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모은 책이며, 제6집『이천도예촌』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이천도자기의 역사와 도예촌의 형성 및 발전과정, 현황 등을 문화원에서 직접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그밖에도 문화원은 1989년부터 매년 2회씩 발행하는『설봉문화』를 통해 향토사 관련 글이나 자료, 소식 등을 꾸준히 발굴 소개하고, 1992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연구실에 의뢰하여 신둔면 지역에 산재된 지석묘 지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천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사업은 1996년부터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읍면별 문화유적 민속자료조사사업을 시작하고, 이듬해인 1997년부터『이천시지』편찬작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읍면별 민속자료 조사사업은 1996년『이천시 백사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빠짐없이 조사사업이 추진되어 2002년까지 모두 10개 읍면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엮어져 나왔다. 이 보고서들은 이천시지 편찬과정에서 문화재와 민속분야는 물론이고, 각종 읍면동 현황파악에 없어서는 안될 요긴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천시지 편찬사업은 1997년 1월 이천시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찬업무가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결정되지만,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것은 이 해 11월 문화원내에 편찬위원회 사무실이 문을 열게 되면서부터 였다. 신배섭, 이인수, 임혜봉 3인의 공동집필로 1996년에 펴낸『이천독립운동사』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업으로 이루어 졌지만 역시 이천시지 근세사와 인물편에 없어서는 안될 요긴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천시지 편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사업은 시지편찬으로 촛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었다. 1997년 이천의 세거성씨와 집성촌을 조사 정리한『이천의 인맥』과 관찬 읍지류들을 한데 묶은『이천읍지』영인본 발행을 시작으로, 각종 자료조사와 관내 소장 문서조사, 개인생활과 가족, 마을지 조사, 정치의식 설문조사 등이 잇달아 이루어 졌다. 읍면별 민속조사사업이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시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

1999년은 이천의 대표적 인물인 서희 서거 1000주년을 맞는 해였다. 1000주기 기념사업으로 서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이천문화원은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와 손잡고 서희의 업적 발굴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주제로 11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는, 국난극복의 위대한 인물이며 특히 우리나라 외교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그동안의 연구실적이 미흡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서희와 관련된 아홉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서희 추모학술대회는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1년 『이천시지』 편찬 이후 이천문화원의 향토사 조사연구사업은 이천학술총서 발간으로 이어진다. 2002년 『이천의 옛노래』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간된 학술총서는 『이천의 민간신앙』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이천사람들의 생활과 의례』 『이천의 문화재』 『이천의 옛이야기』 『확 뜯어 고쳐야할 이 땅의 이름들』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이천의 인물』 등 모두 아홉권이다. 문화원은 또 2012년부터 『설봉문화』지를 통해 설봉산, 시장 등 이천의 자연, 또는 인문환경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향토의 다양한 모습을 집중 조명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표 1〉 이천문화원 향토문화 관련 간행도서 목록

번호	도 서 명	간행년	비 고
1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1집	1982	〈향토사·유적편〉 이인수 편저
2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2집	1983	〈민속놀이·민속신앙편〉 이인수
3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3집	1984	〈지명유래편〉 이인수
4	국난극복의 슬기 서희	1984	이인수
5	이천군향토문화자료총람 제4집	1985	〈전 설 편〉 이인수
6	향토문화조사보고서 1.	1985	〈이천의 민속, 거북놀이〉 하주성 편
7	향토문화조사보고서 2.	1986	〈이천자채농요〉 조사자- 김순제
8	향토문화조사보고서 3.	1986	〈설봉산성지 학술조사보고서〉연세대 선사연구실
9	향토문화조사보고서 4.	1987	〈이천의 의병과 3·1운동〉 이천향토사연구회 편
10	향토문화조사보고서 5.	1988	〈향토문화연구〉 향토사연구회 편
11	향토문화조사보고서 6.	1994	〈이천도예촌〉
12	백사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1996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발간
13	고향의 연가	1996	출향문인 애향시 모음집
14	이천독립운동사	1996	이천시 공동발간, 신배섭·이인수·임혜봉 공저
15	이천의 인맥	1997	이인수
16	율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1997	강남대 공동발간
17	설성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1997	강남대 공동발간
18	이천시읍지	1997	홍순석·허홍범 편저
19	마장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1998	강남대 공동발간

번호	도 서 명	간행년	비 고
20	부발읍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1998	강남대 공동발간
21	마장면 이치리 절터 조사보고서	1998	고구려연구회 공동발간
22	장호원읍문화유적 구전자료보고서	1999	강남대 공동발간
23	장호원읍 민속조사보고서	1999	강남대 공동발간
24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	2000	서희서거1000주기 논문집, 고구려연구회 공동발간
25	신둔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2000	강남대 공동발간
26	호법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2001	강남대 공동발간
27	대월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2002	강남대 공동발간
28	모가면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2002	강남대 공동발간
29	이천의 민간신앙	2003	이천학술총서② 홍순석 편저
30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2004	이천학술총서③ 홍순석
31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2004	서희선생기념사업회 공동발간, 이인수 편저
32	이천사람들의 생활과 의례	2005	이천학술총서④ 홍순석·정연학
33	이천의 문화재	2006	이천학술총서⑤ 홍순석·이인수
34	이천거북놀이	2006	김종대·이승수·임장혁 공저
35	이천의 옛이야기	2007	이천학술총서⑥ 홍순석·이인수
36	확 뜯어 고쳐야할 이땅의 이름들	2008	이천학술총서⑦ 이인수
37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2009	이천학술총서⑧ 이인수
38	이천의 인물	2010	이천학술총서⑨ 이인수

2) 이천향토사연구회와 기타 연구활동

1984년 말에 발간된 『이천군지』는 부족한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향토사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향토사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동연구와 발표를 통해 고장의 향토사를 정립해 나가는 연구모임을 만들 것을 맨 처음 제안한 인물은 당시 양정학원 김동옥 이사장이었다. 1985년 4월 이천문화원에서 첫 모임을 갖고 발족된 이천향토사연구회는 회장 김동옥, 간사 이인수외 회원으로는 나기창, 나우용, 한승남, 김영식, 신배섭 등이 참여했다. 이천향토사연구회는 매월 1회 꼴로 정기모임을 갖고 활동했으며, 주로 향토사와 관련된 발표와 자료교환, 토론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 졌다.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문화재 현지답사를 나가는 일도 있었다.

향토사 분야만 해도 선사시대부터 근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먼저 시기적으로 가까운 근대사에서도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사 연구에 치중하기로 하고, 자료수집과 집필을 분담하여 1987년에 나온 첫 번째 성과물이 문화원 발행 『이천의 의병활동과 3·1운동』이다. 이 책에는 신배섭의 「갑오 동학 농민혁명과 이천」 김동옥의 「한말 의병운동과 이천」 이인수의 「이천과 3·1독립운동」 등 세 편의 연구논문을 수록하였다. 이듬해인 1988년에는 『향토사연구』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펴냈다. 이번에는 특별한 연구주제 없이 「이

천지방의 향토교육사(김동옥)」「이천지방 마을이름의 분석(이인수)」「이천군 율면의 구비설화 분석고(신배섭)」「이천고을의 선생안(한승남)」 등 네 편의 논문과 말미에는 향토사연표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1989년에는 김동옥 회장이 을미년 이천 의병장 출신으로 기독교 전도사가 되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순국한 구연영 의사의 행적을 발굴 정리하여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 전기집을 펴내기도 했다.

이천향토사연구회는 두 권의 논문집을 낸 후 얼마동안 활동이 뜸하다가, 전광홍, 진두현, 허섭, 최의광 등으로 회원을 보강하고 1992년 2월 회지인 『향맥(鄕脈)』 창간호를 내면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향맥은 년 2회 발간으로 1995년 5월까지 6집을 펴냈다. 1994년 8월에 나온 향맥 제5호에는 「애련정(愛蓮亭)에 대하여」란 김동옥 회장의 글이 실려 있다. 이 무렵은 이천지역이 이천경찰서의 이전문제로 시끄러울 때였다. 이천경찰서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이천 관아터를 청사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경찰서 청사를 옮기기 위해 안흥지(安興池)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다. 연못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싼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안흥지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이며 주민들의 휴식처였으므로 주민들 대부분이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상대가 경찰서이고 보니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보다못한 김동옥 회장이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펼쳤고 향토사연구회 회원들도 여기에 적극 동조하였다. 향맥에 실린 글은 안흥지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었다. 다행이도 반대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어 이천경찰서가 이전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안흥지가 시민들 곁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1996년에는 신배섭, 이인수, 임혜봉 3인의 공동집필로 『이천독립운동사』가 엮어져 나왔다.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한 이 책은 이천향토사연구회의 꾸준한 활동이 없었다면 햇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1997년 말부터 『이천시지』 편찬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천향토사연구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사실상 힘들어 졌다. 5년간에 걸친 진통 끝에 이천시지가 햇빛을 보고 나서도 이천향토사연구회는 김동옥 회장의 노환 등 내부사정으로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2007년에 결성된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는 이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희 업적발굴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 학술대회와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향토사 관련 자료발굴 및 조사연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서희 서거 1010주기를 맞은 2008년 10월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으며, 자료집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을 펴내기도 했다. 이 책에는 「한국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박한남), 「인물사로서의 서희에 대한 재평가」(이재범) 등 여섯편의 발표논문과 「서희 업적 선양의 역사와 미래」(이인수)에 관한 글을 수록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공모 시상식겸 발표회를 갖고 자료집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을

펴냈으며, 2012년 2월에는 이천아트홀에서 서희와 고려초기 동북아 정세 및 여·요전쟁에 관한 중국측 자료발굴을 위한 「서희 선양 한·중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던 최효식이 2003년 3월 고향인 대월면 송라리에 세운 송라문화연구원도 매년 한차례씩 『이천문화』를 펴내면서 향토사 연구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03년 8월에 나온 이천문화 창간호를 보면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이천」(신형식), 「이천 설성산성 발굴성과와 초축국(初築國) 문제」(김호준), 「이천의 석불상」(김길웅) 등을 비롯한 14편의 향토사 관련 글과 수필 등을 수록하였다.

3) 향토사연구가들의 활동

〈김동옥〉

교육학 박사, 기독교 목사이며 교육자. 양정학원을 설립하여 교장과 이사장으로 이천지역 여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향토사 연구분야에도 남다른 열의가 있어 이천향토사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천군지와 이천시지 편찬위원을 역임하였다. 이수흥의사기념사업회 회장, 임형순의병장 순국추모비건립위원회 위원장, 구연영·구정서 순국추모비건립위원회 회장으로 이천출신 순국선열들의 기념상과 기념비 건립 등을 통한 현창사업에도 앞장섰다. 저서로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이천지방감리교회사』와 회지 『향맥』 등을 통해 다수의 향토사 관련 글을 남겼다.

〈이인수〉

향토사학자,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천도자기축제, 설봉문화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같은 문화예술축제를 기획 운영하였다.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천군지 편집위원, 이수흥의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천향토사연구회 간사, 이천시지명위원회위원, 이천시문화재심의위원 등을 역임. 1997년부터 이천시지 편찬위원회 상임위원겸 집필위원으로 있으면서 시지편찬을 주도하였다. 저서로는 『이천의 인맥』『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확 뜯어 고쳐야할 이 땅의 이름들』『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이천의 인물』『이천독립운동사(공저)』『이천의 문화재(공저)』『이천의 옛이야기(공저)』와 다수의 향토사 관련 글이 있다.

〈한승남〉

향토사연구가로 이천시 문화공보실장, 호법면장 등을 역임. 이천군지 편집위원, 이천시지 편찬실무위원겸 집필위원,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천시지명위원회위원, 이천시문화재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설봉서원 원장으로 유학진흥

및 전통문화와 예절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신문에 장기간 인물과 지명연구에 관한 글을 연재했으며 저서로는『마마 빼앗긴 땅이름이요』가 있다.

〈신배섭〉

문학박사, 시인, 이천양정여중 교사이며 이천시지 편찬실무위원 겸 집필위원, 이천향토사연구회 회원, 이천지명위원회 위원 등으로 향토사 연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이천독립운동사(공저)』『안흥지와 애련정(공저)』과 시집『학교안 동물원』『나는 지금 바다로 간다』 외에 다수의 향토사 관련 글이 있다.

〈김종연〉

향토사연구가, 지리교사로 전국 지리교사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천시문화유적 선정위원, 이천시전통문화유산 보호위원으로「촌락의 구조속에 투영된 풍수유교사상」을 비롯한 마을풍수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지역신문에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살아있는 지리교과서』가 있다.

〈최효식〉

이천 대월면 송라리 출생.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 2003년부터 고향인 송라리에 송라문화연구원을 개설하여 매년 1회씩『이천문화』발간을 통해 향토사 관련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경주부의 임진항쟁사』『조선후기 군제사연구』『한국향토사 연구』『임진왜란기 영남의병 연구』『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임혜봉〉

승려이며 이천시 사음동 부석암 주지. 불교사와 친일문제 연구가로 활동하며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이천시지 편찬실무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서로『이천불교문화』『이천독립운동사(공저)』와『불교사 100장면』『친일승려 108인』『다성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맥』『망국대신 송병준 평전』 등 다수가 있다.

2. 이천시지 편찬과정

1) 이천시지편찬위의 조직 및 구성

1996년 이천시의 승격과 함께 새로운 시지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천시지 편찬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 1997년 1월「이천시지편찬위원회」가 정식 발족되고 편찬업무가 이천문화원 위탁사업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편찬업무가 시작된 것은 이 해 11월 문화원 사무국 안에 시지편찬위원회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되고, 전담 직원이 배치되면서 부터였다.

「이천시지편찬위원회」의 하위기구로 「이천시지편찬실무위원회」가 1997년 5월에 구성되어 시지편찬 전단계 작업으로『이천상의 10년사』편찬 및『이천시읍지』를 우선 발간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천상공회의소의 위탁사업으로 추진된『이천상의 10년사』발간을 통해 경제분야의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게 됐고, 각 시대별 관찬 읍지류들을 영인본으로 묶은『이천시읍지』역시 지역사와 인물 문화재편 원고집필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자료였다. 1996년부터 문화원이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추진해온 읍면별 문화유적 민속자료조사도, 문화재와 민속분야는 물론 각종 읍면동 현황파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당시까지 파악된 이천시지 관련자료들 중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선사시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편찬업무가 막 시작된 1997년 때마침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이천시의 의뢰를 받아 관내 문화유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필자는 조사단을 만나 특히 미진한 선사유적분야의 중점조사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이듬해에 나온『이천시의 문화유적』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새로 조사된 선사유적 자료들로 채워져서 시지 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천시지편찬위원회」는 이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편찬위원회의 조직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학계와 지역사회 원로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자문역할 외에 실질적인 편찬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향토사, 또는 출판이나 행정업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계획수립과 편찬업무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했다. 실제로 실무위원회는 30회가 넘는 협의모임을 통해 목차선정 작업에서부터 원고집필과 교열 교정, 편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교열위원회」와「편집위원회」는 각각 교열 교정 단계와 편집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자료조사 과정에서 조사원, 내부 원고교정 과정에서 교정위원들을 필요에 따라 위촉 운용했으며, 모든 편찬업무는 상임위원이 통괄하고 그 밑에 상임연구원 2명을 임용하여 실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

위 원 장 : 유 승 우(이천시장)
부위원장 : 강 용 석(부시장)
위　　원 : 강기필(전임- 최운학, 유준열), 김동옥, 유승국, 이강우(전임- 나기창),
이성무, 이은구, 이인수, 전광홍, 양보경(전임- 정태선), 허섭(전임- 정규인),

상임위원 : 이 인 수
상임연구원 : 허홍범, 황병주

▫ **이천시지편찬실무위원회** ▫

위　　원 : 신배섭, 임혜봉, 이인수, 조명호, 최의광, 한승남, 홍순석

2) 이천시지 편찬사업 개요

(1) 편찬 개요

1996년 이천시가 입안해서 편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던 〈이천시지편찬 기본계획안〉은 필요한 자료조사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총 예산규모 3억 3천만원도 산출근거가 불확실했는데, 우선 200자 원고지 1매당 1,700원~3,000원으로 책정한 원고료만 해도 이 예산으로는 집필의뢰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원고료를 타 시군지 수준인 7,000원~10,000원으로 올리는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으며, 다른 예산과 세부적인 편찬계획도 현실성 있게 다시 다듬어서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야 했다.

결국 연구원들이 각 시군의 사례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수정계획을 실무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1997년 12월 제3차 편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편찬일정** : 1997년 11월 ~ 2000년 12월(3년간)
② **사업예산** : 6억 5천만원
③ **판 형(예정)** : 4 × 6배판 양장본/소프트본 제책(製冊)
분 량 : 전7권, 총 3,600쪽(25,000매)
제작부수 : 총 1,000부(단 제1권과 제2권편은 500부 추가제작)
– 이천시지 CD-ROM 및 이천의 민요 CD 추가 제작
④ **편찬범위**
가. 서술 대상지역 : 조선시대의 이천도호부와 음죽현을 포괄한 지역
나. 역대인물 선정기준
– 생거(生居); 이천 출신인물
우거(寓居); 귀양인물, 이천관련 글을 남긴 인물
영거(永居); 관내에 묘소가 있는 인물
– 관직은 당상관 이상/근대인물은 한국전쟁 이전 활동인물로 한정
다. 성씨 : 관적 성씨는 모두 수록, 주요성씨는 85년 기준 100가구 이상 거주 성씨

라. 선생안(先生案) : 문헌상 확인 가능 인물 명단을 발굴 수록

마. 기념물, 기념비 : 전근대 선정비, 효열비, 기념조각, 기념상, 기타 기념물

⑵ 편찬 중점사항

① 과거 타 시군지 제작방식을 탈피하여 분야별 7권으로 분책

가. 시지의 열람 및 이용과 보관이 편리함.

나. 『이천시지』의 특색을 중점 부각할 수 있음.

다. 『제1권』 역사편, 『제2권』 인물과 문화재편 등 이용빈도가 높은 분야는 수량을 여유 있게 제작해서 보급판 용도로 활용.

② 『제6권』 마을지편을 독립분야로 편찬.

가. 내용상 개인생활사와 가족사, 마을지를 통해 현재 이천시의 생활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소개함으로써 타 시군지에서는 볼 수 없던 살아있는 지역 모습을 부각시킴.

나.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최근의 생활사, 미시사 범주의 서술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재의 모습을 담음.

③ 『제1권』 역사편 서술 시한은 1980년대 말까지를 현대사에 포함하여 기술.

가. 자료에 근거한 서술, 각종 문헌, 사진자료 수록. 구술자료(인터뷰) 적극 활용.

나. 1980년대 말까지 서술하여 지역의 근현대사를 정립.

④ 새로운 형태, 참신한 방식의 시사 편찬.

가. 자료 나열방식에서 벗어나 분석적인 내용으로 집필.

나. 쉬운 용어, 쉬운 문체로 원고를 집필, 젊은 세대들도 쉽게 이해 유도.

다. 사진, 도표, 참신한 편집기법을 도입하여 '읽는 시지'에서 '보는 시지'로 꾸밈.

라. 지도, 고문서, 시사연표, 편찬사 등의 자료집을 별도 제작하여 활용.

⑤ 시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이천시지 CD-ROM』과 『이천의 일과 노래 CD』를 각각 별도로 제작.

⑶ 각 권별 분책(分冊) 내용

〈제1권〉 자연과 역사 : 총설, 고대 및 중세사, 근 현대사

총설에서는 연혁 및 자연, 인문환경을 서술하고, 역사편은 선사시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이천의 역사를 서술한다.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천 지역민의 활동을 충실히 담아 서술한다.

〈제2권〉 인물과 문화유산 : 성씨, 인물, 문화재

이천지역의 성씨(貫籍/世居성씨)와 인물(生居/寓居/永居인물)을 서술하고, 문화재편은 성격에 따라 분류, 서술하여 지역의 주요인물, 성씨의 사적과 흐름을 고찰하고, 문화유산의 특징과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기념물 포함)

〈제3권〉 민속과 구비전승 : 생산풍습과 민속, 지명유래

읍·면·동별 민속조사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의식주 생활, 생활풍습, 일생의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구비전승, 풍수지리, 민간신앙, 방언 및 지명유래를 서술한다.

〈제4권〉 정치와 경제 : 정치, 행정, 경제

1990년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를 서술하되 정확한 현황 제시와 함께 분석적인 시각에서 서술한다.

〈제5권〉 사회와 문화 : 사회, 문화, 교육, 체육

199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각 분야를 서술하되 도자문화를 별도 항목으로 하여 지역문화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제6권〉 개인생활과 마을 : 개인생활사, 가족사, 마을지

개인생활사(성별/연령/지역별 안배), 가족사(대가족/중가족/핵가족 등), 마을지(농촌마을/도농복합/도예촌 등 3개 마을)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서술되지 않는 생활사, 미시사 범주의 서술로, 이천지역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아낸다.

〈제7권〉 자료집 : 각종 지도, 고문서, 금석문, 연표, 관련문헌 목록, 편찬사

이천지역사 서술의 기본자료 제시, 편찬과정에서의 발굴자료(고문서, 근현대 가계 소장문서 해제), 이천시지 편찬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4) 추진계획

- **1차년도(1998년)** :
  편찬계획 수립 → 기존 성과 수집,검토 →각종 자료조사(사회단체 현황조사 등)
- **2차년도(1999년)** :
  세부목차 확정 → 항목별 집필자 선정 및 집필의뢰 → 원고집필 → 원고취합
- **3차년도(2000년)** :
  원고교정/교열 → 감수 → 편집/인쇄/제본작업 → 출판기념회 → 발송/배포

이미 선보인 다른 시군지들이 대부분 방대한 내용을 2~3권에 담아 백과사전처럼 두껍게 펴내는 탓에, 이용하기도 매우 불편하거니와 보관에도 문제가 있다. 『이천시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독립된 내용을 담아 7권의 책을 내기로 했다. 과거에 타 시군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6권 개인생활과 마을』편을 펴내기로 한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고장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 역시, 지역사를 기록하는 향토지의 임무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지편찬 당시의 이천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분야가 도자문화였다. 따라서 『제5권 사회와 문화』편에 도자문화 부분을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격상함으로써 변화와 발전 과정을 짚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역사편의 서술시점도 최대한 끌어 올려서 1980년대까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인물편의 서술범위는 한국전쟁 이전으로 제한하였다. 현대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좀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치편은 대다수의 시군지들이 역대 각종 선거 결과에 관한 수치나열과 당선자 소개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사실 그 무렵까지도 우리나라의 지역정치란 각종 선거관련 내용 밖에는 다룰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할애해서 「이천시민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치편 원고가 만들어 졌다. 『제7권 자료집』 말미에 이천시지편찬사를 수록한 것은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천시지가 엮어져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지편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 편찬위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이천시지』만의 특징이었다.

3) 편찬과정

(1) 편찬 준비과정(1997.12 ~ 1999.6)

편찬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필자 선정까지의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1997.12 ~ 1998. 3 : 편찬계획(96년) 수정계획안 작성 및 제출, 시지편찬 3개년 계획 수립
1998. 1 ~ 1998. 3 : 기존 지역사 관련 성과물 수집 및 검토작업
1998. 3 ~ 1998. 4 : 표본 시군지 목차분석- 8개 시군지 체제, 편집, 내용 분석
1998. 5 ~ 1998. 8 : 표본 시군지 세부목차 분석- 최근 6개 시군지의 분야별 내용분석
1998. 9 ~ 1999. 2 : 이천시지 대목차 작성
1999. 3 ~ 1999. 6 : 세부목차 작성 및 집필지침서 작성
1999. 3 ~ 1999.10 : 항목별 집필위원 선정작업

시지 발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목차 선정작업이다. 기본목차는 마치 건축물의 설계도와도 같아서 시지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목차선정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후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상임연구원들이 최근에 나온 타 시군지들의 목차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마련한 기본목차 안을 놓

고, 실무위원회에서 이를 지역현황 및 특성과 실정에 맞게 계속 검토하고 다듬어서 최종 기본 목차 안을 확정지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집필지침서를 만들고, 이천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자료, 보고서 등 기존 성과물들에 대한 수집 검토 및 정리작업과 각종 자료조사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갔다.

(2) 원고집필 및 교열, 교정과정(1999.7 ~ 2001.1)

집필자 선정작업 또한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우선 집필 항목별로 담겨질 내용들을 검토해서 지역인사들을 포함한 내부 집필원고와 외주원고로 구분하고, 외부 집필자는 각 분야의 능력있는 젊은 전공자들을 대폭 참여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설봉산성 발굴조사나 문화원의 읍면별 민속자료조사 같은 경우, 해당분야의 발굴 또는 조사담당자들을 집필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조사 성과와 현장경험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외부 집필자 75명, 내부집필자 24명 등 모두 99명의 집필위원을 선정하여 계약을 맺고, 1999년 7월부터 원고 집필에 들어갔다. 원고료의 경우도 외부 집필자를 무조건 예우하지 않고 기본 원고료를 7,000원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자료조사비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편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의 원고료는 기본 원고료만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찬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제일 애를 먹는 부분이 원고접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천시지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집필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집필기한을 충실하게 지켜준 필자는 매우 드물었다. 원고 제출이 1년 이상이나 늦어진 경우도 적지 않아서 결국 편집을 비롯한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제출된 원고 분량이 의뢰한 매수보다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도 실무자들을 크게 골탕먹이는 부분이다. 이천시지 역시 80% 이상이 규정된 매수를 초과했으며, 심한 경우는 2~3배까지 초과한 예도 있었다. 원고 매수가 당초 계획에서 10~20%만 초과된다고 해도 별도의 책 한 권 분량이 늘어나는 탓에 편집과 인쇄과정은 물론 예산문제까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상임위원과 연구원을 포함한 5인의 교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열위원들의 임무는 시지원고로서의 내용은 적절한가, 기호사용이나 표기방법 등이 지필지침서에 얼마나 충실한가 등을 살피고, 특히 외부 집필자들이 지역사정에 어두운 탓에 지나치기 쉬운 지명, 인명이나 서술상의 오류 등을 바로잡는 일이다. 지나친 매수 초과나 내용상의 문제가 자체 수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필자에게 원고를 다시 보내 수정작업을 하도록 했다.

교열과정을 끝낸 원고들은 다시 2차에 걸친 자체 교정작업을 거쳤다. 1차 교정은 문법이나 문장에 밝은 초등학교 교사 5인에게 위촉하여 1개월 동안 실시했고, 2차 교정작업은 교정

전문가 3인이 40일간 작업에 임했다.

(3) 편집 및 출판과정(2001.2 ~ 2001.12)

원고 교정, 교열이 시지의 내용을 다듬는 과정이라면 편집과 인쇄는 옷을 입히는 과정이어서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책의 외모가 결정된다. 과거의 읽는 시지에서 보는 시지로, 보기에 편한 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편찬실무위원회의 방침이었다. 이천시지는 시작 때부터 편집과 인쇄를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에 따른 일반관례대로 라면 가격면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기는 쉽지만 가장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힘들여서 준비한 재료들을 놓고, 이를 짜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자고 한 것이 편집과 인쇄를 따로 떼어놓는 방법이었다.

원고접수가 예정보다도 1년 가까이 늦어진 탓에 서둘러서 2001년 초 편집·디자인 업체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개공모에 들어갔다. 공모에는 모두 7개의 편집회사가 참여하여, 이들이 제출한 시안본과 회사소개서, 작업진행서를 놓고 실무위원회가 1차 심의를 벌린 결과 3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2차 심의는 1월 29일 편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1차 심의를 통과한 3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사업설명회 결과를 놓고 이를 평가하여 최종 1개 업체를 결정하였다. 편집은 2월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의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예정되었으나, 결국 2개월이 연장되어 7월말에 가서야 겨우 완성될 수 있었다.

편집과정에 앞서 역사편 원고는 이성무 편찬위원(국사편찬위원장)으로부터, 성씨·인물편은 김동옥, 전광홍 편찬위원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내용 못지않게 외양도 중요한 만큼 이천시지에는 1,600장이 넘는 사진자료와 많은 도면, 도표, 지도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사진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에 쫓기다 보니 자료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2월초부터 본격적인 편집업무가 시작되었다. 사진은 당시 이천신문 부국장이던 이규선, 이천시청 문화공보실 송석원의 도움이 컸다. 편집 디자인의 문제는 홍순석 실무위원을 통해 강남대학교 출판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편집과정에서 특히 지나치게 매수가 초과된 역사편 원고와 내용상 중복되거나 일반론적인 서술이 지나치게 많은 일부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편집교정본에 대한 점검은 편집팀과 교열팀의 3차에 걸친 교정 교열과정을 거쳐, 다음의 실무위원과 연구원들이 권별로 업무분담을 통해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1권〉 자연과 역사 : 이인수
〈제2권〉 인물과 문화유산 : 한승남
〈제3권〉 민속과 구비전승 : 홍순석

〈제4권〉 정치와 경제 : 조명호, 김영길
〈제5권〉 사회와 문화 : 신배섭
〈제6권〉 개인생활과 마을 : 허홍범
〈제7권〉 자료집 : 허홍범
표지 및 내지디자인 등 : 민명숙

시지편찬의 최종관문인 인쇄업체 선정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기간이 1년이나 늦어져서 시일이 촉박하다보니 편집업체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일을 두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차선책으로 출판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추천을 의뢰하여 인쇄업체를 선정하였다. 인쇄과정에서 몇가지 우여곡절 끝에 편찬업무가 시작된지 만 4년만인 2001년 12월, 드디어 이천시지가 햇빛을 보게 되었다.

〈표 2〉 이천시지 편찬과련 각종자료조사 내용

1. 표본시군지 목차 및 내용분석(1988,1 ~ 8월)
(1) 8개 시군지 체제, 편집, 내용분석
- 검토대상 : 이천(84), 시흥(89), 안산(90), 파주(95), 과천(93), 서산(98), 광주(93,97)
(2) 표본 시군지 세부목차 분석- 최근 발행 6개 시군지 분야별 내용분석 및 검토

2. 사료조사(1차 : 1998,4 ~6월/ 2차 : 1999,1 ~ 3월)
(1) 중앙기관 소장자료 조사- 규장각, 장서각,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2) 문헌조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검색,
고종·순종실록, 한말 · 일제시대 신문기사, 잡지 검색
(3) 근현대 잡지, 신문기사 검색

3. 읍면별 문화유적 민속자료조사(1966 ~ 현재)
(1) 문화원,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추진 읍면별 자료조사사업
- 2001년 6월 현재 백사면 등 8개 읍면보고서 발간

4. 관내 주요 기관단체 조사(1999,6 ~ 10월)
- 관공서, 학교, 주요 사회단체 300여 개 대상

5. 이천시민 정치의식 설문조사(1999,8 ~ 10월)
- 4권 정치편 서술을 위한 이천시민 정치의식 조사 : 500명 대상

6. 개인사·가족사·마을지 조사(1999,11 ~ 2000,6)
(1) 직업별, 성별, 지역별 표본추출 10명의 개인생활사 조사
(2) 가족사 : 관내 거주 소가족, 중가족, 대가족 3개 가족생활사 조사
(3) 마을지 집필대상 3개 마을 조사(장호원 나래리, 부발 아미리, 신둔 수광리)

7. 관내 가문 소장문서 조사

(1) 부발읍 풍천 임씨가 : 간찰첩(簡札帖) 7책, 고신류(告身類) 500여 종
(2) 부발읍 파평 윤씨가 : 근대 생활사 자료(영수증, 매장허가서 등) 300여 종
(3) 중리동 경주 김씨가 : 근현대 생활사 자료 30여 종
(4) 마장면 여주 이씨가 : 전근대 생활사 자료 50여 종
(5) 신둔면 전의 이씨가 : 전근대 고신류 등 200여 종
(6) 율 면 장수 황씨가 : 근현대 생활사 자료 30여 종
* 부발읍 풍천임씨가와 파평윤씨가 문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협조로 MF 촬영

8. 관내 산성조사 및 불교문화재 조사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협조

9. 수시 현장 확인조사 : 전기간

- 문화재, 인물, 묘역, 금석문, 기념물 등 분야별 현장조사

4) 편찬사업 결과

『이천시지』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읽는 시지에서 보는 시지'로 꾸민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과거의 향토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몇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가 시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백과사전식의 크고 두꺼운 형태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세분한 7권의 책을 내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개인생활과 마을』편을 통해 역시 타 시군지들이 시도한 적이 없는 동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개인생활의 대상으로는 농업인 3명(일반농업, 과수업, 담배농업), 학생 1명(고교생), 자영업자 1명, 여성노동자 1명, 주부 1명 등 7명을 선정했고, 가족은 대가족, 중가족, 핵가족 각 1가족씩 3개의 가족, 마을은 농촌지역(장호원읍 나래리), 도농복합지역(부발읍 아미리), 도예촌(신둔면 수광리)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언젠가 다시 이천시지를 만들고자 할 때 같은 대상들을 놓고 다시 한번 같은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재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까지 고려하였다.

제5권『사회와 문화』편에서는 도예문화를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천도예촌의 역사와 현황, 이천도자기축제의 탄생과 변천과정 등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이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코드라 할 수 있는 도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보는 시지를 만들기 위해 사진과 지도, 도면 등의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난 세월의 사진이나 자료들은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번 시지를 만들면서 옛 문헌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의 빈곤함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천시지 역사편은 워낙 원고 분량이 크게 늘어난 탓도 있었지만, 향토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론적인 서술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이천시지의 집필자는 당초에는 99명이었다가 사고 1명을 제외하고 98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내용이 충실한 원고를 써주신 분들도 적지 않지만 반면 추진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들

을 문장만 연결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발표된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사람들도 있었다. 시지 원고는 논문과 달라서 사람들이 우선 쉽게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집필자들이 시지원고와 학술논문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특히 심한 내용의 원고에는 일부 손질을 가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글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대부분의 원고들을 있는 그대로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천시지는 필자에 따라서는 학술논문집 같은 냄새가 난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보는 시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 역시 결국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천시지』는 책이 만들어진 뒤 여러 곳으로부터 시군지 편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경우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편집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칭찬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좀 더 다듬고 보충해야 할 부분들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고, 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도 적지 않았다. 시지가 7권이나 되는 분량이면서도 지면제약이나 자료 부족으로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이천의 금석문집 같은 것은 후속작업을 통해서라도 꼭 정리돼야 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천시지』의 중요 내용을 이야기 형식을 풀어 쓴 청소년을 위한 향토지 발간도 필요하다.

이천시지 편찬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이천시에 이천시지편찬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10년 후 ,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시지편찬을 추진한다면 십중팔구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던 개인이던 우리 주변을 보면 기록보존이나 향토사 연구 같은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평소부터 자료수집과 기록보존에 관심을 기울여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좋은 시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5장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으로 보는 이천의 문화시민운동

목 혜 균 /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실무위원

1. 이천오층석탑의 역사적 배경
2.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의 태동과 환수위원회의 결성
3. 이천오층석탑 환수 범시민운동 전개
4. 이천오층석탑 환수 범시민운동의 현실과 향후 과제
   1) 일본과 오오쿠라 재단의 입장
   2) 성급한 시민, 과정보다 결과를 독촉하는 사회
   3) 시민운동과 조직 운영의 어려움

제5장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으로 보는 이천의 문화시민운동

1. 이천오층석탑의 역사적 배경

현재 일본 도쿄의 오오쿠라 슈코칸(大倉集古館)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은 아름다운 조형미를 자랑하는 국보급의 가치를 가진 석탑이다. 제작 연대나 유래를 확인할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천오층석탑의 제작양식이 "신라시대 석탑의 특성과 고려시대 석탑의 특성을 함께 보이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성 된지 1천여 년은 족히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천오층석탑과 관련된 거의 최초의 기록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고적조사위원회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1916년 9월 2일~13일에 광주, 이천, 여주지역의 유물을 조사하고 작성하여 1918년에 발간한 유물유적조사보고서의 기록이다. 보고서에 "망현산 기슭 이천향교 서남쪽으로 인접해 있는 약간 높은 대상의 언덕 위에 두 개의 석탑이 마주 보고 있었는데 하나는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갔다. 총독부박물관으로 이전해간 탑지를 시굴해 본 결과 화염문이 들어있는 와편(기와조각)을 찾았는데, 석탑의 건립이 사찰의 건립보다 뒤에 이루어졌고 사명 및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림1〉 오오쿠라슈코칸의 이천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이 이천 땅이 아닌 바다 건너 일본의 도쿄로 옮겨지게 된 비극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10년 불법적 한일합병 후 5년이 지난 1915년 자신들이 조선을 발전시킨 공적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며 산업박람회인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조선왕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에 박람회장을 꾸미고 전국의 우수한 문화

재를 모아 약탈해 갔다. 이 때 '이천오층석탑'과 '안흥사지오층석탑'[1]이 이천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지는 수난을 겪었고 이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천오층석탑'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오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 1837~1928)는 을사늑약 이전부터 조선에 들어와 대규모 토목, 광업, 은행, 건축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인물이다. 그는 경복궁 해체 사업에 관여하면서 조선의 왕세자가 거처하며 왕이 되기 위해 공부하던 '자선당'을 일본 도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통째로 뜯어가 '조선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수집한 문화재들을 전시한다. 1917년에는 재단법인 오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을 설립하고 1918년 5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이는 일본 최초의 사설미술관으로 개관 당시 미술품이 3,692점이었고 서적이 1만 5,600여권에 달했다고 한다. 1918년 7월에는 총독부의 하세가와 총독에게 일본으로 뜯어간 자선당(조선관)과 어울릴 조선의 문화재로 평양 정거장 앞에 있던 7층석탑의 반출을 요청한다.



〈그림2〉 일본으로 반출된 자선당



〈그림3〉 경복궁을 훼손한 조선물산공진회장 조감도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보는 눈이 많아 부담스러워 평양석탑의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오쿠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들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당시 이천 향교 근처에서 경복궁으로 옮겨 놓았던 이천오층석탑을 사진과 함께 추천하였고, 오오쿠라 측이 이에 응하게 된다. 오오쿠라 슈코칸이 석탑 양도에 관한 정식 요청서를 조선총독 앞으로 제출하고, 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는 회의소집도 생략한 채 서면결의만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1918년 10월 24일자로 즉각 승인, 반출 허가를 해준다. 총독부는 이천오층석탑의 반출을 허가하였다는 서신을 오오쿠라 슈코칸에 보내고, 인천세관장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 "조선의 고미술을 연구시키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반출의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또한, 평안남도 대동군 율리면에 있던 팔각석탑(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석탑)을 반출해 현재 이천오층석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반출해 갔는지는 명확하지

1) 경복궁에 있던 '안흥사지오층석탑'은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놓여있다.

않다.

이천오층석탑의 반출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오오쿠라 측이 주고받았던 서신이 남아 있어 일본에서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수십만 점의 우리 문화재들 중에서 반출근거가 명확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례로 그 가치 또한 남다르다 하겠다.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에서 이천오층석탑을 일본으로 빼앗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갖다 붙이며 반출 근거를 만들고 있는지 그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오오쿠라 슈코칸의 제1, 제2, 제3 진열관과, 경복궁에서 옮겨간 조선관(자선당) 중에서 제1진열관 서화부와 불에 타지 않은 석조물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화재로 이천오층석탑이 피해를 본 흔적은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의 태동과 환수위원회의 결성

1949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는 맥아더사령부를 통해 슈코칸 정원에 남아있던 석탑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위한 사전 회담 중에는 이천오층석탑이 반환 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본 측이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오오쿠라 슈코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반환문화재 목록에는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천오층석탑이 세상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일본의 교민을 위한 한글잡지인 『월간 아리랑』 1996년 1월호에, "슈코칸 정원을 장식한 30여점의 유물들 가운데 11점이 한국문화재"라는 기사가 나고, 이 기사를 서울신문이 인용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이천문화원이 발행하는 『설봉문화』 제 30호에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이라는 글로 이천오층석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면서 이천지역에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2005년 9월 이천신문에서 이천오층석탑을 다룬 기사를 도쿄에 거주하던 이천출신 김창진 씨가 접하고 오오쿠라 슈코칸을 찾아가 이천오층석탑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2005년 12월 이천을 방문한 김창진은 이천문화원, 이천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 등을 비롯한 이천시민에게 환수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06년 5월에는 MBC '느낌표'[2]에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 일본 도쿄의 오오쿠라 슈코칸 뒤뜰에 숨기듯 세워 놓았던 이천오층석탑과 율리사지 팔각오층석탑을 소개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천오층석탑의 존재를 접하게 된 이천시민이 많아지면서 이천오층석탑을 되찾아오자는 이야기가 나

2) MBC '느낌표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74434' 코너로 당시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공식집계 숫자인 74434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몽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왔지만 당시 이천에는 문화재반환과 환수운동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2006년 10월 이천의제 21에서 문화강좌를 개설해 김정동 목원대 교수와 황평우 소장, 이천문화원 이인수 국장 등이 강의를 하였고, 2007년 10월 '이천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찾기'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이천의 지역문화 발전과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2008년 3월에는 이천의제21, 이천문화원, 이천예총, 이천YMCA,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원회가 모여 (가칭)'이천향교오층석탑 되찾기 범시민운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천향교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이섭대천문화제 기간중 '약탈문화재 사진전시회'를 열고, 교민 김창진씨와의 간담회를 거쳐 2008년 5월 14일~16일에는 관계자들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이천오층석탑을 직접 살펴보고 돌아온다.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에서 다시 약탈문화재 사진전을 여는 등 활동이 이어졌으며, 6월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향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기도 했다.

2008년 6월 25일 범시민운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이상구 이천문화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이천시의회 방문, 설봉산별빛축제에서 약탈문화재 사진전 개최 등 이천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8월 16일에는 22개 단체가 참여하여 '(가칭)망현산오층석탑 되찾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세계도자센터에서 개최하고,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결성식을 통해 공식적인 시민운동의 시작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2008년 9월 이상구 상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오오쿠라 슈코칸 관계자를 만났으며, 임시총회를 열어 그동안 '망현산오층석탑', 또는 '향교방오층석탑'으로 불리웠던 석탑의 이름을 '이천오층석탑'으로 확정하였다.[3)]

3. 이천오층석탑 환수 범시민운동 전개

2008년 8월 정식으로 발족한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는 오오쿠라 슈코칸에 이천오층석탑을 반환해 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 이에 오오쿠라 슈코칸 측은 "자신들이 석탑을 잘 보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의 문화재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며 거부의 사를 밝힌다.[4)] 오오쿠라 측이 반환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들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방일

3) '망현산오층석탑'은 탑이 세워져 있던 망현산에서 이름을 딴 것이며, '향교방오층석탑'이란 명칭은 한반도의 문화재 수탈을 목적으로 총독부의 명령에 의해 이 땅의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한 보고서에 남아 있는 명칭으로 "향교 근처의 오층석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환수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4) 수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개인과 미술관, 박물관들은 일본정부를 방패막이로 삼아 문화재 환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도 66,824점의 한국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에는 이천오층석탑이 돌아오면 세워질 자리를 이천아트홀 앞 광장에 마련하였다. 또한 이천오층석탑의 정확한 보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석탑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3D로 실측하여 입체적인 조사활동을 펼친 사례이다. 일본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반환요망서를 오오쿠라 슈코칸 측에 전달하고, 일본어, 영어 등의 홍보물도 제작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해 나갔다.

일본에 있는 우리문화재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본에서 반환을 지지하고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이천오층석탑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 내 양심적 활동가인 기꾸치 히데아키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강경한 활동보다는 슈코칸 측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쪽으로 환수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이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한다.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확대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환수위원회 참여단체는 33개로 늘어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천시민과 관내의 모든 기관, 기업체는 물론 도자기축제, 쌀축제 등 이천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축제와 행사를 찾아다니며, 이천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천오층석탑과 해외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와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2009년 8월, 이천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서명운동은 1년여 만인 2010년 6월 경, 109,017명의 공식집계로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올려 성공리에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그 결과가 국내 언론에 소개 되었다. 국내에서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과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마이니치, 아사히, NHK 등 일본의 언론들도 관심을 표명하며 취재에 나서 관련 소식을 일본에 전하기 시작한다. 2010년 7월



〈그림4〉 환수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

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삼십만 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문화재가 도굴과 약탈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반출되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개인과 미술관, 박물관들은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의 반환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109,017명의 환수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반환 요청서를 오오쿠라 슈코칸 측에 전달하면서 다시한번 반환을 요청하였다.[5] 8월에는 '이천오층석탑 환수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이천시청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이어 10월 29일 이천시장과 오오쿠라 문화재단 이사장이 다시 만나 "이천오층석탑은 현재 개인소유가 아닌 문화재단의 소유"라며 "일본의 지정 문화재로서 국가의 문화재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는 만큼 국가 간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가 반환을 허용할 경우 한국에 돌려줄 수 있다"는 과거보다는 조금 진전된 답변을 듣기도 한다.

2011년 1월에는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2기 상임위원장으로 조명호 이천문화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서명운동에 이어 시민의 참여와 함께 연속성을 갖는 행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중 설봉산 영월암에서 추진해온 탑돌이 행사를 석탑 반환의 염원을 담은 공동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탑돌이문화제를 준비하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되자, 4월 23일 열린 첫 번째 행사를 '이천오층석탑 환수염원 및 일본 대재난 희생자 위령을 위한 탑돌이 문화제'란 이름으로 진행하여 '한·일 양국 국민의 참된 화합과 교류를 구현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이천오층석탑의 일부가 뒤틀린 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보를 통해 전해지자, 환수위원회는 5월 23일에 일본 현지를 찾아 이천오층석탑의 훼손상태를 확인한 뒤 공동조사와 복구 및 반환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슈코칸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오오쿠라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수리하겠다."며 환수위원회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4월부터는 탑돌이문화제 때 열린 사생대회 및 백일장 수상작들에 대한 전시, 홍보가 진행되었고 수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을 직접 방문하는 행사도 마련되었다. 또한 일본의 국회와 정부, 오오쿠라 슈코칸 등에 이천오층석탑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엽서를 제작, 시민들이 직접 작성하여 일본으로 보내는 '희망엽서 보내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는 우호적 협상과 함께 오오쿠라 재단 측을 압박하는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통해 오오쿠라 재단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박물관협회 총회를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방문하여 퍼포먼스와 환수지지 서명운동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여

5) 슈코칸 측의 반응은 처음에는 "100여 년을 자신들이 보관했고, 어디에 있든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석탑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 "서명부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가, 그 내용을 한국에 돌아가 알리겠다고 하자 서명부를 펼쳐보며 "석탑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이천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장과 오오쿠라 슈코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석탑 반환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남이었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명을 받는 운동을 통해 이슈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한일간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말았다. 국제적인 압력의 필요성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 방안과 버지니아주 한인회장과 연계를 위한 만남 등 해외에서의 활동을 모색하였으며 문화재 환수전문가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외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오쿠라 측에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아오던 양정여중 교정에 있는 3층 석탑에 대한 조사와 이축에 대한 사업도 진행해 나갔으며, 경기도에서 반출된 문화재인 시흥시의 독조도, 고양시의 팔각정, 이천시의 오층석탑 등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양시와 시흥시 등을 찾아 홍보를 진행하는 등 국내 단체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천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한 오층석탑 환수운동의 전국 홍보를 위해 진로소주병 상표광고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KT&G 이천지점과 청강문화산업대학의 협력으로 이천오층석탑 캐릭터공모전을 열어 수상작 전시회를 이천시청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열었다. 제일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과 이천오층석탑과 관련된 도자기 모자이크 벽화를 제작, 설봉공원으로 올라가는 관고동 마을 골목에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일본에서 환수운동을 돕는 네트워크의 아르미츠씨가 이천을 방문하여 유승우 국회의원 등과 만나는 교류활동을 시작으로, 고양시 문화재 제자리찾기 단체 등과의 다양한 교류가 이어졌다. 관내에서는 백일장, 사생대회 개최에 이어 5월 12일에 제3회 탑돌이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체와의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국외적으로는 오오쿠라 재단측과 5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또한 2012년 캐릭터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진 캐릭터를 활용한 이천오층석탑 홍보용 만화책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특히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교정에 있던 3층석탑을 양정학원과 이천시의 협조를 얻어 설봉공원의 이천시립박물관 야외 광장으로 이축한 것은 문화재 보존의 차원에서 적지 않은 성과였다. 2013년의 활동상 특징은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회의에서 이천지역의 국회의원이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이천오층석탑을 찾아가 오오쿠라 문화재단 관계자와 협의를 갖는 등의 활동을 펼쳐,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 졌다.

4. 이천오층석탑 환수 범시민운동의 현실과 향후 과제

이천오층석탑의 환수운동은 시민운동의 성격이 보이기는 하지만, 한일간 역사청산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화재 관련 협약 등이 함께 얽혀있어 일반적인 문화시민운동과는 많은 차이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시민운동이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1) 일본과 오오쿠라 재단의 입장

최근 들어 냉각된 한일관계는 상호 협력적이고 배려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도 쉽지 않은 협상 분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이유로 한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문화재청도 한일협정 때문에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문제를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협상의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오오쿠라 재단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이천오층석탑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언론에 재단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박물관협회가 반환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재단의 이사들도 협상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담당자들에게 주문을 했다는 말도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천오층석탑 하나만의 반환이 아닌 6만여 점이 넘는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해 간 문화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6)]

2) 성급한 시민, 과정보다 결과를 독촉하는 사회

환수위원회가 결성되고 벌써 6년째로 접어들었다. 일부 이천시민들은 환수운동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냐고 타박하듯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이천오층석탑이 이천을 떠난지는 100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범시민운동이다. 처음 3~4년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해가 갈수록 관심 있게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환운동은 중단없이 꾸준히 전개해 나가되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과 위주의 결과물에 허덕이다가는 정작 6만점이 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 오오쿠라 슈코칸 측은 이천오층석탑이 일본의 중요미술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정부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사유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된다, 안된다" 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던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오쿠라 슈코칸의 관계자가 일본정부에 지켜주지 않는다는 식의 항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오오쿠라 측도 중요미술품 지정에 대해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비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 오오쿠라 문화재단 이사회 내부에서도 석탑 반환에 부정적이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수준의 미술품으로 등가교환을 제시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들이 공식적으로 반출해간 문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천오층석탑은 돈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문화재가 아니다.

3) 시민운동과 조직 운영의 어려움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처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작한 시민운동이 아니라서 활동전략이나 홍보, 예산확보는 물론 법률적 해석이나 언어 문제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 자원봉사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전문가, 국제법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환수운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생겨나면서 예산지원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환수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국제법률, 사업예산 확보 방안과 자료수집 방법 등 환수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제6장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문화시민운동

이 석 진 / 이천문화원 이천문화 원정대

---

1.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태동 및 초기활동
2. 향문회의 활동 전개
3. 향문회의 활동 성과
4. 향후 활동 방향

제6장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문화시민운동

1.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태동 및 초기활동

지역의 문화재를 파악하고 잘 보호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지역의 교육자 출신들을 중심으로 22명이 의지를 모아 결국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이하 향문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2005년 9월 최초의 창립총회가 열려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고, 김응호 회장, 이종설 부회장, 김영식 총무를 필두로 한 임원이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첫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천시 관내의 문화재 답사방향과 일자를 결정하였다. 이 모임에는 이천문화원장 및 사무국장도 참석하였다.

같은 달, '이천시 소재 문화재 및 향토유적 답사'라는 명칭으로 향문회의 첫 외부활동이 시작되었는데, 답사 루트는 다음과 같았다. 이천백송 – 반룡송 – 영원사 – 육괴정 – 지석묘 – 태평흥국마애보살상 – 김조순 묘역. 향문회원들 외에도 이천문화원장, 사무국장, 김규식 이천신문기자, 김정자 해설사가 함께 하여 총 15명이 첫 답사에 참가하였다. 2차 답사는 다음달 10월 실시되었는데, 설성산성 – 선읍리 석불입상 – 어석리 석불입상 – 어재연장군 생가 – 산내리 권균묘역 –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 대포동 석조여래입상의 루트로 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날은 1차 참석자 외에도 박석호 이천저널기자가 동행하였다.

10월에는 답사 외에도 월전미술관을 단체 견학을 하였는데, 이는 지역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관심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식의 발현으로 순차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1월 3차 답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봉산성 – 영월암 – 관고동 5층석탑 – 법왕정사 – 향교 –애련정 – 갈산동 입상석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회의 답사를 통하여 21개소의 문화재 또는 유적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지역에서 파악하는 주요 국가지정 / 도지정 문화재와 향토유적 및 전통사찰이 총망라되어 점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해 12월 향문회는 이천중앙신협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3회의 답사를 통한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관리보존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소견 발표를 각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다.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문화재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는 주인의식, 그리고 퇴임교육자들의 열정적인 사회적 봉사의식, 지역선배로서의 애향심 등이 어우러져 시작된 향문회는 문화원의 적절한 지원과 방향설정 등에 힘입어 지역의 의식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민활동으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첫 해의 활동은 지역문화재를 파악하고 직접 목도하는

단계였으나, 이후 향문회는 탐방 이후 현장점검 결과를 시 관계자에게 건의하여 시정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 그리고 타지역 문화재를 탐방하여 문화재 관리의 전국적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사문화탐방 활동',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특강, 세미나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키는 '교육활동',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려 지역정신을 세우는 '선양활동' 등으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혀나간다.

2. 향문회의 활동 전개

1) 2006년

이듬해 2006년 1월 월례회의는 정기총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2005년 활동경과를 보고하였고, 당시 문화재 및 향토유적답사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종합적인 내용이 발표 및 토의되었다. 첫 지역문화재 답사를 단일조 3권역 3일로 시행하던 것을 4개조 4권역 1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모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회비 납부제가 도입되었다.

2월 월례회의에서는 향문회 활동을 위한 기본방침이 심의되었고, 김창진 재일교포의 "향교앞 오층석탑" 일본반출 경위 및 반환청구의 역사적 당위성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을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는 향문회의 문화재 점검활동이 지역 전체의 적극적 문화재 보호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3월 월례회의에서는 조별 권역별 문화재 현장점검 일정을 결정하였고, 또한 타시도 문화재 관리보존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 답사지를 결정하였다. 첫 지역으로 경북 영주지역이 선정되었다. 같은 달 문화재 점검 및 정화활동이 있었고, 이어 5월 첫 외부 역사문화탐방활동을 계획대로 실시하였다. 영주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등) 과 부석사 (무량수전





등)를 탐방하였는데, 현지에서 권화자 문화유산해설사가 동행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도왔다.

6월에는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정화활동을 벌였고, 9월에는 국립박물관, 백범기념관, 남산공원 일원 등을 견학하였고, 10월에는 설봉산성을 방문하여 주변 정화활동을 벌였다. 미복원 산성부분과 산책로 주변의 초목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문화재에 더 안전하고 쾌적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07년



2007년에는 1월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송라문화연구원장 최효식 교수(동국대 사학과)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임진왜란과 의병에 대한 주제의 강연을 청취하였고, 3월에는 다산목민교육원에서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유승국 박사의 강연을 수강하였다. 4월에는 문화원 주관의 경북 문경 일원 문화탐방을 동행하였고, 미란다 호텔에서 개최된 이천시민포럼 주관의 유승국박사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여 한국민족문화 전통의 정체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청취하였다.

5월에는 2개조로 구성하여 지역문화재 2개 권역을 방문화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원의 충남 서산 지역 문화탐방에 참가하여 그 지역의 문화재 보존 및 발굴작업에 대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였는데, 조성옥 문화해설사가 현장해설에 참여하였다. 6월에는 다산목민교육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전남 강진 일원의 다산 유적지를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에는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하였고, 이어 9월에는 월전미술관 및 설봉서원을 탐방하였다.

10월에는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주관의 열린사회 복지문화교육 포럼에 참석하여 5층석탑 반환운동의 현장에 함께하였다. 또한 추계 문화재 현장점검활동이 있었고, 그 후속 조치로 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향문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해당 과의 과장, 팀장 및 담당직원이 동석하였다. 11월에는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에 참가하였다. 또한 문화원과 함께 한 강원도 강릉 역사문화탐방을 통하여 오죽헌, 허난설헌 생가터 및 기념관, 허균 생가터, 허균 시비, 선교장 등을 견학하였다.

3) 2008년

2008년 1월을 맞이해서는 설봉산성 부근 칼바위에서 문화원 새해맞이 행사를 함께 하였고, 2월에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참가하여 연날리기, 제기차기, 달집태우기 등을 함께 하였다. 미란다 호텔에서 열린 이천시민포럼 초청강연에 참석하였는데, 대한민국 60년사를 주제로 한 한국역사 문화원장 이석무박사의 강연을 청취하였다. 3월에는 설봉공원에서 집결하여 설봉산성과 영월암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후 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이교관 과장과 박회자 팀장을 만나 상담을 하며 향문회의 현장점검 결과 및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설봉포럼, 이천포럼, YMCA가 공동 주관한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공약과 비전을 경청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4월에는 2개조 2권역 문화재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정례적인 춘계 점검활동의 기틀을 다졌고, 5월에는 문화원의 강원도 영월지역 역사문화탐방에 참가하여, 청령포, 장릉, 선돌, 산암마을 한반도지형, 요선정, 법흥사적멸보궁 등을 견학하였다. 6월에는 월전미술관에서 미술감상법에 관한 장학구 관장의 특강을 경청하였다. 7월에는 여주 금사면 주록리 숲속의 쉼터에서 자체 야유회를 실시하여, 단체의 친목 도모와 꾸준한 시민문화재보호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함양의 일환으로 채양석 세무회계사를 초청하여 세법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어 9월에는 월전미술관에서 향문회 회원인 한승남 선생이 직접 '지명이 간직한 이천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2개조로 구성하여 추계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시청의 문화재 관리 담당자인 박회자 팀장과 이강만 담당을 상담하며 향문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1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에 2년째 참가하였다. 12월에는 문화원의 경북 안동 지역 역사문화탐방에 참가하였는데, 이천 시립박물관의 이태호 학예연구사 전 일정을 함께 하며 해설을 하였고, 현장에서는 권숙희 해설사가 안내를 하며 도움을 주었다.

4) 2009년

2009년 1월에는 설봉산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같은 달, 향문회의 신년 상견례 겸 월례회의가 열린 월전미술관에 최효식 교수가 초빙되어 신미양요와 어재연장군을 주제의 특강이 실시되어 회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더욱 깊은 역사의식 고취의 시간을 가졌다. 2월에는 채양석 세무사를 초청하여 세법 특강을 시행하였고, 대보름날에는 문화원의 관련행사에 참석하였다.

3월에는 설봉산성과 영월암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청 문화관광과

를 방문하여 해당 과장과 팀장을 만나 면담하였다. 4월에는 2개조로 회원들을 편성하여 춘계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시청을 방문하여 관내 문화재 보호관리 전반에 관한 시정의 견을 전달하였는데, 특히 어재연 장군 생가에 관한 점검내용을 더욱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5월에는 어재연 장군의 광성보 전투 현장인 인천의 강화도 지역을 역사문화탐방지로 정하여 문화원과 함께 방문하였다. 양태부 강화문화원 사무국장이 함께 하며 현지 안내와 해설을 도왔는데, 강화역사관, 연미정, 부근리 고인돌, 용흥궁, 성공회 성당, 광성보, 초지진, 전등사 등을 방문하며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6월에는 이천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문화재 실습견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9월에는 이천 노인복지회관 방문하여 이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월전 장우성 화백의 민족적 예술성에 관한 유철화 선생의 특강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3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문화재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어재연 장군 생가터를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인천세계도시축제장을 방문하고, 인천대교를 답사하였으며, 쌀축제 행사장에서는 5층석탑 환수 서명운동 전개에 동참하였다. 11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경북봉화 지역의 역사문화를 탐방하였는데, 봉화지역의 대표적인 집성촌인 닭실마을을 방문하여 닭실박물관과 청암정을 견학하였고 부근의 청량산 청량사를 답사하였다. 12월에는 이천 시립박물관에서 세종실록에 나타난 이천의 역사를 주제로 이태호 학예연구사가 특강을 하였다.

5) 2010년

2010년 1월 신년인사 및 새해 연간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전년 결산 및 경과보고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3월에는 설봉산성과 영월암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전 회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2개 권역을 각각 총 점검하였고, 관외 문화재 탐방지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5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전남 담양 지역을 답사하며 역사문화탐방을 하였고, 또한 제24회 도자기축제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6월에는 시립박물관, 월전미술관, 서원을 견학하였고, 6월에는 다산 정약용 생가를 방문겸 향문회 자체 야유회를 실시했다. 9월에는 2개조를 편성하여 추계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서울의 경복궁과 남산 등의 고궁 견학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충남 부여 지역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 등을 견학하였다.

6) 2011년

2011년 2월에는 전년도 결산보고, 신년인사 및 행사계획 심의를 하였고, 3월에는 설봉산

성과 영월암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점검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건의를 하였다.

5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경남 창녕 지역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였는데, 현지에서 성창식 해설사와 김국진 창녕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와 해설로, 교동 고분군, 창녕 군립박물관, 진흥왕 척경비, 술정리 동 삼층석탑, 우포 늪지, 영산 만년교 등을 탐방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하였다. 이 곳에서는 풍남문, 전동성당, 경기전, 한옥마을, 전주국립박물관 등을 견학하였는데, 모영주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지에서 도움을 주었다.

7) 2012년

2012년 2월에는 전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채양석 감사의 세법에 관한 특강이 있었고, 3월에는 월전미술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새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 때, 안병길 회장이 선출되고, 이종룡 총무가 선출되었다. 채양석 감사는 연임되었다. 설봉산성과 영월암 문화재 현장점검이 있었고, 이후 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4월에는 2개조 편성으로 춘계 관내 문화재 현장점검이 있었고, 월전미술관에서 열린 월전 장우성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회에 참석하였다.

5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 황희 선생 유적지, 반구정, 화석정, 자운서원, 보광사, 영조생모 최씨어실각, 윤관장군묘소 등을 견학하였다. 이 탐방 때 현지의 김순자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맡았다. 6월 월례회의는 월전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는데, 문화도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이동준 문화원 사무국장의 특강이 개최되었다. 7월에는 자체 기획의 야유회 및 역사문화탐방이 시행되었는데, 여주 이포대교 전망대, 양평 파사성, 용문사, 양평역사관 탐방이 함께 이뤄졌다.

9월에는 추계 관내 문화재 현장점검이 실시되었는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개조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이후 시청방문과 시정건의가 있었다. 10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경북 경주 지역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는데, 이 때는 이천문화원 정회원들과 함께 문화나들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다. 오릉, 나정, 양산재, 남산 불곡 석불좌상, 탑곡 마애조상군, 미륵곡 석불좌상, 보리사 마애석불 등을 견학하였는데, 천명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도왔다.

8) 2013년

2013년 1월에는 설봉산 칼바위에서 문화원의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함께 하였고, 또한 여주교육청 곽수영 여주교육장 초청으로 여주 강천보 한강문화관 현장체험을 하였다. 3월에는 홍을 기리는 행복 극기복례위인을 주제로 이광희 선생의 특강을 개최하였고, 삼형제 바위를 경유한 영월암 문화재 현장점검을 하였다.

4월에는 회원들이 2개조로 나뉘어 관내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1조는 마장면 – 장암리 경유 호법 – 모가 – 소고리 – 대포동 – 장호원의 루트로 점검을 하였고, 2조는 설성산성 – 율면 – 어재연 장군 생가 – 장호원의 루트를 따랐다.

5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충북 음성 지역 역사문화탐방을 하였는데,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음성 품바축제, 진천 농다리, 종박물관 등을 관람하였다. 6월에는 영월암을 재방문하여 문화재 보전상태를 점검하였다.

10월에는 설봉공원 내 세계도자기축제를 관람하였는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전시장을 현지의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각국의 도자 코스별로 견학, 체험하였다. 11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강원 양구 지역 역사문화탐방을 하였는데, 박수근미술관, 두타연, 백석간 천적비, 을지전망대 등을 견학하였다.

3. 향문회의 활동 성과

창립 초기 이천 지역의 문화재와 유적지 파악을 마친 후, 이천 지역을 3개 또는 2개 권역으로 나눠 향문회 답사 인원을 3개조 또는 2개조가 각각 방문 점검하는 것으로 시행되다가, 2개 권역 2개조 활동으로 정착이 되었다. 대부분 최종 집결지는 율면 어재연 장군 생가로 결정되어 그 장소에서 당일 대담을 나눈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3~4회 또는 그 이상의 문화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상반기는 4월 무렵, 하반기는 9월 무렵 부근으로 정하여 전체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2006년 4월 2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한 후, 향문회 회원들이 작성한 답사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점검하였는지 알 수 있다. 어재연 장군 생가를 방문하고 기록한 4월 24일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에게 그대로 건의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반영 집행되었다.

[2006. 4. 24. 답사 보고서 중 일부]

- 어재연장군 생가: 제반시설과 보수한 면이 진중하지 못하고 경시한 부분이 많다. (날림 공사)
- 지붕 정면 전면, 내부지붕 일부가 바람에 이엉이 뒤집혀 볼썽사납다.(시에 건의)
- 지붕 전체에 새끼줄을 촘촘히 떠주어야 이엉을 보존할 수 있다.
- 뒤편 보수한 담장에 이엉이 3M 정도 벗겨졌다. (보수당시 시공자가 고정 막대를 설치하지 않음) (엄중문책 필요)

- 행낭부엌 보수 요망 - 솥 떼어 낸 자리 파손 및 주변 불결
- 행낭채 전면 모퉁이부분 (서까래) 누수
- 화장실 뒤쪽, 산밑으로 오물이 많이 쌓여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향문회가 점검한 현장의 실태를 보면, 해가 갈수록 개선이 되어, 이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실태가 미미하였던 2005년 시기와 비교하면, 2013년의 이천 지역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실태는 무척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인구의 증가, 시민문화의식의 고양, 국가/도/시의 각 관리역량의 강화 등 자연 진화적인 이유도 없지 않겠으나, 향문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정건의가 촉매재가 되어 문화재 관리와 보전이 더욱 가속적으로 양호해진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 어떤 보물도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과 세금의 스케일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천 지역에 산재하는 문화재와 유적의 보존은 향문회와 같은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보전활동 노력이 없었으면 공적 레벨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의 풍화와 속된 손길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훼손되어갔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문회 활동은 그 가치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향문회는 이천지역의 정신문화의 상징물을 온전히 지켜온 파수꾼이면서 지역의 얼을 가꾸고 세워온 선각자들이 분명하다. 또한 단체의 방향설정과 사업후원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이천문화원의 수고와 열정 또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4. 향후 활동 방향

향문회 설립 이후 10년째를 맞이한 지금, 단체의 문화재 보호활동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단순 문화재 보호활동 차원을 넘어, 지역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도 점차 확대 시행하였고,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한 학교 또는 다른 외부단체로의 전수 또는 전파활동을 시도하였고, 자체적인 문화해설사 양성의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원봉사 형식의 시민 모임으로서의 한계점 또한 없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 한국 전반적으로 형성된 시민문화의식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한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향문회와 더불어 문화원의 고민이 필요하고, 시 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면전환이 필요하기도 하다.

2014년 봄 문화원에서는 '인문학으로 이천 읽기'라는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어 향문회 일부 회원들과 일반 시민이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청강하였고,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거

쳐, 이런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 지역학에 대한 인식전환의 변곡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거친 다음 그들 중 일부가 '이천 문화 원정대'라고 하는 시민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이천의 보물을 직접 만나 보기였다. 그래서 설봉산성과 어재연장군 생가와 청백리 송정규 관찰사의 묘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착수한 일이 향문회의 10년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백서 형식의 활동집을 제작하기였다.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천문화원정대(이하 원정대)는 지역선배로서 향문회가 해온 과업을 학습하였고, 그 열정을 직접 목도하였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채비를 하고 있다.

향문회는 원정대와 함께 대담 및 회의를 수 차례 하면서, 그들의 활동방향을 점검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어느 정도 문화재 관리 및 보호활동이 시차원에서 궤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한다면, 그 다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활동으로서 적절할 것인지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원정대는 향문회 및 문화원과 많은 영감을 교환하며 지역에서 실천하는 인문학 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다. 그것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각 지역 문화재와 인근학교 매칭을 시켜 시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경기도 문화재 지킴이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호할 문화재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전 시민들의 기본적 문화재 소양의식을 함양시켜 시민문화의식을 성숙시켜 이천인으로서의 기본소양 중 하나로서 문화재 보호자가 되게끔 정신문화운동을 벌여나갈 수도 있다.

다사다난하고 급변하는 정치·역사적 환경에서 의연하게 생명력을 유지한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자신들의 아바타와 다름없다. 우리의 문화재는 이 땅을 밟고 살아온 선조들의 손길을 거쳐 전해지는 유전자가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면서 보물지도이다. 삶의 터전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가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아름다운 상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열정으로 오랜 활동을 해온 향문회 어르신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조용하지만 큰 자각과 실천의 귀감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7장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김 진 철 / 이천 송정중학교 교사

1. 이천의 무형문화재
2. 이천의 산성
3. 이천의 농업유적
4. 이천의 불교문화자산
5. 이천의 유교문화유산
6. 이천의 누정과 고택
7. 이천의 천연기념물
8. 이천 문화재의 향후 활용방안

제7장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전통적인 문화유산은 흔히 무형의 유산과 유형의 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천 지역에서도 다양한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발굴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유산들은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로서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흔적을 통해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며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하는 문화유산들에는 여러 분류가 있겠다. 우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무형의 문화유산들은 지역의 특색을 신체로, 기술로 표현하는 관계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수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승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맥이 끊기기 때문에 문화재의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하여 문화재가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하겠다.

1. 이천의 무형문화재

1) 거북놀이

이천에 있는 무형문화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자기와 함께 거북놀이를 들 수 있겠다. 거북놀이는 이천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충북 음성과 청주와 충주, 그리고 여주, 용인, 광주 등지에서 전승되었다. 이천의 거북놀이는 마장면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놀이과정과 기물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북놀이의 유래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문무왕과 관련이 있다는 설과 중국 전래설이 있으며, 본래 마을의 태평을 기원했으나, 점차 민속놀이로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북놀이는 충청남북도와 경기도의 내륙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천에서는 마장면에서 주로 전승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재배되던 수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거북놀이의 형태는 10대 중심의 남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행한다. 보통은 추석때 행해졌으나 장호원읍 송산 4리 산대마을은 정월 보름날 행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거북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추석날 차례를 지낸 후에 수수잎을 따 모으고, 점심 이후에 용마름을 틀어서 거북이를 만들고 저녁 무렵부터 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거북놀이는 주역인 거북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수잎을 주재료로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거북놀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거북놀이는 1972년 대월초등학교 김종린 교감에 의하여 발굴, 재현되었다. 대월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수활동이 전개되어 대중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1976년 본격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학문적 토대를 갖추었으며 '이천군 거북놀이보존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재현되었으며 거북놀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 거북놀이는 전승을 위해 각종 행사를 통해 재현되었으며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거북놀이의 발굴과 전승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고장의 문화적 활동을 발굴,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거북놀이는 이천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조상들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이러한 무형의 유산들이 전승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많은 민속놀이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존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형의 유산들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보존이 어렵다. 여러 민속놀이들은 이미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도 많다. 따라서 이를 전승하기 위해 놀이의 과정과 규칙이 망라된 책자를 각급 학교에 비치하고 교육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천시의 지원하에 이러한 전통놀이들이 교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천 시민만의 전통문화축제를 실행하는 것도 이러한 전통놀이 전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거북놀이의 경우는 이천 고유의 전통놀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교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북놀이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동시에 거북놀이가 가지는 전통적인 가치와 놀이의 절차를 책자로 만들어 비치하고, 일정 시기에 한 번씩 교육 순회를 한다면 전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하는 축제를 통해 거북놀이를 실행토록 협조하는 방법도 있다.

2) 지석묘

이천에는 많은 유형의 문화재들이 남아있다. 이천 지역에는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시대별 유적과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천은 삼국시대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지역이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영향을 고르게 받았으며, 통일된 이후의 신라는 물론 고려, 조선시대에도 쌀의 주요한 생산지로서 명성을 떨쳐왔던 지역이다. 이에 여러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가 존재하다.

지석묘는 고인돌을 의미한다. 이천에 있는 지석묘는 대표적인 남방식 지석묘이며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신둔면 도암리와 지석리, 남정리, 소정리, 백사면 현방리, 부발읍 신원리, 장호원읍 노탑리, 설성면 행죽리와 풍계리에 있다.

지석묘는 대표적인 선사 유물로서 별다른 기록이 없는 시대의 유물이기에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한 이천에는 지석묘가 많이 남아있는 편이어서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천이 선사시대에도 중요한 농경생활의 근거지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천지역의 농업활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농업은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를 연구하고 과거의 농법을 연구하여 미래의 신농법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지석묘를 활용하여 선사공원이나 선사체험학습관을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천의 산성

1) 설봉산성

사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적 제423호에 지정되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성의 둘레는 1,079m, 부성은 각각 530m, 330m의 크기를 지니고 있다. 설봉산 정상부와 정상부에서 뻗은 2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3개의 산성이 서로 연결되어 축조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박물관과 매장문화재연구소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지표조사와 1차, 2차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성인 설봉산성은 설봉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해발 325m의 봉우리 7부 능선을 중심으로 축조된 퇴뫼식 산성이다. 전체 고도는 남 서가 높고 북 동이 낮은 형상이다.

설봉산성은 토석혼축으로 계곡을 막아 쌓은 곳만 석성인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가 석성으로 축조하였음이 밝혀졌다. 저수조가 존재하였으나 860년대에는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봉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석성으로 주목되고 있다. 백제가 석성을 초축하였을 가능성은 토광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칼바위 주변의 평탄지에서는 50기의 토광이 조사되었다. 이 토광들에서는 다양한 철제류와 백제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백제토기와 양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4세기~5세기 후반의 유물로 추정된다. 설봉산성 내에는 제사유적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어 당시 상당히 격이 있는 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봉산성은 설봉산 등산로에 위치해 있어 등산객들을 통해 이천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등산로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하여 설봉산을 홍보하고 이천을 대표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천이 예전부터 군사적으

로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알리고 향토사를 연구하느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설성산성

설성산성은 장호원읍 선읍리 산115-1번지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76호로 지정되었다. 전체둘레가 1,095m이며 타원형의 석성이다. 발견된 유물들은 백체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편까지 다양하다.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되다가 폐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설성산성은 그 동안 신라에서 축조한 산성으로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도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계통의 유물도 상당수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울대 박물관의 조사에서 백제계통의 토기가 수습되었고 산성의 축조시기도 올려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인근의 설봉산성과 효양산성에서도 백제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거점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설성산성, 망이산성, 효양산성, 도드람 산성(저명산성), 진가리 토성 등 이천에는 여러 산성과 토성이 있다. 산성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여 이천에도 많은 산성들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천의 산성들은 대체로 삼국시대와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성들이다.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 이천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정황을 통해 산성과 토성의 유래와 연혁을 홍보하고 시청이나 관공서, 교육기관에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여 이천의 산성과 토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산성과 토성은 존재도 중요하지만 왜 이천에 이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알림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성들은 말 그대로 산에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활용하여 산성의 존재를 알리고, 이천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산성의 구조와 축성연대 등을 자세히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산성 자체를 등산과 관련된 콘텐츠로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겠다. 또한 산성들의 축성연대가 대체로 삼국시대까지 소급되는 만큼 이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산성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다.

산성들은 군사적인 목적이 우선인 건축물이다. 산성을 만든 목적과 이에 따른 당대의 이해관계를 흥미롭게 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등산객을 끌어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구성하여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로 재구성될 수 있다. 또한 역사와 관련된 단체나 학술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할 수 도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행사를 구

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성이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로 구성되는데 모티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성과 그 주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산성들이 그저 덩그러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오래된 유적들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마모되기 마련이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산에 위치해 있는 특성을 이용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산성들이 이천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3. 이천의 농업유적

1) 자점보

이천은 경기 동남부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이다. 이는 과거에도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농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만큼 공동체 의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천의 대표적인 농업유적이 장호원읍에 위치한 자점보이다. 장호원읍 오남리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중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자점보는 김자점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붙은 이름이다. 자점보 또는 자재미보로 불리우고 있다. 백족산 산중에 명당자리가 있다고 해서 김자점이 부친의 묘를 쓰기 위해 청미천을 가로질러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자점보는 지금도 그 형태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장호원 오남리 벌판에 물을 대는 중요한 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천은 21세기에도 쌀밥집으로 유명한 만큼 벼농사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명성에 전통을 더한다면 그 명성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천에는 다양한 농업관련 전통 문화가 살아 있다. 추수기의 놀이와 다양한 공동체의 놀이 문화가 있다. 이러한 문화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이천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하여 이천의 농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산업임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4. 이천의 불교문화유산

1) 영월암

이천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은 영월암이다. 영월암은 통일신라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유물로 보면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경에 창건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기록에는 영월암의 본명은 북악사로서 1774년(영조 50)에 낭규대사에 의해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찰의 명칭 또한 현재의 명칭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11년에 보은 스님이 다시 중건하였고, 1920년에는 주지인 유신암 스님이 극락전을 옮겨 세웠으며, 1937년에는 조언우 스님이 산신각을 중건하였고, 1941년에 김명칠 화상이 중건하여 현재의 사세를 갖추게 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중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영월암에는 대표적인 유물로 영월암 마애석불입상(보물 제822호)과 영월암 석탑,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대좌(향토유적 제3호) 등의 불교유적이 남아 있다.

2) 영원사

영원사는 원적산에 위치해 있으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퇴락했던 절을 1968년 주지 이선혜 비구니가 법당을 중수하였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영원사 석조약사여래좌상(향토유적 제12호)이 있다.

3) 신흥사

신흥사는 설성산성에 전하는 전설에 등장하고 있으며 신흥사 석불입상과 석불좌상, 석조보살입상 등의 유물이 있다.

그밖에도 보물 제982호인 장암리 태평흥국명 마애보살반가상과 안흥사지, 어석리 입상석불, 소고리 마애석불좌상, 관고동 오층석탑, 중리동 삼층석탑, 안흥사지 오층석탑 등의 많은 유물이 있으며, 이천오층석탑은 일제의 문화재 약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불교는 전통문화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에 종교로서 볼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천에도 다양한 불교문화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함께 호흡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최근의 콘텐츠 산업의 근간은 스토리 텔링이 중심에 있다. 이야기를 생산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그 지역 고유의 색이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서 유적과 유물이 만들어진다. 불교문화는 이천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재와 불교 관련 행사들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여러 불교 유적들은 다양한 전설이 있으며, 이러한 전설을 문화재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이천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는 애향심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천은 전 지역에 걸쳐 많은 불교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어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적 자산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이천에 있는 수많은 불교유산들은 지방의 불교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기반이 된 농업사회에서 불교라는 신앙이 가진 역할을 연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들이 불교 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을 통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풍속들을 발굴하고 복원, 전승하는 연구를 하는 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천의 유교문화유산

1) 이천향교

세종 때부터 도호부로 승격되어 비교적 번화한 고을에 속했던 이천에는 유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들도 상당수 남아있다. 그중 이천향교는 과거에 이 지역이 유교 교육의 거점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천향교는 지금으로 치면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이천향교는 현재 대성전·동무·서무·명륜당 등이 남아 있으며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다.

2) 설봉서원

본래 안흥동에 있던 것을 설봉호수 입구 우측으로 이건하였다. 설봉서원은 이천 유림들에 의하여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0년(고종 7)에 훼철되었다. 이천 서씨를 비롯한 4현의 후손들과 유림을 중심으로 설봉산 기슭에 복원을 추진하여 2007년 준공식을 가졌다. 설봉서원에서 모시는 인물 가운데 이천의 자랑스런 인물인 서희가 있다. 서희는 이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알고 있는 위인으로, 근래에 와서 서희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와 인물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홍보 효과

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3) 충장사

이천의 유명한 위인으로 어재연 장군이 있다. 어재연 장군은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진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충장사는 어재연 장군의 충성심을 기리는 사당으로 유교문화의 한 모습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당들은 위인들의 면모를 알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유교문화의 모습을 알리고 견학하는 장소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장사에는 어재연, 어재순 형제의 충신 정문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4) 집성사

신안 주씨의 시조로 추앙되는 주희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사당으로 장호원읍 이황 3히 부락 가운데 있다. 본래 각작골에 있었는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워지자 1920년대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사당은 1984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다. 사당 안에는 주자의 영정 1폭을 안치하고 있다. 본래 안치하였던 영정은 분실하고 1974년 성균관 명륜당에 봉안된 영정을 모사한 것이다.

5) 안충사

안충사는 광주 이씨들의 선조를 모신 사당으로 와현 2리 이종하씨 댁 뒤편에 있다. 1972년에 건립되었으며 사당 옆에 광주 이씨 묘역이 있다. 음력 10월 둘째 공휴일에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거란 80만 대군의 침략을 적장과의 담판으로 물리친 서희나, 신미양요 때 공성진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이재연 형제 등은 관련 문화유산들과 함께 훌륭한 이야기 꺼리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많은 유교적인 유산들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견학 코스로 개발한다거나, 이천의 유교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자료들을 만들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성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과 효와 관련된 유적이 많은 만큼 그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체험 코스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접하게 한다면 좋은 활용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묘역

이천에는 많은 인물들의 묘역이 존재한다. 묘역은 과거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조성된 것으

로 아무 곳에나 만들지 않는다. 조선조 후기 안동 김씨 족벌정치의 중심인물이었던 김조순과 김좌근의 묘도 이천에 있다. 안동 김씨들은 당대의 세도가로써 그 세가 왕을 능가하였다. 그런 인물들의 묘역이 이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풍수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적인 활용방안이 있겠다. 역사적인 인물들의 묘역을 대상으로 그 인물의 시대와 상황에 대한 설명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 단순히 인물의 묘역이 아니라 시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당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풍수학이 아직 그 기능을 하는 바 풍수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풍수학을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6. 이천의 누정과 고택

1) 어재연 장군 생가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진을 사수하다 순절한 어재연 장군의 생가로 율면 산성1리 74번지 돌안마을에 있다. 고래등 같은 명문가옥이 아니라, 과거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수수한 초가집 형태의 구조이지만, 조선후기의 가옥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는 탓에 중요민속자료 제127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어재연 장군의 생가는 팔성산 자락이 뒷면을 감싼 가운데 북서향으로 앉았으며, ㄱ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된 7칸짜리 안채를 일자집 사랑채와 광채가 ㄱ자형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어재연 장군 생가는 원래가 서울에 있었던 살림집을 뜯어다가 고스란히 옮겨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건너편에 어재연, 어재순 형제의 충신 정문을 모신 충장사가 있다.

2) 애련정

옛 문헌에 이천읍내에는 애련정이란 이름의 정자가 있었으니, 중종과 정조 등 임금들까지 이 정자를 찾아 경치를 감상한 기록을 남겼던 이천의 명소였다. 애련정은 이세보가 이천부사로 임명된 147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천의 명물이었던 애련정이 언제 없어지게 되었는지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정조조인 18세기 후반까지도 뚜렷하게 건재했던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 시기보다도 한참 세월이 지난 뒤인 한말 혼란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천시가 안흥지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면서 애련정 복원계획을 추진하여, 안흥지 복판에 있는 인공섬 위에 새 정자를 건립하고 1999년 6월 11일 준공식을 가졌다.

애련정은 이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에 온천공원이 조성되어 산책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시설 등이 운용되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질도 잘 관리되고 있는 편으로 지금과 같은 활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육괴정

이천의 백사면에는 예부터 터가 좋아 많은 유적들이 존재한다. 육괴정은 중종 시절의 조광조 등이 피해를 당했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이를 피해 낙향한 남당 엄용순이 건립했다고 한다. 처음에 초당이었으나 수차례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괴정이란 이름은 남당 선생이 정자 주변에 6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고 명명했던 것이다.

육괴정은 이천의 대표적인 고택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차례의 중수를 통해 잘 보존되고 있다. 고건축과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4) 내촌리 안동 김씨 가옥

당대의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의 가옥이다. 과거에는 99칸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담장과 행랑채가 모두 헐리어 없어지고 안채와 별채만 남아 있다. 세도가의 집인 만큼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 후대들은 관리가 벅차다는 이유로 건물을 팔아넘겨 사랑채와 행랑채가 뜯길 뻔할 정도였다. 다행히 지금의 모습이 보존되고 있으며 과거 대가집의 건축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규모가 축소된 것이니 가히 당시의 세도를 짐작할 수 있다. 안동 김씨는 조선 후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다. 주변에 세도정치 시기와 관련한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능하다면 당대의 민중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세도가와 민중들의 삶을 대비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7. 이천의 천연기념물

1) 백송

백송은 중국이 원산지로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자라고 있는 희귀종이다. 전국에 8그루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이천 백사면 신대리에 있다. 천연기념물 253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주변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라감사를 지낸 민달용의 묘를 이곳에 쓰고 후손들이

묘 앞에 기념으로 심을 것이라고 한다.

2) 반룡송

반룡송은 만년송, 만룡송이라고도 한다. 소나무는 모양이 특이하며 전국적으로 진귀한 나무다. 유래는 신라말 도선대사가 팔도 명당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전국에 5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의 하나라고 하며 백사면 도립리에 있다.

백송과 반룡송은 천연기념물인 만큼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이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백송과 반룡송은 잘 보전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이천을 상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천 홍보물에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8. 이천 문화재의 향후 활용방안

1) 미디어를 통한 활용

21세기는 20세기의 그것보다 미디어의 힘과 다양성이 커졌다. 일방적이었던 방송매체를 뛰어넘어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등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 방향의 소통이 가능해진 것은 전통 문화유산의 활용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이다.

과거처럼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만이 조명 받는 시대가 아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풍족해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갈망하는 대중들의 문화충족에 대한 욕구가 중요한 생활의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적인 경험을 요구하는 대중들에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중들의 이러한 욕구는 우리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예능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미디어의 접근은 과거 '진품명품'같은 단순한 접근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역은 과거보다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이를 통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키울 수단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을 찾아내 시민들이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정신적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국가가 주도한 국보와 보물 정도만이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재를 방송과 신문뿐만 아니라 최근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와 이천시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의 홍보에 있어서 과거처럼 딱딱한 소개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와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면서, 보다 재미있는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역 출신의 연예인들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지역에 보다 밀착된 모습으로 활용될 것이다. 시정뉴스에 활용하여 뉴스의 중간 코너에 이천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이다.

또한 이천시의 지역 언론과 연계하여 시가 주최하고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전통 문화재에 대한 각종 대회와 시상을 하는 것이다. 이천에 있는 유형 문화재를 그리는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유형 문화재의 모양을 각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 교육적인 활용방안

무형 문화재는 전승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특히 중소 규모의 도시인 이천만의 특색있는 문화재인 만큼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거북놀이와 같은 무형 문화재를 보존·계승하려면 각 학교에 거북놀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각 학교와 교육관련 기관에 거북놀이의 절차와 준비, 진행 순서를 알 수 있는 소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거북놀이와 관련된 행사나 교육은 수행평가와 같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겠다.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거북놀이를 재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합동아리와 같은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 지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연중 1회 정도는 이천의 전체 학교가 모여서 거북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만들 수 있다면, 전통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이천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이천에는 아직도 발굴이 필요한 소재들이 존재한다. 발굴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학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천을 문화·유적의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설봉산성 등 이천의 산성들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만큼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산성의 발굴 과정을 학술적으로 활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활용법이 되겠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천이 문화와 교육면에서 앞선 고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들 수 있겠다.

3)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이천은 쌀과 도자기의 고장임과 동시에 다양한 축제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간의

축제는 문화재의 활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도자기와 산수유, 쌀로 대표되는 축제의 주제에 그와 관련있는 문화재를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이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물에 문화재를 포함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쌀문화축제에는 자점보와 안흥지 등의 저수시설을 함께 설명하여 문화재와 지역의 특산물을 아우를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을 축제 홍보물과 기념우표 등을 제작하여 널리 알린다면 이것 또한 관광객들에게 이천을 각인시키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자기축제에는 단순하게 도자기 자체의 판매보다는 도자기가 이천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과 과거 유명한 도자기 장인들에 대한 인물열전을 제작하고, 또한 이들의 생을 연극과 같은 형태의 공연으로 만들어 홍보한다면, 이천의 도자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수유축제는 육괴정, 반룡송 등 이천의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축제코너를 만들어 산수유축제와 연계하여 하나의 문화축제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각 축제의 코너는 하나의 거대한 코스로 연결하여 큰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이 또한 축제의 상징으로서 기능하여 산수유 축제를 좀 더 각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설봉산의 문화 등산로 조성

설봉산은 이천의 명산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던 만큼 유서깊은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설봉산을 적극 개발하여 지금과 같은 멋드러진 공원이 조성되었다. 설봉공원을 통한 설봉산 등산은 이천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자랑거리이다. 설봉산 등산로에는 설봉서원과 설봉산성, 칼바위, 삼형제바위 등의 다양한 명소와 전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각 문화유산 안내 표지판들이 아직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설봉서원의 경우에는 복원이 잘 되어 있지만 그곳이 무엇인지 이천 시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봉산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천에는 다른 중소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 박물관이 너무 조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천시립박물관이 이천이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문화유산들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봉산은 이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산인만큼 설봉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홍보하고 여러 행사를 박물관에서 진행한다면, 설봉산이 등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심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설봉산선의 축조과정을 간단하게 재현하는 모습과 설봉서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행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 축

제 기간에 서원에서 조선 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조선판 골든벨 대회를 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기타 활용방안

최근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천은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교통 여건이 다른 중소규모의 도시에 비해 좋은 편이다. 또한 다양한 축제와 명산이 있는 만큼 관광객을 유치하여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천에는 도자기를 제외하면 아직 지역을 상징할 만한 문화유산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단순히 홍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천시청과 유관기관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각 도시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과 문화재가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파리에는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 리우에는 예수 동상이 있고 국내로 보면 서울에는 남대문(물론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경주에는 천마총, 강릉에는 경포대 등이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과 가까워지는 데 큰 효과를 준다.

관광은 결국 관심이고 관심은 가고 싶은 마음과 이어진다고 하겠다. 이천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상품화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이천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통 문화유산들은 이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문화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온 우리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절이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다. 과거의 모습을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로 우리는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교육적·문화적·경제적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다. 다양한 자료들을 제작하여 교육기관, 행정기관, 축제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배포하거나 유적에 설치하여 현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문화유산은 언제나 민족과 국가의 내적인 저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활용의 목적은 결국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 백



제3부

이천 문화축제의 형성 과정

여 백

제1장

주요 문화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요

김 성 열 / 이천문화원 상임연구원

1. 지역문화축제의 개념
   1) 지역문화축제의 의의
   2) 지역문화축제의 유형 및 의미
2. 이천시의 주요 문화축제
   1) 이천시 문화축제의 현황
   2) 이천시 주요 문화축제 소개

제1장 주요 문화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요

1. 지역문화축제의 개념

1) 지역문화축제의 의의

축제는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며 축제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미지를 높이려는 문화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차별성이 낮은 축제의 경쟁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의 정체성 확보나 문화의 향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제의식에 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축제는 단순소비가 아니라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활동이다.[1)]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행사로서 한 지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므로, 관광동기를 유발할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째, 축제는 테마가 있어야 한다, 즉 지역축제는 신화적 인물의 부각이나 역사를 압축해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한다. 지역축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지역개발 내지 지역 활성화의 이념과 비전에 연계돼 있고, 테마도 명확히 확립돼 있으면 축제의 내용도 차별화될 수 있다.

둘째, 축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려면 기획 단계부터 공개적인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축제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전통축제가 그 토양을 잃어버림으로써 농촌 향토축제가 이어져 나갈 근거를 상실하듯이 도시축제도 그 지역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문화축제로서 정착할 수 있다.[2)]

2) 지역문화축제의 유형 및 의미

지역문화축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민화합축제는 주로 해당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

---

1) 김미성, 2008, 「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0호, 318쪽.
2) 최선호, 2012, 「기업주도형 지역문화축제의 인식과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6~7쪽.

최되어 온 전통문화축제를 말한다. 다음으로 관광축제는 관광자원이나 관광산업을 포함한 산업분야 즉 농림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특수목적축제는 환경보호 혹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오늘날의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약화, 전통사회의 가치구조나 여건의 변화, 산업화의 진행에 생산 기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축제 본연의 의미와 역할 면에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문화축제에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시민지향, 즉 문화축제라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안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 둘째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문화축제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마케팅의 총화다. 한편으로는 대외에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직접적으로는 관광과 고용, 소비증대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홍보협의체 구성, 홍보의 조직화 및 체계화 시스템 구축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의 다양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3)]

2. 이천시의 주요 문화축제

1) 이천시 문화축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역축제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축제[4)]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성장전력 하에 등한시되어오던 지역 고유의 문화 및 관광자원과 이를 이용한 지역축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90년대를 넘어가면서 5년 간격으로 거의 두 배씩 증가하였다.[5)] 이천시의 문화축제도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 이후 양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이천시 문화 축제 현황

행사명	개최장소	시작년도	내 용
도자기축제	이천설봉공원 및 도예촌 일대	1987년	도자기체험 및 참여 행사, 전시·판매 기획전, 공연행사 등
국제조각 심포지엄	이천설봉공원	1998년	국제조각작품 전시, 학술 심포지엄, 참여작가 워크샵, 조각 퍼포먼스

3) 전하억·고정환, 2007,「지역문화축제〈4〉」, 동부신문 제652호(2007.11.14.)
4) 류정아, 2006,「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강요섭, 2011,「우수축제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15쪽.

행사명	개최장소	시작년도	내 용
설봉문화제	이천시 일대	1987년	학생예술제, 시낭송회, 설봉산사직제, 시민등산대회, 풍년놀이
해맞이행사	이천시 설봉산	2000년	풍년기원제, 소원지달기, 공연, 해맞이 퍼포먼스, 만세삼창, 소원지태우기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이천시 일대	1992년	민속놀이(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달집태우기, 풍년기원제
장호원 복숭아축제	이천시 장호원	1997년	복숭아 축제기념 백일장대회, 복숭아 빨리먹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산수유축제	이천시 백사면	2000년	길놀이 풍년기원제, 전통놀이체험, 산수유관련 제품 전시회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시 일대	1999년	추수감사제, 햅쌀노래자랑, 사물판 굿, 풍년마당극, 희망 솟대 만들기
별빛축제	이천설봉공원	2004년	음악, 무용, 뮤지컬, 시낭송, 공연

2) 이천시 주요 문화축제 소개

(1) 이천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는 우수한 이천 도자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통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주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마다 한 달여 동안 열리는 지역문화축제다. 1987년을 시작으로 매해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도자 체험 및 방문객 참여행사, 전시 판매기획전, 공연행사 등이 있다. 체험 및 참여행사로는 흙의 신비함을 몸으로 체험하는 '돌레돌레 도자 흙 공방', 나만의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라이빗 도자관', '장작가마 불 지피기' 체험 등이 열린다. 전시 판매기획전에서는 도예 작가들이 직접 만든 식기, 다도구, 문방구, 장신구 등 다양한 도자작품이 전시되며, 구매도 가능하다.

한편 이천도자기축제는 처음에는 이천문화원이 주관하는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치러지다가 제9회 때부터 독자적인 축제로 발전하였다.

(2)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998년 7월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6개국에서 23명의 조각가가 참여한 이래, 제12회 심포지엄이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됨으로써 당당히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심포지엄에 참여하였던 40여 개국의 외국 조각가들과 우리나라 조각가들의 작품 160여 점은 설봉공원을 비롯한 관내 곳곳에 전시하여, 이천 시민들과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12회 심포지엄은 단순히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공의 예술성을 담은 조각 예술행사를 지향하였으며, 유명 작가들의 워크숍, 학술 세미나, 역대 심포지엄을 기념하는 기획전, 참여작가 소품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 조형예술 행사로 이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

⑶ 설봉문화제

이천시의 진산(鎭山)인 설봉산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시민들의 화합과 동참의식 제고로 종합 향토 축제로 승화시키고,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향토문화를 창출하려는 취지에서 매년 10월 이천시 전역에서 열린다. 이천문화원이 주관하여 1987년 제1회 설봉문화제가 열린 이래 매년 빠짐없이 치르고 있다. 행사 내용은 크게 민속행사, 문예 행사, 청미문화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민속행사로는 율면 정승달구지 공연, 허수아비 가족 축제, 학생 풍물경연회, 이천 거북놀이 공연 등이 열린다. 또 문예행사로는 이천 연합서예전, 이천사진연구회 등이, 청미문화제로는 청미시화전, 장호원 미술인전, 청미사진전, 청미문학시낭송회, 장호원거리축제 등이 열린다. 설봉문화제는 이천 지역의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특색 있는 향토 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7)]

⑷ 해맞이행사

이천시와 이천문화원에서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아침에 2000(이천)의 이미지를 살린 새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새벽 설봉산 칼바위에서 처음 시작하였다.[8)]

그 후 매년 새해 첫날 해가 뜨는 시각에 설봉산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새해의 의미를 새롭게 갖고, 이천 시민의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해맞이 행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풍년기원제, 신대 소원지 달기, 해맞이 퍼포먼스, 만세삼창, 덕담 나누기, 신대 소원지 태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⑸ 정월대보름 축제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이면 전래의 세시풍속으로 행하여 졌던 망현산 망월놀이가 사라진지 반세기가 넘어서 1992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망현산에서 다시 재현되었다.[9)] 이후 1998년부

6) 두산백과사전
7) 한국지역진흥재단(http://www.oneclick.or.kr/)
8) 이천문화원, 2000,『설봉문화 제23호』96쪽.
9) 이천문화원, 1992,『설봉문화 제7호』103쪽.

터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망현산에서 설봉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매년 정월대보름를 기념하는 민속축제로 이어오고 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보름달을 향해 일년간의 무사와 행운을 빌고, 연합풍물패의 길놀이 시가행진과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민속놀이체험, 이천거북놀이 시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⑹ 장호원복숭아 축제

장호원의 특산품인 복숭아 '미백도'와 '황도'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 1회 장호원 복숭아꽃 축제가 1997년 4월 26일 장호원읍 일대에서 열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0년까지는 4월 26일에 지역의 작은 축제로 복숭아 과수원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로 열렸던 축제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자, 2001년부터는 복숭아 출하시기인 9월로 일정을 옮겨 황도 품평회, 복숭아 선별 체험, 복숭아 시식 직판행사, 복숭아 과원 수확 체험뿐만 아니라, 관람관을 새롭게 구성하여 방문객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10)]

⑺ 산수유축제

백사면 도립리·송말리·경사리 일대는 어린 묘목부터 수령 500년 된 고목까지 1만 7000여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산수유마을'로 불린다. 산수유꽃을 주제로 한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2000년 4월 제1회 축제가 열린 후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다.

길놀이, 관악 공연, 산수유꽃예술단 공연, 각종 댄스 공연, 노래자랑 대회, 사물놀이 공연, 산수유 사진전, 백일장, 사생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천산수유꽃축제는 이제 이천시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1)]

⑻ 이천쌀문화축제

농경문화의 역사와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천시에서 기획하여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농경문화 축제이다. 1999년에 처음 개최되었던 '이천농업인축제'의 명맥을 이어 2001년부터는 '이천햅쌀축제'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2004년 '이천쌀문화축제'로 이름을 다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농업인축제, 농산물축제, 농촌문화축제 등의 각종 이벤트와 행사, 공연, 체험, 판매, 먹거리 등이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획행사, 상설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로 진행된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4년도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2년 연속

10)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http://www.peachfestival.co.kr/)
11) 두산백과사전

선정될 만큼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동놀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농경문화를 놀이문화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2)]

⑼ 별빛축제

별빛축제는 한여름 밤 설봉산 별빛아래서 펼쳐지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과 대중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을 꿈과 낭만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종합문화예술축제이다.

1993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처음 진행되었으며, 이천시가 주최하고 예총이천시지부가 주관하는 문화와 예술의 만남으로, 매년 무더운 여름날 저녁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미성, 2008,『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0호

최선호, 2012,『기업주도형 지역문화축제의 인식과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전하억·고정환, 2007,『지역문화축제〈4〉』, 동부신문 제652호(2007.11.14.)

강요섭, 2011,『우수축제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천문화원, 2000,『설봉문화 제23호』

이천문화원, 1992,『설봉문화 제7호』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이천시지5. 사회와 문화』

이천쌀문화축제위원회(http://www.ricefestival.or.kr/)

한국지역진흥재단(http://www.oneclick.or.kr/)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http://www.peachfestival.co.kr/)

12) 이천쌀문화축제위원회(http://www.ricefestival.or.kr/)

여 백

제2장

이천도자기축제

이 인 수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사무국장

---

1. 이천도자기의 역사적 배경

1) 이천 도자문화의 전통

2) 이천도예촌의 형성과 발전

2. 이천도자기축제

1) 발생 및 정체기(1987 ~ 1994)

2) 도약기(1995 ~ 2000)

3)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이천도자기축제

4) 2000년대 이후의 도자기축제(2002 ~ 2012)

3. 이천도자기축제의 전망

제2장 이천도자기축제

1. 이천도자기의 역사적 배경[1)]

1) 이천 도자문화의 전통

인류가 처음 토기(土器)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견고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는 의지는 끊임없이 도자기의 발달을 촉진하여 왔다. 처음 만들었던 토기는 물이 새어나오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었지만 점차 개선된 원료와 높은 온도에서 구어 내는 기술로 발전하여 토기보다도 견고하고 쓰기 편리한 도기(陶器)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도기도 약간씩 물이 스며들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약(釉藥)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유약의 발명으로 마침내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고화도 자기(磁器)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고화도 자기인 청자를 처음으로 만든 시기는 9세기 중엽이었다. 청자는 오랜 고화도 경질토기(硬質土器) 제작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도자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청자에 이어 백자(白磁)도 만들어지고 11~12세기에 와서 고려 도자문화의 절정기를 맞게 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창안물인 상감(象嵌) 기술이 개발되고 유약에서 산화동(酸化銅)에 의한 붉은색 발색을 최초로 내게 되는 등 고려인의 독창성은 세계도자문화를 윤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전기인 15~16세기에는 분청(粉靑)이라는 특별한 자기를 제작하였다. 분청은 회청색의 몸체에 백토를 바르거나, 또는 문양을 긁어내거나 산화철(酸化鐵)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한국인의 독자적인 창안에 의한 이채로운 심미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분청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자기는 역시 백자였다. 백자는 고려시대 초기부터 만들어졌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성행했다. 백자에는 회청(回靑)을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靑華白磁)와 철화백자(鐵畵白磁) 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다 백자의 큰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선사시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져 오던 큰 항아리 등은 제작기술의 변화에 따라 점차 질적 향상을 거듭하여 옹기(甕器)라는 한 분야를 개척하였다. 옹기는 그 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이천지방 도자기의 역사를 더듬어 보자면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기를 만들어 사

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제5권 사회와 문화, 467~476쪽에서 인용

용하기 시작한 선사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천지방에도 구석기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유적지들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백사면 현방리와 신둔면 지석리·도암리·남정리 지역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지석묘군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미 밝혀진 효양산 토성지 외에도 장호원읍 오남리 청미천변과 대월면 군량리, 백사면 우곡리, 설성면 행죽리 등지에서 선사시대의 민무늬토기, 붉은 간토기편들과 석기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기원전 5000~6000년 경 빗살무늬토기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토기는 철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고화도 번조기술에 의한 경질토기로 발전하게 된다. 1998년부터 시작된 설봉산성 발굴조사에 이어 설성산성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삼국시대 중반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도자유물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1999년에 실시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에서는 다수의 백제토기들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백제토기들은 고배와 완(盌), 삼족기(三足器)를 비롯하여 각종 형태의 항아리, 시루, 병, 심발형토기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삼국시대 후기의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점이 넘는 많은 분량이었다. 설성산성 발굴조사에서도 역시 신라시대 토기류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천에서 출토된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들은 이천도자기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다.

중국에서 7~8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를 한국에서는 9세기 중엽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이어서 백자의 제작도 이루어 졌다. 이와같은 자기질(磁器質) 도자기술의 성취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17세기 초 임진왜란 때 강제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에 의해 처음 자기가 만들어졌던 것과, 유럽 각국이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기 제작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한국 도자기의 오랜 전통과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고려 왕조로 접어들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청자는 12세기에 와서 절정을 이루며 독특한 상감기법이 나타나는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이웃 용인과 여주 지역에 고려시대 가마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이천의 경우는 고려시대의 자기 생산을 뒷받침할만 한 뚜렷한 흔적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새로운 양식의 조선백자와 함께 분청사기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조선백자의 대표 산지였던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이천과 인접한 광주에 자리잡게 되는 15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이천지방에서도 도자기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서 지역특산물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전국 139개의 자기소(磁器所)와 185개의 도기소(陶器所) 가운데는 이천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온 『동국여지승람』에는 이천도호부의 특산품으로 백옥(白玉)과 도기(陶器)를 들고 있다. 문헌상으로 볼 때 세종조 이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천의 도자기가 16세기 초반에 들어오면 지역특산물로 손꼽힐 만큼 이름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중반에 나온 『동국여지지』에도 도기는 이천의 특산물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보다 1백년쯤 뒤진 17세기 중반에 발행된 『여지도서』에는 도기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古有今無)"고 나온다. 이처럼 관계문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천의 도기는 대략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이르는 100~150년 정도의 전성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장면 해월리의 '사기실'과 '점말'요지, 신둔면 수광리의 '점말', 사음2동의 '사기막골', '모가면 마국산 요지' 등이 조선시대 이천의 도자기 생산을 뒷받침해주는 유적들이다.

『여지도서』에서부터 그 이후의 향토사 문헌 속에는 "(도자기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여 17세기 초반 이후로 생산이 중단된 것처럼 나와 있다. 그런데 사음동 사기막골 마을에는 옛날 이 마을의 도공들이 광주 분원으로 차출되어 관요(官窯) 도자기 제작에 참여했다는 말이 전해온다. 구전을 뒷받침해 주는 기록이 『여지도서』 군병조에 보이는 "사옹원 장인보(匠人保) 30명"이라는 기록이다. 또 1842년에 나온 『이천부읍지』와 그 후 고종 연간에 발행된 읍지에도 "사옹원 자기장인보 30명" 차출 기록이 보인다. 이렇게 조선조 후기에서 한말에 이르기까지 이천의 도공들이 계속해서 사옹원에 차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이천에는 상당수의 기술 인력인 도공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을 통해서 관요의 고급기술이 지역으로 전파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천 도자의 맥을 이루었던 것이다.

고려청자의 발생부터 쳐도 천년이 넘는 찬란한 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도자문화는 1883년(고종 20) 분원 관요가 폐지되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는다. 관요의 폐지는 조선조 도자문화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고품질 백자의 전통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민간용 일반 도자기들마저 개항 이후 일본문물과 함께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이른바 왜사기(倭沙器)에 밀려나서 더욱 설땅을 잃게 되었다.

2) 이천도예촌의 형성과 발전[2)]

일제강점기의 우리 도자기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웃 여주군의 경우처럼 일본인들의 자본과 기술에 의한 대규모 요업공장들이 세워져서 일본식 도자기 그릇들이 다량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고, 전통도자기는 일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질 낮은 민간용 사기그릇이나 옹기그릇들을 통해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사회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자, 일부 학계와 미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도예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55년에 세워진 한국조형문화연구소와 1956년 조각가 윤효중(尹孝重)에 의해 세워진

2)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제5권 사회와 문화편, 476~490쪽에서 인용

한국미술품연구소가 그것이다.

세칭 대방동가마라 불리운 한국미술품연구소는 특히 이천의 도예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대방동가마를 움직였던 일급 도공들 대부분이 후일 거주지를 이천으로 옮겨와서 이천의 현대 전통도자기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1956년 가을에 문을 연 한국미술품연구소는 '우리나라 도자공예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실생활에 조화되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과 2년 뒤인 1958년에 문을 닫으며, 직장을 잃어버린 유근형(柳根瀅), 지순탁(池順鐸), 고명순, 김완배 등의 장인들이 하나 둘씩 일자리를 찾아서 이천의 신둔면 수광리 칠기(漆器)가마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대방동가마 출신 장인들이 밥벌이를 목적으로 수광리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이천도예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칠기는 옹기그릇의 일종이지만 물레성형을 하고 굽깍기를 하거나 두벌구이를 하는 점 등 제작방법이 자기쪽에 가까워서 옹기보다 한층 세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수광리 칠기가마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뚜렷이 알려진 것이 없으나, 조선 후기 분원 관요로 차출되어 고급 도자기 기술을 익혔던 이천도공들이 서민용기인 옹기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탄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950년대 후반의 수광리의 칠기가마들은 한국전쟁 이후 생활용기들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중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칠기가마에는 숙련된 일손이 필요했고, 대방동가마 출신 도공들은 당시 최고의 숙련된 기능공들이었던 것이다. 1958년 당시 칠기가마 도공이던 홍재표(洪在杓)가 지순탁, 고영재와 손잡고 부친이 하던 칠기가마 자리에 수금도요(水錦陶窯)를 열었다. 대방동 출신 장인들은 처음에는 칠기가마에서 분청사기로 된 화분과, 화병, 술병 같은 그릇들을 선보였다.

수금도요를 시작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도자기 공방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지순탁이 고려도요(高麗陶窯)를, 방철주가 동국요(東國窯)를 설립하고, 유근형도 장남 유광렬(柳光烈)과 함께 해강고려청자연구소(海剛高麗靑磁硏究所)를 열어 본격적인 청자 제작에 들어갔다. 수금도요는 조소수(趙小守)에게로 넘어가서 광주요(光州窯)가 들어서게 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이 자유롭게 되자 갑자기 일본인들의 의한 전통도자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천의 도자공방들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천도예촌이 형성되어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이천지역에 전통도자 기술을 처음 접목시키고 이를 발전시킨 많은 장인들 중에서도 유근형, 지순탁, 조소수 3인의 역할을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현대 이천도자기의 발생에는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칠기가마를 매개체로 이천으로 모여든 당대의 이름난 장인들이 수광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통도자기 재현과 개발에 몰두하면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칠기가마 쪽에서 기능을 익힌 고영

재, 이정하, 홍재표 등의 이천도공들이 제작과정이 비슷한 전통도자 제작에 쉽게 합류할 수 있었던 점도 도예촌 형성에 밑거름이 됐다. 또 수광리 일대는 원적산을 끼고 광주의 산간지대와 연결되어 있어 화목의 주원료인 소나무를 구하기 쉽고, 도자기 원료인 점토와 사토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1965년부터 약 10년 간에 걸친 도예촌 형성기의 이천도자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상의 호경기를 맞게 된다. 일본인들이 줄지어 몰려와서는 다투어 우리 도자기를 사가는데 미쳐 만들어 내지를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천도예촌이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일본인들의 막강한 구매력이 중요한 몫을 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고사시키려 했던 일본인들이, 역설적으로 이제는 그동안 겨우 명맥을 이어온 전통도자기 산업을 크게 성장시킨 일등 공로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도자기 경기는 1974년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한동안 타격을 입게 되지만, 이 무렵부터 요장설립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해서 수광리와 사음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천도예촌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수금도요의 설립을 시작으로 1975년까지 설립된 요장은 모두 9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76년부터 갑자기 요장설립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76~80년 사이에 18개소, 81~85년 사이에는 28개소로 늘어났다. 그 후 86~88년 사이에는 불과 2년 동안에 27개의 공방이 문을 열어 모두 82개소에 이른다.[3] 세월이 지나면서 각 공방을 통해 기술을 익힌 다수의 기능인들이 배출되고,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가스가마와 전기물레, 토련기 같은 편리한 현대식 기계의 등장이 과거보다 훨씬 손쉽고 간편한 도자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1988년 조사에서 82개소에 달했던 공방들의 수효는 1994년 이천문화원 조사에서는 141개소로 늘어났으며, 불과 4년 뒤인 1998년에는 두 배가 넘는 323개소로 크게 불어났다. 2000년대 이후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이 대략 300개소 내외의 공방들이 문을 열고 있다.

1981년에 이천지역의 도예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승도예협회를 설립하고 매년 서울에서 회원전을 여는 등 활동에 들어갔으며, 1987년 처음 선보인 이천도자기축제가 1995년 이후 전국 지역축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면서,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 개최로 이어지게 된다. 1990년에는 신둔면 수광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자기 전문 미술관인 해강도자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1995년에는 이천민속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도예문화 발전과 도예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6년 마장면 해월리에 문을 연 청강문화산업대학 도자디자인과가 처음으로 입학생들을 뽑았고, 이천시에는 도자기산업 발전과 도자기축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다.

---

3) 지정희, 1998,「韓國傳承陶磁의 現況」이화여대 석사논문, 21쪽, 30쪽

1970년대 초반에 최대의 호경기를 누렸던 이천의 도자기산업은 그 후 주 고객층이던 일본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어 하향곡선을 이룬 반면, 국내시장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고조와 그 후의 웰빙생활 열풍과 맞물려서 서서히 확대되어 가는 추세였다. 도자기 품목도 과거의 관상용 도자기 중심에서 다기류나 식기류, 악세사리같은 생활도자기 시장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심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시장의 확대와 함께 성장가도를 달리는듯 했던 도자기산업은, 그러나 1997년 IMF의 시작과 함께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들며,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성공을 거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과거에는 수십명씩의 기능공을 고용했던 규모가 큰 요장들도 고용원들을 내보내고 가족중심의 소규모 가내 수공업 형태로 되돌아가 버렸다. 경영개선이 아니라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300개가 넘는 이천의 요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가내 수공업 형태의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 이천시는 도자기 산업과 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한 많을 일들을 추진해 왔다. 도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02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자기 특성화 학교인 한국도예고등학교가 세워졌으며, 2007년에는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이 신둔면 수광리에 문을 열었다. 2005년 전국 유일의 도자산업특구 지정에 이어 2008년부터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 브랜드 육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도자엑스포재단이 전신인 한국도자재단은 재단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도자비엔날레 외에도 한국의 도자문화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와 도자재단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이천 도자산업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한 실정이다.

2. 이천도자기축제

1) 발생 및 정체기(1987 ~ 1994)[4)]

이천도자기축제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도자기를 도예촌, 이천온천 등의 관광지 및 쌀, 복숭아 같은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관광상품 개발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절, 도자기축제는 처음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축제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천문화원이 1987년에 처음 시작한 설봉문화제의 하나로 조그맣게 출발했던 도자기축제는, 1994년 여

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500~ 506쪽
이천시, 2006, 이천도자, 72~ 88쪽 참조

덟 번째의 행사를 치르기까지도 여전히 작고 초라한 모습의 답보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우선 외부로 부터의 예산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행사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주인 역할을 해야 할 도예인들의 호응조차 저조하기만 했던 것이다.

제1회 이천도자기축제는 1987년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설봉호텔 대연회장에서 도자기 전시판매 위주의 옥내 행사로 열렸고, 25개 요장이 참가하여 12일 동안 도자기 총판매액이 2천만원에 불과했다. 1988년 제2회 도자기축제는 대망의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당시 교통부 관광당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올림픽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 동안 열렸다. 사음리 도예촌전시관에서 열린 축제는 기대를 걸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방문객 5만명 동원에 판매액 1,400만원이란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1989년 제3회 도자기축제는 시내 중심가인 중리천 복개도로로 장소를 옮겨 9월24일부터 9일 동안 거리축제로 진행되었으나 역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으며, 1990년 제4회 축제는 당시 중부지방을 휩쓴 수해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다.

1991년 제5회 축제 때부터는 미란다 호텔 뒤 공터를 이용한 가설행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열린 제5회 도자기축제는 22개의 요장들이 참가하였다. 이 해 처음으로 도자기축제 홍보를 위한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가 전야제 행사로 열려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발된 청자아가씨, 백자아가씨, 분청아가씨 등은 축제 홍보사절로 활동하게 되었다. 1992년 제6회 도자기축제에는 전승도예협회와 이천의 도예가들이 참가한 도예작품전이 미란다 호텔 로비에서 별도로 열렸으며, 이와 병행해서 축제기간중에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도예촌 각 요장에서 열려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했다. 1993년 제7회 축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21개의 요장들이 참여했다. 1994년 제8회 축제 역시 10월 1일부터 온천광장에서 9일간 열렸고, 28개의 요장들이 참가하여 10만명 방문객 유치와 6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첫 회서부터 8회까지의 도자기축제는 도자기 할인 판매장을 중심으로 도예작품전,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가미된 단출한 내용이었다. 1991년부터는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가 신설되지만 1994년에 오면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회의 성격과 역할이 모호해지고 말았다. 도자기 판매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으며, 참여 요장의 수효는 매회 평균 23개소 정도로 90년대 초 이천 관내의 요장이 140개가 넘었음을 감안할 때 호응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예산이 한 푼도 없이 참가요장들이 조금씩 내는 부담금만으로 축제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1989년 제3회 때부터는 야시장 업체를 끌어들여 행사장 시설마련과 운영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이 동원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도자기축제는 뒷전이고 요란한 먹거리 장터와 야바위꾼들이 판을 치는 난장판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만 했다.

도자기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 중 하나인 우리 도자기를 소재로 하는 축제인 탓에, 내용만 잘 다듬는다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제적인 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당시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볼거리를 위주로한 축제인 반면, 도자기축제는 살거리가 중심을 이루는 축제이므로 상품판매 수입을 통한 탁월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축제의 전망과 기대효과를 내세운 이천문화원의 주장이 1995년 당시 문화체육부 관광당국의 호의적 반응을 얻게 되면서, 마침내 이천도자기축제가 이 해의 문체부 시범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된다.

2) 도약기(1995 ~ 2000)[5]

199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이천온천 가설행사장에서 열린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문화체육부 시범행사로 선정된 탓에 정부와 경기도, 이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는 행사 자문과 함께 국내외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지원받게 되었다. 홍보와 이벤트 전문회사들의 참여로 행사내용이 크게 보강되고 행사장 시설과 규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홍보활동도 강화되어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사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TV홍보와 언론사 초청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그 결과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관계기관의 도움 없이 문화원 단독으로 추진해온 과거에 비해 관광객 유치나 판매수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천도자기축제의 비약적인 성공에 힘입어서, 문체부는 이듬해인 1996년부터 가능성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천도자기축제를 포함한 8대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때부터 각 지방이 다투어서 지역축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니 이천도자기축제가 지역축제 활성화시대에 불을 당긴 셈이었다.

'흙과 불의 잔치' 제9회 도자기축제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주한외교사절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당굿, 경기도립무용단 축하공연 등의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렸으며, 과거 도자기 할인판매장 중심의 단조로운 내용을 탈피하여 도예작품전, 차문화 산책, 야외영화제, 각종 공연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선보였다. 도자기 물레시연이나 아이들이 도공의 도움을 받아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내가 만드는 도자기 코너, 도자기에 직접 글씨나 그림을 그려 넣는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처음 선보여 크게 인기를 끌었고, 해강도자미술관이 마련한 '한국의 잔' 특별전과 도예촌 장작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연계 행사로 열렸다. 54개의 요장들이 참가한 제9회 도자기축제는 열흘 동안 방문객 23만명 유치에 판매수입 5억6천만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5)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천시지, 500~ 506쪽
이천시, 2006, 이천도자, 72~ 88쪽 참조

1996년 제10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지난 해 시범축제의 뛰어난 성과에 고무된 이천시가 비로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게 되고, 때마침 경기도가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열렸다. 일본의 저명한 도예가 심수관,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발표자로 초청된 한일도자심포지엄, 일본 전통다도의 권위자인 센소슈(千宗守) 사범을 초청한 한일다도교류회, 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참가한 국제 꽃꽂이발표회 등 비중 있는 국제 행사들이 마련되어 높아진 도자기축제의 위상을 알렸다. 문화관광부 8대축제로 열린 제10회 도자기축제는 16일 동안 외국인 4만5천명을 포함한 방문객 50만명 돌파에, 총판매액 20억원 달성이란 비약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다.

전국 10대 관광축제로 열린 1997년 제11회 도자기축제 때부터는 전문가에 의뢰한 축제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교류도시인 중국 경덕진시와 일본 시가라키정의 도예가들을 초청한 한·중·일 전통도예작가전과 흙과 불의 정신전, 가마터발굴도자기전(해강도자미술관), 한국의 옹기전(마장면 장암리) 등이 선보였다. 제11회 축제는 122개 요장 참가와 외국인 방문객 7만2천명을 포함한 95만명의 관광객 유치에 총판매액 30억원을 달성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 문화관광부 집중지원 5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1998년 제12회 도자기축제는 전국대학생 도예공모전이 신설되어 전통도예로만 이루어지던 축제의 내용을 현대도예의 영역까지로 확대하였다. 130개 도자업체와 98만명 방문객 유치로 전년도 축제보다도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IMF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로 판매수입은 4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6대축제로 열린 1999년 제13회 도자기축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이 이천시 설봉산으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전년도까지 행사를 진행해 왔던 온천광장에서 설봉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9월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열렸다. 축제의 급성장과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고무되어 참가로 참가요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행사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고, 세계도예가 워크샵, 국제현대도예전, 대학생도예공모전 같은 비중 있는 행사들이 열려 행사내용이 다양하고 풍성해진 반면, 행사장 배치에 따른 문제와 시설부족, 행사운영 미숙,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들도 들어났다. 13회 도자기축제 때는 처음으로 방문객 수효가 1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나치게 부풀린 통계가 아니냐는 수치상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9회 시범축제가 전환점이 되어 방문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참가요장들의 매출액도 따라서 크게 증가하게 되자, 그때까지 참가를 기피하거나 관망하던 도예인들이 앞 다투어 참가경쟁을 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8회 때까지는 매회 20~25개 요장에 불과했던 참가요장이 1995년 54개 요장, 1996년 116개 요장으로 대폭 늘어났고, 1999년에는 169개까지 늘어났다. 행사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설봉문화제 단위행사에서 독자적인 축제로 자연스러운 분리

도 이루어 졌다.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문광부의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축제도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표 1〉 이천도자기축제 개최현황 I (1987~2000)

횟수	기 간	장 소	참가 업체	관람객수 (외국인)	매출액 (백만원	비 고
1	1987, 9/28~10/9 (12일간)	설봉호텔행사장	25	20,000	20	설봉문화제
2	1988, 9/13~10/2 (20일간)	이천민속도예촌	22	50,000	14	-
3	1989, 9/24~10/9 (16일간)	중리천복개지	20	100,000	14	-
4	수해로 인한 행사취소					
5	1991, 10/3~10/10 (8일간)	온천 광장	22	70,000	28	설봉문화제
6	1992, 10/2~10/10 (9일간)	-	21	80,000	33	-
7	1993, 10/2~10/10 (9일간)	-	21	80,000	37	-
8	1994, 10/1~10/9 (9일간)	-	28	100,000	60	-
9	1995, 9/30~10/9 (10일간)	-	54	230,000 (18,000)	564	문체부 시범행사
10	1996, 9/7~9/22 (10일간)	-	116	757,000 (45,600)	2,050	전국8대 관광축제
11	1997, 9/26~10/5 (10일간)	-	122	952,000 (72,000)	3,050	전국10대 관광축제
12	1998, 9/18~9/27 (10일간)	-	130	980,200 (80,600)	2,610	문광부집중지원 5대축제
13	1999, 9/8~9/19 (12일간)	설봉산 및 도예촌일원	169	1,023,000 (80,200)	3,050	문광부집중지원 6대축제
14	2000.10/10~10/22 (13일간)	-	138	905,000 (63,300)	2,503	문광부집중지원 6대축제

2000년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프레엑스포와 함께 열려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계속되었다. 1월1일 새벽, 설봉산에서 채화하여 해강도자미술관에 보관하던 '2000의 불씨'를 도자기축제 행사장으로 옮기는 봉송행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오른 축제는, 대한민국 도자전, 청자전, 북한도자기특별전, 한·중·일 도예가 작품전, 흙과 불의 정신전 등이 선보였으며, 참여업체들의 도자기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종합전시관을 마련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프레엑스포를 통해 이천·여주·광주 각 지역행사장에 홍보물과 전문 도우미, 통역사 등을 배치하여 엑스포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시 및 이벤트, 행사운영, 교통상황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축제 때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체험행사를 토야·토우 만들기와 도예교실 3가지 유형으로 확대 운영하여, 개별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 모두 불편 없이 도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설 전시행사 외에도 한·중·일 도예가워크샵, 클레이올림픽, 전통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경매 등 도자기 관련 특별행사와 다채로운 공연행사들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제14회 도자기축제는 엑스포 예행연습을 위한 3개 지역 동시 개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6만3천여 명을 포함한 90만명의 방문객 유치에 매출액 2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3)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이천도자기축제[6]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및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행사로 진행된 제15회 이천도자기축제는 2001년 8월 9일 엑스포 주행사장인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올랐다. '흙으로 빚는 미래(Shaping the Future with Earth)'라는 주제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열린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는, 개막 당일부터 한여름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여 개막 8일만에 1백만명을 돌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천·여주·광주 3개 행사장을 합한 총방문객수가 당초 목표인 50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606만명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그중 이천행사장이 306만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도자비엔날레의 주요행사들을 보면 3개 지역행사장을 각각 〈이천-전통과 예술〉 〈여주-산업과 유통〉 〈광주-문화와 이벤트〉로 나누어 각각 주제별로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하였다. 주행사장인 이천에는 세계도자문명전을 비롯하여,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세계현대도자전, 야외옹기전, 국제도자워크샵 등이 선보였다. 특히 세계도자문명전은 옛날 원시토기에서부터 근세에 이르는 동서양 도자문명의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전시였으며, 세계현대도자전과 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현대 도자문화의 다양한 흐름을 한 눈에 접할 수 있는 대형 전시회였다. 세계도자문명전 등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세계적인 명품과 걸작들이 다수 전시되어 도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까지 큰 관심을 끌었다.

이천세계도자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린 세계도자문명전은 동서양의 유명박물관들이 소장한 총 351점의 도자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엑스포의 위상을 높이고,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계적인 도자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관람객들에게는 세계 도자문명의 다양

---

6)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백서
이천문화원, 2001, 설봉문화 제26호, 9~20쪽,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80일간의 대장정

한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초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양도자실에는 중국의 고궁박물원, 일본의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과 아이치현 국립도자자료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호림박물관 등 유명박물관과 개인 소장품 180여 점이 전시되어 한·중·일 삼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도자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양도자실은 유럽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도자교류 및 서양도자의 발달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전으로,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스위스 아리아나박물관 등이 소장한 고대 이집트 토기에서 근대 유럽도자기에 이르는 도자유물 170점을 전시하였다.

세계현대도자전은 1050년대 이후 세계 도자예술 발전에 기여한 저명한 현대 도예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현대 조형도자의 흐름과 발전과정을 조망함으로써 미래 도자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시회였다. 피터 볼커스, 쥰 가네코 등 세계적인 거장들을 포함한 미·영·프랑스·일본 등 17개국 38명의 작품 74점이 선보였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조직위원회가 전 세계의 역량 있는 신인작가와 기성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 예술성, 실험성의 경쟁을 통한 세계도자예술의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였다. 공모분야는 생활도자와 조형도자로 이원화하고 대상은 분야에 관계없이 1점, 금상 이하는 각 분야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정하도록 했다. 제1회 국제공모전에는 전 세계 69개국에서 1,918명이 4,206점의 작품을 응모하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가려 뽑은 입상작 305점이 전시되었으며, 나이지리아 국적의 로손 오예칸이 영예의 대상을, 생활도자 부문의 이용필(한국)과 조형도자 부문의 캔 이스트맨(영국)이 가각 금상을 차지했다.

세계도자센터내 도예공방에서 열린 이천국제도자워크샵은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을 초청하여 작품 제작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도자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다. 피터 볼커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도예가와 한국작가 80명이 참가했으며, 워크숍의 내용은 영상물로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9월 20일부터 3일간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린 국제도자학술회의에 이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IAC 집행위원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자기 국제기구 회의를 이천에 유치함으로써 엑스포의 국제적인 공인과 함께 한국 도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80일간의 행사기간 중에는 토야 만들기, 도예교실, 도자기 페인팅, 도자기 경매, 차 문화 교실같은 각종 체험행사 외에도 세계민속공연, 거리 퍼레이드 및 거리축제, 인기가수 초청공연, 청소년동아리 페스티벌, 국악의 향연같은 공연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벤트 행사로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주관한 클레이올림픽이 전문 도예인들 외에도 많은 일반인 방문객들이 참여하여 호평을 받았고, 도자기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전통가마 불 지피기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끈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다. 세계도자센터에서 상영된 도자기 전쟁을 주제로 한 입체영상물과 저녁마다 펼쳐진 옥외 비쥬얼쇼는 특히 어린이들의 인기를 끈 행사였으며, 그밖에도

경기문화재단의 한복패션쇼를 비롯하여, 경기무용제, 열전가수왕, 한가위 민속대축제 등과 함께, 이천시의 각 문화예술단체와 사회단체들도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여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천문화원이 주관해온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역시 엑스포 기념행사를 겸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렸으며, 지역축제인 설봉문화제, 장호원복숭아축제, 이천햅쌀축제가 연계행사로 함께 열린 외에도 철인3종경기, 한마음걷기대회, 이천마라톤대회, 이천시민의 날 경축행사 등이 성황을 이루면서 축제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했다. 관내 184개 요장들이 참여한 도자기상품관은 시설이 넓고 깨끗한 공간으로 바뀌고, 엑스포를 대비한 상품개발과 진열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기간중 도자기 상품 판매는 총 14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80일간의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천을 세계 속의 도자문화의 도시로 뚜렷이 각인 시켜준 행사였다. 당초 우려를 씻고 목표치를 훨씬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전반적인 행사운영과 상품판매면에서도 눈에 띠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자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이천시를 중심으로한 우리나라 도예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천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600만명의 방문객중 절반 이상이 이천행사장으로 몰린 이유는 먼저 세계도자문명전, 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같은 중요한 국제전들이 주행사장인 이천에서 열린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그동안 14회에 걸친 도자기축제를 통해 쌓아올린 폭넓은 인지도와 경험, 타행사장의 배가 넘는 넓고 잘 정돈된 공간, 시원한 설봉호수를 끼고 설봉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수려한 주변 경관도 한몫을 했다. 조직위원회가 시도한 3개 지역행사장의 차별화 전략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도, 볼거리가 가장 풍성한 이천행사장으로 방문객들이 몰린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나 두드러진 성과들과 함께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다. 주차장 부족을 비롯한 교통문제는 행사기간 내내 골칫거리였다. 행사장 주변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공휴일만 되면 일찌감치 포화상태가 되어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서울·성남·수원 등 근교지역과 시내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크게 혼잡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특히 세계도자센터 입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으며, 방문객 편의제공을 비롯한 행사운영에도 문제점들이 들어났다. 행사장 안팎은 물론 시내주차장, 버스터미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1일 112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높이 평가돼야 할 부분이다. 해외홍보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미흡했던 점, 600만명의 방문객중 무료입장객이 40%에 육박하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끝난 후의 가장 큰 숙제는 1,380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세계도자센터를 비롯한 3개 행사장의 각종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2년마다 한 번씩 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나머지 대부분의 시

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도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치르고 난후 그 성과에만 취해있다 보니, 계속 이어지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었다.

4) 2000년대 이후의 도자기축제(2002 ~ 2012)[7]

세계 속에 한국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린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목표 아래 열린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는 '흙과 불의 큰 잔치'라는 주제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간 설봉공원 및 도예촌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축제기간 중 전시행사로는 도자기와 꽃의 접목을 시도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기전과, 도자기시화전, 학생작품전, 흙과 불의 정신전, 안동하회탈 특별전 등이 열렸으며, 참여행사로는 도예교실 외에도 추억은 방울방울, 나만의 식기 만들기, 손바닥 발바닥 찍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밖에도 국제도자워크샵, 클레이올림픽, 다도시연, 전통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경매행사 등이 펼쳐졌다. 축제 초기와 중반에는 태풍 루사와 아폴로 눈병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제16회 도자기축제부터는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이천도자기 및 도자기축제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축제 마스코트인 '토담이와 화담이'가 등장하였다. 토(土)와 화(火)는 도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흙과 불을 의미하고, 담(淡)은 담박하다는 뜻의 한자어로 도자기의 맑은 빛과 청아한 소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기에 어미 '이'를 더해 우리말의 부드러운 어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24일간의 축제기간 중 51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하고, 약 15억원의 도자기 판매수입을 올리는 등 도자문화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도자기 전시판매장이나 전시 및 공연물, 기타 행사들이 예년과 크게 차별화된 내용을 보여주지 못해 관람객들에게 식상함을 안겨주었고, 행사장 규모에 비해 볼거리 제공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하여 '흙과 불과 자연과의 만남'을 주제로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국내외 초청인사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려한 개막식은, 흙피리 연주와 달 항아리에 바치는 노래 및 도립무용단,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비엔날레 이천행사장에서는 제2회 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수상작품전과 함께 제2회 국제도자학술회의, NOW&NOW 현대도자전이 열렸다. 도자기축제 전시행사로는 화기전, 전통굴뚝전, 전국 도자기명장전, 학생작품전 등이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

---

7) 이천시, 2006, 이천도자, 92~ 99쪽
이천문화원, 설봉문화, 2002~ 2012 각년도판 참조

공하였다. 특별행사로는 도자기워크샵, 클레이올림픽, 경기백일장, 전통가마 불 지피기, 도자기 경매행사 등이 펼쳐졌다. 축제기간중 기상상태 불량 및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에도 불구하고 제17회 도자기축제는 비엔날레의 특수효과로 244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3개 행사장 전체 방문객 중 47.9%를 차지했으며, 총판매액 70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18회 이천도자기축제는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설봉공원 및 도예촌 일원에서 '흙으로 느껴보는 웰빙(Well-Being)'이란 주제로 열렸다. 도자불씨 봉송에 이어 경기도립무용단과 야단법석의 공연으로 막이 오른 도자기축제의 주제행사로는, 다기류, 쌀독, 구이판 등 생활건강과 관련된 도자기 전시 판매가 새롭게 선보였다. 전시행사로는 도자기 명장 14명이 출품한 도자명품특별전과 화기전, 야생화전, 도자기사진전, 도자기서화전 등이 열렸으며, 그밖에도 도자기 및 옹기제작시연, 도예교실, 클레이올림픽과 다양한 공연행사들이 펼쳐졌다. 제18회 축제는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전통관과 상품관을 분리하여 접근성을 높인 결과 66만명 관람객 유치에 32억원의 상품판매 수입을 올리고 폐막되었다.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한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2005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문화를 담는 도자(Ceramics: The Vehicle of Culture)'라는 주제하에 열렸다. 중요행사로는 도자기 식기를 이용한 아름다운 상차림전, 도자기명장전, 학생작품전, 도자기사진전 등 기획전시와 교류도시전, 지역특산물전, 요업기술전 등 특별전시를 통해 교류도시, 학생, 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체험 및 시연행사 코너를 행사장 입구에 배치하여 행사장 접근성과 축제 분위기를 살리는 한편, 어린이날 공연이벤트, 산사음악회 같은 대형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브리핑룸 운영, 특성화된 상품관 구분배치로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제19회 축제는 이전까지 이어져온 가을 축제의 관례를 깨고 봄철로 개최시기를 변경하여 270만명의 관람객 유치에 성공했지만, 18년간이나 가을철 개최로 인지도를 높여왔던 개최시기를 비엔날레 일정 때문에 봄철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도자기축제 2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이천도자기축제는 '혼의 축제 20년, 천년의 꿈'을 주제로 2006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24일 동안 열렸다. 개막행사로는 꽃과 도자기를 주제로 한 제1회 이천도자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도공추모제가 열렸으며, 천년도자기탄생관, 오감체험관, 키즈워크샵 등의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133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축제의 설문조사 결과 각종 도자기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도자기 가격에 대한 물음에서는 75.4%의 다수 응답자들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2007년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라는 주제로 열려, 아시아 도자예술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아시아 테마 현대도자전, 국제도자포럼 등

이 선보였다. 비엔날레와 함께 열린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도자 수요 창출을 위한 프라이빗도자관, 도자와 푸드스타일전, 영상체험관 등을 열어 30일간 외국인 15만명을 포함한 252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자나라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라는 주제 하에 열린 제22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중국 경덕진 도자악기 연주단의 공연과 제2회 이천도자공모전 시상 등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에는 관람, 쇼핑, 여행 등 테마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전문도공들이 참여하는 놀이와 함께 하는 도자교육관, 프라이빗도자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불의 모험'을 주제로한 제5회 도자비엔날레와 함께 2009년 4월 25일부터 30일 동안 열린 제23회 도자기축제는, 이천도자센터에서 선보인 세계현대도자전, 한국현대도자전, 국제도자워크샵, 클레이아트 영화제 등 비엔날레 행사들과 함께, 어린이 흙놀이 체험, 바투 바투 흙창고, 놀이와 함께하는 도자교육, 도자발굴 체험 등 체험행사들을 통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종 플루 확산 같은 악재들 속에서도 예년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010년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창의도시, 행복한 도자여행'을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23일간 열렸다. 막걸리 100인 쇼룸, 도자공공미술조형전, 돌레 돌레 흙창고, 도자퍼즐체험, 도자소리체험, 한식세계화와 명품식기축제, 제3회 도자트랜드공모전 등이 선보인 제24회 축제는 외국인 7만3천명을 포함한 100만명 관람에 32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체험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축제평가 결과 판매원들의 불친절과 서비스 부족, 가격표 미부착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과다한 도자판매관, 도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불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에서 보듯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의 이천도자기축제는 2년마다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에는 비엔날레 일정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그 사이에 낀 짝수 해는 이천시가 단독으로 축제를 열어왔다. 그러다 보니 축제기간도 길게는 60일에서 짧게 23일까지로 들쑥날쑥하고, 개최시기도 가을에서 봄으로 옮겼다가 다시 가을로 바뀌는 등 오락 가락하여 종잡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의 축제가 되풀이 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람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린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살펴보면, 퍼유(For You) 도자기획전, 도자막걸리 100인 쇼룸, 도자인테리어소품전 등의 기획전과 함께 돌레 돌레 도자흙공방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 이벤트들이 펼쳐졌지만,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특화된 테마 부족,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의 실패,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의 미흡, 홍보 마케팅 부족과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엑스포이후 2012년까지 진행된 축제현황을 보면 방문객수와 상품판매액 등 성과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린 2007년에 252만명이었던 방문객은 2년 뒤인 2009년에는 150만명으로 줄어들고, 다시 2년 뒤인 2011년에는 100만명을 간신히 넘긴다. 2012년 제26회 도자기축제 때는 2001세계도자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비엔날레가 아닌 도자기축제장 입장에도 유료관람을 실시한 결과, 행사기간 23일 동안의 방문객수가 16만6천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총판매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도자기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자기축제의 침체현상은 참여요장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엑스포 때 184개 업체로 정점을 찍었던 참가요장들 역시 갈수록 수효가 줄어들어 2012년에는 137개에 그치는데, 도자기축제에 거는 도예인들의 기대심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난날 전국 문화관광축제의 선두주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천도자기축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표 2〉 이천도자기축제 개최현황 II (2001~2012)

횟수	기 간	장 소	참가 업체	관람객수 (외국인)	매출액 백만원	비 고
15	2001, 8/10~10/28 (80일간)	설봉공원 EXPO단지	184	3,065,007 (209,999)	14,700	2001 세계도자엑스포
16	2002, 9/6~9/29 (24일간)	-	173	512,960 (6,190)	1,500	
17	2003, 9/1~10/30 (60일간)	-	177	2,443,878 (51,878)	7,000	제2회 세계도자 비엔날레
18	2004, 9/17~10/10 (24일간)	-	127	659,240 (46,727)	3,200	
19	2005, 4,23~6/19 (58일간)	-	178	2,706,070 (172,440)	5,000	제3회 세계도자 비엔날레
20	2006, 4/21~5/14 (24일간)	-	138	1,333,130 (6,165)	4,000	
21	2007, 4/28~5/27 (30일간)	-	172	2,521,000 (151,000)	5,900	제4회 세계도자 비엔날레
22	2008, 5/10~6/1 (23일간)	-	162	1,900,439 (150,009)	4,600	
23	2009, 4/25~5/24 (30일간)	-	156	1,553,394 (138,252)	5,300	제5회 세계도자 비엔날레
24	2010, 4/24~5/16 (23일간)	-	143	1,008,000 (73,327)	3,200	
25	2011, 9/24~10/23 (30일간)	-	157	1,109,754 (99,486)	3,700	제5회 세계도자 비엔날레
26	2012, 4/28~5/20 (23일간)	-	137	166,767 (11,465)	2,500	

3. 이천도자기축제의 전망

1987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천도자기축제와 2001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는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천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전국 문화관광축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천시가 도자기축제를 통해 쌓아올린 성과 중에서도 가장 손꼽을만한 것은 '도자문화의 도시 이천시'의 이미지 구축이다. 과거의 이천은 쌀과 온천 정도가 그나마 이름이 알려졌을 뿐 이렇다할 자랑거리가 없는 고장이었다. 그러다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자기축제를 열게 되고, 이를 꾸준이 발전시켜 전국에서도 손꼽는 유명축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현대 도자문화의 고장이란 뚜렷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이천시의 이름을 전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2011년 이천시가 민속과 공예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자기축제의 성공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축제를 통해 얻는 지역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의 하나다. 행사기간중 상품판매를 통해 얻는 직접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천을 찾아옴으로써 생겨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년 수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 2011년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린 제25회 도자기축제의 경우를 보면, 30일 동안 외국인 관광객 9만9천여 명을 포함한 방문객 1백1십만9천명 동원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모두 2,4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 1,278억67백만원, 소득유발효과 306억45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0억78백만원, 수입유발효과 90억13백만원, 세수유발효과 73억42백만원 등이며, 취업유발효과는 2,222명이었다.[9] 그밖에도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브랜드 가치상승, 고용창출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지역사회 통합 등의 효과를 손꼽을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이천시의 도자기 산업은 심각한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자기축제 역시 해가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천도자기축제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음의 몇가 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가 도자기 산업의 장기불황이다. 초창기 일본인들의 구매력에 의존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천의 도자산업은 일본시장이 갈수록 침체되면서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지만, IMF 이후 국내시장마저도 크게 위축되면서 아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천시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도자예술촌 개발을 비롯한 이천도자기의 브랜드화, 해외시장 개척

8) 도자기축제에 의한 경제파급 효과는 이천시청 도예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725억원, 2008년 1,646억원, 2009년 3,301억원, 2010년 1,162억원, 2011년 2,409억원이었다.(2007년은 자료 없음)
9) 이천시, 2011,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 자료..

등의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다. 도자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자산업체들의 영세성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하루 이틀에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둘째는 도자기축제의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과거의 도자기축제는 도공의 간단한 물레시연만으로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끄는 일이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전국 어느 축제를 가나 도자기 물레시연이나 도예교실이 눈에 띈다. 과거의 이천도자기축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자기를 주제로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사운영으로 축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상품판매 위주의 행사운영, 비엔날레 행사와의 연계성 부족 등도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이천도자기축제가 지난날의 눈부신 성과에만 안주해 있다 보니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축제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적자생존의 냉엄한 경쟁세계가 지역축제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천도자기축제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이천시는 2012년부터 방문객 유료입장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13년부터는 민간주도로 축제를 치룰 수 있도록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등 도자기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축제의 민간이양도 중요하지만 자칫 도예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축제의 앞날을 다같이 고민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자기축제의 재도약이 반드시 성공하여 천년을 이어온 우리 도자문화가 이천에서 다시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천시와 도예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3장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고 광 윤 / 이천시 문화관광과 주무관

---

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특징
2. 연도별 개최 현황(1998 ~ 2013)
3. 작품 배치 현황
4. 국제조각심포지엄의 성과
5. 향후 발전 방안

제3장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예술 기획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 결과물인 작품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서적 감흥을 사람들에게 선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진리에 공감을 할 수 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그런 예술적 격언을 잘 반영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천의 4대 축제인 도자기축제, 산수유축제, 쌀문화축제, 복숭아축제 등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수도권 중소도시인 이천을 전형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로 정착시킨 중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천시민들에게 1년 주기로 반복하여 문화적, 심리적 사이클에 영향을 끼쳐왔다. 반면 매년 행사를 마친 후 예술작품을 남긴다는 점에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4대축제와는 차별화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민선2기 첫해 1998년 시작되어 민선5기 3년차인 2013년까지 1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된 국내 유일의 조형예술행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6년간 심포지엄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특징

1) 이천시 4대 축제의 보완적 성격

1998년 1회부터 2013년 16회까지 추진되었으며 대략 개최시기가 여름행사로서 4대 축제가 열리는 시기를 피해서 2007년과 2008년, 2012년, 3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7월과 8월, 9월에 행사가 개최되어 왔다. 이천에는 4월 초에 산수유축제, 4~5월의 도자기축제, 9월 말 추석 전후로 장호원 복숭아 축제, 그리고 10월말 쌀축제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이 시기를 피하여 차분하게 개최되어 문화적 유산을 매년 만들어 낸다.

2) 추진 주체의 다양성

1회부터 9회까지 이천시 주최, 이천문화원 주관(1회 국제조각가친선협회, 2회~9회 조직위원회)으로 열리다가 10회부터는 이천시 주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후원은 초기에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미술협회, 한국예총, 예총 이천시지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관여하다가, 9회 심포지엄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면서 2013년까지 경기도의 시책추진비 지원이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시 자체 예산으로 개최되어 왔다.

3) 다양한 주제 부여

〈표 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연도별 개최현황

회	년도	일시	기간	장소	주관	후원	주제
1	1998	07. 10 ~ 07. 24	15일	마장면 해월리	이천문화원 (국제조각가 친선협회)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사랑과 평화
2	1999	08. 12 ~ 08. 29	18일	마장면 장암리	이천문화원 (추진위)	경기도/한국미술협회	
3	2000	08. 17 ~ 09. 03	18일	〃	〃	경기도/한국예총	
4	2001	09. 01 ~ 09. 18	18일	설봉 공원	〃	경기도	
5	2002	09. 01 ~ 09. 18	18일	〃	〃	〃	
6	2003	09. 18 ~ 10. 02	15일	〃	〃	〃	벤치를 주제로 한 생활 속의 조각
7	2004	09. 01 ~ 09. 24	24일	〃	〃	〃	대형 환경조각 프로젝트
8	2005	08. 26 ~ 09. 12	18일	〃	〃	경기도/예총 이천시지부	
9	2006	09. 01 ~ 09. 18	18일	〃	〃	경기도	
10	2007	11. 01 ~ 11. 19	19일	〃	심포지엄 추진위	-	놀이와 자연
11	2008	08. 22 ~ 09. 11	22일	〃	〃	〃	공간놀이
12	2009	03. 13 ~ 04. 03	22일	〃	〃	-	약동하는 자유
13	2010	08. 26 ~ 09. 16	22일	〃	〃	〃	도시풍경 만들기
14	2011	09. 20 ~ 10. 10	21일	온천 공원	〃	〃	관객 같은작가 & 작가 같은 관객
15	2012	07. 09 ~ 07. 30	21일	설봉 공원	〃	〃	조각, 빛을 품다
16	2013	08. 06 ~ 08. 27	22일	설봉 공원	〃	-	조각이 '말'을 걸다

제1회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였고, 6회에는 '벤치를 주제로 한 생활 속의 조각' 7회 '대형 환경조각 프로젝트'를 컨셉으로 작품 소재와 설치장소를 다양화 하였다. 10회부터는 매년 색다른 주제를 부여하여 장소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연도별 개최 현황(1998 ~ 2013)

1)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국민의 정부 출범 1년차인 199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 동안, 통일 대한민국의 소원을 담고자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로 처음 이천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제조각가친선협회장 박찬갑의 작업장인 마장면 해월리 일대에서 행사가 열렸다. 행사기간에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방문과 격려가 있어 첫 대회의 중량감을 더해 줬다. 세계적인 조각가 울리케 비르크호프(독일) 외 18개국 23명의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23개의 작품들은 화강암을 재질로 창작되었고, 당시 도자기축제와 연계되어 행사장에도 특별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2) 제2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999년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18일 동안 마장면 장암리 강대철 조각가 작업장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페루, 우루과이 등 남미지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지역, 북미와 유럽지역 등 각 대륙에서 모인 17개국 24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권호장 경기도 행정부지사등이 참여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다. 심포지엄 기간 중 작가들은 이천도예촌 등을 방문하여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으며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소품전도 열렸다.

폐막 전 공정한 심사를 거쳐 푸에르토리코의 작가 라몬 베리오스가 대상을 받았다. 18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개성이 뚜렷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 24점이 탄생되었다.

3) 제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첫해인 2000년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18일 동안 마장면 장암리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에서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3회 연속으로 개최되어 도자기 축제와 함께 문화예술행사로 안정화를 이룬 해였다. 장마철과 맞물려 비가 내리고 행사기간 후반에 태풍으로 작업텐트가 날아가는 악조건 속에서도 창작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빠듯한 일정에도 용인 민속촌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함께 배우면서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감수하면서도 재질에 있어서 석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철재, 청동으로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전년도 대상작가 베리오스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가나모리 요시히로(일본)의 작품을 비롯하여 15점이 창작되었다.

4)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 동안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장으로 새롭게 조성된 설봉공원에서 세계도자기 프레엑스포와 함께 열려, 이천시 역대 최대 방문객수를 기록한 도자기엑스포와 연계를 통한 국제행사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멕시코, 유고슬라비아 등 13개국 15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었다.

초가을임에도 내리쬐는 폭염 속에서 연일 작품 창작에 몰두하면서 이전보다 규모가 큰 작품들이 탄생되었다. 창작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인사동 견학 호암미술관등을 탐방하였다. 심사위원심사와 참여 작가 자체 심사를 통하여 버트란드 네이(룩셈브르크)의 '숨결'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모두 15점의 작품이 만들어 졌다.

5) 제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프랑스, 이태리, 터키 등 8개국 14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었으며, 67세의 고령자 이태리의 세계적인 조각가 프랑코 페콘지를 비롯한 작가들은 거대한 석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열정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저녁에는 그 해 개관된 시립박물관에서 각자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열렸다. 또한 조형예술전공 대학생들의 단체방문이 이어져 동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전년도 대상 수상자 버트란드 네이등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유고슬라비아 죠르지에 파자크의 '환상'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모두 14점의 작품이 만들어 졌다.

한편 이천시에서는 5년 동안 탄생된 90여점이 넘는 작품들을 주로 설봉호수 등 공원일대에 설치하여 '설봉국제조각공원'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한국 최초로의 국제조각공원으로서 조형예술의 명소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6) 제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3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타이완 등 12개국 13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었다. '생활 속의 조각-벤치아트'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현장속에서 살아 숨쉬는 조각을 만든다는 취지로 작가들의 개성이 발현된 행사였다. 작가들은 도자비엔날레와 축제장 등 우리문화탐방, 세미나, 작가교류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전과 같은 방식의 심사위원 심사와 참여 작가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에 타이완 작가 치만 라이의 '풍경'이 선정되었고 모두 19점의 작품이 탄생되었다.

7) 제7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4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8개국 8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었다. 이번에는 '대형 환경조각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이전보다도 규모가 두 세배 더 큰 석조작품들이 창작되어 주목을 받은 가운데 8점이 탄생되었다. 작가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국사와 석굴암, 남산, 포석정, 국립경주박물관 등을 돌아보는 경주 문화탐방 시간을 가졌으며, 세미나와 작가교류회도 열렸다.

8) 제8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8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12개국 14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었다. 뙤약볕 밑에서 창작의 열기를 불태우면서 작가들은 문화탐방, 세미나, 작가교류회를 갖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톤 칼레가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모두 14점의 작품 탄생되었다.

9) 제9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민선4기 체제로 들어선 첫 해인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으며, 10개국 14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었다. 9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국내유일의 조형예술로서 자리매김한 가운데 9월 1일 작가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이전 야외행사와는 달리 미란다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쥬아우 안테로 알메이다(포루투갈)의 '동서양의 유기적 다리'가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모두 15점의 작품이 탄생하였다.

10) 제1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9회까지 부분 시행되었던 주제 부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시기로 '놀이와 자연'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석재로 만들어 졌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브론즈, 스테인레스 등의 다양한 재료의 도입이 시도되었다. 특히 10주년을 기념하는 참여 작가 소품전시회가 부대행사로 개최된 가운데 문화탐방, 행사사진 공모전, 작은 음악회,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다. 8명의 작가들이 초청되어 9점의 작품이 탄생된 가운데 이탈리아 루카 마로비노의 '나무'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11) 제1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8년 8월 22일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간 놀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까지 22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개인전 2회 이상, 40세 이상의 선정기준을 통해 6개국 10인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 주경기장인 부발종합운동장에 적합한 작품 10점이 설치되었다. 한편 참여 작가 소품전시회가 월전미술관에서 부대행사로 개최된 가운데 문화탐방, 온라인행사 사진공모전이 진행되었다.

12) 제12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09년 3월 13일 월전미술관 정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동하는 자유'라는 주제로 4월 3일까지 22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 자격기준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개인전 2회 이상 40세 이상이 설정되어 4개국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장소인 부발종합운동장에 작품 10점이 설치되었다. 부대행사로 이천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 도민체전과 어울리는 기획초대전을 열어 스포츠와 조각의 앙상블을 연출하였다. 대중들의 조형예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조각교실도 열렸고, 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최태만 교수를 위촉, 작가선정 및 작품 창작을 위한 지원환경을 조성하였다.

13) 제1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22일 동안 '도시풍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설봉공원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 자격기준으로 이천시의 장소적 성격을 잘 이해하여 창작이 가능하고, 시민친화적 도시공공미술 구현이 가능한 우수작품 발표 경험이 있는 5개국 10명의 작가들이 선정되었다. 작품들은 이천시 신청사, 복하천 수변공원 등 새롭게 조성된 공공장소에 10점이 설치되어 공공시설물에 조화미를 더했다.

14) 제1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11년 9월 20일 이천시립박물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21일 동안 '관객같은 작가, 작가같은 관객'이라는 주제로 온천공원에서 열렸다. 수년간의 개최 장소였던 설봉공원을 벗어나 민선4기 출범시 공약으로 조성된 온천공원의 잔디광장에서 작품 창작이 이루어졌다. 2대 예술감독을 최태훈 조각가가 맡아 6개국 10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10점의 작품을 남겼다. 창작물 10점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재료, 작가 성향, 작품 기획의도가 이전과 차별화되어 파격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이천시에서는 참여 작가 10명 전원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하였다. 신설공원에 적합한 작품 10점이 공원에 설치되어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계기가 되었다.

15) 제1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 동안 '조각, 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6개국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신청사 개청 4년만에 처음으로 이천시청 뒷편 분수광장에서 색다른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작가들의 창작열기가 돋보였던 행사로 평가 받는 가운데, 14회에 이어 작품재질의 다양성과 조각에 빛을 넣는 방식의 신선한 기획의도로 10점의 작품들이 탄생하여 온천공원, 서희청소년센터, 농업테마박물관 등 신규 공공시설에 설치되었다. 부대행사로는 작가 문화탐방, 아티스트 토크, 작가를 위한 공연 등이 실시되어 행사의 흥미를 더 하였다. 11월에 개최된 심포지엄 평가보고회에서는 15년간 만들어진 208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조각의 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 조각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16)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22일 동안 '조각이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6개국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경기도 시책추진 예산지원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미명하에 끊겨, 이천시 자체예산으로만 운영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6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올 수 있었다. 또한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주제에 걸맞는 '소통'의 키워드를 작품에 아로새긴 작가들의 노력으로 10점의 걸작들의 탄생되어 온천공원에 설치되었다. 4년 동안 시행된 예술감독제가 추진위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단점이 부각되어 대안으로 실무위원회(박장근 실무위원장)와 수석 큐레이터가 영입되어 대회가 진행되었다. 부대행사로는 작가 문화탐방, 아티스트 토크, 작가를 위한 공연, 도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큐레이터의 도슨트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었다.

〈표 2〉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참여작가 및 행사내용

회	년도	참여 국가	참여 작가	작품확보량(기)	예산 (백만원)	부대행사		
						본행사	부대행사	기타
1	1998	22	23	23	183	참여작가 워크숍	문화탐방	세미나
2	1999	17	24	24	315	참여작가 워크숍 참여작가 소품전	문화탐방 학생사생대회	
3	2000	13	15	15	212	참여작가 워크숍 참여작가 소품전 작가교류회	문화탐방 초청연주회	세미나
4	2001	14	15	15	250	참여작가 워크숍 참여작가 소품전	문화탐방	세미나

회	년도	참여 국가	참여 작가	작품확보량(기)	예산 (백만원)	부대행사		
						본행사	부대행사	기타
5	2002	8	14	14	250	참여작가 워크숍 작가교류회	문화탐방 도자축제견학 안성시조각가 스튜디오방문	세미나
6	2003	12	13	19	300	참여작가 워크숍 작가교류회	문화탐방	세미나
7	2004	8	8	8	300	참여작가 워크숍 작가교류회	문화탐방	
8	2005	12	14	14	300	참여작가 워크숍 작가교류회	문화탐방	
9	2006	10	14	15	320	참여작가 워크숍 작가교류회	문화탐방	세미나
10	2007	8	8	9	200	참여작가 워크숍 10주년기념기획전 참여작가 소품전	문화탐방 사진공모전 작은음악회	학술 세미나
11	2008	6	10	10	300	참여작가 워크숍 기획초대전 참여작가 소품전	문화탐방 기념음악회 온라인사진공모전 찾아가는미술관	학술 세미나
12	2009	4	10	10	330	참여작가 워크숍 특별전	문화탐방 조각교실 오픈스튜디오	학술 세미나
13	2010	5	10	10	435	〃	문화탐방 조각교실 오픈스튜디어 아티스트 토크	
14	2011	5	10	10	450	〃	조각교실 아티스트 토크	
15	2012	5	10	10	450	〃	문화탐방 아티스트 토크 사생대회 친선체육대회	
16	2013	5	10	10	400	참여작가 워크숍	문화탐방 아티스트 토크 도슨트프로그램	
계	57	203	216	4,995				

3. 작품 배치 현황

199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역대 작품은 총 216점으로서 24개 공공장소, 또는 시설 안

에 설치되어 있다. 심포지엄이 매년 개최된 16년 동안 이천시에는 작품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 또는 공공장소가 여러 곳 들어섰다. 작품들은 이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변의 조경 또는 시설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곳을 드나드는 시민 또는 방문객들의 정서를 함양해 왔다.

1) 공원속의 조각작품

설봉산일대가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천시의 주요축제 또는 행사의 명소가 되었다. 주로 초창기 작품들을 포함하여 108점이 설봉공원 일대에 설치되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심포지엄 행사도 주로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11년 조성이 완료된 온천공원에는 14회~16회 작품 22점이 설치되어 신규공원을 찾는 부근의 시민들에게 친근한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으며, 모가면에 들어선 농업테마파크에도 15회 작품 2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장호원 레포츠 공원 3점, 설성면 노성산 시민공원 4점, 복하천 수변공원 4점, 백사 검바우공원 1점이 설치되어 있다.

2) 공공청사등의 조각작품

이천시 최초로 유치한 2009년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상징하는 스포츠 관련 조형작품들이 창작되어 종합운동장에 17점이 설치되었고, 2008년 개청한 이천시 신청사 일대 부지, 또는 실내에 14점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친근한 시청사의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창전청소년 문화의 집 7점, 서희 청소년문화센터 2점, 시립도서관에 5점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경찰서 3점, 여주지방검찰청2점, 여주지방법원 2점, 세무서 앞 1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각심포지엄 예산을 지원한 경기도청에도 2점이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도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4점, 시립박물관 1점, 창전동주민센터 입구 1점이 설치되어 있다.

3) 기타 공공장소의 조각작품

시민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인 창전동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는 7점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마장초교 부근 도로 중앙 화단에 1점, 시청 행정타운 입구 1점, 죽당리 자연장지 2점이 설치되어 있다.

4. 국제조각심포지엄의 성과

1) 국내 유일의 16년 지속 조형예술행사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16개국에서 23명의 조각가가 참여하여 행사를 가진 이래 2013년까지 16년 간 한해도 빠짐없이 개최됨으로써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행사로 자리 잡았다.

2) 영구적인 유형자산 축적

57 개국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216점이 이천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조형작품들을 통해 국내외 조각예술의 변천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야외조각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험학습과 교육 등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조형예술의 도시로서 기반 구축

16년간에 걸쳐 탄생한 216개의 작품을 이천시의 공원, 공공시설물 곳곳에 설치하여,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으로 조형예술의 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 지역문화의 질적 수준 고양

지역 내 4대 축제와 함께 이천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규정해 줄 수 있는 한편,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일상생활 속에서 조형예술 작품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향후 발전 방안

1) 공공디자인에 적합한 계획 필요

매년 심포지엄은 추진 주체의 의도, 또는 공공시설물의 입지에 따라 매번 다른 형태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의 미관과 연계된 심포지엄 행사가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 같이 공공시설물이 조각을 필요하듯이, 조각은 그 작품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즉흥적인 작품설치를 지양하고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요소요소에 적합한 작품의 수요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2) 기존 작품의 재배치 필요성

16년 동안 만들어진 작품들은 24개 장소에 배치되어 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당시의 형편과 공공시설물 조성에 따라 작품이 설치되어 왔으나, 216점 전체의 작품 형식, 재질, 규모, 성격 등을 세밀히 분류하여 재배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보다 관람수요가 더 큰 곳으로의 이동도 고려해 볼만하다.

3) 사무국 등 추진 주체의 전문성 확보

예술감독제 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교체되는 현실이어서 작가초청 등이 매년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사무국 또한 유사한 사례를 거듭하고 있다.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의지와 끈기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시민참여 유도

작품제작과정을 지켜보거나 결과물을 감상하는 수동적 참여로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에는 미흡하다. 심포지엄 기간 중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조각교실 운영하거나,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대내외 홍보 강화

16년 동안 행사전후로 지역 언론 등 신문지상에만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시대흐름에 맞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전국의 조형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작품소재 장소가 표기된 자세한 위치도 및 작품 설명서를 제작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6년의 역사 속에는 국내외 조각가들의 예술적 혼과 열정이 담겨 있다. 또한 이를 꾸준히 지켜보고 예술적 자부심을 갖고 지지해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조각예술의 역사적 가치를 끈기 있게 이어가고자 하는 이천문화원, 예총,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이천시 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 시대의 문화 예술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16년 동안 참여한 모든 작가들이 이천을 기억하고, 이천은 참여작가들의 예술적 노력을 기억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을 통해 유형적 문

화유산이 되었다.

조형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에 16년이라는 세월이 충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로 보면 인구,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등 도시에도 생명이 있듯, 향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할 이천의 미래를 위해 조각심포지엄은 계속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천도시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 백

제4장

설봉문화제(雪峰文化祭)

이 선 민 / 이천문화원 간사

---

1. 이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민하다.
2. 설봉문화제, 지역문화의 산실이 되다.(1987년~1999년)
3. 2000년대의 설봉문화제(2000년~2013년)
4.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

제4장 설봉문화제(雪峰文化祭)

1. 이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민하다.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문화제, 페스티벌, 예술제, 제전, 경연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는 지역의 모든 축제를 총체적으로 일컫는다.[1]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특산물, 전통문화·민속,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라 한다.

축제를 '창조산업이자 문화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파악된 축제만 758개에 이르고, 이들 758개 축제에서 사용된 총예산이 무려 약 2,219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이라고 한다.[2] 우리는 적어도 규모면에선 가히 지역축제의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제1회 설봉문화제 가두행진(현재의 분수대오거리)

그런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시작한(적어도 그렇다고 대중이 믿고 있는) 지역축제가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정체성이 그만큼 신장되었는지 자문하면 선뜻 대답이 망설여진다. 2012년 진주시 시의원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진주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연례화를 취소하라고 항의한 사례에서 보듯, 비슷한 소재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 다른 축제 소재라 하더라도 정작 지역축제의 주요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한 현실 속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역축제 속에서 찾아내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지역의 제반 특성'을 지역정체성으로 본다면[3] 올바른 지역축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1) 이훈, 「축제체험의 개념적 구성모형」, 『관광학연구』 30권 1호, 2006, pp29-46.
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12)
3) 임병조,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홍성신문에 투영된 內浦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1호, 2009, p.90

과 견해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약간 범위를 한정하여 지역축제의 핵심이 되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집중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문화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문화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구분이 희미해진 현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공급하는 주체로 적극 참여할 때, 비로소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축제에 온전히 담아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문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문화의 공급자가 되고, 대중은 소비자에 머무는 시대가 아니다. 1987년, 대중의 문화적인 인식은 물론 재정적·사회적 기반시설도 미비한 시기에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시작한 설봉문화제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설봉문화제, 지역문화의 산실이 되다.(1987년~1999년)



제1회 설봉문화제와 이천도자기축제 홍보물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전통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공동체의식이 결여되기 시작한 1970~1980년대에 들어 각 지역에 향토문화예술축제가 하나둘 생겨났다.

초창기 지역축제는 대부분 관주도적인 성격이 없지 않았으나, 차츰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이천의 지역축제인 설봉문화제는 1987년 당시 군민의 대동화합과 동참의식을 제고하여,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이천문화원의 주도로 출발한다.[4)]

설봉문화제는 특정한 소재를 주제로 만든 지역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부행사를 유기적으로 엮은 종합적인 성격의 지역문화축제이다. 초창기 이후 현재까지 설봉문화제의 주요행사 내용은 시간이 흐르며 상당한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도 종합향토축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비록 예산과 인력을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과 더욱 밀접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설봉문화제는 전문예술인을 위한 큰 무대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개의 작은 무대가 모인 지역축제인 셈이다. 또한 종합향토축제는 여러 가지 세부행사를 치르면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편, 2001, 『이천시지』 5권-사회와 문화, p.432

〈표 1〉 지역축제의 개최 연도 현황 (단위: 개/%)

최초 개최 연도	축 제 수	백 분 율
1945년 이전	4	0.6
1946년 - 1950년	1	0.1
1951년 - 1955년	2	0.3
1956년 - 1960년	3	0.4
1961년 - 1965년	8	1.1
1966년 - 1970년	8	1.1
1971년 - 1975년	7	0.9
1976년 - 1980년	14	1.8
1981년 - 1985년	19	2.5
1986년 - 1990년	23	3.0
1991년 - 1995년	53	7.0
1996년 - 2000년	169	22.3
2001년 - 2005년	176	23.2
2006년 - 2010년	187	24.7
2010년 - 2012년	61	8.0
미 조 사	23	3.0
합 계	758	100

〈표 2〉 제1회 설봉문화제 행사내용 (1987년)

행사명	일 시	장 소	내 용	주관단체
도자기축제	9.28~10.9	설봉관광호텔	도예작품 전시회, 도자기 시장	이천군, 문화원
문예행사	9.28~10.4	문화원전시실 이천농고	서화전, 애향문예백일장, 미술대회	문화원, 교육청
민속행사	9.29	공설운동장	그네뛰기, 널뛰기, 제기차기, 장사씨름대회, 농악경연대회	이천군
전야제행사	9.29	설봉산 칼바위, 양정여고체육관	고신제, 등반대회, 불꽃놀이, 설봉 음악제(음악발표회 · 초청음악회)	문화원, 교육청, 상공회의소
군민의 날 기념식	9.30	공설운동장	기념식, 거북놀이 시연, 체육대회	이천군
기타 행사	9.29~9.30	이천시내 외	가장행렬, 향토음식 시장	상공회의소, 이천군

예를 들어 1987년 개최된 제1회 설봉문화제의 세부행사 중 이천이 전국적인 도자기의 도시로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한 도자기축제가 바로 그러하다. 사실 이천도자기축제는 1995년 제9회 이전까지 초라한 규모의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원 단독으로 행사를 준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5] 더구나 주인공이어야 할 도예인들의 냉담한

5) 1987년 제1회 설봉문화제의 군郡지원예산은 21,200천원이다. 이후 제4회까지는 평균 9.3%정도 예산이

반응마저 이어진 까닭이다. 그러나 이천문화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도자기축제의 가능성을 놓고 꾸준히 관계자들을 설득하였다. 우선 도자기축제는 한국의 대표문화유산인 전통도자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행사내용만 잘 다듬는다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제관광축제로 키울 수 있고, 당시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볼거리 위주인 반면 도자기는 상품판매가 가능하므로 관광수입을 포함하여 지역의 탁월한 경제적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이러한 전망과 기대효과를 강조한 이천문화원의 주장이 1995년 당시 문화체육부 관광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되어, 같은 해 문체부 시범행사로 지정되었고, [6]가장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겸한 제15회 이천도자기축제에는 184개의 도예업체가 참여하고 관람객 3백여 만 명(외국인 209,999명 포함)이 다녀가는 대규모 축제로 거듭났다.[7]



문화체육관광부 시범행사로 지정된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

사실 도자기축제 이외에도 국제조각심포지엄이나 이천쌀문화축제 등 현재 이천의 주요 문화행사로 꼽히는 지역행사의 상당수가 초창기에 설봉문화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이는 이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설봉문화제가 각종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산파 역할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연례적인 문화행사 이외에도 단발성인 지역의 체육대회나 강연회, 전시회, 공연 나아가 국가적인 행사까지 설봉문화제 내용 속에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설봉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이천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1987년부터 1999년 제13회까지 설봉문화제의 행사내용 중 지면관계상 연례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특별한 성격의 주요행사 내용만을 대략적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8]

증가하였으나 5회째부터 추가된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예산(5,000천원)을 감안하면 1991년(제5회)에는 축제예산이 실질적으로 29% 감소하였다., 제6회는 지원예산 총액이 15,000천원, 7회째인 1993년에는 16,000천원으로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설봉문화제 준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6) 이후 문화체육부는 1995년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에 고무되어 이듬해부터 가능성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집중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천도자기축제를 비롯한 8대 지역축제를 발표하였다. 본문에 수록된 표1 '지역축제의 개최 연도 현황'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천도자기축제가 우리나라 지역축제 활성화에 불을 댕긴 셈이다.

7) 「역대 도자기축제 개최현황」(자료제공: 이천시청 도예팀)

8) 1987년부터 1999년까지의 설봉문화제 내용은 『이천시지』 제5권, 사회와 문화 편에 다섯 페이지에 걸쳐 연도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표 3〉 연도별 설봉문화제 특별 행사 내용 (1회~13회)

연도	회차	주요 내용	비고
1987	1회	군민의 날 기념식, 설봉문화제 개막 가장행렬 시가행진	
1988	2회	88서울올림픽 성화맞이 문화축제, 궁도대회, 불꽃놀이	
1989	3회	제70회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 윈드앙상블 초청음악회	
1990	4회	설봉음악제 (수해로 인해 설봉음악제와 설봉미전만 개최)	
1991	5회	제1회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	
1992	6회	전승도예협회 도예작품전.	
1993	7회	제1회 휘호 · 미술대회, KBS교향악단 목관5중주 초청 음악회	
1994	8회	서예작품 전시회, 설봉산 성돌이 행사	
1995	9회	문화체육부, 도자기축제를 시범행사로 지정(23만명 외래 관람객 유치)	
1996	10회	제1회 시민의 날 기념, 도자기축제 전국8대지역축제로 선정	시승격
1997	11회	설봉산성 산신제, 이천시 문화상 시상식, 경로 체육대회, 미술 휘호대회(1,200여명 참가) 등	
1998	12회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18개국 23명 조각가 참여), 설봉산성 발굴유물 특별전시회, 김덕수와 한울림예술단 초청공연	
1999	13회	공옥진여사 초청1인 창무극, 사직제와 봉화제(고신제에서 명칭 변경), 제 1회 이천합창페스티벌 · 이천국악제, 주부가요챔프	

출처: 『이천시지』 5권, 사회와 문화. pp.432~436

3. 2000년대의 설봉문화제(2000년~2013년)[9)]

2000년에 치러진 설봉문화제는 세계도자기 프레엑스포를 기념하여 이천시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설봉공원)에서 펼쳐졌다. 설봉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천문화원이 주관하며 경기문화재단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지부(이하 예총이천시지부), 현대전자산업(주)이 후원한 제14회 설봉문화제는 20개의 세부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전시행사로 흙과 불의 정신展, 도자기 시화전, 설봉산성유물사진전, 이천사진작품전, 청묵서예전, 청미시화전(이상 6개 전시행사)이 열렸고 연극 원효대사, 연극 가마골사람들, 청미사생대회, 애향문예백일장, 학생예능발표회, 제6회 미술 및 휘호대회, 제21회 경기백일장, 무용경연대회, 찾아가는 국악대공연, 제2회 이천국악제(이상 10개 문예행사), 설봉산사직제, 시민등산대회, 장호원읍민 노래자랑,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이상 4개 민속경축행사)가 선보였다. 14회 설봉문화제는 2001 세계도자기 프레엑스포 홍보를 겸한 경축공연이 대거 펼쳐진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장호원초등학교에서 펼쳐진 제1회 장호원읍민노래자랑과 청미사생대회, 청미시화전 등을 통하여 장호원읍민들이 처음으로 설봉문화제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천 시내중심권에 비

9) 2000년 이후 설봉문화제의 행사내용은 『설봉문화』 24호~51호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었던 장호원 지역문화발전에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2001년은 이천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어 세계적으로 도자도시 이천의 위상을 널리 알린 기념비적인 해이다. '2001 지역문화의 해'를 기념한 제15회 설봉문화제는 전년보다 3개의 세부행사가 추가되었다. 또환 2000년에 이어 장호원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가 열려 좋은 반응을 얻은 점이 눈에 띈다. 미술협회 이천시지부의 흙과 불의 정신展, 이천사진연구회의 사진작품전, 예총이천시지부가 주관한 청소년 무용잔치, 국악의 향연,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통기타의 밤, 가족영화를 상영한 청미영화제가 열려 1,500여 명의 장호원 주민이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청묵서예전, 장호원미술인회의 합동전시회,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와 이천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설봉산성 유물사진전이 장호원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세부행사가 펼쳐진 2001년은 역설적으로 설봉문화제에 대한 반성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설봉문화제가 미술대회, 서예전, 백일장, 음악발표회, 초청음악회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거의 유일한 발표의 장이 되어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이끌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 이천의 문화적 환경이 이전과 상당히 달라짐에 따라 변화가 필요했다. 이미 산수유축제, 복숭아축제, 햅쌀축제가 생겨났고 단체별 자체 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설봉문화제의 대다수 행사는 이전과 비슷한 유형의 전시회나 발표회로 구성되어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10] 즉 예전과 달리 어느 정도 문화향유의 기반이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설봉문화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2002년에 펼쳐진 제16회 설봉문화제는 이전과 달리 이천햅쌀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방식으로 행사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당시 제4회를 맞이한 이천햅쌀축제(이천쌀문화축제의 전신)는 확고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설봉문화제 또한 달라진 문화적 환경에 발맞추고자 전통 민속행사 중심으로 축제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행사 모두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설봉문화제와 이천쌀문화축제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햅쌀축제장에서 미술협회 이천시지부 주관으로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가 열렸으며, 10월 20일 제1회 허수아비가족축제를 개최하여 완성된 허수아비를 햅쌀축제장에 전시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10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햅쌀축제장 내 자채마당에서 연합풍물놀이 한마당이 이천문화원 주관으로 펼쳐졌고, 이외에도 이천예우회의 미술전시회, 정묵회

10) 2001년 10월8일, 설봉문화제 개막행사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을맞이 가곡의 밤'행사의 경우, 참석한 청중이 고작 일백 여명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시민들의 시선이 온통 세계도자기엑스포에 편중된 탓도 있지만, 달라진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설봉문화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서예전 등을 햅쌀축제 기간에 열어 시민에게 햅쌀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도록 하였다.[11]

제17회 설봉문화제(2003)는 설봉산사직제와 시민등산대회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같은 해 열린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햅쌀축제의 연계행사로 치러졌으며 총 15개의 세부행사가 펼쳐졌다. 설봉문화제는 이 시기부터 조금씩 민속행사의 비중을 늘려 민속축제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간다. 대표적인 민속행사로 이 해에 처음 열린 제1회 학생풍물경연대회(학생국악경연대회의 전신)와 문화의 거리(중앙통)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59호 김대균줄타기 한마당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설봉문화제는 2000년대부터 이천햅쌀축제(이천쌀문화축제의 전신)와 연계한 행사를 시작하였다. (사진은 2011년 열린 이천시 학생국악경연대회)

2004년에는 문예행사로 연합서예전, 서희선생 추모애향문예백일장, 학생종합예술제가 열렸고, 민속행사로는 설봉산사직제와 제2회 이천학생풍물경연대회, 허수아비가족축제, 전국연날리기대회, 국악퓨전콘서트 공감21 공연, 경축행사로 시민등산대회, 소리극 서희선생공연, 얌모얌모 콘서트 공연 등이 열렸다. 특히 한국민속연보존회와 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제1회 이천시장배 전국연날리기 대회는 이틀에 걸쳐 예선과 결선을 치렀는데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설봉공원에서 행사가 매년 열리기를 희망하였다. 장호원에서도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청미문화제가 꾸준히 지속되어 장호원읍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05년(19회)부터 2013년(27회)까지 설봉문화제는 이천쌀문화축제와 연계한 민속행사와 장호원에서 열리는 청미문화제를 중심으로 축제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설봉문화제의 주요 행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봉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2013년)

11) 앞서 설봉문화제가 이천의 주요행사 초창기에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실례로 2013년 발간한 이천쌀문화축제백서의 본문에는 1999년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부터 지금까지의 이천쌀문화축제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설봉문화제와 관련된 언급은 단 한건도 없다.

1) 청미문화제

행 사 명	장 소	행사주관
청미 시낭송회	세람저축은행	청미문학회
청미시화전	장호원문화의집	청미문학회
장호원미술인전	장호원문화의집	장호원미술인회
청미사진전	장호원문화의집	청미사진연구회

2) 민속행사

행 사 명	장 소	행사주관
허수아비 가족축제	설봉공원 놀이마당	이천문화원
허수아비 전시회	이천쌀문화축제 햅쌀거리	이천문화원
제11회 학생국악경연대회	이천쌀문화축제 문화마당	이천문화원
율면정승달구지 시연	율면복지회관	율면정승달구지보존회
이천거북놀이 시연	이천쌀문화축제 풍년마당	이천거북놀이보존회

3) 문예행사

행 사 명	장 소	행사주관
이천연합서예전	이천아트홀 전시실	정묵회
이천사진전	설봉공원 시민의 탑 광장	이천사진연구회

4) 특별행사

행 사 명	장 소	행사주관
영화'My boy' 이천 시사회	이천씨네세븐 영화관	이천문화원

5) 이천민속축제한마당

행 사 명	장 소	행사주관
이천민속축제한마당	이천쌀문화축제 문화마당	풍장21예술단, 소슬패풍물단

4.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축제 중 1.일정기간(3일 이상)을 두고 2.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 혹은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3.불특정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

제로 공식 집계된 경우는 총 555개이다.[12] 게다가 경연대회·가요제·미술제·연극제·기념식 등의 특정계층이 참여하는 행사와 경로잔치 성격의 주민위안 행사, 음악회와 전시회 같은 순수 예술행사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지역축제의 외적인 성장과 달리 소수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축제의 실상은 외부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관광형 축제이거나, 정치색이 짙은 단체장의 선심성 축제가 많은, 소위 '베껴먹기' 축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낭비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축제비용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에 감사원과 안전행정부가 지역축제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과거 설봉문화제는 1987년 시작된 이천 최초의 문화축제로 이천도자기축제의 모태가 되는 등 그동안 이천 시민의 높은 문화적 욕구에 부응해 왔으나 급격한 사회적 환경변화로 축제의 위상과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봉문화제는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의 형태를 배제하고 이천의 이미지와 특성이 드러난 콘텐츠를 담은 이천시민 중심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4년(제28회)부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이천쌀문화축제와의 연계행사를 대부분 제외하고, 연례적인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였다. 반면 발전가능성이 크고 민속행사로서의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은 집중육성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천시 관내 학생들만 참여하던 학생국악경연대회에 성인부문을 추가하여 '이천시 국악경연대회'로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천의 문화행사가 설봉공원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이천시 국악경연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의 장소를 과감하게 변경하였다. 특히 허수아비 가족축제를 설봉문화제의 킬러콘텐츠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모가면)[13]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4년 허수아비 가족축제는 허수아비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이천시 농업테마파크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이천의 농업과 관련한 전시·체험행사를 병행한다. 축제 참가자는 가족단위로 모집하고, 3대代가 참여하는 팀은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장



설봉문화제는 2014년부터 이천 남부권역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였다. (사진은 2014년 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된 허수아비 가족축제)

12) 2014년 전국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출처: 문화관광체육부)

13) 이천시 농업테마파크는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천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2009년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하였다.

치를 통해 가족축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장호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청미문화제는 이천 남부권역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축제를 수정·보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천의 문화행사가 대부분 시내중심권에 편중되었던 관례를 깨고 설봉문화제의 주요행사를 장호원에서 개최하여,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이천 남부권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제 설봉문화제는 이천의 문화적 여건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시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견인하던 초창기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 백

제5장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새해해맞이행사

이 선 민 / 이천문화원 간사

1. 정월대보름민속축제

1)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정월대보름

2) 이천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3)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시작

4)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발전

5)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로의 변모

2. 새해해맞이행사

1) 설봉산 해맞이행사

2) 이천 각 지역의 해맞이행사

제5장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새해해맞이행사

1. 정월대보름민속축제

1)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정월대보름

'가장 큰 보름'이라는 의미의 정월대보름은 상원(上元), 상원절(上元節), 혹은 원소절(元宵節), 줄여서 대보름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본래 설과 추석 못지않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중 4분의 1이 대보름에 몰려 있으며 설 풍속까지 합치면 전체 세시풍속의 절반이 넘는다.[1] 특히 설날 세시풍속이 대부분 가족 중심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성격을 지닌 것과 달리,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은 마을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당산산신제 : 음력 이월 초하룻날, 신둔면 지석리의 뒷산인 소당산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제사를 올린다.

이는 오랜 기간 농경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의 전통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음력 1월15일, 농한기의 끝자락에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은 주로 겨울 동안의 긴 휴식으로 해이해진 체력을 보강하고,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마을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집단놀이가 중심이 된다. 이와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며 풍년을 비는 의례가 행해졌다. 예를 들어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약밥, 오곡밥, 부럼 등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마을 공동으로 나누어 먹으며 농번기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집약적인 노동이 필요한 논농사에 앞서 줄다리기나 차전놀이, 또는 고싸움놀이 같은 집단놀이를 마을 주관으로 행함으로써, 농한기에 풀어진 개인의 체력과 마을 구성원의 협력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였다. 또한 부락민의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제사, 즉 동제(洞祭)를 마을 공동으로 지내며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였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마을의 생산공간과 살림공간, 나아가 생산인력과 노동

1) 민속학자 최상수의 『한국의 세시풍속』,고려서적,1960,에 의하면 전체 세시풍속의 건수 189건 중 정월 한 달의 세시풍속이 78건으로 절반에 가깝고 그중에서도 40여건이 대보름날 하루에 몰려있다. 마찬가지로 임동권의 『한국세시풍속』,서문당,1973에도 전체 192건의 세시풍속 중 정월 한 달에 102건, 정월14 · 15일, 대보름날에 관계된 항목이 55건으로 세시풍속의 1/4이 대보름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력의 상태를 재확인한 것이다.[2)]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월대보름의 위상과 의미가 근래에 급격하게 축소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을 부락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근대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큰 의미를 지녔지만, 갑작스런 산업화로 농촌사회가 해체되면서 마을 공동 행사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다. 다시 말해 농촌의 고령화,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은 더 이상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은 자취를 감추거나 축소되었다.

2) 이천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이천거북놀이는 주로 추석에 행해졌으나 장호원읍 송산4리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에 시연되었다.(출처. 『경기도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2001)

이천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로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천쌀의 품질은 전국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품질을 떠나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도 상당하다. 이천의 논과 밭을 모두 합친 총 경지면적은 17,134ha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과 평택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건을 달리하여 농업종사가구의 수(9,206가구/4위), 가구당 경지면적(1.86ha/3위), 논의 면적(9,360ha/3위)등으로 비교해 보아도 이천의 농업 지표는 대부분 경기도 상위권에 속한다.[3)]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타 시군에 비해 농촌이 유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내용일 뿐 이천도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 구조가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대부분 멸실되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경기도 세시풍속』에 경기도 각 시군의 세시풍속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천의 농촌 세 곳(송산4리, 대죽3리, 관3리)에서 전해져 오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4)]

---

2) 장철수,『경기민속지』,「경기 세시풍속과 놀이 · 예술의 개관」,경기도박물관,2000. p.55.
3) 이천시 통계연보(2011)
4) 양진조,『경기도 세시풍속』,「이천시」,국립문화재연구소,2001.pp.578-602

〈표 1〉 이천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분류

분류	장호원읍 송산4리	설성면 대죽3리	마장면 관3리
집단놀이	줄다리기	줄다리기	
	거북놀이	샘굿	
풍년기원	보름달보고 풍흉점치기	보름달보고 풍흉점치기	보름달보고 풍흉점치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과일나무 장가들이기
		보리타작	달불이 점치기
건강기원	오곡밥먹기	오곡밥먹기	
	오곡밥 훔쳐먹기	오곡밥 훔쳐먹기	보름밥 훔쳐먹기
	부럼깨기	부럼깨기	부럼깨기
	귀밝이술 마시기	귀밝이술 마시기	귀밝이술 마시기
	더위팔기	더위팔기	더위팔기
액운방지	안택고사	안택고사	
	제웅치기:허재비버리기	제웅치기(허재비버리기)	허수아비(허재비)버리기
	신발귀신막기	신발귀신　기	신발귀신　기
	어부슴	어부슴	
운수기원	용알뜨기	용알뜨기	용알뜨기
	동정태우기	아홉 번 행동하기	달맞이
	망우리	망우리	
가축안녕	소밥주기	소밥주기	소밥주기
	개보름쇠기	개보름쇠기	
	목사리(목서리)	목사리(목서리)	목사리(목서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보름 세시풍속을 제외하고, 이천만의 독특한, 그리고 집단놀이 성격을 지닌 대보름 풍속으로 거북놀이[5]와 줄다리기를 꼽을 수 있다. 거북놀이는 주로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지방에서 성행하며, 주로 추석에 행해진다. 그런데 장호원읍 송산4리의 경우, 특이하게 정월대보름에 시연되며 연희 목적도 차이가 있다. 추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서 펼쳐지는 용줄다리기 (2010.2.28)

5) 팔월 한가윗날 밤, 대에 수수 잎과 각시풀 · 짚을 엮어 만든 거북 한 마리를 중심으로 수수 잎과 각시풀로 이엉을 엮어 만든 옷을 입은 질라아비, 농기 · 영기 · 용기 등 깃발 잡이와 풍물재비 등 35~40명으로 편성되며, 보름달이 떠오르면 거북에 대해 치성을 드림으로써 시작된다. 이천거북놀이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0년 5월 경기도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되었다.

석에 행해지는 거북놀이가 힘들었던 농사를 끝내고 풍요를 자축하며 즐기는 성격이 강한 반면,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는 송산4리의 경우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복을 기원하는 성향이 강하다.[6] 거북놀이패가 집안에 들어서서 대문 앞, 우물, 부엌 등지에서 춤판을 벌이면 다른 집에서도 자기네 집으로 와서 축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부잣집에서는 쌀 한 말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으로 볼 때 송산4리의 거북놀이는 집단놀이의 성격과 함께 민속신앙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21년 동아일보에는 이천의 줄다리기를 다룬 인상적인 기사가 실려 있다.[7] 내용을 정리하면 이천읍내 주변 여섯 고을이 참가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서 줄을 당기는데 참가 인원이 6천명, 구경꾼의 수효가 3만 명이나 되었고, 과열된 경기로 죽은 사람이 세 명, 중상자가 아홉 명이나 생겼다고 한다.[8]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이천 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지만 이천에는 아직도 옛 줄다리기의 흔적이 남아 있다. 대월면 단월리에서는 1968년까지 주민들에 의해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하였으나 잠시 중단되었다가, 1989년 2월 단월리 이덕수 씨와 청년들이 단합하여 원형을 재현한 사례가 있다, 신둔면 용면리에는 용줄다리기라는 이름의 마을행사가 이백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예전에는 매년 하였으나 현재는 이천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하고 있다. 용줄다리기는 볏집거두기, 줄드리기, 진잡이, 결전(힘겨루기), 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상대방의 기를 꺾기 위해 암줄과 수줄로 나뉜 패가 몇 차례 부딪치다가, 수줄이 암줄 깊숙이 꼬이게 되면 비녀목으로 나무빗장을 질러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용줄싸움이 끝나면, 마을 이장이 제주가 되어 고사를 지낸 뒤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동쪽은 남자편, 서쪽은 여자편인데 막상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암줄이 이겨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암줄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처럼 대죽3리와 송산4리, 용면리와 단월리, 진가리 등에서 이어져 오는 이천의 줄다리기는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과 함께 마을의 집단성을 담고 있는 이천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다.

3)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시작

우리는 왜 전통문화를 지켜야 하는가?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

---

6) 김종대 외,「이천 거북놀이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전승양상」,『이천거북놀이』, 이천문화원, 2006, p.49.
7) "六千名(육천명)의 大蟹戱(대해희)",『동아일보』, 1921년 3월 22일, 제3면
8) 줄다리기가 열린 날짜인 1921년 3월18일은 음력날짜로 2월9일에 해당한다. 직접적으로 음력 1월 15일에 펼쳐진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 며칠 전부터 수십 명의 준비위원이 잠도 못자고 줄을 꼬았다는 내용과 마을 단위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때 행해진 줄다리기도 정월대보름 줄다리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 있는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고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찾고 지키는 일은 곧 애국(愛國)의 근본이 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의무가 있다. 비록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여건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이었던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달리 생각하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지닌 공동체성과 구성원의 화합이라는 덕목은 오히려 현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가치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농촌과 부락민들에게, 전래의 민속을 고스란히 후대로 이어주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는 비단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지역의 독특한 민속을 모두 발굴하고 보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이어져 온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연구·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지방정부나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9)]


망현산기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정월대보름 망월제 (1992년)

이천에서는 1992년, 망현산 기슭에서 이천문화원과 이천문예진흥회가 주도하여 정월대보름 망월제를 지냈다. 매년 정월대보름 저녁 이천읍내 북쪽에 위치한 망현산(望峴山)에서 지냈던 망월놀이를 재현하고자 이천군의 후원을 받아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것이다. 하지만 정월대보름 행사가 시작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행사가 펼쳐진 망현산은 본래 아후산(衙後山), 혹은 아리산이라고 불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산(神社山)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망현산 중턱에 일제가 신사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참배를 강요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천군에서는 일제의 잔재가 남은 신사산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 1991년 이천군지명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1899년에 간행된 이천읍지에 명기된 대로 본래 이름인 망현산을 정식 호칭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건설부 산하 국립지리원에서 이를 전국에 고시하여 최종 승인함에 따라 다시 찾은 망현산이라는 이름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정월대보

9) 1941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조사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는 이천의 민속놀이 44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천문화원과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이천시 민속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천의 민속놀이는 많이 줄어들어 33종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름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갑균 이천군수를 비롯한 내빈 삼십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망현산 정상에서 치러진 첫 행사는, 비록 규모는 작고 초라했지만 이천에서 처음으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보존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망현산 행사장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나이만큼 띠를 묶은 망월대에 불을 붙여 보름달을 향해 일 년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이천 읍내 일원에 널뛰기를 설치하여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1993년 두 번째로 펼쳐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에는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풍물반이 참여하여 고사반 주위에서 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물공연을 펼쳤고 참가자들이 망월놀이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전 해에 비해 참가인원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마저도 50여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행사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다만 이때에는 송광사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한 인식이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1995년에 치러진 네 번째 행사에 이르러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내용 면에서는 이천읍사무소 부녀민원봉사자 농악대가 참가하여 풍물공연을 펼쳤고 송광사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다만 유승우 이천군수와 이은구 문화원장, 문화예술진흥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다음 해부터 망월놀이 행사 외에도 널뛰기와 연날리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행사 규제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자체가 취소되며 이러한 의견이 곧바로 반영되진 못했다.

한 해를 거른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1997년에 다시 치러졌는데, 이때 비로소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지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요 내빈과 행사 관계자, 일반시민 등 예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약 1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냇소리 풍물팀의 길놀이와 풍물공연, 망월놀이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최 측은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시민들의 참여에 주목하였다. 시민들은 자녀들이 세시풍속을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 축제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4)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발전

1998년, 제7회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소를 이천 설봉공원으로 옮겼다. 냇소리 사물팀의 길놀이와 풍물공연, 그리고 망월놀이가 이어진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 등의 민속놀이 체험코너가 추가되어 우리의 민

속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참여시민이 크게 증가하였다. 행사 참가자는 1995년 50여 명에서 1997년 100여 명으로, 1998년에는 200여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행사 참가자에 비해 이천시의 사업지원예산은 초창기와 똑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시민들이 즐길만한 행사를 마련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부터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이천문화원의 단독주관으로 치러졌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속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이듬해 열린 제8회 정월대보름 행사는 시민의 참여를 더욱 늘리고자 시내와 인접한 공설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이 해는 행사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하게 늘어나고 시민 참가자도 늘어, 정월대보름 행사가 시민축제로 자리매김한 첫 해로 평가된다. 80여 명에 이르는 연합풍물패가 시내를 경유하며 지신밟기와 길놀이를 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연날리기와 제기차기, 투호와 널뛰기 등의 체험코너가 마련된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를 즐겼다. 그리고 놀이마당 한가운데 놓인 달집에는 시민의 소원을 적은 소원소지를 달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달집을 태우면서 참가자 모두가 달집 주위에서 강강술래를 하여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의 미덕인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 해에 처음으로 이천거북놀이가 시연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를 통해 거북놀이라는 이천의 고유민속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재창립의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다시 설봉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제9회 행사는 8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며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명실공이 이천 시민의 민속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이때부터 이천문화원이 단독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안정기에 접어든다.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열린 2002년 행사에는 약 1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윷놀이·제기차기·널뛰기·투호·줄넘기·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고, 2001년 10월 13일 재창립된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풍년기원제와 판굿을 펼쳐보였다. 이어 설봉공원 산책로를 따라 주요내빈과 시민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의 금년도 지원축제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 아래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참가인원이 1,500여 명으로 더욱 늘어났고 이천도자기조합의 전통가마 불지피기가 연계행사로 열리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약1,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성장하면서 지역의 현안이

행사내용에 반영되는 경우도 생겼다. 2007년에는 풍년기원제가 진행되는 동안 해강도자미술관을 출발한 시민들이 3번국도상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을 기원하는 횃불퍼레이드를 벌였고, 2010년에는 행사당일 저녁에 약하게 비가 내렸음에도 많은 시민이 모여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기원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정월대보름 행사가 지역 여론을 가늠하는 장이 되었다.

5)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로의 변모

정월대보름 행사장이 설봉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2000년대 이후, 이천문화원은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되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비롯하여 이천도자기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설봉산별빛축제 등 굵직한 지역문화행사가 전부 설봉공원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설봉공원이 최적의 장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문화행사가 설봉공원으로만 집중되면 이천 시민과 문화관계자들이 이천의 문화행사는 설봉공원에서 치러야만 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정월대보름 행사는 농촌의 세시풍속 재현과 마을의 집단놀이에서 유래한 공동체 화합의 정신이 핵심이므로, 농촌이 아닌 설봉공원으로 행사장이 고착된다면 행사의 의미가 퇴색할 여지도 있었다. 이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민속의 형태가 일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보존해야 정월대보름 행사가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천문화원은 이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만리뜰에서 문화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한다. 구만리뜰은 이천쌀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장소로 전국 제일의 쌀을 생산하는 이천 농민의 자부심과 지역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또한 '농촌에서 비롯된 공동체 화합'을 핵심으로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의 취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행사진행에 어려움도 많았다. 질척한 논에 주행사장을 조성하기가 어려워 개천 양옆의 길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면(面)이 아닌 선(線) 중심의 공간배치를 기획하여 길목마다 부스를 설치하였다. 특히 이천의 유명한 전설인 효양산 산신령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부스마다



구만리뜰로 장소를 옮긴 정월대보름민속축제 (2014년)

오천역널뛰기, 억만리제기차기, 억억다리건너기, 효양산전망대 등 단계별 코스를 마련하여, 행사참여자가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기며 이천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윷놀이·제기차기·널뛰기·줄넘기·팽이치기·투호·떡메치기·가훈쓰기·쥐불놀이·깡통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귀밝이술과 부럼땅콩, 가래떡 같은 전통의 먹거리, 다문화가정협회에서 준비한 이국적인 음식이 어우러졌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풍년기원제와 소원지를 매단 달집태우기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설봉공원에서는 할 수 없었던 쥐불놀이가 펼쳐져 진풍경을 연출하였다. 행사장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불빛을 보고 자녀와 함께 뒤늦게 찾아와 쥐불놀이깡통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등 1,500여 명으로 집계된 참가인원이 차후 행사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보였다.

물론 행사장을 옮기면서 화장실 부족, 주행사장의 협소, 행사 주최단체 간의 업무협조 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지만 구만리뜰로 옮긴 행사 취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해 농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겨우내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을의 협력체계와 공동체의 무사안녕을 기원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은 오늘날 이천시, 즉 지역단위로 확장된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정체성 공유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발전, 계승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전통세시풍속의 원형을 보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새해 해맞이행사

1) 설봉산 해맞이행사

> '관광업계에 따르면 몇 년 전만해도 연말연시를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어 성탄절, 공휴일을 관광지 등 조용한 곳에서 보내거나 새해 아침의 해돋이를 산이나 바닷가에서 직접 보기위해 미리 휴가계획을 짜놓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후략)

1982년에 실린 동아일보 기사이다. 새해를 맞아 해맞이 명소를 찾는 이가 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10] 해맞이의 특성상 내륙지방보다 일출이 잘 보이는 해안가, 특히 동해안 일대가 일찍부터 해맞이 명소로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로 강릉 정동진(강원 강릉), 추암 촛대바위(강원 동해), 양양 하조대(강원 양양), 해남 땅끝마을(전남 해남), 당진 왜목마을(전남 당진), 포항 호미곶(경북 포항), 금산 보리암(경남 남해), 간절곶 등대(울산 울주), 성산일출봉

10) "호텔豫約사태 聖誕·新正連休 붐빌 휴양지",『동아일보』,1982년 12월 10일, 7면.

(제주 서귀포), 여수 향일암(전남 여수) 등이 유명하다. 하지만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내륙의 유명한 산이나, 호수, 강에서도 지역특성에 따라 해맞이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설봉산에서 풍년기원제를 올리는 모습(2010년)

이천에서는 1999년, 설봉산 칼바위근처 공터에서 처음으로 해맞이행사가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산악회와 주민자율방범대 등 자율적인 시민모임과 사회단체가 간단히 고사를 지내며 해맞이를 하였으나 이천시 주도로 본격적인 해맞이행사가 시작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약 4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거북아거북아 풍물단의 지신밟기와 고사굿,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원을 적은 소지燒紙태우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해맞이행사를 주관한 이천문화원은 해맞이여행 같은 소비지향적인 관습을 억제하고, 내 고장의 명산을 찾아 해맞이를 하며 향토사랑과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에서 해맞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11] 이듬해인 2000년에는 새천년에 대한 기대로 들뜬 분위기가 연일 지속되면서 해돋이 관광에 나서는 여행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1999년 12월31일과 2000년 1월1일에 영동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늘어 지체연장이 무려 70km에 달하고, 서울~강릉 간 운행시간이 최장 12시간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서울~대전과 서울~부산, 서울~광주 간 고속도로 운행시간도 주말 평균소요시간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12]

이러한 현상은 이천도 마찬가지여서 첫해에 비해 무려 다섯 배정도 늘어난, 약 2,000명의 시민이 해맞이행사에 참석하였다. 2000년 열린 행사에서는 특히 2000년 새아침과 이천(2000)의 이미지를 살린 특별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해가 뜨기 전, 거북아거북아 풍물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이강우 유림회장의 고천문(告天文)낭독, 유승우 시장, 이재혁 시의회 의장 등의 분향과 헌작이 이어졌다. 그리고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순간 채화된 '새천년의 불씨'를 봉화대로 옮겼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자 칼바위 일대를 메운 시민들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불씨는 해강도자미술관 성화대로 봉송되어 이후 도자기축제와 각종 시민행사의 씨불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대철 조각가가 제작, 기증한 새천년의 탑 제막식도 특기할 만하다.

설봉산 해맞이행사는 구제역으로 인해 취소된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새아침에 칼바위

11) 설봉문화 21호, 설봉산 칼바위에서 열린 기묘년 새해 해돋이행사, 이천문화원, 1999, p117
12) 새천년 해돋이관광 극심한 정체예상, 「경기일보」,1998년12월28일자

인근에서 열리는 이천의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해맞이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에는 무엇보다 행사에 참여한 여러 기관·단체의 봉사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해맞이행사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로는 이천문화원여성회, 이천연합동문회, 이천청년회의소, 농협이천시지부, 관고동사회단체협의회, 거북아거북아 풍물단, 풍물지기 치레, 이천시청소년무용단, 이천코랄합창단, 이천우체국 등이다.



설봉산 새천년의 탑 인근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이천시민

2) 이천 각 지역의 해맞이행사

설봉산뿐만 아니라 이천의 주요 명산에서도 매년 새해 아침에 해맞이행사가 열린다. 다만 아쉽게도 읍·면, 혹은 마을이나 산악회 단위로 소박하게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해맞이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지역신문과 각종 간행물 등에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천의 해맞이행사 장소를 정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13)]

〈표 2〉 이천의 해맞이행사

해맞이 장소	위 치	참여단체
효양산	부발읍	부발읍발전협의회, 부발읍사무소
백족산	장호원읍	장호원신협, 산악회, 장호원라이온스클럽, 장호원청년회의소
해룡산	대월면	대월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대월면발전협의회, 대월농협, BBS대월분회
마국산	모가면	모가면발전위원회
원적산	백사면	백사면체육회, 백사면기관 · 사회단체회
노성산	설성면	노성산악회, 설성면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원경사
관진산	호법면	호법면체육회,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천덕봉	신둔면	신둔면이장단협의회
도드람산	마장면	마장면목리마을회
원통산	중리	미확인
임오산	율면	미확인

13) 정보 자체가 불완전하여 연도에 관계없이 해맞이행사가 열린 장소를 모조리 나열하였고, 당시 참여단체가 기록되어있는 경우만 별도로 표시했다. 따라서 실제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했더라도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천 각 지역에서 해맞이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이유는 해맞이가 주민화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해맞이행사를 마친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떡국을 대접하거나, 고사를 지내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해맞이행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발읍의 경우 2012년 해맞이행사에서 고사를 지내고 모인 62만5천원을 부발읍사무소에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하였고, 모가면에서는 2013년 해맞이행사가 끝나고 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떡국을 대접하였다. 마장면은 2013년 도드람산 체육공원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이 모여 만세삼창과 함께 산신제를 드리고 떡국나누기를 하는 등 해맞이행사는 새해를 맞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또 하나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천은 농촌의 비중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위기를 맞이한 농촌공동체의 단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천시에서 주최하는 설봉산 해맞이행사와 각 읍면, 마을 단위의 소규모 해맞이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여 백

제6장

장호원복숭아축제

채 기 순 / 자유기고가

---

1. 이천장호원복숭아축제
2. 오랜 역사의 과일 복숭아와 장호원에 대해서
3. '목화씨'는 문익점, '미백도'는 이차천, 장호원황도는 이종태
4. 100년을 바라보는 장호원의 복숭아 과수농업의 역사
5. 장호원복숭아축제의 시작과 발전
6. 장호원 복숭아의 새로운 이름 '햇사레'
7. 전국의 복숭아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
8. 장호원황도를 기반으로 오늘의 햇사레 복숭아 그리고 내일은...

제6장 장호원복숭아축제

1. 이천장호원복숭아축제

이천장호원복숭아축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자. 우리 지역에는 봄부터 겨울까지 축제의 특징과 성격이 다양한 여러 축제들이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천도자기축제부터, 설봉문화제,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별빛축제 등 많은 축제들이 지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축제는 성격과 특징과 관계없이 주로 설봉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설봉산이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으며 설봉호수까지 풍경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3번국도 도로변과 가까워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교통에도 용이하고 대공연장, 주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간이식당 등의 편의시설까지 관람객이 이용하기에 주변 여건도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어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천에서의 축제는 주로 설봉공원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축제의 특징과 목적이 다양한데 좀 더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행사장소를 설봉공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험도 시도할 만하다.

필자는 금번 이천문화원에서 주최한 구만리들(이천시 안흥동 주공아파트 앞 일대의 논)에서의 정월대보름민속축제에 참여하였다. 매번 모든 편의시설이 제반되었던 설봉공원이 아닌 '구만리들'로의 행사지 변경은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한해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정월대보름의 의미와 쌀의 고장 이천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일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구전으로 또는 전설로 내려오던 '구만리들'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몰랐었는데 행사를 참여하고 난 뒤 '우리 이천에도 이렇게 넓은 벌판이 있었구나' 새삼 알게 되었다. 비록 장소의 협소함이나 질척거리는 논에 신발이 빠지긴 했어도 무척 의미 있고 참신한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불안함과 불편함을 인정하자. 처음은 원래 서툴고 미흡한 법이니까 말이다. 그런 문제들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 기존의 방법을 답습과 편리함으로 고집한다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무엇이든 처음은 있었고 처음은 그런 실수들로 시작할 테니 말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천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 중 축제의 목적과 특징에 가장 맞게 행사의 장이 열리는 곳이 바로 백사면의 산수유축제와 장호원복숭아축제일 것이다. 100년은 훌쩍

넘은 산수유 군락들은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며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 또한 장호원복숭아축제는 이천시 남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열리는 축제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시도와 변화로 발전하였고 복숭아 과수 농가들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특히 장호원읍민과 과수 농가들이 애착과 자부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2. 오랜 역사의 과일 복숭아와 장호원에 대해서

복숭아는 예로부터 설화와 전설의 과일로 지칭된다. 삼천년에 한번 열리는 서왕모의 천도복숭아를 몰래 훔쳐 먹다 천상계에서 쫓겨난 손오공의 이야기 서유기와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서로의 사욕을 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합심했다는 의미인 도원결의,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요와 평화가 있는 낙원의 세상 무릉도원 등 복숭아가 공통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불교 유교와 함께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도교문화의 영향으로 복숭아는 신선, 불로장생 무병장수 등 매우 영묘하고 귀한 과일이며 귀신을 쫓는다하여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다. 탐스럽고 큰 복숭아는 아들을 낳는다는 태몽으로 그 유래나 역사가 오래되어 선조들에게도 사랑받는 친숙한 과일로 꼽힌다.

복숭아의 원산지는 중국 황하(黃河)강 유역의 고원지대와 동북부, 한국에 걸친 넓은 지역이라 하며 BC1~2세기에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 지방으로 전해져 서양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천도복숭아는 6~7세기경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개량되었고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해진 복숭아는 17세기 무렵에는 미국으로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해동역사」(1798)에 모도, 승도, 울릉도등에 삼색도(三色桃 : 한 나무에서 세 가지 빛깔의 꽃이 피는 복사나무)와 같은 재래종 복숭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한다. 주로 약용과 꽃나무로 재배되었다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먹는 품종들의 도입은 1906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천쌀, 나주배, 진영단감, 영동포도처럼 대표원산지 지명이 고유명사로 불리워지는 복숭아가 바로 장호원복숭아(이천장호원햇사레복숭아)이며 대표원산지명 뿐 아니라 '장호원황도'와 '미백도'라는 고유 품종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장호원은 복숭아의 고장, 복숭아의 원조지역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다면 장호원에서는 언제부터 복숭아를 재배했으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3. '목화씨'는 문익점, '미백도'는 이차천, 장호원황도는 이종태

원나라로부터 귀한 목화씨를 붓뚜껑에 몰래 감춰 들여 온 문익점이 있다면 장호원이 복숭아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게 해준 품종 '미백도'의 탄생은 이차천씨로 비롯된다. '미백도'의 최초의 재배자는 따까노(1933)라고 하는 일본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즐겨먹는 복숭아 '미백도'는 이차천씨가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얻은 복숭아 가지로 시작된다. 1950년대 초 장호원읍 이황리에 거주하던 이차천씨는 6.25 당시 1.4후퇴로 대전의 미국의 선교사가 소유한 복숭아 과수원에서 피난살이를 한다.

이때, 얻어온 복숭아 가지를 장호원읍 이황리 527번지 자신의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복숭아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재배 도중 한그루의 나무에서 변종이(돌연변이) 일어나 기존의 복숭아와 다른 복숭아가 열렸다. 유달리 크고 탐스러우며 황백색에 짙은 복숭아 향과 풍부한 과즙, 거기에 당도 또한 높았다고 한다. 이차천씨는 미국선교사의 과수원에서 얻어 온 복숭아나무에서 비롯된 미국계 복숭아에 흰 빛깔, 높은 당도에 맛도 일품이라 하여 '미백도'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백족산 일대에 '미백도' 품종의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게 된다.

'미백도'와 함께 장호원을 복숭아의 원조, 복숭아의 고장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일등공신 복숭아가 바로 '장호원황도'다. '장호원황도'는 경기동부과수농협의 현 조합장인 이종태씨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발견되었는데(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산 22-1) 해마다 9월에 유난히 달고 맛있는 황도 복숭아가 열렸다. 그 맛이 복숭아와, 사과, 파인애플, 감의 맛을 합쳐 놓은 듯 기묘한 복숭아의 맛을 보이는 황도였다. 한편, 복숭아는 한 여름의 대표적 과일이라 가을에 나오는 복숭아는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 황도 복숭아는 오묘한 4가지 맛을 가지는 복숭아여서 그러한지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지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종태씨는 처음에 이 복숭아 품종의 이름을 몰라 복숭아 재배연구 전문서적을 뒤져 이 복숭아가 아마도 미국계 복숭아 품종인 엘버터(Elberta)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엘버터라 명명하여 소비지 시장으로 출하하였는데 이 복숭아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 전국적 재배농가로 생산이 확대되어 출하가 되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과수과에서 이 품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엘버터 품종과는 달라 1993년 자연발생 변이 품종으로 인정받아 1994년에 '장호원황도'라는 고유품종으로 등록되었다.

4. 100년을 바라보는 장호원의 복숭아 과수농업의 역사

'미백도'와 '장호원황도'가 장호원을 복숭아의 원조 고장으로 만들게 하였다면 장호원에서

의 과수농업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이를 잘 나타내는 사진과 설명이 실린 글을 동부과수농협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경기동부과수농협」네이버 카페에서 퍼온 사진과 글이다.

"장호원 지역의 복숭아 과수원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30년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202번지에 거주하던 유두희씨(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41번지 거주 유성군씨의 부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발견) 당시 사진에는 유두희씨와 그의 매부 그리고 그의 딸인 유춘주씨가 촬영되어 있었는데 유춘주씨는(1924년생) 당시에 10세로서 역산하면 사진의 촬영시점은 1934년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유두희씨가 조성한 해동(海東)과수원 사진의 전정되어진 복숭아나무의 수령이 4~5년생인 것으로 보아 1930년에 심어져 조성된 것이 틀림없다. 복숭아나무를 정방형으로 식재하였고 도로, 가로수 등으로 보아 완전히 계획 조성된 과수원이다. 구한말 재래 영농방식에서 혁신, 개량, 계획 영농을 한 것이 자명하다. 유두희씨는 일제 당시 일본에서 과수 원예에 관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원예지에 취재, 기고를 하였던 분으로 과수 및 조림수를 관청에 생산 납품하였던 분이었다."

우리 고장에서 세계 제일의 맛과 향이 우수한 '미백도'와 '장호원황도'가 가지 이변에 의한 자연 발생 특수 품종임을 확인 선포하며 이천시가 장호원 복숭아를 1997년 1월 1일자 이천시 특산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건립 계승하고자하니 그 뜻을 이어 받아 재배 기술을 더욱 더 연구하여 미백도와 장호원 황도의 명성을 기리 보전하기 바란다.
1997년 4월 26일 建立

장호원읍사무소 내 "미백도 원종 발생 장호원 황도 명명" 기념비의 내용
(1997년 4월 작성: 이용연, 1997년 4월 편집: 허승희, 2011년 8월 사진발굴: 허환)

5. 장호원복숭아축제의 시작과 발전

장호원 복숭아 축제는 작년까지 17회 동안 개최시기의 변경과 장소 이전, 여러 차례 축제명이 바뀌게 된다. 1997년 4월 26일 제 1회 복숭아축제는 복숭아축제가 아닌 복숭아꽃축제로 행사시기도 9월이 아닌 복숭아꽃이 피는 봄날에 개최되었다. 장호원읍사무소와 장호원 진암리 백족산일대의 복숭아 과수원 주변에서 장호원의 특산품인 '백미도'와 '장호원황도'의 우수성 등을 널리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축제였다. 장호원 읍사무소에서는「미백도 원종 발생 장호원황도 명명 기념비」제막식을 시작으로 백족산 일대 복숭아 과수원에서는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복숭아꽃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열었다. 이 행사는 경기동부과수농협이 주최하고 이천시가 후원하였으며 문인협회이천지부, 장호원청미문학회가 주관한 문예행사로 열렸고 제 1회이다 보니 많은 관람객보다 지역 내 예술인들이 모여 연분홍빛의 복숭아꽃이 주는 아름다운

봄축제와 장호원복숭아를 홍보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제 2회 장호원복숭아축제도 1회와 마찬가지로 장호원복숭아꽃 축제의 이름으로 1998년 4월 18일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유승우 이천시장(現국회의원)과 관내 기관장, 과수재배 조합원, 일반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장호원읍 시내에서는 복숭아 아가씨와 7군단 군악대가 선도하는 경축 퍼레이드를 가졌고 기념식이 끝난 후 장호원 레포츠 공원으로 이동하여 준공 기념식을 갖고 진암 4리 과수원에서 풍년기원제를 지내며 일 년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였다. 또한 복숭아 재배 공로자 표창 수여와 백일장도 열어 수상자 표창을 가졌다. 기타 행사로 사진촬영대회 배영종고의 율면 농악시연, 거북아거북아의 사물놀이 공연, 시낭송회, 시화전등이 진행되는 등 1회 축제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관람객들로 규모가 커졌다.

제 3회 장호원 복숭아꽃 축제는 1999년 4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진암 4리 백족산 일대의 과수원과 장호원 레포츠공원에서 열렸다. 19일 행사에는 학생 백일장과 사진촬영대회, 20일에는 배영종고 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이 레포츠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졌고 창명여고 고적대를 앞세운 시가행진을 펼쳐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기념식이 끝난 후 축제장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통 줄다리기, 복숭아 깡통 빨리 따서 먹기, 극단 아리랑이 공연을 펼쳐 보였다. 축제행사의 말미에서는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가 열려 복숭아꽃과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어우러져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표 1〉 복숭아축제 추진연혁

구분	개최연도	명 칭	개최장소	행사추진실적	
				직판장수입	참여인원
1회	1997.4.26	장호원복숭아꽃축제	장호원읍사무소 장호원백족산일원	꽃축제	
2회	1998.4.18	〃	장호원백족산일원	꽃축제	
3회	1999.4.19~20	〃	장호원레포츠공원	꽃축제	
4회	2000.4.26	장호원복숭아축제	장호원고등학교강당	강우	
5회	2001.9.21	〃	장호원레포츠공원	0	
6회	2002.9.21~24	〃	청미천둔치	267	
7회	2003.9.13~15	〃	청미천둔치	236	
8회	2004.9.16~19	〃	청미천둔치	501	
9회	2005.9.23~25	이천시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청미천둔치	448.5	54,800
10회	2006.9.22~24	〃	청미천둔치	568	102,300
11회	2007.9.14~16	〃	청미천둔치	353	61,200
12회	2008.9.19~21	〃	청미천둔치	604	105,800
13회	2009.9.16~20	〃	농협유통등소비지행사 (16개 유통매장)	703	82,000
14회	2010.9.17~19	〃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295	103,800

15회	2011.9.23~25	〃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504	103,000
16회	2012.9.23~25	〃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606 (농가직판수입)	110,000
17회	2013.9.27~29	이천시장호원황도 햇사레복숭아축제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504 (농가직판수입)	103,600

※ 직판장 수입 단위 : 백만 원

"웅비 장호원! 달콤한 장호원으로의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제17회 이천시장호원황도 햇사레 복숭아축제」가 2013년 9월 27(금)~9월 29(일)까지 3일 동안 장호원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장호원읍·리 332-4일원)에서 개최하였다. 3일의 축제행사동안 103,600명의 관람객이 축제에 참여하여 14,400박스에 해당하는 복숭아를 판매하여 504,000,000원의 농가수익을 창출하였다. 당초 계획하였던 150,000명 예상인원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년도 16회(2012년 9월 25일 개최) 축제의 참여인원(110,000명)보다 6% 감소하였고 복숭아 직판 판매수입 역시 전년 행사수입(568백만원)의 11% 감소한 504백만원에 그쳤다. 주요 증감소 요인은 9월 29일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내방객의 방문이 적었고 그로인해 판매수입도 감소했다. 그러나 복숭아 동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되어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판매량과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 11%정도 하락에 그쳤다고 한다.

외부인사로 9월 27일 축제의 첫날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설난영 여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고관달씨, 9월 28일에는 제주시부교육감 김화진씨, 국토교통부 대변인 송석준씨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 복숭아축제의 특징과 호평을 받았던 것은 무료로 꽃과 쌀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복숭아 판매와 연계하여 복숭아 구매를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 판매에 직접적인 향상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또한 유통센터 중앙홀에 과수농가들이 출품한 복숭아 품평회를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체험에서는 복숭아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요리(복숭아쨈, 복숭아떡, 화채, 복숭아고추장 등)와 저렴하게 차와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햇사레카페, 사진전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 특히 한 해 동안 복숭아농사로 지친 과수농가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농업인 한마당대회 및 라디오 공개방송을 연속으로 공연하여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마련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축제기간동안 단 1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단지 개선해야할 점이라면 마라톤 행사에서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마라톤 참여자들의 기물관리에 소홀하였고 그런 이유로 참가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또 축제의 차질이 생긴 것은 우천 등의 악천후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나 대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한대로의 100%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없었다.

6. 장호원 복숭아의 새로운 이름 '햇사레'

1997년 4월 26일 시작된 제 1회 장호원 복숭아축제는 2000년 4월 26일 4회 축제까지 「장호원복숭아꽃축제」로 개최되었다가 좀 더 장호원복숭아의 우수성과 홍보, 소득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고민을 모색한 결과 5회때부터 복숭아중에서 장호원황도가 출하되는 9월 가을로 옮기게 된다.

복숭아는 여름과일의 여왕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품종으로 긴 여름동안 더위에 지친 몸과 입맛을 달래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 복숭아의 단점이 오랫동안 보관이 힘들고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과육이 쉽게 물러 복숭아를 고를 때도 향과 생긴 모양, 빛깔로 골라야지 손으로 만지거나 누르면 바로 자국이 생겨 쉽게 상하게 된다. 복숭아의 이런 단점에 강한 품종이 바로 '장호원황도'인데 여름과일인하나 복숭아중에서 가장 늦게 출하되며 과육이 단단하여 보관 기간까지 타 복숭아보다는 긴 편이다. 그래서 9월 중하순경에 개최하는 복숭아축제에서 판매되는 복숭아의 대부분은 '장호원황도'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번을 들어도 한번 본 것만 못하듯이 아무리 장호원복숭아가 맛있고 좋다고 말하여도 백문불여일식(百聞不如一食) 직접 맛을 보는 것만큼 확실한 홍보가 어디있을까? 연분홍 복숭아꽃이 주는 아름다운 봄의 축제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데에서만 만족했다면 장호원황도가 출하하는 가을로 과감하게 축제시기의 변경은 복숭아를 직접 맛 볼 수 있어 장호원복숭아의 우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으며 때마침 출하하는 복숭아를 직판할 수 있으니 과수농가에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로 이뤄졌다.

2002년 제 6회 행사 때부터 청미천 둔치로 옮겨 본격적으로 직판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사업비도 늘어나는 등 규모도 커지고 축제도 점점 커져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청미천 둔치에서의 행사는 주차문제 등의 여러 문제들로 14회 축제 때부터인 2008년에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2-1)로 이전하여 넓은 행사무대와 직판매장,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리한 편의시설까지 갖추게 된다.

장호원과 음성군은 청미천을 경계로 경기도와 충청도 2개의 도(道)로 나뉜다. 그러나 경계는 경계일 뿐 예로부터 이곳은 하나의 생활권이었고 같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런 이유들은 복숭아에도 나타나 복숭아 농사는 장호원과 인접한 음성, 감곡등지에서도 많이 생산되며 맛도 품질도 거의 같다고 보는 게 옳을 듯싶다. 특이할 점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같은 고민을 하게 된 장호원과 음성군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숭아 축제를 열었으며 지역에 관계하지 않고 '햇사레'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연합으로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2년 경기·충북 복숭아 연합사업단을 발족하여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근'이라는 의미의 '햇사레' 브랜드를 개발하여 2003년에는 상표등록까지 한다. 기존의 포장단위도

변경(5kg→4.5kg)하여 차별화하였고 '햇사레 프리미엄'라는 4kg 명품의 고급 상품을 개발하여 오히려 4.5kg 대비 20% 가격상승의 효과를 일으켰다.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고급화의 브랜드 마케팅은 '임금님표이천쌀'에서도 인증되었듯이 생산자에게는 높은 가격과 소비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의 우수성과 선호로 동일한 제품으로도 매출이 성장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햇사레복숭아'는 2007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이 부분의 상을 놓치지 않더니 2012년에는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다. 2002년 '햇사레' 복숭아의 브랜드 이후로 자연히 복숭아축제의 축제명도 '햇사레복숭아축제'로 변경한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 없이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포장수량, 포장박스도 통일하여 이제는 4개의 조합(동부과수조합, 장호원농협, 음성농협, 감곡농협)을 포함하여 이천시와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과 그에 속한 조합원들까지 확대하였고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탄생시켜 광역유통 시스템을 구축, 고품질 관리체계 강화, 브랜드 마케팅 역량강화와 농가조직 역량강화 등으로 최고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여 3천 농가 1,000억 브랜드를 판매하는 공동의 목표로 성장하였다. 처음 시작은 복숭아라는 단일 과일이었으나 경기도 충청도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등의 과수품목까지 과일품목을 넓혀 나가고 있다.

7. 전국의 복숭아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

전국적으로 복숭아 과일하나만으로 축제를 하는 지역이 여럿 있다. 부천시 소사구에서는 작년 제 10회 소사 복숭아축제를 개최하였고 전북전주에서도 제 10회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의 이름으로 충남에서는 제 6회 조치원 복숭아축제 그밖에 강원도 원주 일원에서의 치악산 복숭아축제, 춘천에서는 소양강복숭아축제 등 저마다 자기 고장의 복숭아가 최고의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축제의 즐길거리 볼거리들은 대개 비슷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역만 다를 뿐 축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장호원복숭아축제'만의 색깔과 특징을 담은 축제로 차별화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호원복숭아축제가 타 시군의 여러 복숭아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앞서 서술했다시피 축제의 목적을 가장 만족시켰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여타의 축제가 기존의 행사를 답습하였다면 장호원복숭아축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목소리와 문제점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였던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제 1회 복숭아꽃축제로 시작하였다가 복숭아꽃만으로는 장호원복숭아의 우수성이나 판매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문제 제시와 그에 대한 결과로 과감히 축제명도 '복숭아꽃축제'에서 '복숭아축제'로 축제시기도 봄에서 가을로 변경하였다. 축제에서 판매되는 복숭아의 수량도 점차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장호원복숭아의 홍보도 이뤄짐과 동시

에 좀 더 부가가치 높은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햇사레'라는 브랜드로 탄생시켜 차별화 고급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국내외 농산물과 과수산업도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여 장호원황도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마케팅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려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장호원은 '미백도' '장호원황도'의 원조 고장을 넘어 전국 최고 복숭아의 고장, 복숭아의 대표 브랜드 '햇사레'의 고장이 되었다.

17년 전 백족산에서의 봄의 축제가 20년 가까운 시기까지 놀랍게 성장한 것이다.

8. 장호원황도를 기반으로 오늘의 햇사레 복숭아 그리고 내일은...

장호원읍 오남리 유두희선생의 해동과수원에서 장호원복숭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6.25 전쟁을 피해 피난살이 중에도 복숭아가지를 얻어다 '미백도'라는 명품의 복숭아를 탄생하게 한 이차천선생과 오늘날 장호원복숭아의 명성을 갖게 해준 이종태씨의 '장호원황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햇사레' 통합 브랜드의 탄생이 있지 않았나 싶다.

백족산에 심었던 연분홍색의 만개한 '복숭아꽃축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천시장호원햇사레복숭아축제'의 성공이 있다고 본다. 장호원복숭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복숭아가 되었고 그렇게 만든 일등공신은 복숭아축제였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을 제안해본다.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문제점을 제시할 때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1위, 1인 1미디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나 기호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만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요즘 마케팅의 대세는 스토리텔링이다. 아주 평범한 상품과 대상을 그에 얽힌 이야기로 가공해 포장하여 광고, 판촉 판매를 극대화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호원복숭아축제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100년 가까운 장호원 과수농업의 역사도 그렇고 복숭아 품종의 원조 '미백도' '장호원황도'도 그 대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새롭게 발전하는 '장호원복숭아축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7장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김 선 우 / 강동대학교 겸임교수

---

1.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탄생
2. 산수유축제의 내용(제1회~14회)
3. 축제 평가와 발전방안
   1) 방문객을 위한 주차 및 편의시설(제도) 확보
   2) 산수유 테마형 축제 운영
3) 축제의 정통성 고취

제7장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1.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탄생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일대는 산수유 집산지로 이른 봄에는 노오란꽃, 늦가을이면 빨간 열매로 온 마을을 뒤덮어 화가, 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선비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산수유꽃은 진달래꽃이나 개나리꽃, 벚꽃보다 겨울을 빨리 이겨내고 노랗게 물들이며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봄의 전령사'라 불리운다. 매화나 벚꽃에 비해 개화기간이 긴 산수유 꽃은 수도권에서 그 집단군락을 찾아보기 어려운 꽃 중 하나다. 하지만 이천의 산수유마을에서는 수령이 100~500년 넘는 산수유나무 8천여 주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특히 백사면 마을 전체가 산수유나무로 뒤덮여 있어, 초봄에는 노란 꽃과 가을엔 선홍빛 열매가 온 마을을 감싸는 전국 제일의 산수유 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영원사 사찰로 올라가는 산길 여기저기에도, 또 정겨운 시골마을의 개울 옆이며 밭둑, 심지어는 축사 옆에도 사이사이 노란 꽃으로 곱게 물든 정경은 한 폭의 수채화로 이채로움을 더한다. 그리고 주변에는 원적산,



영원사, 반룡송, 백송, 그리고 육괴정과 고인돌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연계 관광코스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를 거론함에 있어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모임으로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과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제시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창립한 '푸른이천 21(회원29명)'은 이천시민사회의 발전에 건강하게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발적 네트워크로 1998년 8월25일 미란다호텔 세미나실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같은 해 9월7일에는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이어 매달 월례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1999년 6월25일 설봉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회 월례정책연구회에서는 장원기 회원이 '문화관광도시 이천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란 주제를 통해 『2000년 산수유축제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제안 발표하였다.

산수유축제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수유 3대 집성지 임을 감안하여 봄꽃 축제와 가을 열매축제를 제안하고, 원적산 산신제와 등반대회, 봄나물 채취대회, 산악 사이클 대회, 사진대회, 그림그리기대회, 농악축제, 산수유차 시음(이천 토속음식축제), 산수유 분재판매, 이천쌀 판매, 이천특산물 판매(가을장터) 등 축제 내용과 산수유를 이용한 상품개발(차, 음료수, 과류, 엽서, 사진, 분재, 묘목, 정원수),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발, 기타 지역주민 상품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천도자기축제의 예술적, 전통적이라는 이미지만으로는 특화의 한계가 있으며, 온천 또한 수도권에 새롭게 탄생되는 많은 온천지역과 경쟁력에서 한계가 있는 반면, 이천을 찾는 관광객의 70% 이상이 서울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과 수도권을 타겟으로 하는 관광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을 주제로 하는 산수유축제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농촌의 꽃 축제이며, 가을에는 열매를 제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도자기, 쌀, 온천과 어우러진다면 특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 2000년에 치러지는 산수유축제는 국내외에 많은 홍보를 가져올 것이며, 이천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제안에 앞서 회원들은 산수유꽃축제를 준비하며, 이천의 도예촌과 백사면 경사리, 도립리, 영원사 지역의 산수유와 반룡송, 백송, 그리고 신둔면과 백사면 지석묘 분포지를 답사하여 관광자원을 몸으로 체득하고,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수유꽃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1999년 3월20일 국내에서 산수유축제가 처음 열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온천단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1999년	2월	산수유축제 기본계획 수립
	3월	가칭 '산수유축제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5월	경사리, 도립리 일대 도로변 산수유 식목
	8월	산수유음료 개발 협의차 제일제당 방문
	9월	산수유축제 브로셔 제작에 관한 최종회의(백사면장실)
		명예대회장: 유승우 이천시장, 대회장: 김정호 시의원
		부대회장: 이기춘 백사면장, 추진위원장: 이영환 이천예총회장
	9월	제12회 도자기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설치(플래카드 2개, 도우미 2명)
	10월	산수유차 개발(가나다식품. 2000년 축제 협조)
	11월	'MBC 고향은 지금' 촬영

산수유는 대개 3월 중순 이후 꽃이 피기 시작해 3월말, 4월 초순을 전후해 절정을 이루며, 11월이면 빨간 열매를 맺는다. 한약재인 보혈간음제로 쓰이는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며, 몸을 단단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력제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수유의 신맛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방광의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의 야뇨증과 노인의 요실금 증상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함은 물론,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좋아 건강식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축제기간 중에는 이러한 산수유로 만든 차와, 떡, 막걸리 등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산수유마을 안에는 육괴정(六槐亭)이라는 문화유적이 하나 숨어 있다. 향토유적 제13호로 지정된 육괴정 주변에는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몇 그루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고풍스러움을 더해준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산수유마을의 역사는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1519년)가 일어나 개혁파인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엄용순이라는 선비가 이 도립리 마을로 숨어들어 뜻을 같이한 성두문, 오경, 임내신, 김안국과 함께 육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섯 그루의 느티나무와 함께 산수유나무를 심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전한다.

산수유마을 주변으로는 천연기념물 반룡송과 백송, 그리고 신둔면 도예촌, 설봉공원, 이천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마을에서 이포방면으로 5분정도 가면 마치 용트림을 하듯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2m 높이의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381호 반룡송이다. 반대편 신둔면 방향으로는 전국에서 여섯 그루 밖에 없다는 하얀 껍질(표피)의 백송(천연기념물 283호)이 있다. 산수유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신둔면 수광리)에는 해강도자미술관과 함께 도예촌이 있으며,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 세계적인 도자관광지로 부상한 설봉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2. 산수유축제의 내용

1) 제1회 이천백사산수유축제



2000년 4월 8일부터 이틀 동안 도립리 야외 행사장에서 '제1회 이천백사 산수유 꽃축제'가 열렸다. 해강도자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천의 불씨'를 백사체육회에서 점화하여 행사장까지 봉송하고, 채화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연주와 행글라이딩 축하비행, 나비날리기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 기간 중에는 산수유미술제, 문예백일장, 사진촬영대회, 괴정육현추모제, 야생화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백사 산수유를 원료로 한방차, 음료 등을 개발하여 시음회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가 앞으로 산수유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한국예총 이천시지부와 백사면 산수유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의 볼거리는 단연 산수유 꽃이며, 다음으로 산수유 음료, 산수유 술, 산수유 국수·수제비 등 산수유를 이용한 먹거리가 이채롭게 준비되었다. 볼거리로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백일장, 사생대회, 사진촬영대회가 참가자의 추억과 기념의 시간을 만들고, 성화봉송, 전통혼례, 시낭송회, 작은 음악회, 국악한마당, 무용발표회, 힙합댄스 경연대회, 백송제(백사중학교), 포크음악의 밤, 노래자랑 등 크고 작은 이벤트 행사가 흥과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상황 사전점검을 위한 예비행사로 열린 프레엑스포가 2000년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설봉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수유꽃축제를 위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축제의 개막을 알린 성화봉송대는 이천시에서 제작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관내 체육대회,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각종 행사에 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2) 제2회 이천백사산수유축제

2001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축제장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이천백사산수유 꽃축제'는 백사면 체육회장의 해강도자미술관 '이천의 불씨' 채화로(차량이동)→불교로타리(성화봉송자인수)→구 세무서로타리→분수대로타리→금강병원 앞(차량이동)→현방리 구도로입구(성화봉송자 인수)→홍천삼거리→송말리→도립리 주행사장에 도착하여, 성화봉송자 인수 후 점화되면서 성황리에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이 있는 첫날에는 강남구립관현악단(지휘 서현석)의 축하공연과 퓨전콘서트 북놀이

(연희극단 배꼽), 포크음악의 밤(한국포크싱어협회)이, 둘째 날에는 전통혼례(유림회), 색동어머니회 축하공연, 무용훼스티발(무용협회), 힙합댄스경연대회(연예협회), 산수유음악회(윈드오케스트라)가 열렸다. 셋째 날에는 국악한마당(국악협회), 삼행시짓기, 어린이 서희선생 선발대회(이천시학원연합회), 작은 음악회(음악협회), 시민노래자랑(교차로)이 열렸다.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는 문예백일장(문인협회), 산수유사생대회(미술협회), 육현추모제(이천육성회), 산수유사진촬영대회(사진가협회), 페이스페인팅(조앤리헤어클럽), 보물찾기, 추억의 엽서보내기(푸른이천21), 낙서 2001(이천문화예술진흥회), 소 쟁기로 밭갈기, 내가 만드는 도자기,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전통놀이(백사농업경연인회) 등 많은 볼거리와 체험놀이들이 진행되었다.

백사면 일대에 산수유가 많은 것은 이천에서 제일 높은 원적산(643m)이 병풍처럼 북풍을 막아줘 다른 곳보다 기온이 다소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산자락의 척박한 땅도 생명력이 좋은 산수유에게는 물 빠짐이 잘되는 호조건으로 작용했다. 수령 100년 내외의 산수유가 8,000여 그루 자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천시에서 가로변 등에 식재한 10년생 산수유 숫자도 7,000그루를 넘어섰다. 이번 축제에는 9만3천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6억 5천700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

3) 제3회 이천백사산수유축제

제3회 산수유꽃 축제엔 주행사장 조성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축제장내 산책로 정비 및 야간 관광객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광휴식공원을 조성하였다.

이천백사산수유축제는 보통 4월 초순께 이뤄졌으나 3회 때는 이보다 1주일 빠른 2002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산수유가 예년과 달리 추위가 일찌감치 달아난 탓에 일찍 꽃망울을 터트렸던 탓이다. 수령이 족히 100년 이상의 대규모 산수유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는 백사면 도립리와 경사리, 송말리 일대의 산수유꽃 물결을 배경삼아 개최되는 축제는, 봄의 정취를 처음 느낄 수 있는 수도권 내 최고의 테마이기 때문이다.

축제 첫날인 29일 오후 2시 개막식에 앞서 식전행사 격으로 이천의 불씨 성화 봉송과 함께 풍년기원제 축포가 쏘아 올려졌다. 개막식은 의례적인 전통의식을 벗어나 마당놀이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색다른 묘미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 실시된 풍년제는 시춘목(始春木)이라 지정한 산수유나무에, 한 해 동안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관객들의 참여 속에 한바탕 놀이마당을 연출했다.

개막행사로는 연희극단 배꼽의 퓨전콘테스로 나무꾼과 선녀공연과 극단 자유로의 각설이 공연, 청소년들의 힙합경연이 이어져 초반 분위기를 달구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이천이 자랑하는 어린이 서희선생 선발대회 행사를 비롯 장승깎기, 우리꽃 전시회, 돌탑쌓기, 사진작가

협회 주관의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주기 등 갖가지 볼만한 행사로 채워졌으며, 행사기간 중 모두 11만 1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산수유 시춘목(始春木)

이곳 산수유 군식지는 중종14(1519)년 기묘사화 때 낙향한 김안국(金安國) 강은(姜隱) 오경(吳慶) 엄용순(嚴用順) 성담령(成聃齡) 임내신(任鼐臣) 등 육현(六賢)들께서 은일(隱逸)하면서 심었으며 봄에는 선비의 상징인 노란꽃 여름에는 향기 나는 잎 가을에는 자수정 같은 열매 겨울에는 마디마디 아름다운 눈꽃나무로 상징되고 있으며 약매는 약재로 처방되어 보혈강음제로 쓰이고 피로회복에 좋으며 특히 동맥경화도 예방된다 겨울을 이겨내고 첫봄을 알리는 산수유나무에 시춘목(始春木)이라는 이름을 지어 후손들이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간직함이다.

이천이년삼월이십구일

4) 제4회 이천백사산수유축제



2003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백사면 도립리·서경리·송말리 일대 산수유 마을에서 제4회 산수유꽃축제가 열렸다. 본격적인 산수유 재배가 시작된 것은 150년 전. 산수유 값이 오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앞 다퉈 산수유를 심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수유 열매 수입으로 옛날에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에는 중국산 산수유가 수입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립리·서경리·송말리에 분포되어 있는 산수유 밭은 3만여 평으로 8천여 그루가 넘는다. 연간 생산량은 1.8t 정도다.

올해 축제에는 '추억의 엽서 보내기' '야생화 전시', '장승 깎기', '영정사진 무료촬영', '전통혼례'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졌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씨름대회', '관광객을 찾아다니는 달리는 노래방' 등의 행사도 열렸다. 13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4회를 진행해 오면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관광대학 권혁률 교수에게 의뢰하여 2003년 4월30일 평가회에서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축제 만족도 분석은 축제기간 3일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조사자에 의한 직접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되었다.(설문지는 총 270부를 배포한 결과 분석 가능한 256부를 회수하여 통계처리)

연구의 과업목표는 축제의 성격과 행사추진에 따른 내부 환경,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여가 및 관광객 형태에 따른 외부환경에 의해 환경 분석, 마케팅전략 도출, 방안도출, 최적대안 제시를 설정하였다. 방문객 일반적 사항을 보면, 회사원(35.5%)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주부(2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거주지로는 경기권(75.2%) 및 서울(19.8%)이 단연 우세하였다. 연령대는 30대(44.6%), 20대(25.6%), 40대(21.5%)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인 행사 만족도와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 환경친화적인 상태,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성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볼거리 상품, 먹거리 상품, 행사장내 관광안내, 연계 접속도로시설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축제행사로 인한 향후 지역 이미지 개선효과와 향후 재방문의사,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며, 친구 및 연인(27.2%), 가족(62%)으로 나타나 방문 타겟층이 명확했으나, 자가용 이용자가 92.6%로 나타나 향후 축제기간 중 방문객 쏠림현상과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케팅 분석과 전략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축제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의 유입을 막아야 하며, 지속적인 자연/농촌체험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위치 정립을 위해 산수유 꽃을 배경으로 한 산책로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고, 각종 행사는 산수유가 분포되어 있는 마을만이 아닌 마을 초입, 혹은 그 밖에서 다양한 행사(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자연환경보존비)를 징수토록 해야 하며, 가족을 동반한 30~40대와 20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일대의 거주자를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가족과 연인을 위한 놀거리, 체험거리 프로그램(자연친화적인 체험거리와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수유주, 산수유한과, 산수유 꿀과 같은 산수유를 위주로 한 고유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는 방문객의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사기간을 9일간으로 연장할 것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장 재정비 및 셔틀버스 이용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5) 제5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004년 3월 26일~4월 5일(11일간)까지 열린 제5회 산수유꽃축제는 이천의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백사면민을 중심으로 한 순수민간주도의 '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헌선)'가 구성되어 의욕 있는 새 출발을 하였다. 예전의 행사와는 달리 기간을 11일간으로 연장하고 산책로 걷기, 전통혼례행사, 자연관찰, 시골풍습체험, 시골장터거리, 전통놀이경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210,650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백사면 도립1리, 서경리, 송말리 일대 산수유마을에서 개최된 산수유꽃축제는 많은 상춘객이 찾는 등 전국 규모의 축제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5회째 맞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면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책로를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원두막 체험, 장작패기, 옛날 생활용품 전시회, 자연관찰 등 꽃 감상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헌석 축제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번 축제로 인근 관광지인 도예촌과 설봉공원, 온천, 그리고 이천의 먹거리 쌀밥집을 찾은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는 효자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제6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005년 4월 1일 개막된 제6회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장 임관빈)가 쌀쌀한 날씨로 늦어진 개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호응 속에 3일 폐막되었다. 개막식에는 교류도시인 제주도 서귀포, 충북 단양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길놀이, 성화 봉송으로 시작되었으며, 노란 산수유 꽃과 어울려 많은 방문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한 화합의 한마당 '도전! 가요열전(GBC-KCN 방송 주관)'엔 유승우 이천시장도 참여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튿날인 2일엔 주 무대에서 개인과 동아리가 선보이는 순수 아마추어의 시간, 한국전통무예시범, 연희극단 배꼽의 북놀이, 이천한울림합창단, 풍물지기 치레의 공연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는 '내일로 가는 음악여행(공개방송)', 산책로걷기대회, 나무순례기행, 이천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산수유백일장과 사생대회엔 예상을 뛰어넘는 1천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마지막 날인 3일엔 한때 비가 쏟아지기도 했으나 곧 화창하게 개어 늘품예술단의 현대무용, 국악한마당에 이은 청소년페스티벌 본선 행사로 축제 마무리를 지었다.

이밖에도 축제 전체 기간 중에 자연관찰장과 놀이시설이 운영되었으며, 살고싶은고을이천21의 설문조사와 이천사진작가협회의 사진전, 푸른이천21의 '추억의 엽서보내기', 타임캡슐, 황토벽돌찍기, 장작패기, 톱질하기, 전통놀이(투호, 전통그네, 널뛰기), 산수유 까기 체험, 산수유관련제품 전시회, 산수유 삼행시짓기와 수상작 전시, 버들피리 만들기, 산수유마스코트와 사진찍기 등이 이어졌다.

주행사장 무대를 마을회관 앞으로 옮기고 예년의 경우와 달리 무대행사를 줄이는 한편 산책로 개발, 체험장, 자연관찰, 나무순례기행 등을 통해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특산품판매, 먹을거리판매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축제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7) 제7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006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제7회 산수유꽃 축제(추진위원장 이종상)가 열렸다. 날씨 변화로 인해 산수유꽃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개화돼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개최된 산수유꽃축제는, 중국대륙에서 발생된 황사가 한반도로 날아와 최악의 황사현상으로 노랗게 핀 산수유꽃이 뿌옇게 보이는 등의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약 12,000여명이 증가한 약17만5천700여명의 관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제는 백사 산수유마을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체험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하는 한편, 관람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준비했다.

축제개막일인 7일 오전 10시부터 백사면 이장단협의회가 주관하는 용싸움 줄다리기를 여는 한편, 길놀이와 성화 봉송에 이어 본격적인 개막행사가 펼쳐졌다. 또 시춘목 앞에서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열고, 이틀째인 주말에는 전통혼례와 퓨전 난타공연, 백일장과 사생대회, 각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연희극단 배꼽의 사물놀이와 우리춤, 락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축제기간 동안 산책로 걷기, 자연관찰, 시골풍습체험(황토 흙벽돌 찍기, 버들피리 만들기, 장작패기), 시골장터거리체험, 연날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투호 등으로, 전통놀이와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백사면 산수유축제추진위원회는 백사면사무소에서 축제준비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산수유축제 최종일정을 논의 및 확정하는 열정을 보이며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축제는 관객과 주민이 함께 체험하는 참여축제를 준비한 추진위원들과 자율방범대, 백사중학교 학생, 기독봉사단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질서유지와 관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은 축제로 평가 받았다. 산수유꽃축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농특산물을 비롯해 토속음식. 기타 등을 합쳐 총 2억1,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8) 제8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진노랑 봄꽃의 향연' 제8회 산수유꽃축제가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상)는 지난달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4도가 낮다는 기상청의 예보를 감안, 예년에 비해 일주일정도 꽃망울을 일찍 감상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축제기간을 앞당겨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제기간 동안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타악 퍼포먼스 공연, 외줄타기(박회승), 퓨전전자현악퍼포먼스, 태권무 공연, 노래자랑 및 청소년페스티벌 등 공연프로그램과 산수유꽃 사진전, 삐에로 퍼포먼스 로드쇼, 즉석 사진촬영서비스가 상설 운영되었다.

또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 열기구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난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투호, 널뛰기, 전통그네 등 전통놀이를 비롯해 버들피리 만들기, 장작패기, 추억의 엽서보내기, 새끼꼬기, 전통떡 만들기 체험 등 가족단위 체험이벤트와 화훼전시회, 시화전 등 전시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장승 만들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 풍년기원제, 보물찾기, 사랑의 편지쓰기, 산수유까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산수유열매, 산수유농축액을 포함한 지역 특산물을 행사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코너도 마련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폐막식이 열리는 4월1일 이후에도 산수유꽃이 저무는 4월 둘째 주까지 관람기간을 연장 진행하였다.

9) 제9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노란 봄꽃의 향연 '제9회 백사산수유꽃축제'가 2008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상)는 일회성에 그치는 전시성 행사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체험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결과를 낳았다. 개막식에 이은 도지초교 사물놀이와 이천시청 락밴드 공연이 있었으며, 신둔면과 백사면 주민자치센터의 난타공연, 스포츠댄스 그리고 오카리나, 밸리댄스, 평양예술단 공연등도 열렸다.



산수유 군락지 일대에선 관내 각 초중고 학생들의 사생대회 및 백일장 대회가 진행되었다.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버들피리 만들기'로 이 코너에서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향수로, 아이들은 신나는 체험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기도 했다. 여기에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을 위해 마련된 보물찾기, 투호·그네·널뛰기 등 전통놀이 행사는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천연염색 체험, 무료 가훈 써주기, 산수유비누 만들기, 장작패기, 수지침시술 등의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밖에도 자연관찰장, 산수유꽃 그리기, 사진전시회, 추억의 엽서보내기, 압화전시, 화훼전시, 천연 염색체험, 시화전으로 주최 측은 관광객들에게 전혀 손색없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2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천시 단월동에 위치한 '오성주조' 공장에선 산수유축제의 명물인 '산수유막걸리'를 본격 출하되었다.

10) 제10회 백사산수유꽃축제

2009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봄의 전령사'인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장 송준의)가 열렸다. 가까운 수도권에서 흐드러진 산수유꽃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봄철이면 노란 산수유꽃을 보려는 상춘객들이 대거 이천을 방문한다. 개막행사를 앞두고 봄을 알리는 시춘목 아래에서 풍년기원제가 열렸으며, 길놀이와 장호원 부원고등학교 밴드부의 화려한 선율에 맞춰 산수유꽃축제가 시작됐다.

이번 축제는 봄의 상징인 산수유꽃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위해 산수유마을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행사장 동선을 정하는 등 편의제공에 신중을 기했다. 공식적인 축제가 시작되면서 관악공연과 오카리나공연, 7080 라이브공연 등 다양한 무대행사가 진행되었다. 또 축제 이틀째인 4일에는 산수유꽃 예술단 공연, 밸리댄스, 산수유꽃 노래자랑 등의 무대공연과 함께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으며, 3일째에는 비보이 힙합댄스 청소년 페스티발 공연과 함께 육현추모제와 등반대회가 펼쳐졌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활 만들기, 활쏘기, 목검 만들기 체험, 원목과장공작체험, 장작패기, 자연관찰장, 톱질하기, 버들피리 만들기, 목공예 체험행사가 펼쳐져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핸드페인팅, 무료 가훈 써주기, 유리공예, 사진전시회, 추억의 엽서보내기, 도자기 만들기. 산수유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백사지역 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다양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었다.

11) 제11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제11회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장 송준의)가 2010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백사면 도립리 일대에서 열려, 천안함 사태로 각종 행사가 대폭축소 된 아쉬움 속에 차분히 진행되었다. 봄을 알리는 시춘목 아래에서 풍년기원제가 열렸으며, 길놀이와 장호원 부원고등학교 밴드부의 선율에 맞춰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천안함 사태로 의식한 듯 공연행사를 축소키로 했다며 관람객들의 양해를 당부하는 한편 천안함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였다.

각종 공연행사가 축소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산수유꽃축제는 핸드페인팅, 무료 가훈 써주기, 유리공예, 사진전시회, 추억의 엽서보내기, 도자기만들기. 산수유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볼거리 행사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축제추진위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실종 장병들의 무사 귀환과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하여 노래자랑이나 밸리댄스, 사물놀이, 힙합댄스, 록밴드 공연 등 요란한 무대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체험 및 관람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는 6.2지방선거로 인해 지금까지 무료로 운행해오던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유료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셔틀버스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하며 셔틀버스 정류장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유료운행을 홍보하였다.

12) 제12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백사면 도립1리를 비롯한 원적산 기슭 5개 마을과 산등성이는 수령 100년 이상 고목을 비롯한 1만7천 그루의 산수유의 노란색 꽃으로 덮여 꽃대궐이 연출된 가운데 제12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장 신규성)가 2011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산수유꽃축제는 도자기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4대축제로 불리고 있다. 또 산수유마을은 축제기간을 전후해서 매년 10~20만 명의 인파가 꾸준히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올해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방문객을 위해 산책로 걷기, 전통혼례행사, 자연관찰, 시골풍습 체험, 시골장터거리, 전통놀이 경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해 체험활동과 역사교육 등 보고, 듣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의 행사장으로 계획되었다. 축제는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시춘목(始春木)이란 칭호를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산수유 고목앞 제단에서 봄을 맞아 한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산수유 꽃길 곳곳에서는 태극무, 비보이, 사물놀이 등 공연과 함께 예년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인 사진·시화 전시, 추억의 엽서보내기, 도자기·목공예 체험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3) 제13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012년 4월 6일에서 8일(3일간)까지 열린 제13회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장 신규성)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주도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단체들의 봉사로 치러지는 이천시 축제로 자리 잡았다.특히 올해에는 산수유 관련제품으로 산수유 떡, 산수유 한과, 산수유 칼국수, 산수유 차, 산수유 빵 등 다채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축제였으며, 매회 주차장 협소문제로 불편이 많았던 부분을 이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난을 다소 해소 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되었다.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선보인 5.3㎞ 길이의 산수유 둘레길은 관람객들에게 시골의 정취와 마음의 휴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밸리댄스, 통기타 라이브공연, 드림스틱공연, 색소폰 연주와 같이 풍성한 공연과 함께 산수유사진전, 산수유 그림전시와 같은 볼거리와 두부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되었다. 행사 가간 중에 2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14) 제14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013년 4월 12일부터 3일간 백사면 도립리 일원에서 열린 제14회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장 이선상)가 열렸다. 지난해 조성된 낙수제와 영원사를 잇는 5.3km 산수유 둘레길 역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변덕스런 날씨 탓에 작년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열렸지만, 원적산 둘레길을 걷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 보다 4.6% 증가한 약 23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 산수유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로 만든 각종 농산물 판매액 등도 지난해 보다 약 5.5% 증가한 2억 9천여만 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

축제 기간 중에는 길놀이, 풍년기원제, 사물놀이, 민요, 국악한마당 등 전통문화와 팝페라, 락, 전자바이올린, 비보이, 평양예술단, 통기타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일반, 대학생 및 사생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4회 이천산수유전국사생대전이 펼쳐졌다. 이밖에도 자연관찰장, 버들피리 만들기, 사진전시 등과 함께 산수유로 만든 빵, 비누, 유제품, 막걸리, 산수유 한과, 산수유 가래떡 시식 및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사장과 인근 OB구장 등 9천여 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이천시내와 축제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관람객들의 편익을 도왔다 이번 축제에서는 독일식 소시지, 중국식 꼬치 등 다문화 식당도 마련되었으며, 축제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백사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지역 특산물로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전통이 담긴 산수유 동동주, 산수유 막걸리, 산수유 효소 등과 함께 “이천백사 산수유”란 상표의 ‘포천이동 생막걸리’가 최초로 시판되기도 했다.

3. 축제 평가와 발전방안

2013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이천백사산수유축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축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방문객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객 직접 설

문조사 대상자 555명중 분석이 가능한 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층으로는 40대가 29.3%, 50대 25.2%, 30대 23.7% 순이며, 가족단위는 50.2%, 친구 20.1%, 거주지역은 경기 49%, 이천 25.4%, 서울 18.1%로 나타났다. 이동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2.6%인 점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참여횟수는 처음이라는 응답이 60.1%, 두 번째 16.6%, 4회 이상이 15.9%로 집계되었다.

교통 및 주차만족도는 그렇다 42.8%, 보통이다 38.3%, 아니다 18.9%, 안내 및 편의시설 만족도는 그렇다 44.9%, 보통이다 44.8%, 행사시설 만족도는 그렇다 48.9%, 보통이다 44.4%, 홍보 및 진행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 50.3%, 그렇다 42.8%였다. 타 지역 주민 배려도는 보통이다 49.3%, 그렇다 41.8%이며, 축제시기 만족도는 그렇다 65%, 보통이다 30.3%, 축제의 지역이미지 부합도는 그렇다 79.9%, 보통이다 21.6%로 나타났다. 또 먹을거리 가격 적정성에서는 적당하다 69.8%, 비싸다 25%, 싸다 5.2%, 먹거리 맛은 맛있다 46.3%, 그저 그렇다 41.9%, 맛이 없다 11.4%, 음식위생 상태는 보통이다 66%, 깨끗하다 27.3%로 나타났다.

1) 방문객을 위한 주차 및 편의시설(제도) 확보

설문조사 결과 과거보다 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 주차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 축제추진위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된다. 하지만 축제 방문객 대비 축제공간과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도로에 차량주차를 무분별하게 하여 쌍방향 차량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문제는 축제기간 동안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정리되면 관리하는 측면이나 참여하는 관광객들 모두 원활한 축제운영에 만족할 것이다. 또한 꼭 축제장 주차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정한 시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 산수유 테마형 축제 운영

산수유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례를 올리는 전통적인 행사가 인상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전체적인 축제의 분위기는 상업적인 행사에 치우칠 수 밖에 없지만 매년 관광객들은 축제에 대한 차별성을 기대한다. 산수유 축제는 이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이천시나 타지역 행사나 물리적인 위치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산수유에 대한 보다 색깔 있는 운영과 고전적인, 감성적인 축제의 테마를 갖고 운영하여 타지역과는 다른 차별화 된 축제를 기대한다.

3) 축제의 정통성 고취

14년을 이어 온 이천백사산수유축제는 이제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 이천만의, 산수유마을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축제를 운영하는 추진위원들은 본인들은 본업을 미뤄 놓고 축제운영을 돕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축제의 발전과 지속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천백사산수유축제는 단순한 마을축제가 아니고 이천의 4대 축제로 자리매김 했고, 명실공히 이천을 알리고 이천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축제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은 장터분위기의 축제,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 축제, 산수유 고유의 상징을 나타내는 축제 등등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드웨어적인 제한점은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가 되었다. 이제부터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스 설치부터 운영까지 객관적 지표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축제운영 시스템의 차별화된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2000년 이천시 백사산수유축제 계획(안)(1999.산수유축제추진위원회)

푸른이천21 월례정책연구회 자료집(2000.푸른이천21 운영위원회)

제2회 이천백사산수유축제 추진계획(2001.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행사의 활성화 방안연구(2003.한국관광대 권혁률교수)

제14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평가보고서(2013.산수유꽃추진위, 이천시사회복지협의체)

이천저널, 이천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뉴스

여 백

제8장

이천쌀문화축제

현 종 기 / (사) 임금님표 이천브랜드관리본부 본부장

1. 한민족과 쌀 문화
2. 지역문화와 축제
3. 진상미 고장-이천과 쌀
4. 이천쌀문화축제의 태동기
5. 이천쌀문화축제의 도약기
6. 이천쌀문화축제의 성장기
7. 이천쌀문화축제의 변천사
8. 이천쌀문화축제의 전망과 개선점

제8장 이천쌀문화축제(Icheon Rice Cultural Festival)

1. 한민족과 쌀 문화

이천쌀문화축제의 역사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의 주식인 쌀과 우리 민족, 또는 지역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류학적으로 인류가 수렵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바뀌는 계기 중에는 도구의 사용과 더불어 식물을 경작하여 재배하는 기술발달이 들어있다. 인류는 작물과 가축을 기르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길고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벼' 또는 '쌀'에서 연유된 독특한 문화와 지역성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민족은 기원전 2,000여 년 전부터 벼를 재배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수리시설(예를 들면 벽골제, 의림지, 수산제)의 확충과 더불어 벼 재배를 장려하여 민족의 제1의 주식으로 자리를 잡는다. 우리 민족에게 쌀이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정신과 문화, 그리고 DNA에 새겨진 코드이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로 각종 속담이나 세시풍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식민족인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쌀은 생명줄 그 자체였고 한결같은 소망이자 한이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만 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쌀밥에 고깃국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다. 조상들에게 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것은 여러 민속신앙과 속담을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주신은 집을 지키는 가신(家神)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었는데, 옛 가정에서는 쌀 항아리를 성주단지라 하여 대청 한구석에 고이 모셔 놓았다. 벼멸구나 참새 떼가 극정을 부릴 때에는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는데 대한 하늘의 응징이라고 풀이해 밥그릇의 밥을 절반으로 줄이는 감선(減膳) 풍습도 있었다.[1)]

벼농사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만큼 수많은 세시풍속이 생겨났다. 이런 세시풍속은 시대적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독특한 지역문화로 연결되었다.

2. 지역문화와 축제

이천지역도 지리적인 여건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독창적인 이천만의 문화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이자 이천쌀문화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거북

1) 쌀은 우리의 생명줄-쌀과 벼농사의 내력, 2004.9.17. 김영사

놀이'다. 거북놀이는 볏짚으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한가위나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액운을 없애고 사람들의 장수를 빌던 놀이문화(대동놀이)로 이천쌀문화축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이다. 대동놀이는 전통적인 농민의 신명풀이로서 과거에는 생산력이 발달되지 않았고, 지리적으로 부락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킬 힘이 부족한 가운데 집단의 무의식적인 동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놀이이자,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맺힌 한을 집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집단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당이다.[2)]

이천쌀문화축제는 마당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마당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리 민족에게 마당이란 생산 작업을 위한 기능, 의식을 위한 기능, 정서를 조성하기 위한 기능, 채광과 통풍을 위한 기능, 통로를 위한 기능, 공간의 분리를 위한 기능, 공무를 위한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마당은 닫혀있으면서도 열려있는 공간이자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대동놀이와 마당이란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와 쌀 문화가 아주 잘 연관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천쌀문화축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성공적으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역사성을 배제하고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3. 진상미 고장-이천과 쌀

이천시민과 농업인들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한양 구중궁궐의 임금님께 이천쌀이 진상되었다는데 대해 매우 강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또 진상미의 고장이란 이름을 계승하고자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지역 공동브랜드로 이천쌀을 재배, 유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이천과 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각종 역사문헌과 민요 등을 통해 그 역사성을 짐작케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진방아'와 '방아타령' 등이며 고문헌 중에는 『성종실록(成宗實錄)』[3)] 『행포지(杏蒲志)』[4)] 등을 둘 수 있다. 이런 지역문화의 전통과 자긍심이 모여 이천쌀문화축제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축제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천쌀문화축제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또 하나의 문화코드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역동

2) 대동놀이, 두산백과
3) 김광호. 2004. 이천쌀 우수성과 성가 제고방안 연구 : 39-40
4) "産驪州利川之間者 爲良也(여주이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좋다)" (서유구. 1825. 杏蒲志)

질성을 형성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천쌀문화축제의 태동기

1995년에 국제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농산물 수입개방 요구가 거세어진다. 정부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우리농업 보호차원에서 1996년부터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식과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또한 1997년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는 전 국민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이전까지 이천시에서는 농업인들이 읍면동별로 소규모의 마을잔치를 열거나 단합행사를 진행하는 정도의 친목성 행사가 대다수였다. 시대적 위기상황 속에서 이천시 농업 보호와 이천쌀의 성가 제고를 위해 시청, 농협,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뜻을 모아 1999년에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를 이천시민회관에서 열게 된다. 당시만 해도 마케팅적인 접근보다는 친목도모 및 교류활성화 차원의 자족적 성격이 강했다.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는 제1회 축제에 비해서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농업인만의 행사가 아닌 일반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컨텐츠 요소가 도입되어 내용적으로 성숙되었다. 이천 농업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음식만들기, 직거래장터 등이 도입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소개해 본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열리는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가 이천농업인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유시중) 주최로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이천시민회관에서 관내기관장과 단체장, 그리고 농업인 등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시민차원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농협, 이천축협,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문화원, 이천시어머니합장단 등 관내 농업기관과 단체 외에,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농업인 축제는 7일 개막식행사를 시작으로 펼쳐졌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1회 농업인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쌀단지 부문에 율면 본죽리가

차지했으며, 쌀 개인부문에 설성면 제요리의 오명호씨가 수상, 각각 상패와 함께 15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원예부문에는 백사면 모전리의 임지순씨, 과수부문에는 장호원읍 선읍리의 이재붕씨, 축산부문에는 설성면 장천리의 안래억씨, 여성농업인부문에는 대월면 군량리 정태선씨, 생산자 단체부문에는 진리동의 이천한우회(대표 윤두현)가 수상, 각각 6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농협시지부에서 선정하는 우수영농 조직으로 모가면 진가리부녀회와 대월면 부필리 작목반, 장호원 선읍3리 영농회가 각각 선발돼 50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번 제2회 농업인 축제는 전통민속경연 및 옛 모습 재연 경기와 음식 만들기 경연, 이벤트행사와 문화행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을 산지보다 30%가량 싸게 판매하는 농축산물 장터, 이천화훼협회에서 우리꽃을 전시 판매했으며, 20여 점의 향토음식이 전시되는 우리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전통민속경연 및 옛 모습 재연경기는 멍석 만들기, 새끼 꼬기, 용마름 엮기, 짚신 만들기, 전통연 만들기, 풍물놀이경연, 허수아비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및 시연회가 열려 옛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음식 만들기 경연으로 사과 길게 깎기, 오징어 모양내기, 송편 만들기 등이 펼쳐졌다." (이천소식, 2000년 11월 25일)

5. 이천쌀문화축제의 도약기



2001년부터 이천농업인축제에서 이천햅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성격적·내용적 측면에서 대변신을 꾀하여, 자족적 축제에서 외지 관광객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축제로 변모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지역출신 축제전문가인 오순환 박사[5]의 자문이 컸다. 이 해에는 1987년부터 개최되어 온 이천도자기축제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승격되어 80일(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간 설봉공원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도자기엑스포 개최로 인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햅쌀축제는, 천신만고

5) 현 용인대학교 교수, 이천쌀문화축제 자문교수

끝에 3번 국도변에 위치한 신둔면 수남리 일대 논바닥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정비되지 않은 논바닥에서 행사를 열다보니 행사공간이 초라하고 편의시설 등도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나 고향의 정취와 이천햅쌀이란 소재와 어울리는 공간연출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좋은 반응과 결실을 맺었다.

2001년 이천햅쌀축제가 이전과 다른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부축제'에서 '열린 축제'로 변화되어 이천시 농업인과 시민만이 즐기는 자족적 행사에서, 이천 쌀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둘째, 단일공간 개념에서 주제별 공간기획인 '마당'을 도입했다. 마당은 주제별 특징을 살린 공간연출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닫힘과 열림'방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표 1〉 2001년 이천쌀문화축제의 프로그램 구성

공간구성	주요 프로그램
타작마당	농경문화의 시연 및 체험
옛날마당	농촌의 생활문화-달구지, 경운기, 장치기, 용싸움 등
솜씨마당	농기 만들기를 비롯한 솜씨자랑
어울마당	장치기, 지게놀이, 새끼 꼬기, 굴렁쇠, 지게질 등의 전통놀이
고향의 맛	이섭대천 시음회, 한우 · 돼지고기 시식회, 배 · 사과 시식회
대동놀이	길놀이, 줄다리기, 농기싸움,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시골장	난장-쌀값 널뛰기, 각종 농작물, 뻥튀기, 품바 등 주막- 쌀밥, 국밥, 추어탕, 국수, 빈대떡, 막걸리 등

2002년 제4회 이천햅쌀축제부터 현재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설봉공원에 안착하여 주차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어 간다. 쌀과 관련된 주제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천시 문화와 다양한 놀이소재를 도입하여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갖춘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다.

그러나 2003년 제5회 이천햅쌀축제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일정이 겹치면서 행사장을 궁여지책으로 흙먼지가 날리는 행정타운(현 이천시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모로 문제와 실망을 자아내게 했으나 이를 통해 이듬해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6. 이천쌀문화축제의 성장기

한편 2003년에는 과거 지역축제의 틀에서 탈피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주도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육정 정책에 따라 이천햅쌀축제도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제기면서, 지역적 협의를 거쳐 '이천쌀문화축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천시의 예산지원에 힘입어 설봉공원으로 행사장을 복귀하고 지금의 대동놀이 중심의 열린마당 형식의 이천쌀문화축제가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기법에 따라 마당별, 주제별 공간배치 및 프로그램이 기획 구성되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진상행렬 개막식, 이천명의 방문객에게 고르게 떡을 나누어 주는 600m 무지개 가래떡 뽑기 등이 도입되고, 대표 프로그램으로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이라는 킬러 콘텐츠가 도입되어 방문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된다.

이천쌀문화축제는 2004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로 소강상태 또는 정체감을 보이고 있다. 농경문화와 대동놀이를 소재로 한 마당프로그램 도입으로 2008년 우수 문화관광축제가 되었고, 2013년에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다.

〈표 2〉 이천쌀문화축제 연도별 문화관광 실적

연도	방문객(명)	외국인(명)	판매액(백만원)	경제효과(백만원)
2001년	147,250	57	254	6,820
2002년	93,695	334	211	5,753

연도	방문객(명)	외국인(명)	판매액(백만원)	경제효과(백만원)
2003년	150,245	652	213	7,209
2004년	398,632	1,582	556	8,145
2005년	401,500	4,550	579	8,964
2006년	470,290	6,122	699	9,645
2007년	508,790	8,452	842	11,164
2008년	530,750	12,092	956	11,952
2009년	539,834	12,441	1,153	17,639
2010년	467,102	7,260	708	17,775
2011년	452,695	6,510	1,133	19,345
2012년	478,300	5,400	1,045	26,717
2013년	501,700	6,070	1,271	20,293





7. 이천쌀문화축제의 변천사

〈표 3〉 이천쌀문화축제 연도별 세부 개최 현황

연도	행사명칭	시기	장 소	주요특징	의 의
1999년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	11월	시민회관	자족적 행사	축제도입
2000년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	11월	시민회관	자족적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도입
2001년	제3회 이천햅쌀축제	10월	수남리	열린축제(마당)	공간 프로그램도입
2002년	제4회 이천햅쌀축제	10월	설봉공원	스토리텔링기법	주제도입
2003년	제5회 이천햅쌀축제	10월	행정타운		예비 문화관광축제
2004년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마당별/주제별 프로그램	예비 문화관광축제
2005년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킬러 콘텐츠도입 (이천명, 이천원)	유망 문화관광축제

연도	행사명칭	시기	장 소	주요특징	의 의
2006년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유망 문화관광축제
2007년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기승전결 (스토리텔링)	유망 문화관광축제
2008년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통일된 공간연출	우수 문화관광축제
2009년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우수 문화관광축제
2010년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우수 문화관광축제
2011년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11월	설봉공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확충	우수 문화관광축제
2012년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	10월	설봉공원		우수 문화관광축제
2013년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10~11월	설봉공원	행사기간 확대 (4일→5일)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8. 이천쌀문화축제의 전망과 개선점

이천은 진상미 고장의 이름을 계승하고 농업인, 이천시민, 국민이 한데 어울려 흥겨운 한마당잔치를 벌리고 이천의 민속놀이를 보전하는 지역문화축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축제 5일간에 약 50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아와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 거리를 마음껏 만끽하고 이천시와 이천쌀에 대한 좋은 추억거리를 담아가고 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덩실덩실 어깨춤사위를 들썩이는 대동놀이 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천쌀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숱한 과제와 극복해야할 도전이 놓여 있으며 현재에 안주하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하는 도전의식과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첫째로 방문객 폭증에 따른 장소의 제한성이다. 설봉공원이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축제를 치르다보니 교통체증, 방문자 혼잡, 소음장해 등이 개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규모 행사장을 만드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과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자들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걸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그리고 위성행사장을 두어 방문객을 분산시키고 방문자에게는 축제꺼리를 더욱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이천쌀문화축제는 체류형 축제라기보다는 당일 방문형 축제에 가깝다. 따라서 행사장을 다양하게 둠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행사장으로는 모가면

어농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이 가장 유력하며, 위성행사장은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활용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다.

둘째로 축제 기획과 운영이 순수하게 민간으로 이전되어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산학민관 조직체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관주도형 축제로 한계성과 반연속성이란 문제가 있다. 산학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초로 하되 민간주도형 축제로 탈바꿈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축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급작스러운 이양은 후유증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양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로 축제성격과 범위의 확대·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때이다. 민족의 주식인 쌀을 소재로 한 축제는 이천쌀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김제, 여주, 청원 등지에서도 열리고 있다. 여주는 진상미축제에서 고구마축제로 이어지다가 2013년부터 오곡나루축제로 바뀌어 여주농축특산물을 홍보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였다. 청원군(통합청주시)은 청원생명쌀축제에서 지역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는 2011년 '임금님표이천' 통합공동브랜드로 출범되어 쌀, 채소, 한우, 돼지, 벌꿀, 계란 등이 공동브랜드에 편입이 되거나 될 예정이다. 또한 이천쌀문화축제에는 이미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특산물과 가공식품들이 행사장 곳곳을 채우고 홍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쌀문화축제'가 아닌 '임금님표이천문화축제'로 전환되고 주테마는 이천쌀을 소재로 하는 것이 어떨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사회와 지역농축특산물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와 공헌을 한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또한 이천쌀이 전국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갖는데도 현격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이천쌀문화축제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동반뿐만 아니라 외부와 소통하는 열린 축제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천쌀만이 아닌 이천의 농업, 문화, 전통, 산업 등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발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더 멀게는 이천의 지역문화와 산업 컨텐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반석이 되길 기원한다.

제9장

설봉산 별빛축제

김 철 호 / 사) 이천예총 사무국장
최 종 상 / 이천미술협회 사무국장

---

1. 너른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
2. 지방자치와 지역축제
3. 설봉산 별빛축제의 특성과 내용
4. 설봉산 별빛축제의 전망

제9장 설봉산 별빛축제

1. 너른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

너른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식들을 축제라고 부른다. 축제는 인간의 삶의 생리가 가장 강렬한 모습으로 솟아오르는 순간들이다. 축제는 많은 의미의 무더기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의례적이며, 순간적이고 소모적이다. 직접적이기도 하고 대리적이기도 하며, 쾌락적인 한편 난폭하다. 그리고 일탈적이자 통합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부분적 조합이나 총합이 모두 축제의 본질일 것이다.

축제에는 삶의 지속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제어되거나 금지된 인간의 욕망이 담겨있으며, 이것의 분출을 통해 억압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욕망의 해소를 통해 정화되고, 안정되고자 하는 필요 욕구가 작동하고 있다. 이 의도는 현실 원칙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면서, 혹은 반드시 일상적인 삶에 안전한 귀환을 준비하면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식화(儀式化)되고 형식화된다. 이는 축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의 제의부터 오늘날 다양하게 소비되는 페스티벌(festival)이나 이벤트(event)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축제는 충족과 위반을 허용하는 상징적 차원의 시공간이다. 축제가 인간과 사회의 자기 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도모되는 필수적인 삶의 기획인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영원한 꿈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일 것이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 삶다울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현실에 붙박여 살아가면서도 '꿈'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신적 도피나 거칠고 어눌한 위로만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이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한 삶이란 건조한 현실주의나 나른한 낭만주의의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삶의 참다움과 상상 사이에 창조적이며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게 한다.

축제는 그러한 경계를 넘나드는 일종의 모둠놀이이다. 일상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공간에서 상상을 어루만지며 또 다른 일상을 준비하는 행위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의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일종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서로 부딪치면서 활력으로 넓어지는 마당이다. 그러므로 축제는 생명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의미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면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또 다른 질서를 체험한다.

축제는 고대의 성스러운 종교제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축제를 뜻하는 영어 페스티벌(Festival)의 어원을 살펴보면 성일(聖日)을 뜻하는 페스티발리스(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즉, 축제가 종교의례에서 뿌리내려졌다는 사실이다. 맹수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위를 지키기 위해 토테미즘이 발달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나 숭배의 의미로 기원하는 의식이 축제의 기원인 셈이다. 한국의 영고와 같은 제천의례, 마야의 제천의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다 본격화 된 것은 역시 종교의 구세의미로 확대되면서 이다. 기독교의 부활절, 성탄절, 만성절, 불교의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 이슬람의 이드와 같은 행사들이 즐기는 의미에서 축제로 발전하였다.

축제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축제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하나의 의례이자 일상생활의 파괴로서 축제를 분석할 경우, 축제는 성聖)/속(俗)의 구분이라는 의미에서 의례적인 사건, 또는 집단적인 상징이 된다. 둘째 사회변화에의 적응기제로서 축제를 분석할 때는 축제가 가지는 의미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사(變化史)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셋째 전통축제가 민속화(民俗化) 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서 축제의 형태는 여전히 전통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축제 그 자체의 내용과 의미는 그것이 본래 근원하고 있던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과 괴리되어 나타나게 된다.

인류학과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축제는 축제성과 종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소비재의 성격보다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소속감이나 특별한 목표를 주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공(公)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축제는 신(神)을 모시고 성별(聖別)된 시간이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성성(聖性)', 그리고 성성(聖性)을 만들며 경험하는 '일상성(日常性)에서의 탈출(脫出)', '주기성(週期性)', '집단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 한다'는 개념의 '집단관여(集團關與)' 등의 요소를 갖춘 것이 축제라고 정의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뒤르켐(Durkheim)은 '축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집단의 재통합이 곧 집단동일화'라는 주장을 언급하며, 문화인류학 정의의 '집단속에서 자기정체성 확립'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축제는 '신성한 종교적인 의례에서 발생하여 현대에 와서는 제의성(祭儀性)과 유희성이 결합된 성격을 함유하며, 행위자와 방문객이 동시에 참여하는 행태로서 일상의 탈출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공공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축제가 축제답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축제의 즐거움은 맹목적인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만끽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은 서로에 대한 긴장을 수반하

여야 한다. 즉 악(樂)의 방출은 예(禮)의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경직된 예(禮)와 경박한 악(樂)으로 양분화 되어 있었다. 예(禮)와 악(樂), 이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다. 진지함과 즐거움, 질서와 정열, 의무와 욕망, 집단과 개체 등이 공존하고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남들과 보편적인 유대를 확인하면서 경험하는 자아의 경이로움, 상대방의 이로움을 위하여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들이 퍼지면서 드러나는 황홀함, 이것이 바로 남들이라는 미지(未知)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축제의 보편성이다. 이러한 축제는 어쩌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주문 후에 음식을 기다리는 설렘을 갖도록 한다.

2. 지방자치와 지역축제

기본적으로 축제는 집단적 성격을 지닌다. 축제를 누가 주도하던 간에, 다수의 참여가 없이 축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축제는 반복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이 경우 축제는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의 형식으로 실행된다. 가령 설이나 추석처럼 매년 되풀이해서 거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그 주기가 더 길어져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대도시 중심의 지역개발 정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 도시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의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지역은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여, 정치적으로는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경영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장소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지역축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역축제 중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축제의 형태가 바로 문화관광축제이다.

문화관광축제 개최의 주요 목적이 축제를 여는 지역으로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개최지역의 장소적 의미는 개최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해집단,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관광 관련기업, 축제위원회 등의 목적과 이해에 따라 축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형성과정과 생산과정, 상품화과정과 소비과정에서 축제 이해집단들의 목적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가와 관광적인 효과의 영향을 달리 인식하기 때문에, 축제 형성과정 및 생산·소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렇듯 축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의미부여 내용에 따라 축제의 개최 목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축제의 공급자, 수요자, 매개자 등 각각의 위치에 따라 의미부여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경우를 보면 축제의 기획 및 운영주체의 구성 등 축제의 계획과정에서 효율적인 축제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이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갖는 현실이다. 이제는 축제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의 정체성 고양, 지역 전통문화의 보전, 축제 개최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관광객의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의미에 접근해가야 하며, 이러한 의미 부여는 축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과 여가·관광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다음해인 1996년, 국내의 축제 수는 412개였다. 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축제가 지방자치의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축제는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되어 평균 5년을 단위로 그 수가 배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이천지역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전까지의 지역축제가 소박한 대동놀이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역설적으로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축제를 열게 되면서 글로벌리즘(globalism)에 맞춰 로컬리즘(localism)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하나인 이천도자기축제 역시 제1회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1987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아 '성화 맞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1988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설봉문화제에서 독립하여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도자기축제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천의 지역축제 역시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다.

설봉문화제에서 독립한 이천도자기축제, 이섭대천예술제, 장호원복숭아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백사산수유꽃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설봉산별빛축제 등 이천의 지역축제들은 전

통마을의 사랑방만큼 저마다 다양한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3. 설봉산 별빛축제의 특성과 내용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호이징가(Johan Huizinga: 1872-1945)는 그의 저서『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문화의 속성 중 놀이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했다. 호이징가에 의하면, '놀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움직임은 기계적 물리법칙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만, '놀이'를 한다는 것은 물리법칙을 벗어난 그 이상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존만으로 본다면 다른 생물들과 다를 바 없지만, 생존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여가를 갖고 놀이할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문화와 예술이 '놀이'로부터 나왔으며, 그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그의 저서인『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놀이의 형식적 특징은 세 가지로 규정된다. 첫째, 놀이는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하여 행해지고, 둘째, 놀이는 일상과 분리된 특정한 시간, 공간에서만 행해지며, 셋째, 놀이는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볼 때, 운동경기는 물론, 종교의 제의적 요소, 재판도 특수한 규칙에 따라 행해지는 '놀이'가 되고, 신학적, 철학적 지식도 '수수께끼 놀이'와 논쟁에서 얻어진다. 현대문명은 놀이적인 요소들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문명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축제는 그 지방의 전통이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외부에 지역 문화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매년 혹은 몇 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단체 등이 함께 준비하는 지역 공동체적인 성격도 함께 지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축제가 지역문화 활동을 강화하여 특성화 시킬 수 있고, 지역 이미지의 보완과 향상이 가능하며, 지역특화 상품육성 및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성과가 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역사성, 전통성과 독창성이 없이 얼굴 알리기나 실적위주의 행사라 여겨질 때에는 예산낭비란 비판을 듣게 된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많은 축제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관광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축제의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31일부터 시작된 "설봉산 별빛축제"는 그 지향점을 달리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성에서 자유로운, 놀이 본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토요일 밤에 개최되는 설봉산 별빛축제는 일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주에서 8주에 걸쳐 진행된다.

예초의 개최 취지는'한여름 밤의 낭만'을 주제로 하여 일반적인 축제의 부대행사에 머물던 공연예술에 전문성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지역 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있었다. 초창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단체 및 학생들을 포함한 관현악과 국악, 합창, 무용 등의 공연예술이 주로 선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외의 전문 공연 예술가들의 출연을 요구하여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설봉산 별빛축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04년 7월 31일~8월 28일 오후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총 8회 개최)		
관람인원	약 3,000명	예 산	2천만 원
주 요 프로그램	7월 31일 - 한울림 합창단/ 이천국악협회/ 연희극단 배꼽의 공연. 8월 7일 - 여성합창단/ 서희 예술단 공연. 8월 14일 - 이천 어린이 합창단/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공연. 8월 21일 - 이천 레이디 앙상블/ 남성 중창단/ 연희극단 배꼽/ 국악협회 8월 28일 - 관악인 총연합회/ 가을 운동회 공연. 9월 4일 - 이천YMCA 청소년 교향악단 공연 9월 11일 - 이천 청소년 무용단(현대, 전통, 뮤지컬)/ 록 밴드 공연. 9월 18일 - 윈드 오케스트라/ 풍물지기 치레 공연.		
- 제2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05년 7월 30일~9월 24일 오후 7시 30분(매주 토요일 총 8회 개최)		
관람인원	약 5,000명	예 산	2천6백만 원
주 요 프로그램	7월 30일 - 이천 소년소녀 합창단/ 이천 연예협회 밴드 공연 그 외 9월 24일까지 지역단체들의 활동 기회 부여(20여개 단체 공연)		
- 제3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06년 7월 22일~9월 9일 오후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총 6회 개최)		
관람인원	7,000명	예 산	2천7백만 원
주 요 프로그램	7월 22일 - '여는마당'(국악협회)/ 다시하나로 (이천청소년무용단) 'A chorus line/바람에 눈(희망)을 실어' 공연. 7월 29일 - '합창페스티발/ 성악가 김현주/ 7080 콘서트'공연 8월 5일 - 'ROCK 페스티발/ 댄스스포츠/ 포크가수 양하영 공연. 8월 11일부터 19일 - 제3회 이섭대천 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진행. 8월 26일 - 천사들의 합창/ 요정들의 앙상블/ 한여름방의 멜로디'공연 9월 2일 - 마음속의 선율/ 시민과 함께 화합으로, 테너 이윤우 9월 9일 - 트롯 3인/ 모듬북/ 천상의 하모니/ 아름다운 향연 공연.		
- 제4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07년 7월 7일~8월 25일 오후 8시 (매주 토요일 총 7회 개최)		
관람인원	12,000명	예 산	5천만 원
주 제	"한여름 밤 시원한 공연으로 풀어내는 우리들의 네 가지 이야기"		
주 요 프로그램	7월 7일 - 별의 탄생 이야기 (인형의 꿈 ,이천 청소년 무용단/ b-boy, 힙합 댄스, 이천예총 연예협회/ 전영록 별빛 콘서트/ 환경영화 상영 7월 14일 - 별의 노래이야기 (일곱별의 탄생 퍼포먼스/신동호와 중앙앙상블 별빛극장, 환경영화 상영 7월 21일 - 별의 노래이야기 2 (노래와 함께하는 시, 이천예총 문인협회/ 퓨전국악 공연, 이천예총 국악협회/ 별빛극장, 환경영화 상영 7월 28일 - 별의 사랑이야기 1(환경 콘서트,솔바람. 소나무/하늘땅울림 중원춤학회/ 송인숙 무용단/별빛극장, 환경영화 상영 8월 4일 - 별의 사랑이야기 2(진도북춤과 인형의 꿈, 청소년 무용단/선소리 산타령/기억을 삼키다, 백승주 외/별빛극장, 환경영화 상영 8월 11일 - 별과 나의 사랑 만들기 1(신모듬 공연, 이천예총 국악협회/ 별빛음악회, 이윤우교수 외/ 온 더락, 밴드공연/ 별빛극장, 환경영화 상영 8월 18일 - 별과나의 사랑이야기 2(합창공연, 어린이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 7080 콘서트, 토야프렌즈/ 건아들의 음악여행/ 별빛극장, 환경영화 상영		

- 제5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08년 7월 5일~8월 23일 오후 8시 (매주 토요일 총 8회) / 우천관계로 1회 취소 총 7회 진행		
관람인원	20,000명	예 산	1억 원
주 제	"토요일 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예술의 쉼터"		
주 요 프로그램	7월 5일 - 오프닝 공연 (박재희 무용단) /개막선언 / 초청공연(굿 맨 빅 밴드, B-boy-뉴 웨스트)/ 초청가수 (지훈, 김종서) 공연. 7월 12일 - 뮤지컬 (여주대학)/ 힙합댄스 (더탑 댄스) / 초청가수 (라임 T) 초청가수 (혜은이) 공연. 7월 19일 - 합창공연 (이천 어린이합창단)/ 합창공연 (이천 레이디스 앙상블) / 뮤지컬 갈라쇼 (청강대학)/ 태오름사물놀이 공연 7월 26일 - 합창공연 (셀라 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코랄2000합창단) 밸리 댄스 (진 밸리댄스) /초청공연 (경기 경찰 홍보단)공연. 8월 2일 - 락 밴드 (도드람 밴드) / 초청공연 (전국청소년가요제 수상 팀) 7080 콘서트 (토야 프렌즈)/ 초청가수 (남궁옥분) 공연. 8월 9일 - 초청공연 (이광수의 예산족)/ 플롯연주 (샤론 플롯 앙상블) 초청 퍼포먼스 (건곤감리)/ 합창공연(이천 코스모 합창단/이천 남성합창단) 공연. 8월 16일 - 초청 오케스트라 (로망스 오케스트라) /웃다리 풍물 (풍물지기 치레)/ 창작무용 (이천시 청소년무용단) 공연 8월 23일 - 폐막 초청공연 (새암 무용단) / 초청가수 (김다영) 초청가수 (애 지) / 초청가수 (김도향) 공연.		

- 제6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09년 7월 4일~8월 22일 오후 8시 (매주 토 총 8회)		
관람인원	20,000명	예 산	1억 5천만 원
주 제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와 함께 떠나는 상상 속으로의 여행"		
주 요 프로그램	7월 4일 "수성"- 오프닝 공연 (김남식 무용단) / 공식행사 -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러시아 댄스/ 초청가수 김수철 공연. 7월 11일 "금성"- 이천시 여성합창단/ 바닥소리/ 뮤지컬 갈라쇼(청강대) 스트롱 아프리카/초청가수 이치현과 벗님들 공연. 7월 18일 "지구"- 원주 따뚜 관악단 /이천시 소년소녀합창단 한맥(4인조 여성밴드) /초청가수 사랑과 평화 공연 8월 1일 "화성"- 하남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동호와 중앙앙상블 댄스페스티벌/ 고스트 윈드 /초청가수 소리새 공연 8월 8일 "목성"- 팔도소리기행(국악협회) / 힙합의 밤(B-boy) 경기 경찰 홍보단 /초청가수 이은미 공연. 8월 15일 "토성"- 샤론 챔버 오케스트라 /이천시 청소년무용단 사물놀이 '치레' /초청가수 라임T, 설운도 공연. 8월 22일 "천왕성"- 2000 코랄합창단 / 고마이누좌 북 공연단(일본 세토시 북 공연단) / 뉴 댄스 컴퍼니/ 초청가수 해바라기 공연. 8월 29일 "해왕성"- 이천 코스모 합창단 / 김진미 무용단/ 한 여름 밤의 꿈 창작공연		

- 제7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10년 7월 3일~8월 21일 오후 8시 (매주 토요일 총 8회 개최)		
관람인원	20,000명	예 산	2억 원
주 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 , 그리고 詩"		
주 요 프로그램	7월 3일 - 개막식 오프닝 행사/ 박종현 현대무용/ 스트롱 아프리카 초청가수 마야 공연. 7월 10일 - 뮤지컬 갈라쇼/ 코스모 합창단/ 밸리댄스/ 초청가수 이창환 밴드 공연. 7월 17일 - 국악공연(풍운을 여는 소리와 춤)/ 스포츠 댄스/ 초청가수(라임T, 양하영) 공연. 7월 24일 - 2000코랄합창단/ 이천 청소년무용단/ 힙합댄스, 레인보우밴드/ 초청가수 박학기 공연. 7월 31일 - 플릇코리아/ 박시종 현대무용단/ 로스안데스(남미음악) 초청가수 나무자전거 공연. 8월 7일 - 이천교향악단/ 팝페라/밤하늘의 놀이마당/ 비보이 댄스 초청가수 변진섭 공연. 8월 14일 - 이천 레이디스 앙상블/퓨전실내악/ 군사무예 /초청가수 강진 8월 21일 - 타악 퍼포먼스/ 이윤우와 이천앙상블/ 뉴 댄스컴퍼니 이천 어린이 합창단/ 초청가수 유리상자 공연.		

- 제8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11년 7월 9일~8월 27일 오후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총 8회 개최)		
관람인원	30,000명	예 산	3억 5천만 원 (MBC 라디오 특집공개방송 2회 포함)
주 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의 테마 여행"		
주 요 프로그램	7월 9일 - MBC 라디오 공개방송 '윤하의 별이빛나는 밤에' 캔, 서영은, 원모어찬스, 포맨, 에이핑크, 블락비, 산E, 보이프렌드, 허경환, 백청강 출연 공연. 7월 16일 - 타악퍼포먼스(아트앤트 예술단)/ 마샬아트 퍼포먼스(y킥), 밴드공연(이천팝밴드)/ 창작무용(KUM 무용단) 초청가수 박남정 7월 23일 - 댄스스포츠(김태희 댄스스포츠)/합창(이천 여성합창단), 시낭송(이천문인협회)/ 현대무용(창작극단 木), 초청가수 안치환 7월 30일 - 밸리댄스(이천무용협회)/ 색소폰(이천 피플색소폰앙상블), 국악실내악(이천국악협회)/ 초청가수 강수지, 둘 다섯 공연. 8월 6일 - 스윙밴드(레인보우밴드)/ 시낭송(이천문인협회) 현대무용(남댄스 컴퍼니)/ 성악 한대상 /초청가수 박혜경 공연. 8월 13일 - 플롯공연(샤론플롯앙상블)/ 경기민요(청사초롱 국악단), B-Boy(배틀크루)/ 힙합댄스(더탑댄스)/ 초청가수 남진 공연. 8월 20일 - 합창(이천어머니합창단)/ 밸리댄스(인하램 밸리댄스), 시낭송(이천문인협회)/ 국악한마당(이천국악협회) 스탠딩 개그 이용식)/ 초청가수 김범룡 공연. 8월 27일 - MBC 라디오 공개방송,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공연.		

- 제9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12년 7월 14일~8월 25일 오후 8시 (매주 토요일 총 7회 개최)		
관람인원	25,000명	예 산	2억 원
주 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별빛여행"		
주 요 프로그램	7월 14일 - 비보이(리얼파워)/ 아가펠라(아가펠라그룹exit)/ 밸리댄스 (한국밸리댄스협회)/ 초청가수 걸투스쿨, 나비드, 강산에 밴드 7월 21일 - 밴드(Gm빅밴드)/ 국악실내악(퓨전실내악단 반디)/ 한국무용(이천무용협회)/ 통키타 라이브(어울림)/ 초정가수 주현미 공연. 7월 28일 - 합창(이천코스모스합창단)/ 힙합댄스(더탑 댄스아카데미) 경기민요의 향연 (이천국악협회)/ 초청가수(하이레이디)/ 라임티밴드/ 초청가수 김도향 공연. 8월 4일 - 클래식(이천시 청소년오케스트라/ 현대무용(이천무용협회) 합창(이천코랄합창단)/ 비보이(백투더조인)/ 초청가수 여행스케치 8월 11일 - 이야기가 있는 극 무용(이천무용협회 연출)/ 초청가수 한영애 8월 18일 - 합창(레이디스앙상블)/ 밸리댄스(인하램 밸리댄스) 7080 라이브(이천연예협회)/ 스포츠댄스(김태희 스포츠댄스), 초청가수 산울림 밴드 공연. 8월 25일 - 챔버오케스트라(이천교사앙상블)/ 합창(이천 어린이합창단) 마당판 굿(이천국악협회 연출) 공연.		

- 제10회 설봉산별빛축제 -			
일 시	2013년 7월 13일~8월 24일 오후 8시 (매주 토 총 7회)		
관람인원	25,000명	예 산	2억원
주 제	"한여름 밤의 음악스케치"		
주 요 프로그램	7월 13일 - 통키타 라이브 공연 (큰가방)/ B-BOY, 힙합댄스 (B5s) 신인가수 노라/ K-POP 댄스크룹 큐빅/ 초청가수, 캔 공연. 7월 20일 - 플룻연주 (샤론 플룻앙상블)/ 국악실내악 (국악 창작그룹 반디) 한국무용 초청공연/ 초청가수 서영은 공연. 7월 27일 - 창작무용 (이천시청소년무용단)/합창 (이천어머니합창단) 힙합댄스 (더탑 댄스)/초청가수 더 포지션 공연. 8월 3일 - 관현악단 초청공연/ 시 낭송 (이천문인협회) 발레 초청공연/초청가수 이정선 밴드 공연. 8월 10일 - 밸리댄스 (인하램/디아나)/창작 설화 판소리 (북과 소리) 7080 포크음악/ 초청가수 김완선 공연 8월 17일 - 색소폰 공연(피플색소폰 앙상블)/ 현대무용 초청공연 경기민요 (소리사랑)/ 스포츠댄스(김태희 댄스)/ 초청가수 이용 8월 24일 - 합창 (이천시어린이합창단)/ 타악 퍼포먼스 (하울) 통키타 라이브 공연 (이천 오선지)/초청가수 박상철 공연.		

이상 설봉산 별빛축제 10년간의 행사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매주 같은 시간대 상설 공연으로 시민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를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지역축제와 기타 문화행사가 없는 7~8월의 문화공백기에 개최를 한 것은 설봉산 별빛축제의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시작기인 제1회~제3회까지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았으며, 음악활동 위주의 공연과 저예산,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제4회 때부터 주제를 정하고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인 외에도 유명도와 인지도가 있는 대중예술인들이 게스트 형식으로 참여 하였다. 제4회~제6회의 정착기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서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회 이후부터 성장기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순수 지역축제를 너머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면서, 점차 외부 지역 관람객도 참여하는 추세다.

2012년 11월 1일 열린 제9회 설봉산 별빛축제 평가보고회에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축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공연이나 작품 창작활동 등 공연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폭넓은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 전달 등 홍보의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또 주차장 운영 및 주차관리 기능강화, 우천 시 대비책 필요,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체험·전시 프로그램 확대 등 별빛축제에 바라는 공연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별빛축제를 방문하는 연령은 4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22.7%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증포동과 부발읍이 13.8%로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축제관람 동기는 설봉공원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관람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평소에 관심이 높았다는 시민이 27.6%, 문화체험을 위해 방문했다는 시민이 26.6%로 답해 별빛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과반수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람 후 별빛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49.8%와 매우 만족 11%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별빛축제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열린 토론 시간에는 이천시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 국악이나 한국무용 등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설명이 필요하며, 성격이 비슷한 공연, 시 낭송 등은 이를 연극화하거나 관객 참여 유도 등을 통한 흥미 요소를 추가하고, 출연자 대기실에 탈의실 준비 등 별빛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지역에서 설봉산 별빛축제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였다.

4. 설봉산 별빛축제의 전망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설봉산 별빛축제는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 이미지의 홍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장소 마케팅이다. 장소 마케팅이란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으로,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까지 그 장소를 홍보(판촉)하는 다양한 노력의 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설봉산 별빛축제가 이루어지는 대공연장을 비롯한 설봉공원 일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서적 이미지를 내세워 꾸준한 재 관람을 유도해야 한다. 설봉산 별빛축제처럼 짧은 기간 내에 재 관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 번의 방문이나 관람으로 인한 이미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일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강한 유대감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축제 서비스 스케이프, 즉 참가자나 관람객의 입장에서 설봉산 별빛축제에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과 서비스 접점에서 환경요인을 조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가자나 관람객의 행동을 축제의 분위기나 주제에 맞게 의도적으로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설봉산 별빛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유사성과 동질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 두 달 여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연속성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설봉산 별빛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경제성은 제한적이지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경제성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하겠다.

참고서적 및 문헌

『문학 판』 2003년 여름호, 열림원

『설봉문화』 2004년~2013년, 이천문화원

호이징가(Johan Huizinga) 저,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연암서가, 2010

이천신문, 이천저널, 설봉신문, e-이천시민신문

여 백

제1장

축제의 종합적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김 경 호 /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1. 지역축제의 기본적 개념
2. 이천 지역축제 현황
   1) 이천 축제의 현황
   2) 이천 축제의 예산 현황
3. 이천 지역축제의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요소 및 평가
4. 축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시사점
   2) 이천지역 축제의 문제점 및 대안
   3) 이천지역 대표 축제의 발전을 위한 제안
5. 결론

제10장 축제의 종합적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발전의 한 수단으로 축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각종 축제를 열기에 이르렀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축제수를 살펴보면 752개[1]가 개최되었다. 이 통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숫자이고 이천의 설봉문화제와 같은 종합적 축제의 성격이 다소 떨어지는 것들을 제외한 통계자료이다. 지역 단체들의 문화제나 지역적인 행사까지 합치면 2012년 기준 2,429개로 서울이 751개로 가장 많고, 경기 368개, 강원 161개 순이다.[2] 통계에서 보듯 지역축제는 지역발전이라는 핑계 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중 일부 성공한 지역축제들은 지역발전을 견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등 지역축제 일상적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성장이라는 구체적 성과는 이뤄냈으나 지역축제의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드러난 10년이기도 했다. 축제의 무분별한 남발로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획일화, 축제 내용의 질적 하락, 유행에 편승한 프로그램 편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천의 축제들도 전국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길게는 축제의 역사가 25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축제의 발전은 물론 관련 산업 역시 허덕이고 있다. 특산물 축제는 특수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축제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잦은 축제의 피로감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 축제의 본질이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적 향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제는 관련된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축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천문화원의 축제와 관련된 전반적 검토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고는 이를 위해 지역 축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유명 사례에 대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이천의 축제를 진단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축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문화관광부 2013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2) 문화콘텐츠연구소 나날(2013),「군위군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1. 지역축제의 기본적 개념

지역축제란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방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Local)성, 연희성, 일탈성, 대동(大同)성, 문화적 공공성 등의 내용을 중층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3] 따라서 지역축제는 축제의 종합적 성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에서 지역성, 연희성, 일탈성을 포함하는 행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

현대적 개념에서 축제의 역할은 원초적 제의성 보존,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역할, 그리고 관광상품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라는 콘텐츠를 마케팅이라는 코드와 병합하여 지역축제를 활성화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담아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지역축제는 점점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축제를 크게 개최기관별, 프로그램별, 개최목적별, 자원유형별, 실시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축제의 유형구분

구분	소분류	세분류	예제	
			전국	이천
1	개최기관별	지자체 주도	연천구석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평생학습축제
		민간단체 주도	관훈·인사동축제, 국악로 국악문화축제	이천도자기축제
2	프로그램별	전통문화축제	강릉단오제, 은산별신제, 남원춘향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예술축제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조각심포지엄
		종합축제	금산인삼축제, 제주한라산축제	이천도자기축제
3	개최목적별	주민화합축제	대전한밭문화제, 강서구민축제	설봉문화제, 해맞이 행사
		문화관광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이천도자기축제
		산업축제	보성다향제(차), 대구섬유축제(섬유산업)	
		특수목적축제	남양주다산문화제(추모제), 고양행주대첩제(제례)	평생학습축제(교육)
4	자원유형별	자연자원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산수유축제
		역사적 인물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역사적 사건	고양 행주대첩제, 통영 한산대첩축제	
		음식물 · 특산물	금산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강경젓갈축제, 양양송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복숭아축제
		전통문화	광주 고싸움놀이축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자료 : 이수진(2009), 경기도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4쪽 표2-3을 이천축제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음

3) 정연정(2009), 「충북의 지역축제 현황 및 개선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 이천 지역축제 현황

1) 이천 축제의 현황

이천시의 경우는 축제가 발달한 지역에 속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성공한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축제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미시적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들을 포함하여 10여 개의 행사가 매년 펼쳐지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산수유축제, 장호원복숭아 축제 4개뿐이다. 나머지는 종합적인 축제의 성격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축제가 가진 지역성, 대동성, 공공성이 포함되어 이를 이천축제로 포함하였다.

〈표 2〉 이천지역 축제 현황

구분	행사명	개최장소	시작년도	내 용
1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설봉공원, 도예촌 일대	1987년	도자기체험 및 참여 행사, 전시·판매 기획전, 공연행사, 공모 등
2	국제조각심포지엄	이천설봉공원	1998년	국제조각작품 전시, 학술 심포지엄, 참여작가 워크숍 등
3	설봉문화제	이천시 일대	1987년	학생예술제, 시낭송회, 설봉산사직제, 시민 등산대회, 풍년놀이
4	설봉산해맞이 행사	이천시 설봉산	2000년	풍년기원제, 소원지 달기, 해맞이 퍼포먼스, 만세삼창, 소원지 태우기
5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이천시 일대	1992년	민속놀이(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달집태우기, 풍년기원제
6	장호원복숭아축제	이천시 장호원	1997년	복숭아 축제기념 백일장, 복숭아 빨리 먹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7	산수유축제	이천시 백사면	2000년	길놀이, 풍년기원제, 전통놀이체험, 산수유 관련 제품 전시회
8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시 일대	1999년	추수감사제, 햅쌀 노래자랑, 사물판굿, 풍년 마당극, 희망 솟대 만들기
9	별빛축제	이천설봉공원	2004년	음악, 무용, 뮤지컬, 시낭송, 공연
10	평생학습축제	이천설봉공원	2005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소개, 평생학습기관 소개, 우수평생학습기관 소개, 전시, 공연

자료 : 이천시 관련 홈페이지 및 내부 자료 정리(문화예술 관련 축제로 한정)

2) 이천 축제의 예산 현황

〈표 3〉 이천지역 지원 예산 및 추진주체

단위 : 천원

구분	행사명	2014년도	2013년도	증감	비고
계		2,550,680	2,313,860	236,820	
1	이천도자기축제	669,880	762,380	△92,500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2	국제조각심포지엄	438,640	439,680	△1,040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3	설봉 문화제	30,000	30,000	0	설봉문화제 추진위원회
4	해맞이 행사	10,000	10,000	0	이천문화원
5	정월대보름민속축제	10,000	10,000	0	이천문화원
6	장호원복숭아축제	355,760	196,000	159,760	경기동부과수농협 복숭아 축제추진위원회
7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156,000	156,000	0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
8	이천쌀문화축제	500,400	509,800	△9,400	이천시농업기술센터
9	별빛축제	210,000	200,000	10,000	한국예총이천시지회
10	평생학습축제	170,000	0	170,000	이천시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격년개최)

자료출처 : 이천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이천의 모든 축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천시의 2014년 본 예산을 살펴보면 총 25억 원의 축제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은 이천도자기축제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 6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가 5억 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이 4억 3천만 원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종합축제의 성격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시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제 등은 1억 미만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3. 이천 지역축제의 분석

1) 분석방법

최근의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를 매개로 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4] 또 Getz(1991)는 지

4) 송희준(2000)문화재원의 현황과 지속적 확충방안, 21세기 문화관광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66-81

역축제의 많은 부분이 관광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축제가 단순히 지역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역할만을 강조하여 지역축제가 내포하고 있는 지역성, 유희성, 공공성, 통합성 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정치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천의 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축제를 매개로, 혹은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미부여와 갈등,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말하자면 해당 지역의 지역성 재현과 그를 통한 권력관계의 정당화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성의 형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발전 및 문화적 혜택의 형평성, 참여, 축제를 통한 동반관계 구축 등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5)]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상 이천 전체 축제를 살펴보기는 무리가 있어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나 참여자들의 의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분석요소 및 평가

〈표 4〉 축제 분석요소

분석요소	내용	세부분석내용	연구자
민주성	문화적 균등성, 적극적 참여, 분배적 정의	- 축제 추진과정에의 주민참여 · 합의 - 축제 효과의 계층적 분배 - 축제프로그램상의 참여요소 여부 -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여부 - 축제재정운영의 공개 여부	Boyle(1997) Langsted(1990) Anderson & Matthiessen(1995) 김경욱(2003)
연계성	정치적 기회구조, 지역간, 추진주체간 관계구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축제 추진조직의 동반관계 연계 - 주체 간 역학관계 - 주체 간 갈등 정도 - 주체 간 정보의 공유정도 - 자치단체장의 관여 정도	Leitner&Garner(1993) Griffiths(1995) Waterman(1998) Bassett(1993) Heilbrun&Gray(2001) 이무용(2003)
정체성	지역성, 자긍심	-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지역에 뿌리를 둔 전통성과 생활양식) - 지역주민의 자긍심	Relph(1976) Boyle(1997) Ritchie(1994) Hall&Hubbard(1996) 정근식(1996)

5) 황종규·이명숙(2008), 지역축제의 문화정치적특성에 관한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1호, 95-118

(1) 민주성

먼저 이천축제의 민주성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축제는 7개로 모든 축제가 민간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이천지역의 축제는 민간참여가 활발하고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기가 대부분 축제를 눈 앞에 둔 시기이며, 그것도 해당연도 축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축제추진위원회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축제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보고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축제추진위원회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해 전문성은 확보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이천시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축제의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시민사회의 통합도 포함됨에 따라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축제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필연적이나 이들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축제의 계층적 분배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 향유를 모든 계층이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지역주민이 골고루 축제를 즐기는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묻는 것이다. 계층적 분배 가운데 시민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축제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도자기축제의 경우는 전시판매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시민참여와 관련이 있다. 축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많은 편이다. 이천쌀문화축제, 평생학습축제, 백사산수유축제 역시 시민 참여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규모 축제 중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 참여 자체가 조각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은 관람 이외에 별다른 참여방법이 없다. 또한, 작품들이 이천 관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은 이를 예술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순 조형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봉산 및 시내 일원에 설치된 각종 조각품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이다. 중앙통에 설치된 각종 조각품이 껌이나 각종 오염물질로 더럽혀져 있으며, 심지어는 공원에 설치된 조각품 아래서 밥을 먹거나 올라타는 등 예술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목격담도 적지 않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판매와 승수효과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승수효과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축제와 관련된 산업체수의 비교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자기축제의 경우 2012년 사업체 조사에서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분

야는 211개 업체에 종사자수가 513명으로 나타났다.[6] 2007년도의 211개 업체와 종사자 559명에 비해 별다른 변동이 없다. 이천쌀문화 축제의 경우 이천시의 농업인구는 9,086 농가에 26,613명으로 나온다. 그러나 9,595 농가에 30,014명이었던 1999년과 비교하면 축제가 시작된 이후 관련 산업이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농업분야는 기계화로 인해 관련 산업 종사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활성화되는 분야라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평생학습축제 이후 지역 내의 소규모 강습소나 학원 등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일반 영리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일반학원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일반학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7]하기도 했다. 지역경제는 지역 내 건전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자본의 유동성을 높여야 하지만, 세금을 활용하여 이들과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이천의 계층적 분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상의 참여요소를 보면 이천의 대부분의 축제가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다. 2013년 도자기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라쿠가마 워크숍, 흙 체험, 차문화 체험, 장작가마 체험, 도자체험 등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체험행사가 풍성한 편이다. 2014년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는 체험행사가 더욱 두드러진다. 농경문화체험, 민속놀이체험전, 상설놀이마당, 기원마당체험, 마당극, 무지개 가래떡 등 대부분 체험행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가 높은 편이다.

축제의 재정운영 내용의 공개 여부는 대부분이 추진위원회나 보고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기에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주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를 통해 결재권자와 재정집행자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시민적 합의로 공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평가보고서와 재정을 홈페이지에 공개[8]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천지역의 축제도 결산보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업체가 참여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를 일반 시민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협찬, 시민의 자발적 모금 등 지역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지역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6) 이천시 2012년 사업체조사

7) 이천시 학원연합회 각 시장후보 질문서 참조

8) 권두현(200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해 본 축제의 문화성과 산업성검토「KAGOS포럼 국제문화스포츠행사와 지역발전」. 한국정부학회

(2) 연계성

축제조직의 동반관계는 참여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자원을 교환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9]를 말한다. 이천시 축제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성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은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천도자기축제의 경우도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집행은 주로 사무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도 의사결정구조는 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구조는 사무국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축제들이 대부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같은 축제 진행과정을 볼 때 축제조직의 동반관계 구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동 페스티벌의 경우는 1998년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구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분과위원장들은 대부분 안동권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실무를 집행함으로써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공유 정도는 축제 운영에 있어 기획력과 문화적 효율성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함을 말한다. 이천의 경우는 이천문화원, 이천예총과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가 있으나 이들은 주로 행사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편이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 간 공동회의 등은 열리지 않아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청 내에서도 각 담당 부서 간 연합회의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시장이 주관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의 공유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 내 NGO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만 서로 소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자기축제, 쌀축제, 조각심포지엄 등이 이천시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오며 평가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구분되어야 하나 이천의 구조는 대부분 축제추진위원회와 사무국 형태로 이루어져 수평구조가 아닌 상하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전문성을 가진 집행위원회가 분야별 집행수립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좀 더 예산활용이나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집행위원회가 없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사무국이 집행 전반을 담당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며 이를 분과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무분과, 전시분과, 홍보분과, 행사분과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균형이 이뤄짐으로써 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9) 문태현(2004),

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선출되면 축제의 운영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예산지원과 보조금 정산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창의적 축제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가운에 2013년부터 이천시도자기축제가 이천도자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이들 결과에 따라 이천시 축제추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⑶ 정체성

대부분의 이천지역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천도자기 축제는 공예산업으로서의 도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실질적으로 이천을 포함한 전국 도자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도 이천 농민과 농업관련단체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이를 봉사하는 형태다. 특히 이천쌀은 전국에서 이곳 쌀의 수매가격이 결정되면 다른 쌀값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편이다. 이런 자긍심이 축제에서도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 또한, 복숭아축제는 브랜드화로 성공한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목적으로 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며, 이 역시 축제를 통해 충분하게 표현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국제조각심포지엄과 평생학습축제는 성격 자체가 불분명하고 정체성이 모호한 편이다. 조각심포지엄은 주로 작품 제작에 머물고 있으며 정작 관련 심포지엄은 열리지 않고 있어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다. 평생학습축제는 일반 학원 시장과 중복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성격이 주로 취미나 직업 활동에 대한 소개 정도로 끝나고 있어 실질적인 평생학습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별빛축제의 경우는 주민 화합형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정체성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4. 축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시사점

첫째,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축제산업의 지출규모는 3조 4,826억원으로 영화산업 전체 매출규모와 비슷하다.[10] 따라서 축제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 2012년 한국관광공사 축제 인식도 국민의견조사

〈표 5〉 지역축제의 효과

지역축제의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관광 관련 효과
경제활동의 증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 지역 내 자원의 재분배 장단기 고용의 효과 외화수입의 세수증대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 일체감 조성 국제교류 증진 역동적 사회생활 형성 문화, 역사, 자연자원 보존 인구, 사회문제 증가	관광 매력도 향상 관광자원의 확충 양질의 관광수요 확보

둘째, 축제는 창조적 지역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창의성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특히 축제를 경험함으로써 광고, 건축, 예술, 디자인, 음악, 공연예술 등 창조성을 지닌 산업들이 발달하는 계기를 맞는다.

셋째, 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축제 출발의 의미가 제의적 요소와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축제에도 그 기능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따라서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삶의 피로를 풀어내어 앞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축제가 지역주민의 화합은 물론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일탐감을 조성함으로써 해방감을 줄 수도 있는 등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2) 이천지역 축제의 문제점 및 대안

(1)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창의성 결여

이천시 축제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도자기 축제의 경우 부스 임대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다. 또한, 이천쌀문화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대부분 축제들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축제 관여도가 높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직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축제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에 관여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타성적 행사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 예산에 대한 항목별 지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결산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한계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 이외에 관련 담당자들의 성격이나 가치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뤄짐으로써 예산을 사용하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축제 관련자들의 지적이다.

⑵ 축제 추진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대부분의 축제가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집행위원회 등 전문성을 갖춘 분과별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축제의 전문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이천의 축제 집행구조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부분 사무국을 통해 운영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축제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사무국은 대부분이 관련 단체나 조합 등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이들이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각종 이해관계 등이 얽히기도 하며 시민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천지역 축제들의 경우 디자인을 비롯한 각종 인쇄물 등을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처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축제가 기획, 전시, 공연, 체험, 사무 등으로 운영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이 직접 기획과 전시, 공연, 체험 등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때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⑶ 난립하는 축제의 통폐합 추진

이천에서 축제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까지 모두 포함하면 15가지 정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 축제의 유사성과 예산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축제가 난무함으로써 자원봉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축제가 많다고 해서 지역 경제의 유동성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사한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축제의 효율성과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시청 내 부서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축제 대상자나 축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이를 통폐합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한 채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난립하는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⑷ 축제 장소나 축제 형태의 개발 문제

이천 축제의 대부분은 설봉공원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축제를 온천공원에서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다시 설봉공원에서 축제가 치러지는 분위기다. 또 이천의 축제 대부분은 몽골텐트를 임대하여 치러지는 전시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설봉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활성화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자기축제의 경우 사기막골 등 현재 관련 산업들

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장소 변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판매부스 역시 관련 지역에 설치하고 일반 요장들을 개방하여 축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치러야 한다. 쌀문화축제 역시 설봉공원에서 펼쳐지고 있으나 이를 구만리 뜰이나 농업현장으로 옮겨갈 필요성이 있다. 이는 축제 장소에 따라 축제의 형태나 축제 프로그램이 판이해지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수유 축제의 경우가 대표적인 현장형 축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축제의 경우도 몽골텐트에 의한 전시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이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평생학습축제의 경우는 실무 중심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축제가 펼쳐져야 한다. 단순한 전시형태가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며,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 마을축제로 발전시켜 마을마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하면서 군 지역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관광객이 마을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마을을 이동해 가면서 저마다의 특색을 살펴보고 비교하게 된다. 주변지역 관광자원과도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⑸ 축제 총괄부서의 설치로 종합적이고 거시적 정책 추진

축제의 형태로 진행되는 지역 내의 모든 행사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민관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이천의 경우 대부분의 축제가 단위별로 치러지면서 축제 프로그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민간 차원의 봉사와 참여도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해 주민참여로 인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문가 양성이 어려워 대부분의 축제가 상업적 기획사나 비전문가에 의해 기획, 추진되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천시 축제준비를 위한 종합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추진기구 설립을 통해 각 축제 별, 분야별 행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가 양성, 지역발전 연계 부분, 민간참여, 자원봉사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추진기구는 장기적인 지역발전전략과 축제의 역학관계를 정립하고, 각 축제별, 분야별 표적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⑹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

이천의 축제들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행사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도자기 축제 등 일부 보고서에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추론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본적인 축제 참가자 숫자의 파악에서부터 현실성이

결여되면서 이를 근거한 보고서 역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0만 인파가 다녀가려면 대략 자동차로 25만대가 오가야 하는데 25만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길이만도 1,250Km가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분의 축제의 참가자 수효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천에는 10년 이상 된 축제가 여럿이지만 그와 관련된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전혀 형성조차 되어있지 않다. 도자기축제의 경우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며, 국제조각심포지엄의 경우도 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천쌀축제와 복숭아축제가 지역 특산물과 맞물려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축제가 행사 위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축제 기획부터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기획되어야 하나 이제는 축제만을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부문을 파악하여 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조사 자체도 연계프로그램도 미비한 실정에서 이를 축제 자체가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천시 차원에서 지역 내 자원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는 철저하게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먼저 축제에 드는 비용부터 지역사회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가 경쟁력을 이유로 외부로 위탁하거나 관련 소비재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천시가 운영하는 문화관련 축제 비용만 하이고 행정당국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축제의 예산은 행사경비를 통해 지역경제로 유입된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 관련 고용인원 자체도 외부인력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람들은 결국 자원봉사에 머물고 있다. 이는 축제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없다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지역 내 인재개발 및 발굴도 지역의 축제가 담당할 몫이라는 점이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체를 육성하면서 축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7) 객관적인 평가 체계 수립

이천의 축제는 대부분 사후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는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축제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축제를 주도하고 있는 부서이거나 축제비용에서 지출됨으로써 평가 자체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축제 평가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주최 측의 입맛에 맞게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냉정한 평가 없이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이다.

(8) 국제적 축제로 성장해야

이천 축제의 대부분은 외국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외국인의 참여도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보고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적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더구나 이천시가 공예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적다는 것은 앞으로 축제발전에 한계를 보여주는 셈이다. 외국에서 성공한 축제를 살펴보면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인 축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이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축제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마케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세계적인 행사보다는 국내용 행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3) 이천지역 대표 축제의 발전을 위한 제안

(1) 이천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는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축제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축제 평가에서도 성공사례로 손꼽힐 만큼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브랜드 가치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자체가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축제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이천시와 이천도자기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축제를 민간기구인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로 이관키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도자기축제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자립구조로 변화를 시도하였다가 금년도 축제는 다시 무료 관람으로 전환하는 등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천도자기축제가 갖고 있는 축제의 브랜드명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자립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때가 된 것 같다. 현재 이천의 도자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불릴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이 도자사업자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도자인들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적극 동참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도자기축제는 이미 성공한 축제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만큼 일본이나 중국의 도자기축제와 같이 세계적인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자기축제가 몽골텐트에 의한 전시형태를 벗어나 요장 및 사업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메인 행사와 더불어 각 도자기 사업장 연결을 통해 축제가 도자산업을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서 도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찾아가는 도자기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도자기 상품의 실질적 판매와 더불어 이천 도자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⑵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도 전국에서 성공한 축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축제이다. 특히 농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쌀문화축제라는 본래의 성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쌀문화축제가 몽골텐트에 의한 전시형태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이나 밭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축제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테마파크나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주 행사장과 너무 떨어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천쌀문화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설봉공원에서 벗어나 이천의 쌀문화를 현장성 있게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쌀, 대표브랜드로서 이천쌀문화축제를 키워나갈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농촌과 쌀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 장에서 축제가 펼쳐져야 한다. 자채쌀이라는 차별화된 쌀 이미지, 바닥에 푹푹 빠지는 고래실 논에서 아리낫으로 벼를 베고 농요를 부르는 모습, 진상따라기 논에서 진상미를 수확하고 과정을 재현하는 장면 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축제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2014년 정월대보름축제를 설봉공원에서 복하천을 끼고 있는 구만리들로 옮겨서 시도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일들을 협력해서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농민단체를 통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쌀축제라고 해서 농민이 모든 일에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업 관련 관광자원을 묶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소한 설봉공원을 벗어나 각 지역과 농촌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메인프로그램은 설봉공원이나 기타 장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별 농업조직들과 체험마을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지역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천 농업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⑶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천의 대표적인 국제 문화행사이지만 외국인 참여작가 이외에는 해외 관광객이 없는 특이한 축제다. 이천시가 이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투자비용 대비 해외 작가들이나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이 유명작가들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이들 작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중앙통에 설치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현

실적으로 유명작품이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작품 배치 이외에 작품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포지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조각품의 구매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조각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각 작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면 단순히 공간적인 배치를 넘어서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연출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한 작가들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이들에게 심포지엄 이후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려주고 조각심포지엄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연속성 있는 소통채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작품도 중요하나 이들 작가들이 조각심포지엄의 무형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여 작가들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잘 운영하는 것이 국조각심포지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이 그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예술적 안목을 위한 프로그램, 각종 심포지엄, 조각 체험 등 조형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류비를 지급하면서 모셔온 해외 작가들로 인해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제 심포지엄이라면 외국의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종합 컨벤션 산업으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각종 회의가 열리고 국제조각 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려 나가 기 위한 예술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5. 결론

축제가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발표되었다. 해외사례를 보아도 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이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이천 축제의 경우는 대부분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해결점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축제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의미의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특산물 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축제의 특징적인 성격을 살려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자기축제는 종합축제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종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효율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은 별빛축제가 적당한 것 같다. 한여름 밤 이천시민의 휴식처인 설봉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그 자체로서 성공 요인을 담고 있다. 주민들이 부담 없이 관람하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성장시켜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외부에서 섭외하던 예술인들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예총 산하 예술인들

이 참여하고 일부는 외부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공연자의 대부분을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산물 홍보 및 판매는 이천쌀문화축제와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산물 홍보 및 판매와 관련된 축제에는 앞으로는 유기농업, 로컬푸드를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먹거리와 삶의 질,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시대의 추세로 자리 잡혀가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으로 끝내고 민간의 창의력을 접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구분하여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분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분과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섭외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난립하는 축제를 통폐합하여 예산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운영되던 축제의 형태와 장소를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축제를 기획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며, 시민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축제 종합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종합 추진기구 설립을 통해 현실적으로 축제가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밖에도 중요한 것은 객관적 평가체계의 수립이다. 객관적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축제 주최 측이나 관련 부서가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아전인수 격으로 평가되던 축제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축제 이후 개최되는 각종 평가회의에 참석해보면 주최·주관하는 측이 시민들과 전문가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 등 대부분의 축제들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혁신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제대로 평가체계를 세워서 구조조정과 혁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걸맞은 세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지역이 곧 세계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이 바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축제가 국제적인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로써 이천의 축제가 역사성을 더해 지역발전은 물론 세계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있었다면, 이제는 구체적 대안을 갖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천의 축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4부

지역문화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전개

여 백

제1장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

남 상 오 / 이천시 YMCA 사무국장

1.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도입
   1) 예능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변화
   2)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이천의 문화예술교육 발전 과정
   1) 해방이후 60-70년대 초기 문화예술교육
   2) 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문화예술활동
   3)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의 문화예술교육
   4)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교육 현황
3.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장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

지역의 문화교육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논의와 출발점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개념의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가치에서 볼 때 과거 수십 년간 이천에서 시행되어온 문화사업과 강좌, 예능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분명한 한계도 있겠지만 열악한 문화 환경 속에서 노력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근간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도입과 정착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글은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지난 50년간 우리 이천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과 평생학습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이천 관내의 여러 단체, 학교, 주민자치센터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되어온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지역에서 특성화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언의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도입

1) 예능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변화

'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바라보고 사회발전의 방향성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문화를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보고.[1]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70~80년대를 거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교육이나 기능을 전수하거나 습득하는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사물놀이 같은 전통문화 교육활동, 노래패, 문화예술 동아리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교육,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사회 저변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새로운 문화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와 사회에서 수행되어왔던 문

1)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대영, 서문, 20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화예술 관련 교육이 기능적 성격의 예능교육이었다면 일상의 삶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자아를 표현하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며,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3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적인 법과 개념이 최근 시기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법과 제도, 그리고 개념에 대하여서도 더 다양하고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예로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 개념은 21세기 들어 달라진 문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수용의 폭과 다양성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여가, 문화다양성, 문화공간,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보기 어렵다.[2)]

2)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에서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방법과, 문화예술교육의 이론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를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다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이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3)] 및 문화예술교육단체[4)]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

---

2)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포럼,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은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른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아울러 포함한다.

4)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도는 단체로써 사회복지시설,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화예술교육을 말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인 고찰의 문제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으로 분리하여 논의하는 방법과, 문화, 예술, 교육이라는 세 개의 다른 영역의 접점과 연계로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5)]

문화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인식의 틀을 넓힌 '문화연대'는 문화교육이라 함은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사회의 위기와 불평등의 세계화를 심화시켜 온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서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그 정체성을 정의하였으며, 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문화를 창조, 향유하는 능력을 길러 일반인들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6)]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장르 중심의 예술영역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교육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의 방법은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에 의한 교육'이다. 전자의 경우는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반 교육과정과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에 목적을 두고 그 실현방법을 예술에서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교육은 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자아실현활동으로서의 예술,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한 예술, 인간교육을 위한 예술을 매개로 하는 교육활동으로서 예술교육을 의미할 때가 많다.[7)]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활동으로 참여자(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개입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삶을 지향하는 배움, 학습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 이해중심의 사고력, 감성적 성장, 자아의식 개발, 그리고 문화와 생활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의 기반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 교육의 화학적 혼합체로 그 결과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활동으로 동반적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한다.[8)] 위에서 살펴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천에서 시행되어왔던 문화예술분야의 교육과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 박재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연구', 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쪽

6) 신승환,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박재은 자료 재발췌

7) 문화예술교육을 문화, 예술, 교육이 연계된 사회적 활동으로 보는 '맥락주의 교육'으로 이해하는 경우, 교육을 학습자의 연령, 상황과 연계하는 개인적 맥락, 학습자의 삶과 문화의 실생활을 연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제공되는 교육활동과 연계하는 물리적 맥락에서 논의하고, 이들 세 맥락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8) 박재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이천의 문화예술교육 발전 과정

1) 해방이후 60-70년대 초기 문화예술교육

전쟁의 아픈 상처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어둡고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빛바랜 사진처럼 떠오르는 정경이 하나 있다. 차량통행 조차 보기 드물던 한산한 거리를 걷다보면 갑자기 요란한 확성기 소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읍내에서 하나뿐인 이천극장 소속의 선전차가 영화선전을 위해 가두방송을 하면서 거리를 도는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가두 방송의 서두는 언제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천군민 여러분'이란 말로 시작되고는 했다.[9] 이는 2001년도에 발행된 '이천시지'의 문화편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이 당시에는 생존과 가난의 극복이 문제였지 문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식민시대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밀려온 서양의 문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서양문화는 우월하고 세련되었고 선진화된 고급문화이며, 전통문화는 저급하고 고리타분하고 미신적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문화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10] 그 후로도 새마을 운동,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군사독재 등으로 이어진 60~70년대 역시 '문화', '문화교육'을 논의할 수 조차 없는 시대였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서민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마을단위로 세대를 거치며 전수되어 맥을 이어오던 '풍물가락', '거북놀이'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런 와중에도 1963년 문을 열어 1965년 5월 설립인가를 받은 '이천문화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문화단체로 지역문화활동의 한 형태를 담당하였고 지역문화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천문화원은 미공보원으로부터 영사기와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순회 영화상영과 같은 계몽활동을 하면서, 강연회, 사생대회, 음악발표회 등의 문화 행사도 열였다. 1966년 10월에는 이천지역 최초의 시화전이 열리기도 했다.[11] 이러한 문화원의 활동은 이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문화원이 열악하기만 한 여건 속에서도 '사생대회', '음악발표회', '시화전' 등을 개최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화 관련행사는 앞에서 살펴본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화'나 '삶의 질'을 논의 할 수준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한 행사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소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해방이후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던 문화정책의 체계와 방향이 정립되는 획기적인 전환기로 인식되고 있다.[12] 그러나

---

9) 이천시지, 2001, 이천시, 379쪽
10) 이천시지, 2001, 이천시, 381쪽
11) 이천시지. 2001, 이천시, 385쪽
12) 비교문화연구 제4호, 1988,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69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 담론, 오명석, 123쪽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문화운동단체에서는 이 시기를 박제화 된 관제문화와 퇴폐적인 상업적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시기로 규정하기도 했다.[13] 60-70년대의 문화정책은 전시 행정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체제유지와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으로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14] 문화정책 역시 문화=예술이라는 체계가 성립된 시기이도 하다.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라는 정치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의 권력과 지식인을 동원하여 정권의 안보를 지키는 보조도구로 이용[15]되었기에, 중앙집중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문화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문화는 중앙의 문화에 비하여 열등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립적, 또는 대항적 성격을 갖는 문화는 철저히 배제되거나 소외됨으로서 지방문화라는 위치도 부여받기 어려웠다.[16]

그러나 이 시기의 지방문화가 완전히 소외된 것은 아니었다. 지방문화원의 경우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창립되어 문화원이 정부에 의한 공인된 단체가 되었고,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보조와 시설지원(공공건물의 무상대여 포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업적을 지방수준에서 홍보하는데 유효한 관변단체로서의 기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17] 이 시기 문화원은 정부 선전물 배부와 전시, 홍보필름의 상영, 정부주관 집회의 대행 등이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10월 유신 이후에는 지방문화원은 유신이념과 새마을운동 이념을 계도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기 전까지 문화원의 정권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이고 관제된 박제문화 확산활동은, '전통적' 관습과 태도에 대하여 그리고 중앙에 비하여 하위적인 개념이거나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전통적 관습에 대하여 '구습'으로 정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조차 하였다. 이러한 반성에서 지방문화원들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2) 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문화예술활동

80년대는 제5공화국과 6공화국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 역시 80년대 이전까지의 문화예술정책은 정책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정권유지 수단의 하나로 이용한 점에는 크게 변

13) 상동 123쪽
14) 상동 124쪽
15) 이러한 문화정책은 80,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6) 상동 138쪽
17) 상동 139쪽

화가 없으나, 이 시기에는 문화분야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기이다. 문화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데 기인한다. 80년대 역시 70년대 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유난히 강조하였으며, 이 시대의 특징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과 지방문화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된다. 특히, 지방종합문예회관 건립과 지역문예진흥기금 창설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분야에서 일정 정도 자율성을 제고를 내세우면서 국가와 지방문화기관의 기관장을 대부분 문화예술계 인사로 대체 임명하였으며, 정부가 직접 주관하던 대한민국 연극제, 무용제, 국악제 등 이른바 전국 규모의 문화행사를 문예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진행하였다.[18] 동양최대의 공연예술 공간인 '예술의 전당' 건립을 기점으로 문화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주류 관료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컬러텔레비전 조기도입과 프로스포츠 시대의 개막과 같은 대중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발빠른 변화를 통 해, 국가의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동화를 가능케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특히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개최를 통해 문화정책에서 스포츠 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엘리트 체육정책 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8년부터 계속되었던 문화공보부가 1989년에 최초로 문화부와 공보부처 분리되어 문화부로 신설되면서 공보정책과는 분리되어 독자적인 문화정책의 길을 트기 시작했다.[19]

이천지역에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인 향토사, 문화재, 민속, 설화 등을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자료조사사업'이 1979년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이 조사사업은 1984년 '이천군지'의 편찬으로 결실을 맺게 되지만 지역의 문화역량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5년 '이천향토사연구회'가 발족되고, 1986년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천문화예술진흥회'가 구성되어 문화원과 공동으로 '이천문화보' 발간, 향토여름학교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1987년에는 '이천도자기축제'를 포함한 제1회 설봉문화제가 선보여 향토축제시대의 막을 열었다.[20]

80년대를 지나면서 지역 예술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문학 활동에서는 각종 동인회가 등장을 하게 되며, 이들 동인회는 시화전, 문집발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 시작한다. 미술분야에서는 서예전, 한국화전, 사진전 등이 종종 개최되었다. 음악분야에서는 동호회의 정기발표회, 초청연주회 등이 개최되었다. 전통도예분야는 '한국전승도예협회'

18) 웹진 ARKO, 우리나라 문예정책의 흐름과 예술위원회 40년의 성과,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19)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동연(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20) 이천시지, 387쪽

의 창립과 서울에서 회원전 개최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민속예술분야에서는 대월면의 거북놀이와 군량리의 자채농요가 전국과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하면서 지역을 대표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설투자의 효과로 89년에 '이천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이천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80~90년대 초반까지 이천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은 중앙 집권적이고 정권 유지차원에서 그동안 진행된 각종 사업 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3년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그동안 정권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있던 문화예술활동이 지방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초기활동이 90년대 말과 2000년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3)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의 문화예술교육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과 아울러 국민정부시대와 참여정부시대를 거치면서 지역 문화예술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문화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대표적인 것이 문화와 산업의 영역을 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며, 문화정책 일반, 순수예술, 문화산업, 체육, 청소년, 관광 분야에서 초보적이나마 구체적인 문화정책들이 제시되는 시기였다. 또한 문화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컨텐츠 사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문화적 수요의 다양화와 지역문화의 분권화, 산업과 예술의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21]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역문화의 흐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96년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도예문화와 관광은 물론, 다른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문화예술인의 발표무대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이천도자기축제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2년 미술협회 이천시지부의 설립 이후 문인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등이 차례로 구성되면서 1998년 예총 이천시지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예총활동과는 별개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 생겨나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21)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동연(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준다. 특히, 음악분야에서는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콘서트콰이어합창단, 이천시어머니합창단, 이천시민교향악단, 이천YMCA청소년교향악단, 셀라여성합창단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문학의 설봉문학회, 청미문학회, 미술의 채묵회, 서예사진분야의 청묵회, 이천사진연구회, 이천사진동우회, 국악분야의 거북아 거북아, 소슬패풍물단 등이 각각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22)]

90년대 중반이후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출발한 문화예술단체들과 1997년에 개관을 한 이천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이천문화원, 한국예총이천시지부, 이천YMCA 등에서 초기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문화예술 전문인 양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대의 국가정책과 맞물려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지역의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 설봉문화제, 산수유축제 등은 이천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면모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교육 현황

2000년대에 오면서 이천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이천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사를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을 담당할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며, 매년 평생학습축제의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시 조직으로 평생학습과를 두어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가을을 기준으로 한 지역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및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28개 조직이 약 38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프로그램 숫자로만 본다면 지역 규모에 비하여 상당한 규모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영역이 약 150여 개의 개별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90여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23)]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봉서원, 이천문화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이 각 단체별로 특성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아

22) 이천시지, 389쪽
23) 이천시 평생학습 참조

카데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의 제한,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 각 지역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공부 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학교문화예술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관련 프로그램이 총 148개 강좌에 2,342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미술관련 강좌는 129개 강좌에 2,009명의 수강하고 있고, 체육관련 강좌는 307개 강좌에 9,434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4] 총 프로그램 수로 보면 639개 강좌에 14,525명의 학교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문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66%로 절반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26%,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9%로 상급학교 진학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수와 참여자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학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3.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상된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이 문화관광 정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양식과 사회의 지식과 감성개발의 전체를 기획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경제, 정치와 더불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미 우리는 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이에 걸맞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

24) 이천교육청 2013년 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결과

둘째, 지방정부의 문화관광 중심의 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천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려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문화관광 중심의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기는 하나, 지역의 일부축제들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문화축제가 아니라 일부문화예술인이나 관주도의 문화관광 축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지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수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에 민주적인 문화정책의 수립으로 지역 문화의 독창성과 고유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정책이 이제는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복지의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소수 전문 예술가들만을 위한 문화정책이 아니라 소수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아우르는 민주성과 공공성이 반영된 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여 백

제2장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변화

윤 진 희 / 이천시 평생학습과 주무관
이 동 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1. 평생학습도시 선정
2.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영역
3.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요구
   1) 2005~2012년 시민 요구조사 결과
   2) 2013년 시민 요구조사 결과
4. 문화예술영역의 평생학습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1)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지역의 이해 수준
   2) 평생학습 도입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현 주소
   3) 이천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4) 향후 과제 -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및 협력모델

제2장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변화

1. 평생학습도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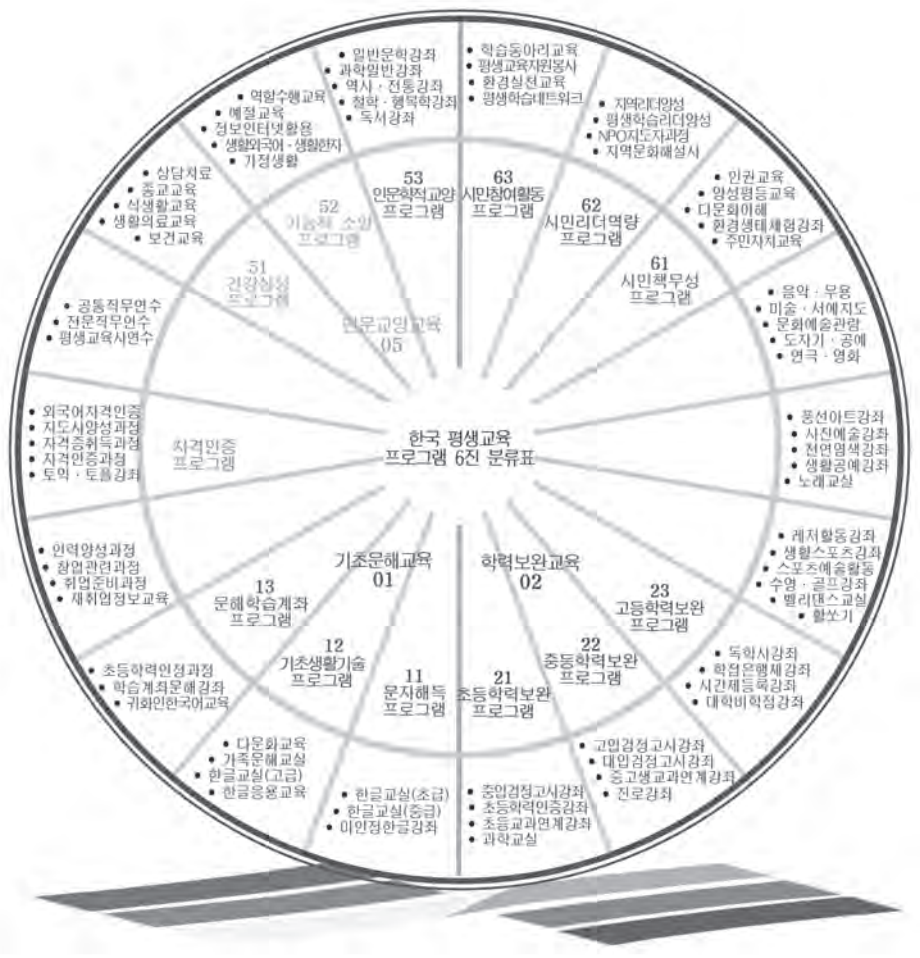
21세기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비롯하여 국제화, 고령화, 여가사회화 등의 급격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치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사회의 전체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의제로서 학습도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중앙 정부의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출발한 이 시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간의 교육적 문화적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천시는 2004년 9월 1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지만, 그 전에 이를 위한 조건이 정비될 수 있는 시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사랑과 신뢰 회복의 「불씨운동」,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심포니사회 운동」,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 운동」 등은 맥락이 거의 비슷한 「도시재구조화 운동」이며, 일종의 새마을 운동의 성격과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를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평생학습도시로 탄생시킨 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불릴만한 지역운동의 힘이었다.

이후 10년간(2013년 까지) 이천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열망의 에너지를 학습도시 건설에 쏟아 부으며 전력 질주하였다.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년 만(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대상을 수상하고, 2006년에는 평생학습센터(서희관)를 개관하는 등 전국적인 평생학습모델 도시로 급부상하였다. 이천시는 시민의 학습기회 확대와 생활 속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2.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영역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영역은 김진화 (2009)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에서 분류된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2009)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범주화시키는 위계적 준거 틀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규정하였다.



〈그림 1〉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1)]

김진화(2009)의 연구에 의해 분류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① 기초문해교육(문자해득 프로그램,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문해학습계좌 프로그램), ② 학력보완교육(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③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④ 문화예술교육(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⑤ 인문교양교육(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⑥ 시민참여교육(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리더역

1) 자료출처: 김진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량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의 6대 영역별 3개 소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천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영역별 분포에 대한 분석에 유용한 틀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으로,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의 3개 소영역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첫째,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이다.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으로 레저활동강좌(예: 활쏘기), 생활스포츠강좌(예: 수영·골프강좌), 스포츠예술활동(예: 벨리댄스교실) 등이 있다.

둘째,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천연염색강좌, 생활공예강좌, 노래교실강좌, 천연화장품만들기, 인테리어홈패션, POP 등이 있다.

셋째,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 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무용, 미술·서예지도, 문화예술 체험 및 관람, 도자기·공예, 연극·영화 등이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09년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제시된 프로그램 분류 모델링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2008, 2009년 평생교육 정책사업 프로그램 분류 모델링

주요 영역	문화예술교육 하위영역의 프로그램 분류 모델링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다이어트댄스, 러브 인 코리아 댄스(Love in Korea dance), 마장스키교실, 밀알 생활체조 교실, 밸리댄스, 볼링 동아리, 브라보 실버라이프 포크댄스, You & I 축구교실, 외국인 노동자 수영교실, 장애우수영교실, 재즈발레댄스, 점핑클레이, 탁구교실, 토탈 댄스 교실, 펜싱교실, 배드민턴반, 프리테니스, 활력충전몸치탈출실용댄스, 힙합, 타이치(태극권), 낚시교실, 스케이트교실, 골프교실, 요가교실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가족 티 만들기, 국화 분경, 대국 만들기, 리본 아트과정, 미니정원 만들기 과정, 생활도자기 만들기, 선물포장 및 꽃꽂이, 소외된 영세민 봉제수공, 손뜨게, 손으로 배우는 POP WORLD, 아로마 천연제품, 아트플라워, 압화 공예 1단계, 야생화 분경 만들기, 우표취미수집 반, 유리공예, 은 점토공예, 전통매듭공예&폴리머 클레이, 전통의 멋 한지공예, 종이공예, 종이접기&점핑클레이, 천연농약 만들기, 천연화장품·비누 만들기 반, 취미여가활동 “와이어 공예”, 실버공예, 퀼트, 클레이(점토), 풍선아트, 흙사랑 공부방, 1기 퀼트 수공예, DIY러브하우스, 북아트 만들기, 생활소품 만들기(리폼&D.I.Y), 성인 장애인 취미/여가지원 활동을 위한 : 와이어/비즈 공예활동, 포크아트(장식미술)

주요 영역	문화예술교육 하위영역의 프로그램 분류 모델링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가족봉사단과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의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체험학습,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 전통문화체험, 남면농악, 너영 나영 함께 배우는 연극, 놀면서 배우는 우리지역 문화-진주, 락 밴드 반, 만돌린(서양 탄현 악기의 하나), 문인화, 물레심화과정, 민요교실, 백사 시네마, 삼천포 12차 농악, 서예, 수묵화 교실, 야생화부, 어린이 뮤지컬, 어머니합창반, 언니와 함께하는「어울림」, 연필초상화교실, 우리가족 문화재탐험대-조상들의 과학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우리 집 오카리나 합주단, 음악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젝트 'Culture Family합창단', 이주여성 한국음식문화체험, 이지파스텔화, 입체조형, 장애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교실 - '생생 체험 애니메이션 교실', 장애인 감각 계발을 위한 소프트펠트 교실, 장애자학부모 정보 및 도예문화교육, 전통 목공예 교실,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전통공예 강습, 주말 문화예술향유프로그램 "전통 민화 아카데미", 칠보공예, 통영나전칠기체험교실, 평생학습인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 한국화·풍물패 어울림, 화전 메귀 한마당, 어린이연극, 아동미술, 가야금반, 드럼교실, 월요플룻, 클래식기타, 목공, 전통서각, 전각·서각교실 (나무, 돌, 금옥 따위에 인장을 새김), 연극교실

문화예술교육 이외에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도 보는 관점과 내용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의 범주와 일정 수준 관련이 있다. 기초문해교육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한다. 학력보완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을 인증하는 교육이다. 직업능력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문교양교육의 경우 특정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시민참여교육은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3.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요구

1) 2005~2012년 시민 요구조사 결과

이천시에서는 매년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평생학습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 2008년, 2012년의 시민 요구조사 결과 중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시민의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천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영역은 건강 스포츠교육(29.3%)이고, 다음은 직업기술전문교육(19.5%), **문화예술 · 취미교육(17.6%)**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천시민이 선호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순위별로 파악한바, 1순위가 요리로 조사되었다.

〈표 2〉 이천 시민이 선호하는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문화예술·취미 교육 (17.6%)	요리	사진·비디오	가요교실

200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평생교육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73.1%) 이천시민들은 **문화·예술·취미교육(28.8%)**, 체육·건강·보건관리교육(25.7%), 직업능력계발교육(19.2%) 분야 순으로 참여하였고, 참가하고 싶은 분야별 강좌로 컴퓨터 활용(36.0%), 요가(32.2%), 외국어회화(22.5%), 요리(19.9%), 생활경제교육(19.0%)순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교육영역으로 직업능력계발교육(44.8%), 체육·건강·보건관리교육(39.6%), 문화·예술·취미교육(36.2%)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 문화 · 예술 · 취미교육 참여 희망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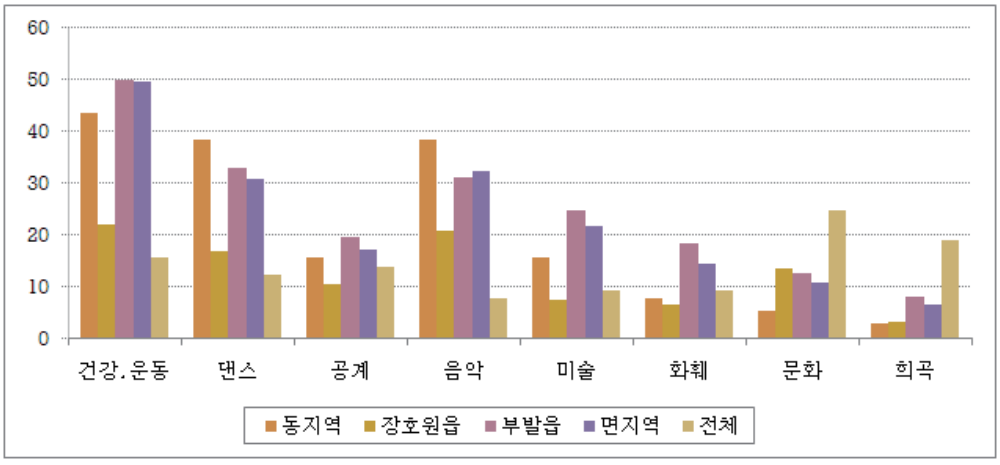
구 분	참여 희망 강좌
문화·예술·취미 교육	요리(19.9%), 도예·공예(12.7%), 사진·비디오(10.8%), 홈패션·꽃꽂이(9.8%), 디지털 사진(9.6%), 사물놀이(9.4%), 미술(9.1%), 악기(8.6%), 오카리나(7.9%), 천연비누만들기(7.4%), 선물포장(7.2%), 종이접기(5.7%)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있는(72.9%) 시민들은 **문화예술교육(55.1%)**, 시민참여교육(26.2%), 인문교양교육(22.3%) 순으로 참여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싶은 강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 운동(49.6%), 음악(32.3%), 댄스(30.8%)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결과는 4개 지역 모두 '건강 운동'(동지역:52.6%, 장호원읍:43.6%, 부발읍:21.9%, 면지역:50.0%)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지역과 부발읍은 '음악(동지역:31.4%, 부발읍:20.8%),' 장호원읍은 음악과 댄스(38.5%), 면지역은 댄스(32.8%)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다.

〈표 4〉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싶은 강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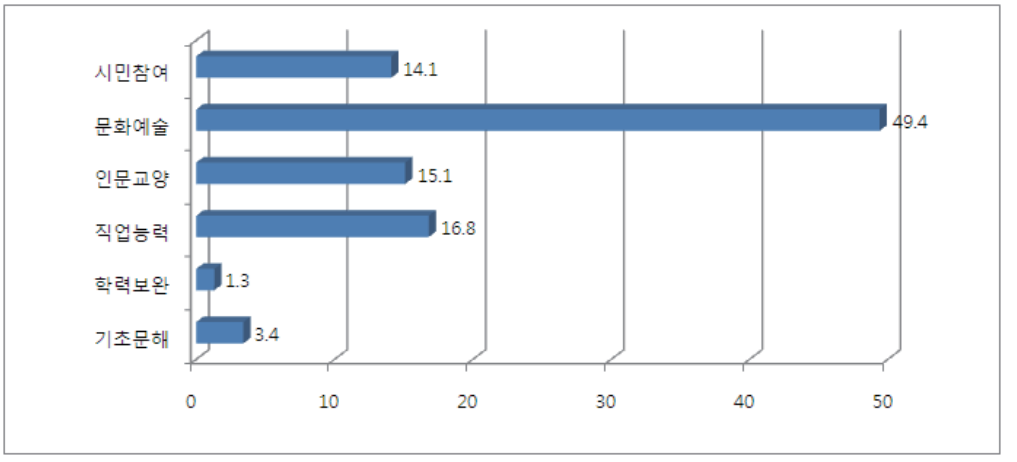
구분	건강·운동	댄스	공예	음악	미술	화훼	문화	희곡	전체
동지역	52.6	28.8	15.7	31.4	22.3	13.5	7.7	5.8	177.8
장호원읍	43.6	38.5	15.4	38.5	15.4	7.7	5.1	2.6	166.8
부발읍	21.9	16.7	10.4	20.8	7.3	6.3	13.5	3.1	100.0
면지역	50.0	32.8	19.5	31.0	24.7	18.4	12.6	8.0	197.0
전체	49.6	30.8	17.2	32.3	21.6	14.4	10.7	6.3	182.8



〈그림 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싶은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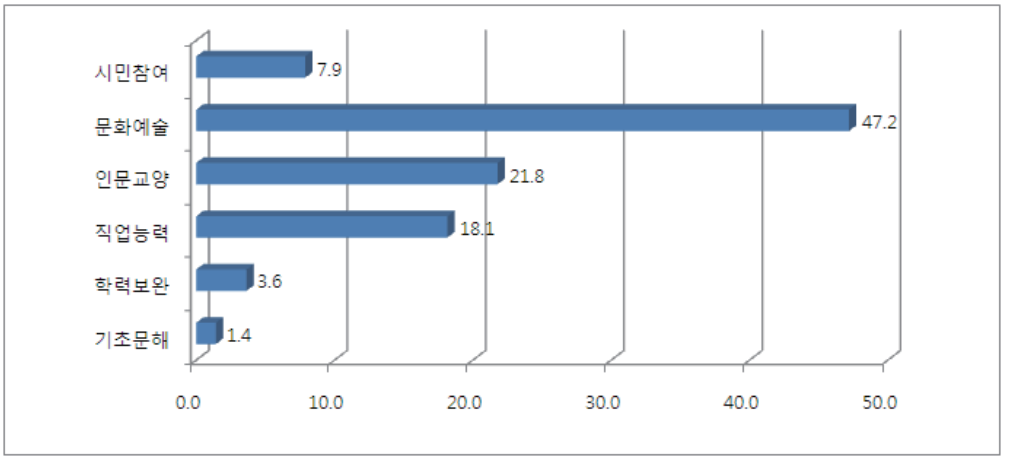
2) 2013년 시민 요구조사 결과

2013년 3월에 실시된 이천시의 요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지난 1년 동안 평생학습에 참여한 시민은 79.3%로, 주 참여 평생학습 분야는 **문화예술(49.4%)**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능력(16.8%), 인문교양(15.1%), 시민참여(1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평생학습 참여 분야

향후 평생학습 참여 계획은 96.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예술(47.2%)**, 인문교양(21.3%), 직업능력(21.8%)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와 향후 참여의사에서 시민참여(6.2%), 문화예술(2.2%)은 낮아지고 직업능력(1.3%)이나 학력보완(2.3%)은 다소 높아졌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로서의 변화로 해석된다.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유추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욕구 역시 상향으로 해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참여가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분야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요구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2005년도에 비해 해가 갈수록 문화예술분야의 이천시민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가 평생학습 프로그램화 되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한 학습문화로 형성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기가 높은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일반 건강교육과 운동 프로그램 등이 문화예술분야의 하위범주인 레저생활·스프츠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참여경험과 향후 참여계획 등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4. 문화예술영역의 평생학습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1)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지역의 이해 수준

문화예술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성이 결합된 생활문화공동체와 결부될 때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자체에 머물러 있던 관심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의 공동체적 삶과 생활현장으로 확장시키는 인문적 실천과 비로소 이어지게 된다.[2)]

기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예능 활동의 결과로 그림을 더 잘 그리거나 악기를 더 잘 연주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보다 조금 더 열린 교육을 했다면 기능보다는 교육을 통해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창의력이 더 좋아졌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성은 기능과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주변에 파장을 일으킬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기능이나 기술의 성취, 숙련 정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예술의 본래적 의미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자기표현'이다. 자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소통하며 교류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은 어떤 행위가 변화를 일으키고 자극을 주어 흥미를 유발하고 또 다른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삶의 주체로 변화시키고 완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며, 개인에서

2) 예술을 단순히 아름다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다. 오늘날 미술은 점차 삶과 일상으로 되돌아오고 있고 예술을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뒤샹 이후 현대미술은 기존의 틀을 부수거나 바꾸려고 해왔으며 예술이 가지는 다면성과 열린 해석, 사유를 통한 생성과 파괴에 조응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왔다.

출발해 공동체로 인식을 넓혀주는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지내고 함께 작업하면서 공동체의 유대를 가지고 더 나은 공동체적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이면서 목적이어야 한다.

예술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다. 전통적으로 예술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국한되어 생각해 왔는데 예술작품이 예술가의 손을 떠나서 독립적인 의미를 획득하지만 예술작품만으로는 고립성을 벗어날 수 없고 작품을 의도한 예술가의 생각, 그리고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관객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회성을 획득할 수 없다. 오랫동안 공공미술작가들은 미술계와 갤러리, 비평가, 전문가, 수집가, 관객 등에 대해 비판하고 이전 예술의 틀을 거부하고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해왔다.

더 이상 예술을 작품 위주로 보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특정 공간에 가두어 두기 보다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을 만나게 하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현대예술은 공공장소와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삶과 일상적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술은 상호적이고 공동의 작업과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은 소수의 예술가나 전문가, 수집가 층이 독점하는 영역이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참여하게 만드는 매체로 공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평생학습의 도입은 이천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2) 평생학습 도입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현 주소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평생학습기관이나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방식은 서양화, 동양화, 사물놀이, 가야금, 바이올린, 목공, 연극 등 가능한 한 많은 문화예술분야를 전문가(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나 경력,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뢰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여러 평생학습기관들을 돌며 미리 짜여진 수업을 진행하고 떠난다.

생활현장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예능교육, 그리하여 우리 삶의 인문적 환경 변화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기능 위주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 역시 이천이라는 공동체적 삶의 기반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평생학습 도입 이전의 예능교육이나 문화센터, 학원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내용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고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분절되고 정형화된 예술교육에 머물러 있어서 '지역문화'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이전 보다 다루는 예술 장르가 넓어지고, 강사의 운영, 관리시스템이 좀 더 조직화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토대로 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취지와 목적, 가치개념을 공유하고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며 자신이 속한 수많은 공동체적 의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기능습득만이 목적일 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유대의식이나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교육이나 강좌라고 한다면 평생학습의 이념이나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천시는 200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급증하는 평생학습의 수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대해 왔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실시한 문화예술분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통풍물교실, 난타교실(장호원읍), 기타교실, 풍선아트, 레고닥터, 오카리나, 서예교실, 노래교실, 종이접기((부발읍), 퓨전난타, 토탈댄스, 노래교실(신둔면), 풍물놀이, 오카리나, 압화, 퀼트. 목공체험교실, 꽃꽂이교실, 우리춤체조, 밸리댄스, 천연비누공예(백사면), 토탈공예, 요가, 어린이풍물패, 댄스스포츠(호법면), 단전호흡, 미술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민요교실(마장면), 서양화, 민요교실, 풍물교실, 기타교실, 노래교실(대월면), 노래교실, 기타교실(모가면), 서예, 비즈, 마술, 오카리나, 사물놀이, 토탈공예, 리본공예, 전각·서각교실(설성면), 풍물, 노래, 서예, 사진, 기타, 도자체험교실, 천연염색, 천연비누만들기(율면), 민요, 노래교실, 비보이댄스, 플롯, 사물놀이(창전동), 종이, 압화, 종이접기, 한지인형, 매듭공예, 오카리나, 노래, 기타, 스케치, 가야금, 배냇저고리만들기, 풍선아트, 토탈공예(증포동), 사진, 민요, 한국무용, 민요교실(중리동), 꽃꽂이, 피부마사지, 사물놀이, 난타교실, 짚풀공예연구모임(관고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3)]

이를 분석해보면 이들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수성과 공동체성을 살리는 쪽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대부분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생학습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우선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쪽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표 5〉 2007~2009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읍면동	사 업 명
1	장호원읍	복숭아를 이용한 미용용품 및 떡 만들기
2	부발읍	이주여성 한국적응 프로그램
3	신둔면	도자기 핸드페인팅, 우리 마을 지도그리기

3) 평생학습도시이천 백서, pp.399~428, 이천시평생학습센터, 2010

연번	읍면동	사 업 명
4	백사면	산수유교실, 백사에서 추억 만들기
5	호법면	삶의 영유를 찾아서, 이주여성이랑 주민자치랑 함께하는 향토음식 만들기
6	마장면	플로랄 디자인 작품, 미니분재 만들기, 꽃과 도자기와 상차림의 만남
7	대월면	부부행복대학, 보드공예, 대월 체험 만들기
8	모가면	황도 복숭아 병조림 만들기, 휴경지를 활용하여 고구마 재배
9	설성면	노인건강을 위한 실버 취미교실, 장승 깍기
10	율 면	일상속의 천연염색
11	창전동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공예교실
12	증포동	신나는 경로당 만들기, 2009 증포동 에너지 절약 운동
13	중리동	경로당을 찾아가는 행복교실
14	관고동	생활 속 리폼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특성화사업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신둔면의 경우 도자기핸드페인팅, 우리마을 지도그리기, 신둔면목 박태기나무 조성사업, 장호원의 경우 2007년 복숭아떡만들기반, 백사면의 경우 산수유교실, 서당체험, 농장&목장체험, 호법면의 경우 호법밴드동아리, 모가면의 경우 한과만들기, 황도복숭아 통조림만들기, 율면의 야생화가꾸기 및 분경만들기, 천연염색, 정승달구지, 우리집 정원꾸미기, 관고동의 경우 폼나는 리폼 소품리폼, 중리동의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부발읍의 이주여성 한국적응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산 지원의 한계와 주민의 학습자치 역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분야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개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3년도 이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영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2013년 문화예술영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행기관	문화예술영역 프로그램 내용
이천문화원	인형극캠프, 한시감상과 작성법, 서양화 실기와 감상, 한국채색화, 생활도예 캠프, 생활차 다례, 신명나는 장구 · 꽹과리, 전통타악 예술캠프, 세계무형문화유산, 판소리, 가야금병창, 오카리나愛 빠지다

시행기관	문화예술영역 프로그램 내용
이천예총	동양화, 수채화, 사진교실, 피아노, 성악 음치교정, 댄스스포츠
이천아트홀	민화, 첼로, 해금, 클라리넷, 유화, 바이올린, 소묘, 데생 &수채화, 성악
창전동 학습센터	중국어회화, 기타교실, 사물놀이,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요가(오후), 요가(직장인), 헬스, 노래 동아리, 중국어회화 동아리, 댄스스포츠 동아리
중리동 학습센터	기타(초급반), 중리동 기타(계속반), 나만의 작품 퀼트, 한글서예, 흥겨운 풍물놀이, 일본어, 참좋은 단전호흡, 댄스스포츠(초급), 건강 체력교실
증포동 학습센터	요가A, 요가B, 직장인 요가, 다이어트, 댄스스포츠초급반, 퀼트 심화반, 퀼트기초반, 천상의 소리, 오카리나 교실, 중년을 즐겁게, 신바람 노래교실, 야외 스케치 교실, 전통민화 배우기, 건강관리 수지침교실, 직장인를 위한 귀반사 건강교실, 탁구교실, 뿌리패 사물놀이, 통기타교실 초급반, 통기타교실 중급반, 어린이 점핑클레이, 우리아이 자신감쑥쑥, 미술놀이
관고동 학습센터	퓨젼난타교실, 사물놀이, 민요교실, 우리가족 옷만들기, 의류 리폼 & 소품, 생활수지침, 바른체형 요가반, 어르신건강댄스, 체력단련실, 아코디언

2013년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생학습 분야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변화를 염두에 둔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아 평생학습 분야와 문화예술영역의 프로그램 선호도 정도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내용에 충분히 이에 대한 문항 설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이천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문화학교는 1992년 정부의 부처개편으로 문화부가 발족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전국의 문화원 가운데 11개 교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던 시기에 지방문화원이 시작한 문화학교는 지역에서 대단한 선풍과 인기를 끌었고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지역민족문화과)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2002년에는 148개 교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지방문화원 이외에도 박물관, 복지관, 도서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문예회관, 문화재단, 문화의집 등이 참여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국 문화학교 320개 교 가운데 지방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학교 수가 150개 교로 4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천문화원의 문화학교는 199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8호로 지정되어 1999년 제1기 18개 강좌 291명 수료를 시작으로 2000년 18개 강좌 221명 수료, 2001년 15개 강좌 165명 수료, 2002년 17개 강좌 219명 수료, 2003년 17개 강좌 196명 수료, 2004년 17개 강좌 214명 수료, 2005년 18개 강좌 238명 수료, 2006년 18개 강좌 304명 수료, 2007년 12개

강좌 180명 수료, 2008년 17개 강좌 281명 수료, 2009년 250명(추계) 수료, 2010년 21개 강좌 308명 수료, 2011년 23개 강좌 295명 수료, 2012년 23개 강좌 272명 수료, 2013년 19개 강좌 266명 수료, 2014년 제14기 18개 강좌 167명 수료 등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867여명에 달하는 문화학교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지방문화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에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개편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창기 문화학교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4]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문화정책의 변화와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문화학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정부의 관심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문화학교는 지자체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지방문화원이 시행해온 문화학교 사업을 기억하는 관련부처 공무원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매우 둔감했던 지방문화원은 문화학교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20여 년 전의 문학학교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지방문화원이 운영해온 문화학교는 과거 지역에 변변한 문화행사나 문화강좌가 없던 척박한 문화 환경에서 향토문화를 지키고 주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문화예술분야의 정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20년 전과 큰 차별성이 없는 강좌식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학교의 경우 전통문화와 향토사 분야의 독점적 영역을 갖고 있지만 이를 잘 살리지 못하고 강사 중심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원의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사물놀이, 가야금, 민요, 판소리, 미술, 외국어 회화 등 전통문화 강좌 내지 문화예술 실기 위주의 강좌와 문화체험, 탐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제까지 뚜렷한 혁신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운 대목이다. 2006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의 사업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문화원만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만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성에 기반한 문화프로그램이라도 사설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단순 문화예술 강좌나 펠트, 어학 강좌,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스피치 토론, 꽃꽂이 등 실용적인

4) 지역사회에 이렇다 할 문화강좌나 문화프로그램이 없었던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문화원이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다른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과 큰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원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중복되는 강좌들의 통폐합 요구를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5]

문화원의 문화학교가 당면하게 된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은 문화원 이외에 지자체마다 지역문화재단,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기관 엽합회, 문화의집, 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분야의 기관, 단체들이 속속 설립되고 이들 기관마다 특화된 영역의 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화원이 담당했던 문화예술분야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 놓여있다.[6] 이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용 자세도 달라져 수동적 문화소비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문화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문화주체로서의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히 예능교육이나 백화점식 문화 강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발견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보여준다.

4) 향후 과제 -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및 협력모델

2006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내지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어왔으나 학습대상자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체성 회복이 우선시 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면서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2012년에 시작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구분 속에서 별개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교도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역문화, 지역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기관)가 지역 내 자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가 2001년 지역문화의 해였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을 통해 중앙의 문화와 대별되는 향토문화가 아닌, 지역 속의 문화, 지역특성화가 담보된 지역문화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2010년 처음 시작된 '지역거점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시행되면서 가장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왜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네트워킹인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기대 수준은

---

5)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연구, p.87, 한국문화원연합회, 2006

6) 정부에서는 최근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세워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이나 기관마다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의 입장에 머물러있던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교육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함께 협력적으로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이다. 지역사회에서 형식적인 협조관계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질적 변화를 갖고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문화예술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만들기 위해 협력단체들과 강사들의 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문화주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요 평생학습기관과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 워크샵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7] 이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점차 협력기관의 범위를 넓혀나감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천에서는 평생학습 개념이 도입된 이후 '지역문화', '지역문화공동체'라는 토대 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꽃피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평생학습은 일방적인 지식이나 기능, 기술의 전수나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익을 우선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음악, 미술 등 제한된 예술 장르에 대한 기능 습득 중심의 교육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창조적 문화감수성과 문화향유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가 평생학습의 이념과도 닿아있었기 때문이다.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기초해서 생애주기와 연령에 따른 평생교육, 직능과 분야별로 전문화된 평생교육, 그리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그리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그동안 이천에서 시행되어왔던 여러 문화예술강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이천시는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

7) 워크샵은 지역사회 내 교육대상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기관들의 문화예술분야를 포함한 평생학습강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뚜렷한 차별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해 나가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기관들의 고유영역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동시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강좌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천시 관내 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평생학습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경쟁모델이 아닌, 협력모델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그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복지기관이라면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문화기관이라면 문화영역의 강점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노인이나 여성 관련 교육기관이라면 그 계층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육 대상자인 주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별, 계층별로 주민의 욕구, 연령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셋째, 그 지역이 처해있는 상황,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 위에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1차적인 기능이나 지식전수에 그치지 않고 타 영역, 타 분야와의 융복합과 지역사회 접목을 통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민관협력을 위한 이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쉽과 시민사회 내부의 건전한 협력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자기 스탠스를 잡고 시민사회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천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천시평생학습센터와 각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혁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천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과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포함하여 이들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강사, 평생교육사, 문화예술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 이천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일상의 삶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통합적 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소통능력을 키워주는 문화향유자 중심의 교육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기관(단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 백

제3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조 계 형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관장

---

1. 문화예술교육의 범주
2.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3. 최근의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
5.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대 방안

제3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1. 문화예술교육의 범주

문화예술교육은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고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예술창작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육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학교밖 문화예술교육이 있으며, 유아부터 노인층까지 계층별 문화예술교육이 있다. 학교에서는 문화예술 교과교육,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주민자치학습센터, 도서관이나 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원, 예술단체, 청소년기관 등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안이나 학교 밖 모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표현이나 범주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천시에는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평생학습과(평생학습팀, 자치학습팀, 시립도서관팀, 청미도서관팀)가 있으며, 읍면동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부서인 문화관광과(문화팀, 예술팀, 관광교류팀, 도예팀)는 주로 문화예술업무 중심으로 조직구성이 되어있으며 사실상 문화예술교육 업무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의 경우 평생교육진흥팀을 두고 학교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조직이나 전달체계도 평생교육 중심이고 관계법령에도 평생교육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1]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당수의 평생교육이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세 가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범주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나열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영화·비디오, 음악·게임,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

1)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결과보고서'의 이어령 조직위원장의 발간사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늘날의 문화예술교육은 유치원 과정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처음 받는 교육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문화예술교육인데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과 교육 위주가 된다. 많은 국가들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영어와 같이 대학입시에 필요한 과목들로 대체되고 있다.
>
>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알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훌륭한 사례를 더러 찾아볼 수 있지만, 미국이나 아시아의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도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의 원인은 그 효과가 수치화 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정책분야에서도 크게 고려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GDP처럼 수치화 할 수 있는 것만이 국력이나 국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 이후 GDP가 성장한다고 해서 GPI(진정한 진보 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문화예술교육이야 말로 수치화 할 수 없는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2,9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였다.
>
> 여전히 '교육'이 입시와 취직이라는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메마른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에 새로운 숨결로서 '창조성과 상상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주입식 교육은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창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술이 밥 먹여주는 시대'이다. 불경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교육 예산부터 줄이고 예술행사에 쓰는 돈을 못마땅해 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없다.[2)]

교육이 입시와 취업이라는 경쟁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고령화 사회의 전망은 평생직장이 쇠퇴하고 평생직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최근의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현황[3)]

2013년도 4분기 이천시의 주요기관 평생학습운영현황을 조사해본결과 총 424개의 과정이 운영되었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결과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강좌가 269개로 63%에 이르고 있어 49.4로 응답한 결과보다 13.6%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중에서는 음악분야가 30.5%로 가장 많았고 공예 14.1%, 회화 12.3%, 문해교육 11.9%로 4개 분야가 69%를 점유하였다. 외국어와 한국어, 한문, 문해교육 등 어문분야를 합하면 22.6%로 나타났다. 음악, 공예, 회화, 어문 등 4개 분야의 점유율이 80%로 이천시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은 편향성이 심하고 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3년 기준 이천시 문화예술 교육현황[4)]

문화예술교육	강좌 수	점유율	기타교육	강좌 수	점유율
음악	82	30.5	과학	5	3.2
회화	33	12.3	초등 방과후 교실	1	0.6
풍수지리	1	0.4	스포츠	98	63
도자	2	0.7	컴퓨터	15	9.7

2) 문화체육관광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결과보고서",p.22.
3) 이천시, "이천시평생학습진흥 5개년계획",(2013),pp.22-24. 부분발췌정리
4) 이천시,"평생학습세상 33호",(2013),pp.63-82. 평생학습프로그램정보마당을 재구조화하여 분석

문화예술교육	강좌 수	점유율	기타교육	강좌 수	점유율
무용	4	1.5	직업체험	9	5.8
사진	2	0.7	가족	5	3.2
생활예절	6	2.2	지역연계	9	5.8
디자인	11	4.1	자원봉사	3	1.9
공연	8	3.0	평생학습	4	2.6
민속놀이	1	0.4	식품	6	3.9
외국어	20	7.4			
한국어	3	1.1			
한문교육	6	2.2			
문해교육	32	11.9			
민간의료	4	1.5			
공예	38	14.1			
문화탐방, 견학	5	1.9			
책읽기 및 글쓰기	11	4.1			
	269	63		155	37
총 강좌 수 424개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경우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이천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단순히 문화강좌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차별성 있는 강좌나 공동체적 지향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문화예술 강사와 관련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여러 문화장르간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인문학 강좌를 개발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문화강좌 주관단체와 강사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이 시급하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전통문화 강좌의 경우 단순히 기능 전수에만 머물러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현대문화와의 접목과 활용가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공동체적 관심과 생활문화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분야와 문화예술의 장르, 여러 문화영역 간의 경계를 오고가며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문화를 문화영역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문화와 관광, 환경, 시장, 농촌, 복지, 교육, 이주민, 지역재생 등 다양한 문화 외적인 영역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문학적인 사고, 통섭의 정신, 체험과 소통을 중시하는 통합적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향토사와 문화재 등에 대한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는 향토교육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찾아내어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지역학 강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래의 문화적 전망을 보여주며 이천의 문화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강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 것인가? 예전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사물놀이 지도를 하는 경우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2~3시간씩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기능의 전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식의 강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국악분야 예술가는 대상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승되어온 민속이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을의 정서와 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사전에 알아보고자 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과 담당교사, 학생들을 만나보고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상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물의 기능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구전되어온 설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가미하여 사물놀이를 결합시켜 이야기 전개과정에 맞는 장면 장면을 구성하면서 사물놀이와 신체동작을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또 마을에 전승되어온 민속놀이와 연계하여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협업작업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공연을 마을잔치처럼 진행함으로써 마을과 학교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한 음악단체는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음악교육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그 학교의 교가를 다양한 음악 장르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연주해보는가 하면 국악교가를 만들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을 즐기고 생활에 실용적으로 적용해 보는 체험을 갖게 하였다. 또한 교가에 나오는 그 지역의 인물과 문화자원, 전설 등을 갖고 마을지도를 만들어보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여 연극이나 음악

극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마을이 신나고 재미난 곳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또 어떤 공연단체는 지역의 설화, 민담을 가지고 매년 한 개씩 새로운 공연을 연습해 마을축제 때 발표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요양기관, 병원 등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공연을 하기도 한다.

문화원이 시행해온 어르신문화학교는 대상층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단순 강좌식 진행이나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프로그램을 지양함으로써 어르신이 성취감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작업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어르신문화학교는 3~5년의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도입기, 발전기, 자립기 등 단계적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아리, 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어르신 문화학교에 참여한 학습대상자와 프로그램 기획자, 강사, 시행기관이 함께 그려가는 과정들이 다음 해에는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5.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대 방안

1)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콘텐츠란 원래는 책·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오락으로부터 교육, 비즈니스, 백과사전, 서적에 이르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간단히 접속할 수 있는데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 일로에 있으므로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

이천시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디지털콘텐츠는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멀티미디어자료실 http://media.icheon.go.kr/mai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분류로 사진자료방, 영상자료방, 시민참여방, 내고향 이천, E-Book으로 구성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총 디지털 자료 수는 14,543건이며 가장 많은 자료는 사진이다. 그 밖에 이천문화원 등 관내기관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브리태니커 인터넷 백과사전

〈표 2〉 이천시 멀티미디어자료실 탑재자료[6)]

메뉴	세부메뉴	자료 수	최종등록
사진자료방	전체검색	9,693	2014.1.10
	카테고리검색		
	인기사진검색		
	소 계	9,693	
영상자료방	시정뉴스	823	2013.12.18
	홍보영상	34	2010.11.3
	축제영상	26	2011.4.4
	교양강좌	16	2007.5.15
	시정영상	82	2012.1.2
	전체자료검색	981	
	소 계	1,962	
시민참여방	내 사진 뽐내기	35	2012.10.6
	내 UCC 올리기	2	2009.8.31
	등록자료신청		
	소 계	37	
내고향 이천	상징물	5	2009.3.2
	이천의 4계	240	2009.5.16
	이천9경	229	2010.3.10
	공공시설물	464	2011.10.6
	특산물	22	2009.8.30
	이천의 옛모습	412	1990.1.1
	소 계	1,372	
E-Book	소식지	186	2014.1
	홍보책자	26	
	통계연보	54	
	시정백서	15	
	시보	1,057	
	이천시지	8	
	연설문	27	
	시정자료	106	
	소 계	1,479	
	총 계	14,543	

6) https://media.icheon.go.kr/main

2)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활용

이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이천의 역사문화예술 등의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리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교육 현황으로 미루어 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연수과정을 정례화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의 편리성 홍보와 자료 활용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자료실에 민간 영역에서 생산 된 디지털 자료를 탑재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활용 면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 탑재 된 자료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고 신규 생성된 자료가 늘어나게 되어 사이트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자료실 운영위원회'를 두고 민간영역에서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림 3〉 이천시 멀티미디어자료실 홈페이지

3)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도 어렵도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민간영역에서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앨빈 토플러 예견한

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생비자(生費者, prosumer)들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주도성이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천시의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디지털미디어를 직접다루는 교육은 미미하지만 결과물로써의 디지털자료 생산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 성과를 디지털자료로 생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PDF나, 사진, 영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사이트는 이천시의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촉진하거나 유인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축적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예술교육(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이천시에는 복지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협회도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분야는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교육분야에는 이천시예술단체 총연합회를 통해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단위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단위의 문화예술재단은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전달체계가 단절되어 있는 만큼 이를 대신 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5)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어워드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이해하고 그 가치와 활용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생산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우수콘텐츠 어워드(Award)를 제정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콘텐츠를 선정, 시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생산이 가능한 콘텐츠를 사장하지 않고 축적시키는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이자 독려의 방안이다. 이는 학교 밖뿐만 아니라 학교안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도 동시에 적용하면 더욱 풍성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제4장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방향 모색

김 경 호 /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혁신
2. 선진국의 평생학습 사례
3. 이천의 평생학습 대안 모색
4. 평생학습축제의 방향 전환

제4장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방향 모색

1.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혁신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부터가 혁신적이다. 학교나 교수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 생애교육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 교육의 기본적 시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등장한 서구 사회는 시민, 활동가, 교육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통해 사회교육을 보편화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평생교육을 사회교육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 이념이 들어온 지는 15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으나 여전히 평생교육이 대부분 취미활동을 지원하거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천시의 경우 평생학습개념을 일찍이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면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여전히 문화센터나 취미활동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천의 평생학습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평생학습이 진정한 지역학습이 되고 전 생애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진국의 평생학습 사례

영국의 경우 평생학습의 개념은 '학습과 일을 연계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상정하는 시장중심의형 학습사회론'이다. 즉 사회교육에 철저하며 내용도 정치, 사회, 교육 등에 관하여 폭넓게 시도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 학위 수준에 걸맞은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진행하는 센터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사회교육에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또 대안교육의 역할을 하는 등 평생학습이 시민들의 폭을 넓혀주며 전문가적인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역량개발에서 사회적 학습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속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낮은 편이나 평생학습이 주변 시설들과 더불어 잘되어있는 편이다. 독일의 경우 주변에 늘 공공도서관이 있어 도서관 활용이 매

우 활발하다. 그리고 함께하는 정치교육이 잘되어있다. 주로 교육내용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 불의한 정치에 항거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의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생활스포츠도 발달했다. 7명 이상 모이면 동호회를 만들 수 있고 이를 국가가 뒷받침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교육을 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민대학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우 다양한 교육을 시행한다. 가정에서 필요한 것부터 철학 강좌까지 진행된다. 주로 전문성 확보를 중요시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기, 서로 배우기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시설이 양로원과 유치원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기관이 있다. 이는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된 사람이 다시 학습할 기회를 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학교수업을 통해 다시 학교로 가거나 상급학교에 진학을 도와주기도 하며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로 환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가 댄스, 기타 등의 취미교육도 있으나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즉 이곳에서는 숨어있는 지식, 자원과 능력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는 강사도 능력을 보고 선정한다. 즉, 석사 학위를 받고서도 전임강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는 나라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화를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경험하였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계화, 양극화, 다문화사회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60여 년에 걸친 공적 사회교육에 인하여 기본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 사회학습을 통해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런 노력이여 일본이 그처럼 많은 사고를 당하면서도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을 평가하고 있다. 주로 평생학습은 공민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이 지방자치를 원칙으로 하여 이뤄졌기에 철저하게 지역중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 삶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원전사고와 더불어 공동체적 학습사회가 재난에 얼마나 침착하게 사회질서를 만들어갔는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의 중심에는 공민관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놀이터이며 사회학습, 인권학습, 여성강좌, 탁아양성과정 등 그 시대의 과제를 공부한다. 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후속 모임을 통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민관측에서 지원한다. 또 강좌내용이 주로 주민주도로 기획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공민관이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위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평생학습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

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이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살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며 사회교육, 정치교육, 인문학 교육 등 사회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내는 데 비해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단순 취미활동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도 대부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기 보다는 1차적인 취미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업교육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나 이천아카데미 강사들이 대부분 외부 출신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3. 이천의 평생학습 대안 모색

이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선 순환되기 위해서는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동아리나 자질과 역량을 갖춘 강사를 배출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순환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이천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축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이천의 평생학습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이념과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1] 특히 사회적 학습을 통해 자아발전과 이를 동력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발전도 평생교육의 중요한 이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삶과 학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기초로 하여 삶이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학습 활성화 전략지원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이 곧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주된 내용은 아직도 취미 활동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시민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남긴다.[2] 따라서 체계적인 수강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평

1)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 학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폐해의 하나가 바로‘학습 쇼핑’인데, 일부

생학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평생학습 관련 수강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처 개발과 교육의 재분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을 통한 전문성 배양이 시급하다. 일부 수강자의 경우 수료증이 20~30개씩이면서도 그러한 경력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교육생들을 다시 평생학습 강사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그동안 시행해온 평생학습이 대부분 전문성을 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생학습에 대한 신뢰감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계층별로 세부적인 추진목표와 프로그램 운영의 정합성을 선행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학위에 버금가는 학습운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중심으로는 마을단위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 해외사례에서도 평생학습이 수준 높은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일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학습이 시행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평생학습으로 인해 학원 자영업자의 몰락이 초래되기도 한다.[3] 평생학습이 담당해야 할 이념과 목표는 학원이 담당하는 분야와 역할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일반 학원강사와 평생학습강사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생학습은 지역의 학원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일반 시장에서 할 수 없는, 평생학습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 시장과 맞물리는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나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학원이라는 시장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평생학습 취지나 의미에 맞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생학습의 이념에 따라 삶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체계가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생학습이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한 주입식 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 소

수강생의 경우 평생학습 관련 수료증을 20~30개씩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주로 낮 시간대에 운영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로 인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일부 여유층이나 실업자를 위한 교육의 연장으로 편중될 가능성도 있다.

3) 일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학습시장과 중복됨에 따라 일반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수행기관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일반 학원 등의 경우 당연히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와 상권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외자가 생겨나며 지역주민의 삶과 유리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생학습이 주민자치센터 학습실에서 벗어나 보다 주민생활과 밀착해서 마을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 평생교육사가 마을 단위로 파고들어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 행정 등 일반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직에 대한 시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계획의 수립은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천시의 평생학습계획은 대부분 관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거나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천예총, 이천문화원, 이천아트홀 등 민간영역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기관·단체의 일부는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으나 일부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기관들의 프로그램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 단체의 전문성을 높여 관련 프로그램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인 평생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평생학습축제의 방향 전환

또 하나의 과제는 평생학습축제의 방향전환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평생학습축제가 몽골 텐트를 이용한 전시나 체험,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행사가 관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행사의 경우 관의 동원으로 행사가 치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학습축제는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각 생활현장이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축제를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천시의 평생학습 축제는 이천시 주도의 평생학습축제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별 축제나 발표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읍면별 축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축제가 이천시 전 지역에서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별 특수성을 살려낸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현장에 가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평생학습축제는 마을 단위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주군의 경우 같은 기간에 마을별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람객들은 자신이 필요한 축제를 마을로 찾아가는 축제를 하고 있다. 평생학습 축제도 이처럼 읍면별, 마을별 축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별 특성을 살리는 평생학습 소재를 개발하여 이를 학습하고 발표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평생학습축제는 일정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 마을별, 단체별로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글은 평생학습프로그램과 평생학습축제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안을 통해 이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의 한 방법으로 평생학습이 이해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들이 앞으로 지역 발전방향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천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여 백



제5부

이천문화의 나아갈 방향

여 백

제1장

이천시민의 생활문화적 관점의 제안

이 동 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1. '생활문화' 개념의 도입
2. 향토사에서 지역학으로
3. '지역문화' - 학습의 대상이 되다
4.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필요성
5. 창조적 생활문화공간의 조성

제1장 이천시민의 생활문화적 관점의 제안

1. '생활문화' 개념의 도입

그동안 '문화'하면 우리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의 영역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여가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등 새로운 문화정책의 영역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의 개념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문화의 개념을 폭넓게 확장해서 새로운 안목으로 이천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1996년 OECD 가입국가로 들어섬에 따라 우리나라도 문화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보다 문화의 심미적·정신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예술단체나 전문예술인 등 문화예술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화의 직접적인 향유자로서 국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제는 문화의 향유자이며 지역문화를 새롭게 창출해갈 주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이천문화가 성장해온 과정을 이천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천문화 50년」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바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라는 개념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이다. 지역성에 기반하여 지역문화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차원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의미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참여해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주민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정책이 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생활밀착형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천 스스로 이천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천문화의 고유성을 찾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의 지역정신을 형성해 나가는 일, 주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이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선해가는 일 등이다.

2. 향토사에서 지역학으로

'지역학'은 지역연구(Local Studies)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학 연구는 한마디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와 인문환경을 아우르는 지역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앙사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역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전국사의 구성단위로서 '지방사', 또는 중앙사의 부차적인 사료로 중앙에서 밀려난 열등감의 표출로서 '향토사'라는 용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방언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앙언어에 대비되는 지방언어란 뜻의 방언은 교육수준이 낮고 사용하기 부끄러운 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방언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역'의 의미를 더 이상 국가와 중앙에 의해 주변화되고 소외된 공간으로 보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장소로, 그리고 각자의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1]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커다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학에서도 지방을 폄훼하는 의미로, 종속적이거나 주변적인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지방사' 대신 '지역사'라는 용어를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주도의 한국사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지방사'나 '향토사' 대신 지역이 주체적으로 국가나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지역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는 중앙사의 일부에 불과한, 변방의 역사가 아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살아온 민초들이 그 지역 역사의 주인공들이요, 그 지역을 발전시켜온 주체들이다. 지역사, 지역문화, 지역학이란 말들은 '지방'이란 용어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이나 극복, 대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차원에

1) 김동철, 문재원, 차윤정, 하세봉, '한국학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과 과제',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2009, pp.227~249

서는 그 지역의 문화자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정리를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경기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학 네트워킹을 시도하는 것도 아카이빙을 위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현재 전국의 많은 문화원에는 향토문화연구소가 설치되어있다. 이 향토문화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학 연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나 학술·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학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학 활동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그 활용, 그리고 지역학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학은 과거의 향토사와 무엇이 다른가? 향토사가 단순히 지역의 향토사료와 문화재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의 나열에 머물렀다면 지역학은 지역인들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생활사를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보존·발굴·기록하고 정리·연구해야 할 대상은 지역사의 사료와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관습이나 민속, 전승, 구전설화와 마을사, 개인의 구술생애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성에서 보자면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문화원들이 저마다 만들어왔던 시·군지보다는 이제는 마을 단위의 역사와 문화전통, 생활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기록하는 마을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마을지가 모여서 그 지역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기초 위에서 경기도의 총체적인 모습도 보다 생동감 있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문화' – 학습의 대상이 되다

'지역학습'(Local Learning 또는 Local Community Learning)은 지역학의 전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개념이다. 이 말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나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와는 다르다. 또 단순히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지리학습으로서의 지역학습도 아니다.[2] 지리학에서는 이런 의미로 지역학습을 사용하며 특히 지리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지역의 지리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할 때 지리교육의 한 분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지역학습'이란 무엇인가? 지역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 학습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서 지역을 학습자원화 하여 이를 배운다는 말이다. 이제는 지역이 곧 '교과서'가 되고 풍부한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습

2)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에서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다음세대에게 전수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학습센터(Local Lear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학습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을 알아가는 것은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인 지역화(Localization)를 확고히 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학습 과정을 개발하는 일과 더불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지역학습 프로그램으로 전환해가는 일이다. 이는 평생학습의 진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강좌를 지역학습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어떻게 지역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묶어내고 연계성을 높여나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평생학습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지역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다. 이젠 지역이 학습의 대상이다. 세계화의 시대요, 지역화의 시대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배워나가야 한다면,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다음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과 민속, 사회와 경제, 마을과 생업활동 등을 배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갖게 하여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 그것이 '지역학습'이 필요한 이유다.

4.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필요성

경기도 내에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화원이 설치되어있다. 이들 문화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를 기초로 역사·민속문화자료집, 무형문화유산 조사보고서, 시군지 등의 발간사업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발굴하고 수집한 자료들과 다양한 형태로 생산해 왔던 기록정보, 간행물들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향토사 자료를 중앙사 중심의 역사를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중앙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의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내용들이 갖는 가치에 주목하고 그런 시각에서 수집, 발굴, 정리된 사료와 유물들을 기초로 지역 중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의 역사를 복원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지역사'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 지역 사회의 공동체가 갖는 실질적인 모습과 역사적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유물이나 사료들은 지방관청이나 향교, 서원에서 생산된 기록물보다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화원이 갖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런 유형의 자료들, 즉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유물과 민간기록물을 조사, 발굴하거나 찾아가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문화원은 지

역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자료를 발간·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들은 서적 형태로 출간된 것이거나 일부 디지털화가 되어있는 수준이며, 출간된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1차적 기록물들을 수집,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화원이 이런 1차적 자료들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향토사료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1차적 자료들이야 말로 지역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며 주체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원천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에서 기존의 문화재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는 형태의 유물이나 기록물, 그리고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 정리작업을 통해 메타자료화 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원이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이 DB화 되어서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천도 지역문화 아카이브와 지역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천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천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인 '이천학'과 '이천문화 아카이브'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핵심은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문화자료를 사용자 중심으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자원화'하는 것이다.

이천시가 행정적으로 생산하는 방대한 자료는 가장 중요한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선별하여 활용가능한 자료로 관리, 보존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천문화원이 보유한 향토자료의 총량은 방대하지만 데이터베이스(DB)화 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여[3] 온라인 상 자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향토자료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구축은 '보관'의 개념이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이천시의 문화진흥과 이천학 연구에 활용될 문화콘텐츠 라이브러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천문화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지역문화자료 디지털보존소'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원이 보유한 향토자료는 서적, CD, 테이프 등을 포함하여 약 5,700개에 이르며 지역문화연구의 기초자료로 DB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원이 발간한 자료, 간행물 중 일부는 경기사이버도서관을 통해 일정 수준 DB화 되었으나, 그 외 음성채록자료, 영상자료 등은 제반적인 여건이 부족하여 CD 및 카세트테이프 등의 기록물 형태로 문화원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DB화하여 온라인 상에 이천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보존소는 이천문화 아카이브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3) 문화원 소장자료(서적,도자기 등)총5,659건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등록된 자료는 서적 16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이천문화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지역문화 콘텐츠자료실'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와 연동된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 홈페이지의 특성상 이천의 정보를 개괄적인 수준에서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4] 좀 더 전문적인 지역문화 관련 디지털 자료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천의 향토자료가 집대성된 지역문화 콘텐츠자료실은 디지털보존소, 이천시, 이천문화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등의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휴먼라이브러리'의 추진이다. 도서관이 더 이상 장서와 지면의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역사회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천문화 아카이브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이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업기술과 체험들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창조적 생활문화공간의 조성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화문화공간'과 '생활문화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활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넣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에는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이외에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이 포함되어있다. 지방문화원은 문화보급·전수시설로 분류되므로[5] 생활문화시설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범주의 생활

4)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 게재된 향토자료는 지역현황, 연혁과 유래, 역사적 인물 3인(서희,어재연,이수홍)이며 홈페이지와 연동된 멀티미디어 자료실에도 이천시지와 사진자료를 제외하고 전문적인 지역문화 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에 따르면 문화 보급 · 전수시설로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시설을 모두 나열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주민보다는 시설 관리주체나 문화예술인, 강사들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천에서 생활문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시내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생활문화시설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동네의 폐교나 노후한 시설을 개조하여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천에도 이런 유휴공간이나 시설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천은 어떤 생화문화공간을 꿈꾸고 있는가? 본격적인 생활문화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전수가 아닌,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문화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자료를 이용하고 다양한 생활문화를 즐길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도 그 중의 하나다.[6] '라키비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료와 지식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사업과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라키비움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공간, 방문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문화공간이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국의 각 문화원들이 발간,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기록물들은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원의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텍스트화 된 자료보다는 이미지화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원하는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원이 보유한 자료들 가운데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 그리고 보존과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1차적으로 디지털화 하는 작업, 자료의 성격과 유형에 맞게 분류하고 재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료와 관련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빙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한다.

둘째, 아날로그 자료의 특성상 디지털화 작업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자료의 고유한 측면, 원본이 지닌 질적 수준의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과 연계해서 원본자료, 원본기록물들을 기초로 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존, 보관 중심의 향토자료실 운영을 지양

6) '라키비움'(Larchiveum)은 라이브러리(Library), 아카이브(Archives), 그리고 뮤지엄(Museum)을 합성한 말로 이 세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하고 문화원에 라키비움 형태의 공간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7)]

그동안 여러 문화원에서 운영해온 향토자료실, 향토사료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고 재해석과 대중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료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키비움의 조성은 지역사회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해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식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최근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란 바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을 촉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7) 권순석, '경기도 문화원의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12. 12., pp.116~123

여 백

제2장

이천학을 통한 이천문화의 발전 방향

이 동 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1. 지역학 도입의 배경
2. 지역학의 개념
3. 지역학습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학
   1) '지역' - 평생학습의 출발점이자 귀착점
   2) 지역기반의 평생학습
   3) '지역학습' 개념의 도입
4. 지역학의 향후 정책 과제

제2장 이천학을 통한 이천문화의 발전 방향

1. 지역학 도입의 배경

199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향심이 상실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전통사회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것이 지역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지방화 과정의 심화와 함께 문화 환경도 크게 변하였으며 '진정한 세계화는 지역에서부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하여 문화국가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등 문화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역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문화 환경과 문화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지역마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최근 들어 지역학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천에서도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이천의 정체성과 이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이의 실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천은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출시키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역의 공동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이천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총체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천학을 도입, 정립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천학은 이천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역학의 개념이다. 이천학을 통해 이천의 과거 역사와 현재 이천의 모습,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층을 육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문화 진흥의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천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학의 개념

지역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지역학'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문'[1]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 내지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 학문'[2]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징과 정체감을 찾아내고, 지역을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제주발전연구원, 2011)으로 규정한다.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학의 개념 정의[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학은 전주의 자연.지리.역사.사회.문화 등 제 학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하여 전주의 지역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와 전주인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과 미래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이론적.학문적 논리를 제공한다. 안산학은 안산에 관한 학제적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안산학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교육함으로써 안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학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제주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주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며, 제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원학은 강원도와 강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강원도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고유한 적충된 삶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강원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민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지역관을 바로세우며 새로운 발전의 정신적 틀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신학으로 정의한다. 부산학은 부산시민의 시선에서 상호 관련된 다양한 영역 – 부산의 역사·전통, 문화·예술·정치·경제·사회,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특수성, 시민들의 일상생활 등 – 을 포착하고 종합적, 학제적으로 연구하여 지역 정체성과 고유한 미래상을 발견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실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법제에 따른 정의로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1) 정정숙, 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3~14
2) 고석규, 2005, 『한국학과 지방학』, 푸른 역사.
3) 정정숙, 2014, p.14 재인용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을 토대로 '지역문화 진흥을 지역학'을 유추해서 정의해 본다면,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연구,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공동체적 삶의 지향을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과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로 '지방학'이 있다. '지방학'은 국가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중앙정부의 영역범주와 구별되는 특정한 지방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지역학'은 각각의 지역이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을 다루고 중앙이나 수도권 지역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더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향토학'은 자연·지리적·지방의 전통이나 역사문화를 연구할 때 주로 쓰여 왔으며, '향토사'의 경우[4] 연구주체가 그 지방 출신이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보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지역학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 그동안 축적된 지역의 역사와 건축, 문화재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지역문화 정책을 생산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해온 옛길복원사업이나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과 같은 일들도 지역학의 성과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학습'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학

1) '지역' - 평생학습의 출발점이자 귀착점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는 뒤로 밀려나고 지역이 전면에 나서는 시대가 되었다. 이른바 국민국가(nation state)시대는 가고 지역국가(region state)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본래 지역사회는 학습의 주된 원천이자 장으로 존재하며 평생학습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교육'의 가능성과 존

4) '향토사' 또는 '향토문화연구'는 연구범위와 문제의식, 연구수준에서 지역학과 차이가 있으나 향토사학자들이 해방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지역의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해온 것도 사실임.

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지역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은 모든 학습의 근간이 되는 본질적 장이며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은 인간 본연의 자연스런 활동으로 존재하는 평생학습의 원형으로, 평생학습의 출발점과 귀착점은 바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우리의 생활권이자 학습권이 일치하는 공동체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권과 학습권이 일치하는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5)]

따라서 평생학습의 주체는 평생학습이나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며 생활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현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지역은 학습하는 공간이자 생활하는 공간으로 생활권역과 학습권역이 일치하는 지향점을 가질 경우 주민들은 실제로 일상생활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을 체험하게 된다. 평생학습 정책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에서 지속적인 학습과정과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조건을 정비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체가 학습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지역의 생활환경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언어·행동·사고방식·감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의식도 그 지역의 역사·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평생학습의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은 이러한 소중한 지역의 학습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지역기반의 평생학습

최근 평생학습에서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지역평생학습'의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평생학습은 국제무대 및 국가 수준에서 정책적 구호 내지 학술적 담론으로 머물러 있었고 평생학습을 '지역'과 '사람'이 만나는 지역사회에까지 끌어내리는 데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 평생학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근거해야 할 터전이 지역이며, 평생학습의 주인은 평생교육을 업으로 하며 살아가는 학자나 전문가, 강사와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주민으로서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작은 이야기, 생활 속의 이야기, 살아 숨 쉬는 지역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6)]

지역사회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학습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연계, 협력하는 통합적 학습복지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성격 이전에 시민운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

5) 이동준(2012),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는 이천문화원 지역문화탐방', 평생학습세상 28호, 이천시
6) 최운실 외(2005). 한국 평생교육의 총체적 진단과 발전 모델 구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지역학습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학습도시란 사회의 번영 및 안정,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학습이 중핵역할을 하는 도시로 모든 시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금융자원을 활용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결속, 재생,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7] 이와 같은 이유로 평생학습도시 운동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하고 교육적·문화적·지역적 성별·세대별로 소외된 계층의 학습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3) '지역학습' 개념의 도입

'지역학습'(Local Learning 또는 Local Community Learning)은 지역학의 전개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개념으로 '일정 범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나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단순히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지리학습으로서의 지역학습과도 차이가 있다. '지역학습'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을 학습자원화 하여 이를 학습하는 활동을 뜻한다.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이 곧 '교과서'가 되고 풍부한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학습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을 알아가는 지역학습은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인 지역화(Localization)를 확고히 해 가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지역학습 과정을 개발하는 일과 더불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역학습 프로그램으로 전환해가는 일로, 이는 평생학습의 진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강좌를 지역학습으로 획일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어떻게 지역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묶어내고 연계성을 높여나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학습공동체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학습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높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을 제대로 배워나가면서 지역문화를 다음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

---

7) 최운실(2010), '학습2.0시대'의 평생학습도시 부활', 평생학습도시 10년 성과평가와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평생교육진흥원, p9

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과 민속, 사회와 경제, 마을과 생업활동 등을 배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정주의식과 정체성을 갖게 하여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역학습'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8] 지역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이 변해야 하며 사람은 학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치권을 신장하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학습도시로서 지역학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9]

4. 지역학의 향후 정책 과제

지역학을 이천에 도입하여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역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의 구축, 지속적으로 지역학 연구를 진흥시키고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육성,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학 교양강좌 및 지역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표준교재 발간 및 지속적인 리뉴얼, 지역의 학습자원 발굴 및 학습투어 코스, 탐방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학과 관련된 현안들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지역사회에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역학 수행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한 지역학 연구가 행정단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인접한 동일 문화권 내 지역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역사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재와 미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천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지역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좌와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지역학 연구 성과를 연구 수준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역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역학의 성과를 서로 교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학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천학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이천학연구소의 설립이다. 이천학연구소의 미션은 지속적으로 이천학 관련 자료를

8) 이동준(2013), '평생학습, 이제 '이천학습'으로 나가야 할 때다!', 평생학습세상 32호, 이천시
9) 이희수(2008), '평생학습시대 지역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논리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수집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일, 그리고 평생학습기관과 함께 이천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등이다. 2002년 발간한 '이천시지'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성되었던 인적 자원과 수집되었던 자료는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토문화 연구기관, 이천시지편찬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과 같이 이천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이천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이다. 지역학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10] 아카이브가 잘 만들어져있어야 지역학이 지속가능할 것이며, 그 다음 이를 활용한 다양한 2차적 작업들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천시가 생산해내는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도 보존과 역사의 차원에서 다시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1]

셋째,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천학은 종합적이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일이므로, 이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하려면 조사·연구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고, 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차원의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산업 차원의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천시 차원에서는 문화관광과와 평생학습과 등 관련부서 간, 민간 영역에서는 이천문화원, 평생학습센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지원청, 미술관, 서원 등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체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10) 아카이브는 이천에 관한 모든 발간자료와 문헌, 관련 문서, 정보와 데이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11)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인 서류보존연한에 따라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폐기될 것이기 때문임



부 록

이천문화원 지역문화 관련 발간자료 목록

[부록1] 이천문화원 지역문화 관련 발간자료 목록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1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1집 (향토사유적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2	152	총서	PDF
2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2집 (민속놀이,민속신류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3	127	총서	PDF
3	국난극복의 슬기, 서희	이인수	이천문화원	1984	89	단행본	`
4	이천군지	이천군지 편찬위원회	이천군	1984	965	단행본	`
5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3집 (지명유래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4	190	총서	PDF
6	愛鄕文藝入賞作品集 애향문예입상작품집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5	97	단행본	`
7	내고장문화논단 류달영박사초청강연회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5	13	자료집	`
8	85 향토문화강좌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5	43	자료집	`
9	85 청소년문화강좌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5	22	자료집	`
10	이천군 향토문화자료 총람 제4집 (전설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5	127	총서	PDF
11	향토문화조사보고서1 이천의 민속 거북놀이	하주성	이천문화원	1985	77	학술조사 보고서	`
12	雪峰山城址 學術調査報告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6	73	학술조사 보고서	`
13	향토문화조사보고서2 이천자채농요	이인수	이천문화원	1986	24	학술조사 보고서	`
14	향토문화조사보고서3 설봉산성 학술조사	연세대 선사연구실	이천군, 이천문화원	1986	73	학술조사 보고서	`
15	향토문화조사보고서4 이천의병활동과 3.1운동	이천향토사 연구회	이천문화원	1987	119	학술조사 보고서	PDF
16	향토문화조사보고서5 -향토문화연구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8	127	단행본	PDF
17	利川郡 大月面 郡梁里 碑 이천군 대월면 군량리 비	김병일	이천문화원	1988	70	단행본	`
18	향토문화조사보고서5 향토문화연구	이천향토사 연구회	이천문화원	1988	125	학 술 조 사 보고서	`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19	향토문예교실교재	이천설봉 문학회	이천문화원	1993	37	자료집	`
20	향토문화조사보고서6 -이천도예촌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4	59	단행본	PDF
21	향토문화조사보고서6 이천도예촌	이인수, 김영길	이천문화원	1994	59	학술조사 보고서	`
22	우리고장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이은구, 이인수	이천문화원	1995	33	교육자료	`
23	그리움으로 찾는 고향의 연가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6	261	단행본	PDF
24	利川獨立運動史	신배섭,이인수, 임혜봉	이천문화원	1996	520	단행본	`
25	이천독립운동사	신배섭,이인수, 임혜봉	이천시, 이천문화원	1996	520	단행본	PDF
26	이천애향시모음집 〈고향의 연가〉	성지월 외	이천문화원	1996	260	단행본	`
27	이천시 백사면 문화유적 민 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6	388	학술조사 보고서	`
28	이천의 인맥	이인수	이천문화원	1997	209	단행본	PDF
29	향토사시리즈1 〈이천의 인맥〉	이인수	이천문화원	1997	209	단행본	`
30	利川市邑誌 이천시읍지	홍순석, 허홍범 편저	이천문화원	1997	306	영인본	`
31	이천시 설성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7	544	학술조사 보고서	`
32	이천시 율면 문화유적 민속 조사보고서	강남대 인문 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7	515	학술조사 보고서	`
33	이천관련 인물·사료· 각종 기사	이천시사 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78	시지편찬 자료집	`
34	이천 이치리 절터 -지표조 사보고서	사)고구려 연구회	이천문화원	1998	208	학술조사 보고서	`
35	이천시 마장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8	525	학술조사 보고서	`
36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절터 자료조사 보고서	사)고구려 연구회	고구려연구회, 이천문화원	1998	208	학술조사 보고서	`
37	이천시 부발읍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8.12	529	학술조사 보고서	`
38	전통풍물 강습교재1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9	53	자료집	`
39	이천시 장호원읍 문화유적 고전자료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9	514	학술조사 보고서	`
40	서희 서거 1000주기 학술발표 논문집	사)고구려 연구회	고구려연구회, 이천문화원	1999	239	학술조사 보고서	`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41	이천시 장호원읍 민속조사 보고서	강남대 인문 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1999.4	315	학술조사 보고서	`
42	이천신 신둔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2000.5	592	학술조사 보고서	`
43	이천향토시 이천의 연가	박용순	이천문화원	2001	158	단행본	`
44	이천시 호법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2001.4	496	학술조사 보고서	`
45	이천의 옛노래	홍순석	민속원	2002		단행본	`
46	이천시 대월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2002.11	506	학술조사 보고서	`
47	이천시 모가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2002.3	531	학술조사 보고서	`
48	이천의 민간신앙	홍순석	이천문화원	2003	272	단행본	PDF
49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998~2003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3	153	도록	PDF
50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세시풍속 민속놀이	홍순석	이천문화원	2004	264	단행본	PDF
51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이인수	이천문화원, 서희기념 사업회	2004	172	단행본	PDF
52	제1회 이천거북놀이 심포지움	이천거북놀 이보존회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2004	65	심포지움 자료집	`
53	율면정승달구지 조사보고서	김양원	이천문화원	2004	72	학술조사 보고서	`
54	향토문화조사보고서7 율면정승달구지 조사보고서	김양원	이천문화원	2004	72	학술조사 보고서	`
55	이천사람들의 생활과 의례	홍순석, 정연학	이천문화원	2005	297	단행본	PDF
56	이천거북놀이	김종대,이승수, 임상혁	이천문화원	2006	188	단행본	PDF
57	이천의 문화재	이인수, 홍순석	이천문화원	2006	234	단행본	`
58	제2회 이천거북놀이 심포지움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2006	70	심포지움 자료집	`
59	이천의 옛이야기	이인수, 홍순석	이천문화원	2007	241	단행본	PDF
60	확 뜯어고쳐야 할 이 땅의 이름들	이인수	이천문화원	2008	275	단행본	PDF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61	만화로보는인물이야기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선생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이천시, 서희선생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2008	171	단행본	`
62	이천향교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시민토론회	이천향교 오층석탑되찾기 범시민운동 준비위원회	이천문화원	2008	58	심포지움 자료집	`
63	가칭)망현산오층석탑(이천향교방오층석탑)되찾기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기념 세미나및결성식	이천향교 오층석탑되찾기 범시민운동 준비위원회	이천문화원	2008	51	심포지움 자료집	`
64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이천시서희 선생선양사업 추진위원회	2008	96	심포지움 자료집	`
65	이천의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이인수	이천문화원	2009	272	단행본	PDF
66	이천오층석탑환수를 위한 연구조사보고서	이천오층석탑되찾기시민운동추진위원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2009	94	보고집	`
67	이천의 인물	이인수	이천문화원	2010	271	단행본	PDF
68	安興池와 愛蓮亭	김동옥,신배섭,이인수	이원회	2010	141	단행본	`
69	이천오층석탑환수와새로운 한일관계모색을위한제1차 국제심포지엄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2010	66	심포지움 자료집	`
70	제25회 설봉문화제 기념 제15회 이천사진연구회 회원전	이천사진연구회	이천사진 연구회	2011	47	도록	`
71	제26회 설봉문화제 청미문화제 시각예술 전시회	장호원 미술인회 외	이천문화원	2012	76	도록	`
72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이동준	이천문화원	2012	48	자료집	`
73	이천시 문화발전 5개년 계획(안)	이동준	이천문화원	2013	115	자료집	PDF
74	이천학 골든벨 자료집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4		자료집	
75	이천학 도입과 활성화 과제 토론회 자료집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4		자료집	
76	이천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이동준 외	이천문화원	2014		보고서	
77	인문학으로 이천읽기	이동준 외	이천문화원	2014		간행물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78	利川府邑誌이천부읍지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871(?)		영인본	`
79	조영무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시지편찬자료집	`
80	엄용순/강은/임내신/김효례/김길통/김명원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시지편찬자료집	`
81	김안국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시지편찬자료집	`
82	이괄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283	시지편찬자료집	`
83	권균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363	시지편찬자료집	`
84	음죽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160	시지편찬자료집	`
85	김조순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203	시지편찬자료집	`
86	공민왕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329	시지편찬자료집	`
87	김우/김응건/김주/김흘/나윤명/남태랑/박난영/박명룡/박필상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238	시지편찬자료집	`
88	구선복/최숙정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295	시지편찬자료집	`
89	이사성/이성임/이우/이식/이용진/이정보/이진은/이헌구/이홍망/홍여하/한중희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371	시지편찬자료집	`
90	월산대군(이정)/유공량/유담후/유한신/이관의/이병문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144	시지편찬자료집	`
91	이천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341	시지편찬자료집	`
92	서강/서공/서눌/서목/서선/서유/서필/서희/송정규/송질/신정/어재연/왕건 관련 실록기사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시지편찬자료집	`
93	임강선생문집, 해화당문집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영인본	`
94	고ㄷ · 쇼셜셤동지젼(古代小說蟾同知傳)	이천시사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영인본	`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95	分門瘟疫易解方분문이역온해방/朱子增損呂氏鄕約주자증손여씨향약/正俗遍解정속편해	이천시사 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1998		영인본	`
96	頤學日記拾遺 -이식 저	이천시사 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20세기 초반		영인본	`
97	雪峰書院事實錄설봉서원사실록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세기 후반		영인본	`
98	월천집-김길통저	이천시사 편찬위원회	이천문화원			영인본	`
99	利川郡邑誌이천군읍지		이천문화원			시 지 편 찬 자료집	`
100	隆熙元年12月日利川郡各面各洞被燒戶戶數與死傷者調査成册융희원년12월일이천군각면각동피소호호수여사상자조사성책		이천문화원	1907		영인본	`
101	농촌조사연구 (경기도이천군율면고당리)	류달영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1936	131	영인본	`
102	陰竹縣邑誌음죽현읍지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영인본	.
103	설봉문화 창간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9,9		간행물	.
104	설봉문화 제2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89.12		간행물	.
105	설봉문화 제3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0.5		간행물	.
106	설봉문화 제4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0,12		간행물	.
107	설봉문화 제5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1,6		간행물	.
108	설봉문화 제6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1,12		간행물	.
109	설봉문화 제7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2,6		간행물	.
110	설봉문화 제8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2,12		간행물	.
111	설봉문화 제9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3,6		간행물	.
112	설봉문화 제10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3,12		간행물	.
113	설봉문화 제11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4,6		간행물	.
114	설봉문화 제12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4,12		간행물	.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115	설봉문화 제13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5,6		간행물	.
116	설봉문화 제14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5,12		간행물	.
117	설봉문화 제15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6,6		간행물	.
118	설봉문화 제16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6,12		간행물	.
119	설봉문화 제17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7,6		간행물	.
120	설봉문화 제18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7,12		간행물	.
121	설봉문화 제19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8,6		간행물	.
122	설봉문화 제20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8,12		간행물	.
123	설봉문화 제21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9,6		간행물	.
124	설봉문화 제22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1999,12		간행물	.
125	설봉문화 제23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0,6		간행물	.
126	설봉문화 제24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0,12		간행물	.
127	설봉문화 제25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1,6		간행물	.
128	설봉문화 제26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1,12		간행물	.
129	설봉문화 제27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2,6		간행물	.
130	설봉문화 제28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2,12		간행물	.
131	설봉문화 제29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3,6		간행물	.
132	설봉문화 제30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3,12		간행물	.
133	설봉문화 제31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4,6		간행물	.
134	설봉문화 제32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4,12		간행물	.
135	설봉문화 제33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5,6		간행물	.
136	설봉문화 제34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5,12		간행물	.

연번	자 료 명	저 자	발행처	발행년	쪽수	자료유형	형식
137	설봉문화 제35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6,6		간행물	.
138	설봉문화 제36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6,12		간행물	.
139	설봉문화 제37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7,6		간행물	.
140	설봉문화 제38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7,12		간행물	.
141	설봉문화 제39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8,6		간행물	.
142	설봉문화 제40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8,12		간행물	.
143	설봉문화 제41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9,6		간행물	.
144	설봉문화 제42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09,12		간행물	.
145	설봉문화 제43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0,6		간행물	.
146	설봉문화 제44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0,12		간행물	.
147	설봉문화 제45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1,6		간행물	.
148	설봉문화 제46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1,12		간행물	.
149	설봉문화 제47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2,6		간행물	.
150	설봉문화 제48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2,12		간행물	.
151	설봉문화 제49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3,6		간행물	.
152	설봉문화 제50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3,12		간행물	.
153	설봉문화 제51호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2014,6		간행물	.

[부록2] 이천문화 50년 세부 목차

목 차

제1부 / 이천문화의 형성 과정 / 13

제1장 이천문화의 개념과 범위 14

1. '문화' 개념의 확장 / 15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유산' / 16
3. '지역문화' 의 등장 / 17
4. '이천문화'의 개념 정의 / 19
5. '이천문화'의 기술 범위 / 20

제2장 근현대 이천문화의 형성과 발전 22

1. 이천문화 50년의 의미 / 23
2. 지역 정체성과 지역문화 / 24
3. 이천문화의 변천과정 / 27
   1) 전통농경문화에서 근대 도시형 문화로
   2) 1980년대의 이천문화
   3) 1990년대의 이천문화
4. 2000년대와 그 이후의 이천문화 / 32
   1) 2000년대의 이천문화
   2) 21세기 이천문화의 전망

제2부 / 전통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 37

제1장 이천 유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활동 38

1. 이천의 역사와 문화재 / 39
2. 1960~80년대 : 문화유산 보존, 선양을 위한 저변 환경의 형성 / 40
3. 1990년대~2001 : 지자제의 실시와 문화역량 강화 및 이천시지 편찬 / 44
   1) 지자제의 실시와 문화재 보존활동의 강화, 안흥지 보존운동
   2)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유적 조사와 발굴
   3) 시지 편찬과 문화유산 연구 성과의 집대성
4. 2001 시지편찬 이후~현재까지 : 지속적인 문화운동의 전개 / 57
   1) 시지 편찬 이후의 문화재 활동
   2) 조사 발굴 활동의 지속적 전개
   5. 과제와 전망 / 65

제2장 이천의 민속문화와 무형문화재 68

1. 들어가며 / 69
2. 민간신앙 / 69
   1) 가정신앙
   2) 마을신앙
   3) 무속신앙
3. 민속놀이 / 74
   1) 개인놀이
   2)집단놀이
4. 무형문화재 / 81
   1) 청자장인 유근형
   2) 백자장인 지순탁
   3) 옥새장인 민홍규
5. 나오며 / 82

제3장 스토리텔링으로의 설화의 재창조 84

1. 설화의 가치 / 85
2. 자료 발굴 과정과 결실 / 86

1) 전설
2) 민담
3. 이천의 인물 / 92
4. 우리의 옛이야기,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의 부활을 꿈꾸며 / 95

제4장 향토사 연구활동 및 이천시지 편찬 98

1. 이천지역의 향토사 연구활동 / 99
1) 이천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조사연구활동
2) 이천향토사연구회와 기타 연구활동
3) 향토사연구가들의 활동
2. 이천시지 편찬과정 / 106
1) 이천시지편찬위의 조직 및 구성
2) 이천시지 편찬사업 개요
3) 편찬과정
4) 편찬사업 결과

제5장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으로 보는 이천의 문화시민운동 116

1. 이천오층석탑의 역사적 배경 / 117
2.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의 태동과 환수위원회의 결성 / 119
3. 이천오층석탑 환수 범시민운동 전개 / 120
4. 이천오층석탑 환수 범시민운동의 현실과 향후 과제 / 123
1) 일본과 오오쿠라 재단의 입장
2) 성급한 시민, 과정보다 결과를 독촉하는 사회
3) 시민운동과 조직 운영의 어려움

제6장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문화시민운동 126

1.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의 태동 및 초기활동 / 127
2. 향문회의 활동 전개 / 128
3. 향문회의 활동 성과 / 133
4. 향후 활동 방향 / 134

제7장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136

1. 이천의 무형문화재 / 137
2. 이천의 산성 / 139
3. 이천의 농업유적 / 141
4. 이천의 불교문화자산 / 142
5. 이천의 유교문화유산 / 143
6. 이천의 누정과 고택 / 145
7. 이천의 천연기념물 / 146
8. 이천 문화재의 향후 활용방안 / 147

제3부 / 이천 문화축제의 형성 과정 / 153

제1장 주요 문화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요 154

1. 지역문화축제의 개념 / 155
   1) 지역문화축제의 의의
   2) 지역문화축제의 유형 및 의미
2. 이천시의 주요 문화축제 / 156
   1) 이천시 문화축제의 현황
   2) 이천시 주요 문화축제 소개

제2장 이천도자기축제 162

1. 이천도자기의 역사적 배경 / 163
   1) 이천 도자문화의 전통
   2) 이천도예촌의 형성과 발전
2. 이천도자기축제 / 168
   1) 발생 및 정체기(1987 ~ 1994)
   2) 도약기(1995 ~ 2000)
   3)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이천도자기축제
   4) 2000년대 이후의 도자기축제(2002 ~ 2012)
3. 이천도자기축제의 전망 / 180

제3장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82

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특징 / 183
2. 연도별 개최 현황(1998 ~ 2013) / 185
3. 작품 배치 현황 / 191
4. 국제조각심포지엄의 성과 / 192
5. 향후 발전 방안 / 192

제4장 설봉문화제(雪峰文化祭) 196

1. 이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민하다. / 197
2. 설봉문화제, 지역문화의 산실이 되다.(1987년~1999년) / 198
3. 2000년대의 설봉문화제(2000년~2013년) / 202
4.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 / 206

제5장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새해해맞이행사 208

1. 정월대보름민속축제 / 209
   1)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정월대보름
   2) 이천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3)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시작
   4)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발전
   5)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로의 변모
2. 새해해맞이행사 / 217
   1) 설봉산 해맞이행사
   2) 이천 각 지역의 해맞이행사

제6장 장호원복숭아축제 222

1. 이천장호원복숭아축제 / 223
2. 오랜 역사의 과일 복숭아와 장호원에 대해서 / 224
3. '목화씨'는 문익점, '미백도'는 이차천, 장호원황도는 이종태 / 224
4. 100년을 바라보는 장호원의 복숭아 과수농업의 역사 / 225
5. 장호원복숭아축제의 시작과 발전 / 226
6. 장호원 복숭아의 새로운 이름 '햇사레' / 229

7. 전국의 복숭아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 / 230
8. 장호원황도를 기반으로 오늘의 햇사레 복숭아 그리고 내일은... / 231

제7장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234

1.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탄생 / 235
2. 산수유축제의 내용(제1회~14회) / 237
3. 축제 평가와 발전방안 / 248
   1) 방문객을 위한 주차 및 편의시설(제도) 확보
   2) 산수유 테마형 축제 운영
   3) 축제의 정통성 고취

제8장 이천쌀문화축제 252

1. 한민족과 쌀 문화 / 253
2. 지역문화와 축제 / 253
3. 진상미 고장–이천과 쌀 / 253
4. 이천쌀문화축제의 태동기 / 255
5. 이천쌀문화축제의 도약기 / 256
6. 이천쌀문화축제의 성장기 / 258
7. 이천쌀문화축제의 변천사 / 260
8. 이천쌀문화축제의 전망과 개선점 / 261

제9장 설봉산 별빛축제 264

1. 너른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 / 265
2. 지방자치와 지역축제 / 267
3. 설봉산 별빛축제의 특성과 내용 / 269
4. 설봉산 별빛축제의 전망 / 277

제10장 축제의 종합적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80

1. 지역축제의 기본적 개념 / 281
2. 이천 지역축제 현황 / 283
   1) 이천 축제의 현황

2) 이천 축제의 예산 현황
3. 이천 지역축제의 분석 / 285
4. 축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90
1)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시사점
2) 이천지역 축제의 문제점 및 대안
3) 이천지역 대표 축제의 발전을 위한 제안
5. 결론 / 297

제4부 / 지역문화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전개 / 301

제1장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 302

1.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도입 / 303
1) 예능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변화
2)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이천의 문화예술교육 발전 과정 / 306
1) 해방이후 60-70년대 초기 문화예술교육
2) 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문화예술활동
3)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의 문화예술교육
4)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교육 현황
3.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 311

제2장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변화 314

1. 평생학습도시 선정 / 315
2.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영역 / 315
3.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요구 / 319
1) 2005~2012년 시민 요구조사 결과
2) 2013년 시민 요구조사 결과
4. 문화예술영역의 평생학습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323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의 이해 수준
2) 평생학습 도입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현 주소
3) 이천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4) 향후 과제 –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및 협력모델

제3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332

1. 문화예술교육의 범주 / 333
2.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334
3. 최근의 이천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 335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 /336
5.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대 방안 / 338

제4장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방향 모색 342

1.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혁신 / 343
2. 선진국의 평생학습 사례 / 343
3. 이천의 평생학습 대안 모색 / 345
4. 평생학습축제의 방향 전환 / 347

제5부 / 이천문화의 나아갈 방향 / 349

제1장 이천시민의 생활문화적 관점의 제안 350

1. '생활문화' 개념의 도입 / 351
2. 향토사에서 지역학으로 / 352
3. '지역문화' – 학습의 대상이 되다 / 353
4.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필요성 / 354
5. 창조적 생활문화공간의 조성 / 356

제2장 이천학을 통한 이천문화의 발전 방향 360

1. 지역학 도입의 배경 / 361
2. 지역학의 개념 / 362
3. 지역학습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학 / 363
   1) '지역' – 평생학습의 출발점이자 귀착점
   2) 지역기반의 평생학습

3) ‘지역학습’ 개념의 도입
4. 지역학의 향후 정책 과제 / 366

[부 록]

1. 이천문화원 지역문화 관련 발간자료 목록 370
2. 이천문화 50년 세부 목차 376